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PART.1 일러두기

1	발간 배경 및 목적	10
2	수록 직업 현황	10
3	일자리 전망 구성 항목	10
4	일자리 전망 절차	12
5	관련 직업으로 연계하는 직업 목록(23개)	13
6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표	15
7	일자리 변화 트렌드	22

PART.2 직업별 일자리 전망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27
	1)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28
	2) 정부·공공행정전문가	30
	3) 행정사	32
	4) 경영 및 진단 전문가	35
	5) 노무사	37
	6) 인적자원전문가	40
	7) 회계사	43
	8) 세무사	46
	9) 관세사	49
	10) 감정평가사	52
	11) 광고 및 홍보 전문가	55
	12) 조사전문가	57
	13) 상품 기획 전문가	59

14)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	61
15) 조세 행정 사무원	64
16) 관세 행정 사무원	66
17) 병무 행정 사무원	68
18)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70
19) 경영 기획 사무원	72
20)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74
21)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76
22) 인사·교육·훈련사무원	78
23) 총무 사무원	80
24) 감사 사무원	82
25) 회계 사무원	84
26) 경리 사무원	87
27) 무역 사무원	89
28)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91
29)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93
30)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	95
31)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97
32) 안내·접수원	99
33)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	101
34) 고객상담원	104
35) 의료코디네이터	106
36)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	108
37) 비서	110
38)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112
39) 속기사	114
40) 출판·자료편집사무원	116
41) 투자분석가	118
42) 신용분석사	120
43)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123
44) 보험계리사	125
45) 금융상품개발원	127
46) 증권 및 외환 딜러	129
47) 손해사정사	131
48)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	133
49)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135
50)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139
5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142
52) 출납 창구 사무원	145
53)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	148
54)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151
55)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156

2 보건·의료직(27개)	161
1) 전문의사	162
2) 일반 의사	165
3) 한의사	168
4) 치과 의사	170
5) 수의사	173
6) 약사	175
7) 한약사	178
8) 간호사	181
9) 영양사	184
10) 임상병리사	186
11) 방사선사	188
12) 치과기공사	190
13) 치과위생사	192
14) 물리치료사	194
15) 작업치료사	196
16)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198
17)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	200
18) 언어치료사	202
19) 청능치료사	204
20) 놀이치료사	206
21) 예술치료사	208
22) 응급 구조사	210
23) 안경사	212
24)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214
25) 간호조무사	216
26)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	218
27) 안마사	220

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8개)	223
1) 소설가	224
2) 영상시나리오작가	226
3) 방송작가	228
4) 번역가	230
5) 통역가	233
6) 출판물기획자	236
7) 신문기자	239
8) 방송기자	243
9) 잡지기자	246
10) 학예사(큐레이터)	249

11)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	252
12) 사서	255
13)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259
14) 화가 및 조각가	262
15) 사진기자 및 사진사	267
16)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	270
17) 국악인	274
18) 지휘자	277
19) 작곡가	280
20) 연주가	283
21) 가수	286
22) 성악가	289
23) 무용가	293
24) 안무가	296
25) 대중무용수(백댄서)	299
26) 제품 디자이너	302
27) 의상디자이너	304
28)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	307
29) 실내장식 디자이너	310
30) 시각 디자이너	314
31) 웹디자이너	316
32) 게임그래픽디자이너	318
33) 영상그래픽디자이너	320
34) UI/UX디자이너	323
35) 방송연출가	326
36) 영화감독	329
37) 연극연출가	332
38) 광고영상감독	334
39)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336
40) 영화배우 및 텔런트	338
41) 모델	340
42) 연극 및 뮤지컬배우	342
43) 개그맨 및 코미디언	345
44) 성우	347
45) 아나운서	349
46) 리포터	352
47) 촬영기사	354
48) 음향 및 녹음 기사	356
49)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359
50) 조명기사	362
51)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	364
52)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367

53) 연예인매니저	369
54) 스포츠 감독 및 코치	371
55) 직업 운동선수	374
56) 프로그래머	377
57)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380
58) 레크리에이션전문가	383

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42개) 387

1) 이용사	388
2) 미용사	391
3)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	394
4)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	397
5)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	400
6) 분장사	403
7)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406
8) 혼례 종사원	409
9)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412
10) 반려동물미용사	416
11) 여행상품 개발자	419
12) 여행 사무원	422
13) 관광 서비스 종사원	427
14) 항공기 객실 승무원	432
15)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437
16)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442
17)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447
18)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451
19) 한식 조리사	454
20) 중식 조리사	458
21) 양식 조리사	462
22) 일식 조리사	466
23) 바텐더(조주사)	470
24)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	474
25) 단체급식 조리사	478
26) 패스트푸드 준비원	482
27) 홀서빙원	486
28)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	490
29) 경호원	494
30) 청원경찰	499
31) 시설 및 특수 경비원	503
32) 경비원(건물관리원)	507
33)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510

34)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	515
35) 청소원 -----	519
36)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522
37) 세정원 및 방역원 -----	525
38) 세탁원 및 다림질원 -----	529
39) 가사관리사 -----	532
40)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 -----	535
41)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	538
42) 검표원 -----	541

PART
1

일러두기

-
- 1 발간 배경 및 목적
 - 2 수록 직업 현황
 - 3 일자리 전망 구성 항목
 - 4 일자리 전망 절차
 - 5 관련 직업으로 연계하는 직업 목록(23개)
 - 6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표
 - 7 일자리 변화 트렌드
-

1 발간 배경 및 목적

기술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화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으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요구되는 역량은 물론 취업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청소년은 진로·직업 선택에, 청년 및 근로자는 취업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에서 진로지도와 직업상담을 담당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직업상담사 등도 급변하는 직업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진로·직업 선택과 취업·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해왔고, 2023년에는 총 477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수록한 『2021~2023 한국직업전망 : 일자리 전망 통합본』을 발간한 바 있다.

금년도는 2025~2027년 3개년 중 1차년도 사업으로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개발하였다.

본 정보서는 [임금직업포털 Workpedial(www.wagework.go.kr)]과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2 수록 직업 현황

본 정보서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4개 대분류에 속한 우리나라 대표직업 205개가 수록되었다.

-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78개 직업(‘관리자’ 직종에 해당하는 23개 직업은 관련 직업으로 연계)
- 보건·의료직 : 27개 직업
-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58개 직업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42개 직업

3 일자리 전망 구성 항목

직업명

직업명은 [임금직업포털 Workpedial(www.wagework.go.kr)]에서 제공하는 직업명과 일치한다. 일부 직업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실제 불리는 명칭을 대표 직업명과 병기하였다.

일자리 전망

‘일자리 전망’은 해당 직업의 향후 10년간(2025~2035년)의 일자리 증감과 그 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직업별 일자리 증감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가(2% 초과), 다소 증가(1% 이상 ~ 2% 이하), 현 수준 유지(-1% 초과 ~ 1% 미만), 다소 감소(-2% 이상 ~ -1% 이하), 감소(-2% 미만)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다만, 5단계별 증감률은 엄격한 정량적 분석에 기반한 결과가 아니라 직업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며,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것임을 밝힌다.

원칙적으로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감 방향(5단계 구간)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3~203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세분류 직업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2023~203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제시한 추정값(연평균 증가율)이 최근의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추정값이 없는 경우는 연구진의 정성적 분석에 기반하여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감 방향을 결정하였다.

일자리 전망에 대한 설명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국내외 경기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환경과 에너지·자원, 법·제도 및 정부 정책 등 8개 주요 요인(drives)을 중심으로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전체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일자리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일자리 전망 요인	세부 내용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생,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개인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 세대별 특성(디지털 세대, 액티브 시니어 등), 건강·미용에 대한 중시 등
과학기술의 발전	• 인공지능(생성형 AI), 협동로봇 등 기술 혁신 및 융복합화,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
국내외 경기 변화	• 세계 및 국내 경기 전망, 수출·수입 등 무역 전망, 자국우선주의 등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공장 해외이전 또는 국내복귀, 인력 아웃소싱, 기업활동의 스마트화 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노동·자본·기술집약적 산업,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미래차(전기차, 수소차 등) 전환 등
환경과 에너지·자원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국가 간 자원 경쟁 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규제완화, 대학정원 등 교육정책, 인재양성, 자격제도 신설 등

4 일자리 전망 절차

일자리 전망 절차

사전 준비	1단계	'25년도 직업 목록 선정	• 3개년도 사업계획 수립
	2단계	본 사업 대상 직업별 일자리 증감 예측치 연계표 작성	• 「2023~203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4년 한국 직업정보 재직자조사」
	3단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자리 전망 가능성 탐색 및 적정 프롬프트 개발	• Gemini, Perplexity, ChatGPT 등 활용 생성 결과물의 비교 분석 • 일자리 전망 원고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 개발
▼			
일자리 전망 작성	4단계	직업별 일자리 전망 원고 초안 작성	• 직업별 일자리 전망 방향 결정(5단계 전망)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예측치를 우선하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치가 없는 직업의 경우, 「2024년 재직자조사」의 일자리 전망 등을 참조하고 연구를 통해 담당 연구자가 1차 판단
▼			
검증 및 수정	5단계	원고 품질관리를 위한 보완	• 각 공동연구자가 제출한 원고에 대해 PM이 검토 후 보완 요청 및 수정
	6단계	1차 검증	• 1차 원고 검토를 위한 연구진 워크숍
	7단계	2차 검증	• 직업 분야별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능 단체, 협회, 전문가(교수, 현직자 등) 등 외부전문가에게 일자리 전망 원고의 적절성 검토 의뢰
	8단계	최종 원고 수정 및 확정	• 2차 검증(외부전문가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일자리 전망 원고 수정
▼			
활용	9단계	직업세계 변화 트렌드 도출	• 파이썬을 활용하여 분야별×증감/감소 요인별로 키워드 분석

5 관련 직업으로 연계하는 직업 목록(23개)

금년도 205개 직업 중 ‘관리자’ 직종에 해당하는 23개 직업은 별도로 일자리 전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직업들로 연계하였다.

관련 직업으로 연계한 직업 목록(23개)

직업명	관련 직업	
행정부고위공무원	• 정부·공공행정전문가	•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정부 행정 관리자	• 정부·공공행정전문가	•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경영 지원 관리자	• 경영 기획 사무원 • 인사·교육·훈련사무원 • 감사 사무원	•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 총무 사무원 • 경리 사무원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금융관리자	• 투자분석가 •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 증권 및 외환 딜러 •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 신용분석사 • 금융상품개발원 •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 출납 창구 사무원
보험관리자	• 보험계리사 •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
연구관리자	• 인문과학연구원 • 자연과학연구원	• 사회과학연구원 • 생명과학연구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 중·고등학교교사	• 초등학교교사
대학교 총장 및 대학학장	• 대학교수	• 대학강사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 경찰관 • 소방관	• 해양경찰관 • 교도관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 전문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일반 의사 • 치과 의사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사회복지사 • 사회단체활동가 • 생활지도원	• 청소년지도사 • 보육교사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 출판물기획자 • 방송기자 •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 • 제품 디자이너 • 영상그래픽디자이너 •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 신문기자 • 학예사(큐레이터) • 사서 • 시각 디자이너 • 방송연출가 • 연예인매니저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 통신기술개발자	• 통신기기·장비기술자 • 통신망운영기술자

직업명	관련 직업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프로그래머) - 가상현실전문가 - 모바일앱개발자 - 웹기획자 - 정보보안전문가 - 데이터분석가(빅데이터분석가) - 네트워크관리자(클라우드컴퓨터운영관리자)	- 정보통신컨설턴트 및 감리원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 게임프로그래머 - 웹 개발자(웹프로그래머) -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네트워크엔지니어) - 데이터시스템전문가 - 정보시스템운영자
여행·숙박(호텔) 관리자	- 여행상품 개발자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여행 사무원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 중식 조리사 - 일식 조리사	- 한식 조리사 - 양식 조리사 - 패스트푸드 준비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대기환경기술자 - 폐기물처리기술자 -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 - 청소원 - 시설 및 특수 경비원	- 수질환경기술자 - 환경영향평가원 - 토양환경기술자 및 연구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경비원(건물관리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기술영업원 -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 제품광고영업원 - 소규모판매점장 - 온라인쇼핑판매원	- 해외영업원 - 자동차영업원(자동차딜러) - 텔레마케터 - 상점판매원
운송 관련 관리자	- 항공기조종사 - 철도 및 전동차기관사 - 버스운전원	-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 택시운전원 - 화물차 및 특수차운전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 건축가(건축설계사) - 건축설비기술자 - 건축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 토목감리기술자 - 조경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자 - 건축감리기술자 - 토목구조설계기술자 -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 도시계획·설계가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 발전설비기술자 - 가스·에너지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전기 및 전자설비조작원	- 송·배전설비기술자 - 발전 및 배전장치조작원 -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 플랜트기계공학기술자 - 자동차공학기술자 - 로봇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전기기기·제품개발기술자 및 연구원 - 전자제품 및 부품개발기술자 -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비누 및 화장품화학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섬유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건설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항공공학기술자 - 조선·해양공학기술자 -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반도체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석유화학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도료 및 농약화학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의약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6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표

금년도(2025년) 182개 직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감소’ 0개(0%), ‘다소 감소’ 12개(6.6%), ‘현 수준 유지’ 114개(62.6%), ‘다소 증가’ 47개(25.8%), ‘증가’ 9개(4.9%)로 나타났다.

이전(2021~2023) 버전과 금년도(2025) 버전의 일자리 증감 결과 비교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행정부고위공무원		행정부고위공무원	
기업고위임원	현 수준 유지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현 수준 유지
정부행정관리자		정부 행정 관리자	
경영지원관리자		경영 지원 관리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금융관리자		금융관리자	
보험관리자		보험관리자	
연구관리자		연구관리자	
유치원원장 및 원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초등학교교장 및 교감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고등학교교장 및 교감			
대학교총장 및 대학학장		대학교 총장 및 대학학장	
경찰·소방·교도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보건·의료 관리자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 관리자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리자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여행·숙박(호텔)관리자		여행·숙박(호텔)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환경·청소·경비 관련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영업및판매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관리자		운송 관련 관리자	
건설·채굴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정부·공공행정전문가	현 수준 유지	정부·공공행정전문가	현 수준 유지
경영·진단전문가	다소 증가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다소 증가
노무사	다소 증가	노무사	다소 증가
인적자원전문가	다소 증가	인적자원전문가	다소 증가
회계사	다소 증가	회계사	다소 증가
세무사	다소 증가	세무사	다소 증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관세사	현 수준 유지	관세사	현 수준 유지
감정평가사	현 수준 유지	감정평가사	현 수준 유지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다소 증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다소 증가
조사전문가	현 수준 유지	조사전문가	현 수준 유지
상품기획자	다소 증가	상품 기획 전문가	다소 증가
행사기획자	현 수준 유지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	현 수준 유지
조세행정사무원	현 수준 유지	조세 행정 사무원	현 수준 유지
관세행정사무원	현 수준 유지	관세 행정 사무원	현 수준 유지
병무행정사무원	현 수준 유지	병무 행정 사무원	현 수준 유지
일반행정공무원	현 수준 유지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현 수준 유지
법원공무원	현 수준 유지		
경영기획사무원	현 수준 유지	경영 기획 사무원	현 수준 유지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현 수준 유지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현 수준 유지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현 수준 유지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현 수준 유지
인사·교육·훈련사무원	현 수준 유지	인사·교육·훈련사무원	현 수준 유지
총무사무원	현 수준 유지	총무 사무원	현 수준 유지
감사사무원	현 수준 유지	감사 사무원	현 수준 유지
회계사무원	현 수준 유지	회계 사무원	현 수준 유지
경리사무원	현 수준 유지	경리 사무원	현 수준 유지
무역사무원	현 수준 유지	무역 사무원	현 수준 유지
도로운송사무원(배차사무포함)	현 수준 유지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현 수준 유지
철도·지하철운송사무원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항공운송사무원	현 수준 유지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현 수준 유지
수상운송사무원(해상운송)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자재·구매사무원	현 수준 유지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	현 수준 유지
물류사무원(물류관리사)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생산관리사무원	현 수준 유지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현 수준 유지
품질관리사무원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안내및접수사무원	현 수준 유지	안내·접수원	다소 감소
고객상담원	현 수준 유지	고객상담원	현 수준 유지
의료코디네이터	현 수준 유지	의료코디네이터	현 수준 유지
통계사무원	현 수준 유지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	현 수준 유지
비서	현 수준 유지	비서	다소 감소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감소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다소 감소
출판·자료편집사무원	현 수준 유지	출판·자료편집사무원	현 수준 유지
속기사	현 수준 유지	속기사	현 수준 유지
행정사·문서대행자	현 수준 유지	행정사	현 수준 유지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	다소 증가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	현 수준 유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투자분석가	현 수준 유지	투자분석가	현 수준 유지
신용분석가	현 수준 유지	신용분석사	현 수준 유지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현 수준 유지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다소 증가
보험계리사	현 수준 유지	보험계리사	다소 증가
금융상품개발원	현 수준 유지	금융상품개발원	현 수준 유지
증권·외환딜러(증권 중개인)	다소 감소	증권 및 외환 딜러	현 수준 유지
손해사정사	다소 증가	손해사정사	현 수준 유지
은행사무원(출납창구제외)	다소 감소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현 수준 유지
증권사무원(출납창구제외)	다소 감소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현 수준 유지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	다소 감소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	현 수준 유지
보험보상사무원	다소 감소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현 수준 유지
출납창구사무원	다소 감소	출납 창구 사무원	다소 감소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	현 수준 유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	현 수준 유지
보험대리인및중개인	현 수준 유지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현 수준 유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현 수준 유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현 수준 유지
내과 의사	증가		
외과 의사	증가		
성형외과 의사	증가		
산부인과 의사	다소 증가		
이비인후과 의사	증가		
안과 의사	증가		
정신과 의사	증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다소 증가		
방사선과 의사	현 수준 유지		
마취병리과 의사	다소 증가		
비뇨기과 의사	증가		
피부과 의사	증가		
가정의학과 의사	증가		
		전문의사	다소 증가
일반 의사	다소 감소	일반 의사	다소 증가
한 의사	증가	한 의사	다소 증가
치과 의사	증가	치과 의사	다소 증가
수 의사	증가	수 의사	증가
약사	다소 증가	약사	현 수준 유지
한약사	다소 증가	한약사	현 수준 유지
간호사	증가	간호사	증가
보건교사	현 수준 유지		
영양사	다소 증가	영양사	현 수준 유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임상병리사	다소 증가	임상병리사	다소 증가
방사선사	다소 증가	방사선사	다소 증가
치과기공사	다소 증가	치과기공사	현 수준 유지
치과위생사	다소 증가	치과위생사	다소 증가
물리치료사	증가	물리치료사	증가
작업치료사	증가	작업치료사	증가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다소 증가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다소 증가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	다소 증가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	다소 증가
언어치료사	다소 증가	언어치료사	다소 증가
청능사	다소 증가	청능치료사	다소 증가
놀이치료사	다소 증가	놀이치료사	다소 증가
예술치료사	다소 증가	예술치료사	다소 증가
응급구조사	다소 증가	응급 구조사	다소 증가
안경사	다소 증가	안경사	다소 증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다소 증가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다소 증가
간호조무사	증가	간호조무사	다소 증가
안마사	현 수준 유지	안마사	현 수준 유지
소설가	현 수준 유지	소설가	현 수준 유지
영화시나리오작가	현 수준 유지	영상시나리오작가	현 수준 유지
방송작가	다소 감소	방송작가	현 수준 유지
번역가	현 수준 유지	번역가	다소 감소
통역가	현 수준 유지	통역가	다소 감소
출판물기획자	현 수준 유지	출판물기획자	현 수준 유지
신문기자	다소 증가	신문기자	현 수준 유지
방송기자	다소 증가	방송기자	현 수준 유지
잡지기자	다소 감소	잡지기자	현 수준 유지
학예사(큐레이터)	다소 증가	학예사(큐레이터)	다소 증가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	현 수준 유지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	다소 증가
사서	현 수준 유지	사서	현 수준 유지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현 수준 유지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현 수준 유지
화가	다소 증가	화가 및 조각가	현 수준 유지
조각가	다소 증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다소 감소	사진기자 및 사진사	다소 감소
만화가	다소 증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	다소 증가
만화영화작가(애니메이터)	다소 증가		
국악인	현 수준 유지	국악인	현 수준 유지
지휘자	다소 증가	지휘자	현 수준 유지
작곡가	다소 증가	작곡가	현 수준 유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연주가	다소 증가	연주가	현 수준 유지
가수	현 수준 유지	가수	다소 증가
성악가	현 수준 유지	성악가	현 수준 유지
무용가	현 수준 유지	무용가	현 수준 유지
안무가	다소 증가	안무가	다소 증가
대중무용수(백댄서)	현 수준 유지	대중무용수(백댄서)	다소 증가
제품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제품 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의상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의상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	현 수준 유지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	현 수준 유지
실내장식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실내장식 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시각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시각 디자이너	현 수준 유지
웹디자이너	다소 증가	웹디자이너	다소 증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	다소 증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	다소 증가
영상그래픽디자이너	다소 증가	영상그래픽디자이너	다소 증가
UX/UI디자이너	다소 증가	UI/UX디자이너	다소 증가
방송연출가	다소 증가	방송연출가	현 수준 유지
영화감독	다소 증가	영화감독	현 수준 유지
연극연출가	다소 증가	연극연출가	현 수준 유지
광고영상감독	다소 증가	광고영상감독	현 수준 유지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다소 증가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현 수준 유지
영화배우 및 탤런트	다소 증가	영화배우 및 탤런트	현 수준 유지
모델	다소 증가	모델	현 수준 유지
연극 및 뮤지컬배우	다소 증가	연극 및 뮤지컬배우	현 수준 유지
개그맨 및 코미디언	다소 증가	개그맨 및 코미디언	현 수준 유지
성우	다소 증가	성우	현 수준 유지
아나운서	현 수준 유지	아나운서	현 수준 유지
리포터	현 수준 유지	리포터	현 수준 유지
촬영기사	다소 증가	촬영기사	다소 증가
음향·녹음기사	다소 증가	음향 및 녹음 기사	다소 증가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다소 증가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증가
조명기사	다소 증가	조명기사	다소 증가
공연·영화 및 음반기획자	다소 증가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다소 증가
웹방송전문가(1인미디어콘텐츠제작자)	증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	증가
연예인매니저	다소 증가	연예인매니저	다소 증가
스포츠감독 및 코치	현 수준 유지	스포츠 감독 및 코치	현 수준 유지
직업운동선수	현 수준 유지	직업 운동선수	현 수준 유지
프로게이머	다소 증가	프로게이머	다소 증가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현 수준 유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스포츠강사	다소 증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다소 증가
스포츠트레이너	다소 증가		
레크리에이션전문가	다소 증가	레크리에이션전문가	다소 증가
이용사	현 수준 유지	이용사	현 수준 유지
미용사	다소 증가	미용사	현 수준 유지
피부및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	다소 증가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	현 수준 유지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	다소 증가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	현 수준 유지
메이크업아티스트및뷰티매니저	다소 감소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	현 수준 유지
분장사	다소 증가	분장사	현 수준 유지
반려동물미용사	증가	반려동물미용사	증가
수의사보조원(수의간호,수의테크니션)	증가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	증가
웨딩플래너	다소 감소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다소 감소
혼례종사원	다소 감소	혼례 종사원	다소 감소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현 수준 유지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다소 증가
여행상품개발자	현 수준 유지	여행상품 개발자	현 수준 유지
여행사무원	현 수준 유지	여행 사무원	현 수준 유지
여행안내원	현 수준 유지		
		관광 서비스 종사원	현 수준 유지
자연 및 문화해설사	현 수준 유지		
항공기객실승무원	다소 증가	항공기 객실 승무원	현 수준 유지
선박객실승무원	다소 감소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현 수준 유지
열차객실승무원	현 수준 유지		
숙박시설서비스원	현 수준 유지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현 수준 유지
오락시설서비스원	현 수준 유지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현 수준 유지
주방장	현 수준 유지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현 수준 유지
한식조리사(일반음식점)	현 수준 유지	한식 조리사	현 수준 유지
중식조리사	현 수준 유지	중식 조리사	현 수준 유지
양식조리사	현 수준 유지	양식 조리사	현 수준 유지
일식조리사	현 수준 유지	일식 조리사	현 수준 유지
바텐더(조주사)	다소 감소	바텐더(조주사)	현 수준 유지
음료조리사(바리스타포함)	현 수준 유지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	현 수준 유지
		단체급식 조리사	현 수준 유지
패스트푸드준비원	현 수준 유지	패스트푸드 준비원	현 수준 유지
홀서빙원	다소 감소	홀서빙원	현 수준 유지
주방보조원(일반음식점)	현 수준 유지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	현 수준 유지
음식배달원	증가		
경호원	다소 증가	경호원	현 수준 유지
청원경찰	현 수준 유지	청원경찰	현 수준 유지

2021~2023년 버전		2025년 버전	
시설·특수경비원	다소 증가	시설 및 특수 경비원	현 수준 유지
경비원(건물관리원)	현 수준 유지	경비원(건물관리원)	현 수준 유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증가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증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현 수준 유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다소 감소
청소원	현 수준 유지	청소원	다소 증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현 수준 유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다소 증가
방역원(해충퇴치원 포함)	다소 증가	세정원 및 방역원	현 수준 유지
세탁원(다림질원)	다소 감소	세탁원 및 다림질원	현 수준 유지
가사도우미	현 수준 유지	가사 관리사	다소 감소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	다소 감소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현 수준 유지
주차관리·안내원	현 수준 유지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현 수준 유지
검표원	다소 감소	검표원	다소 감소

7 일자리 변화 트렌드

일자리 증가 주요 트렌드

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생활지원 수요의 구조적 확대

- 평균 수명 연장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적 의료 수요 증가
- 노년층의 자택 기반 케어·방문형 의료·재활 서비스 강화
- 돌봄 서비스가 신체 지원 중심 → 정서·고립감 해소 영역까지 확장
- 요양·케어 산업이 민간·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변화
- 1인 가구 증가로 생활 안전·응급 대응 서비스 수요 확대

대표 직업 예시 전문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②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재활·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 건강관리 소비가 치료 목적에서 삶의 질 개선 영역으로 확장
- 우울·불안·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상승
- 장애·사고·노쇠 증가로 재활·작업능력 회복 산업 강화
- 디지털 모니터링·헬스데이터 융합 서비스 성장

대표 직업 예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정신건강 관련 의료 직무

③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영·행정·금융·데이터 기반 직무 확대

- 기업 운영 의사결정이 경험 중심 → 데이터 기반으로 이동
- ERP·CRM·HRM·성과관리 시스템 확산으로 사무직의 역할이 분석·기획 중심으로 재편
- 금융 산업은 대면 창구 중심 → 모바일·비대면 자산관리로 이동
- 디지털 전환이 조직변화·프로세스 혁신 직무 수요를 동반
- 고객 데이터 기반 개인화·마케팅 자동화 기능 강화

대표 직업 예시 데이터 분석 관련 사무직, 디지털금융 및 자산관리 사무직, 경영기획·마케팅기획 사무원 등

④ 문화·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컬처의 글로벌 확장

- 여가 소비가 물리적 활동에서 경험·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변화
- 창작 산업이 전문가 중심에서 개인·크리에이터 참여형 생태계로 확장
- K-콘텐츠가 해외 스트리밍·SNS 확산 기반으로 지속 성장
- 공연·예술·디자인이 관광·브랜딩 산업과 결합

- 스포츠·레저 활동이 건강·체력·정서 관리 기능과 결합

대표 직업 예시

만화가·웹툰작가, 공연·영화·음반 기획자, 영상그래픽디자이너, 스포츠지도·레저콘텐츠 관련 직종

⑤ 외국인 증가·관광 활성화, 다국적 소비자 기반 확대

- 외국인 거주·취업·유학생 증가로 다언어 서비스 수요 확대
- K-푸드·K-컬처 소비가 관광과 결합한 체류형 소비로 확장
- 숙박·여행·음식 서비스가 프리미엄화·전문화
- 지역관광이 로컬 경험·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재정의

대표 직업 예시

여행상품 개발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외식 셰프 등

⑥ ESG·친환경·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

- 기업의 공시·평가·감독체계 강화
- 친환경 조달·탄소감축 보고 등 실행 기반 직무 증가
- 지속가능 경영이 금융·투자·평가 기준과 결합

대표 직업 예시

ESG 관련 사무직, 리스크관리 및 규제 대응 사무직

일자리 감소 주요 트렌드

① AI·자동화에 의한 반복·규칙 기반 업무의 대체 가속

- 문서 작성·요약·정리·전표·입력 등 규칙 기반 과업 자동화
- 고객 응대가 콜센터 → 챗봇·AI 상담으로 이동
- 디자인·영상·음악 등에서 초안·패턴·샘플 생성 자동화
- 학습곡선이 낮은 직무일수록 대체 속도 빨라짐

대표 직업 예시

출납창구 사무원, 증권 사무원, 은행 사무원,
단순 사무원(회계·경리 입력 중심 직무, 단순 그래픽·편집 보조 직무 등)

②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디자인 직무의 저부가가치 영역 축소

- 이미지·배경·패턴·터빙·음성 재현 자동화
- 작품 제작보다 기획·연출·콘셉트 개발 역량 중요성 증가
- 생성형 AI의 활용성 증가로 “숙련이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고용구조 약화 가능성 증가

대표 직업 예시

단순 디자인·편집 보조 직무

③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로 아동·청소년 기반 직무 수요 축소

- 보육·초중고·아동 대상 프로그램 축소
- 교육 서비스가 성인·전환교육·직업훈련 중심으로 이동

대표 직업 예시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교사 등

④ 비대면·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接客 인력 축소

- 키오스크·모바일 주문·무인화 시스템 확산
- 매장 방문이 체험형 소비가 아닌 경우 감소
- 단순 응대·안내·접수 역할 수요 하락
- 일부 서비스업이 플랫폼·예약·구독형 모델로 전환

대표 직업 예시

단순 매장 판매원, 현장 안내·접수 인력 등

⑤ 경기둔화·비용절감·영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축소

- 가계 소비 위축이 외식·소매·서비스업 인력 수요 감소로 연결
- 금리·물가 영향으로 투자·영업·판매직 조정

-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서 외주·계약직·성과형 모델로 전환
- 리테일·오프라인 기반 산업이 구조적으로 축소

대표 직업 예시

금융·보험 창구 사무원, 판매·유통 관련 종사자, 외식 및 소비 민감 업종 종사자 등

PART
2

직업별 일자리 전망

.....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2 보건·의료직(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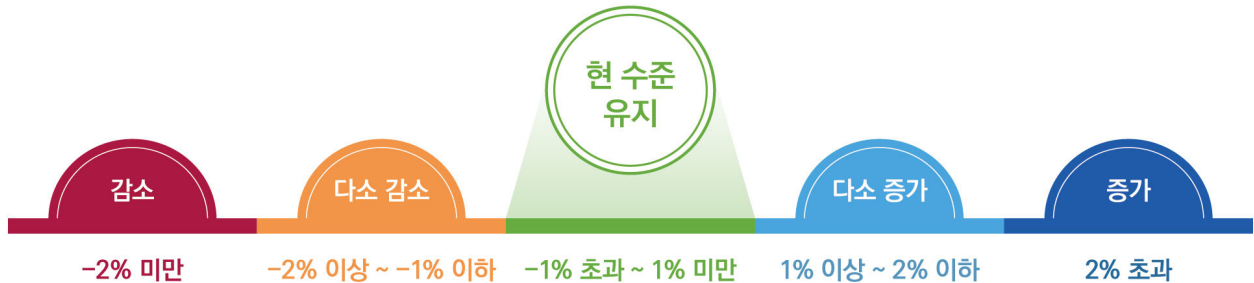
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8개)

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42개)

.....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은 기업의 경영 방침, 사업 계획, 조직 운영 등 전사적인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 주로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기업의 성패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직위를 의미하며,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CTO, CDO 등과는 구분된다. 향후 10년간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일자리는 그 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기업의 수’가 완만하게나마 증가함에 따라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023년 기준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의 수가 약 9,000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일자리는 이들 기업의 성장 및 소멸과 그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망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사라지는 기업 수와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거시 경제의 한계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아래 표와 같이, 과거 7년간(2017~2023)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수는 연평균 약 3.2%씩 꾸준히 성장하며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일자리의 기반을 확대해왔다.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민간의 투자 역시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견기업 이상 기업 수 변화 추이 (2017~2023년)

연도	대기업 계열사 수	중견기업 수	합계
2017년	2,886개	4,468개	7,354개
2023년	3,318개	5,576개	8,894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 자료 재구성

그러나 향후 10년의 전망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과거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미래에는 과거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전망

기관	2021~2030 전망	2031~2040 전망
한국은행(BOK)	연평균 2.0%	연평균 0.9%
한국개발연구원(KDI)	연평균 2.0%	연평균 1.1%

경기 불확실성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소멸 및 축소이다. M&A 과정에서 인수 기업과 사업 영역이 중복될 경우 인원 자리가 통폐합되기도 하지만, 모든 M&A가 인원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인 감소 요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사업부를 매각하며 발생하는 구조조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소멸하며 인원 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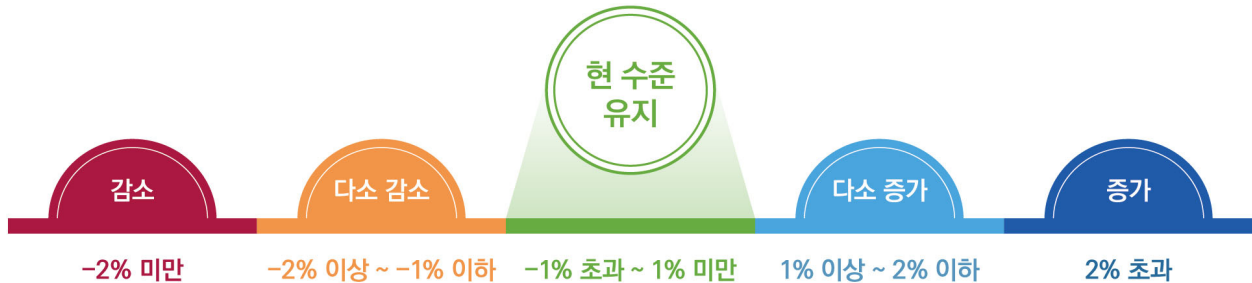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과거 가족 중심의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던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공백을 메우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경영인을 CEO나 CFO로 영입하는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원 수요를 창출하여,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잠재성장률 둔화
국내외 경기 변화		•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난으로 인한 기업 소멸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중견기업 진입	

2021년 작성, 2025년 수정

정부·공공행정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증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정부 및 공공행정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0%로 예측된다.

정부·공공행정전문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가의 증장기 정책 및 제도를 수립·분석·평가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주로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임급 이상 직원으로서,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일반 행정사무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은 인구 감소와 정부 효율화 기조로 인해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제한되겠으나, 업무의 성격이 전문직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단순 행정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같은 난이도 높은 정책을 설계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따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분야 전문가의 채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공공행정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효율화 기조 및 인구구조 변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는 공공 부문 인력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공공 부문의 장기적인 규모 확대를 원천적으로 제약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공공기관의 인력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규 채용의 축소를 넘어, 실무 인력(사무원) 비중을 줄이고 절감된 자원을 정책 기획·분석 전문가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전문가의 역할 변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은 전문가에게 위협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단순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정책 전문가들이 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에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난도 정책 수요 증대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급격한 고령화는 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국가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정책 과제를 양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실무 집행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정책 설계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 및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공공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합적 사회문제 증가와 신규 정책 분야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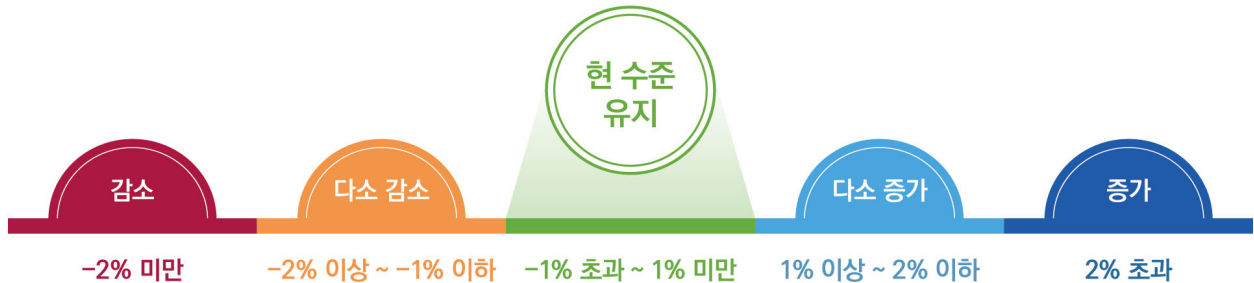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신종 감염병 관리, 산업 재해 예방, 사이버 안보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행정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정책 분야는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 채용 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경직된 인력구조 속에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 심화로 고난도 복지정책 전문가 수요 증대	• 인구 감소에 따른 공공 부문 장기적 축소 압력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등 새로운 전문가 역할 대두, 사이버안보 등 신규 정책 분야 전문가 수요 발생	
환경과 에너지·자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문가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신규 정책 수요 증대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행정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행정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대리,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인허가 절차 및 권리 구제 과정의 복잡성은 전문 행정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I와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확산은 단순 서류 대행 중심의 업무 가치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타 전문직과의 업무 영역 경쟁과 지속적인 신규 인력 유입은 시장 내 경쟁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사의 일자리 전망은 양적 증감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역량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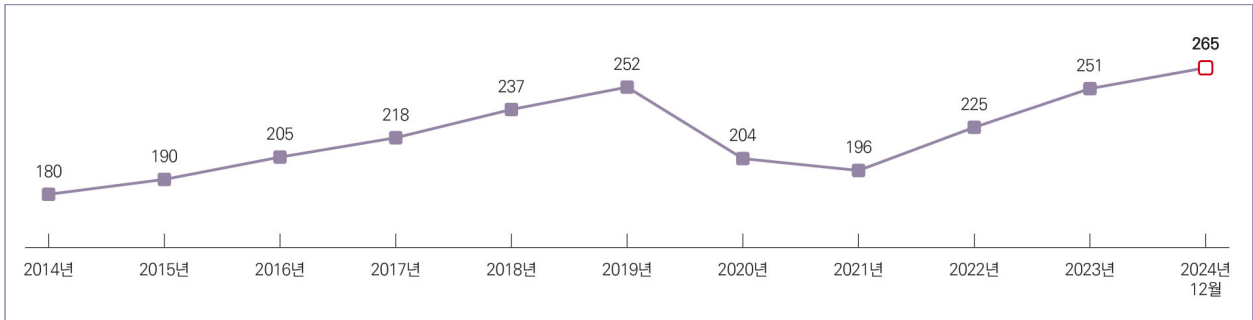
행정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대리 수요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행정사 시장의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자 발급 및 연장, 영주권·국적 취득,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등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사를 찾는 외국인 및 관련 기업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여,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중심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12월

온라인 행정 서비스 확대와 기술 발전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고도화와 AI 기술 발전은 행정사의 전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과거 행정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각종 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져 수요가 급감했다. 또한 AI 번역 기술의 발전은 단순 번역 업무를 감소시키고, 대사관 인증 업무의 전자화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정부가 AI를 활용한 민원 상담 및 답변 초안 작성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역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줄여 전체 일자리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의 복잡화와 전문적 권리 구제 수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인증 절차가 고도화되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 인허가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개인이 아닌 전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수요를 창출하여, 단순 대행 업무가 아닌 전문 컨설팅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타 전문 자격사와의 경쟁 및 시장 포화

매년 수백 명의 신규 행정사가 꾸준히 배출되면서 시장 내 공급이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행정사회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개업 행정사는 약 9,200명 수준이다.

행정사업 신고 및 영업 현황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 중	7,874	8,214	8,898	9,529	9,464	9,609	9,263
휴업	430	575	423	582	365	438	595
합계	8,304	8,789	9,321	10,111	9,829	10,047	9,858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행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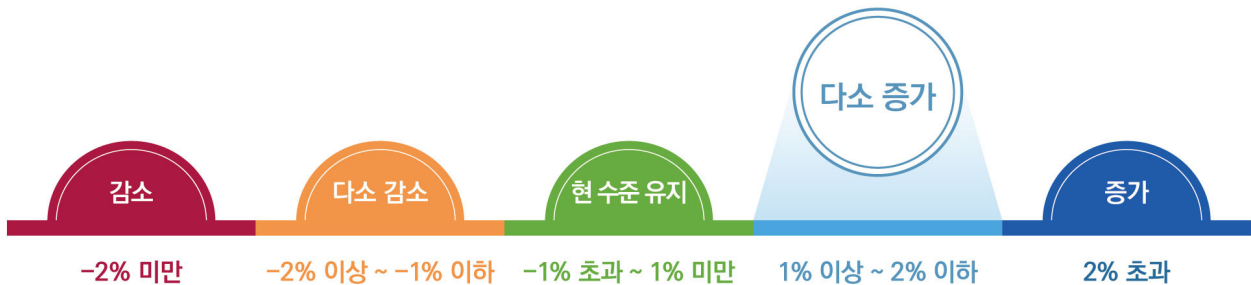
여기에 행정심판, 기업 자문 등 일부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이 변호사, 노무사 등 타 전문 자격사의 업무와 중첩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 과잉과 직역 간의 경쟁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신규 행정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전체적인 일자리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 대리권 확대 등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경쟁 구도에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행정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 의식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 행정 서비스 고도화, AI 기반 서류 자동화 및 번역 기술 발달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창업 및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인허가·인증 컨설팅 수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행정심판 대리권 확대 등 행정사법 개정 논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 대사관 인증 등 업무의 전자·무서류 (Paperless)화
기타 요인		• 꾸준한 자격자 배출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타 전문 자격사와의 업무 영역 중첩 및 경쟁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경영 및 진단 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경영 및 진단 전문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경영 및 진단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4%로 예측된다.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전략, 인사, 재무,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핵심 조력자이다. 향후 10년간 경영 및 진단 전문가의 고용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기회와 구조적 변화가 공존할 것이다. 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등장은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자체 역량 강화, AI 기반 분석 도구의 발전,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은 시장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영 및 진단 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의 ESG 경영 및 지속가능성 요구 증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경영 지표로 부상하면서, ESG 경영 컨설팅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들은 ESG 평가에 대응하고 관련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ESG 전략 수립, 관련 데이터 관리, 공급망 실사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 대한 신규 수요가 꾸준히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전환(DX) 가속화에 따른 전문 컨설팅 수요 확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접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DX)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내부 역량만으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

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제안하며, 조직 변화 관리를 돕는 전문 컨설턴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컨설팅 역량 내재화(In-sourcing) 심화

최근 많은 대기업이 비용 절감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외부 컨설팅사에 의존했던 경영 진단, 시장 분석 등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내재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 내부에 전략기획팀이나 데이터분석팀을 신설·강화하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외부 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감소시켜, 컨설팅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잡한 경제 환경과 신사업 진출 컨설팅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격한 기술 변화,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게 만든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시장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인수 후 통합(PMI) 전략 등 전문적인 컨설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정책 역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I 기반 분석 도구의 발전과 컨설팅 업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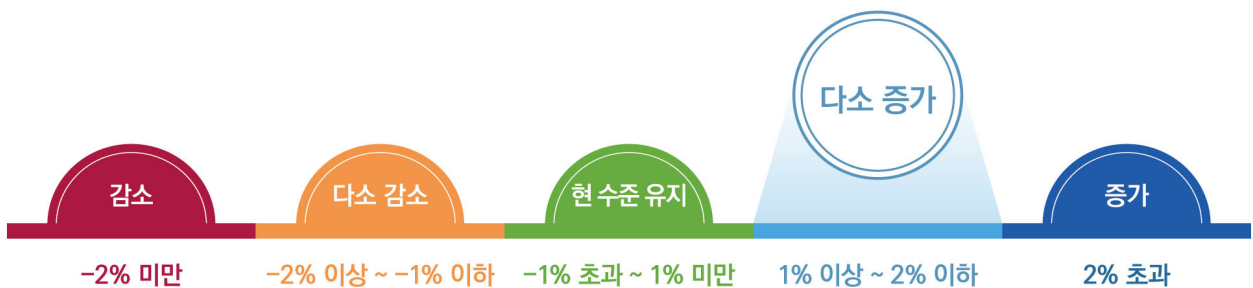
AI 기술의 발전은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게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툴은 과거 컨설턴트가 많은 시간을 투여했던 시장 조사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컨설팅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니어급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반면,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고차원적인 컨설팅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전문가의 역할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ESG, 윤리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 AI 기반 분석 툴 발달로 단순 자료 분석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컨설팅 투자 위축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신사업 진출 및 M&A 활성화, 위기관리 컨설팅 수요	• 컨설팅 역량 내재화(In-sourcing) 경향 심화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 경영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노무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노동자의 권리 구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자문,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부당해고·산업재해 구제 신청 대리부터 기업의 인사 제도 설계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최근 공인노무사의 수가 6,000여 명을 넘어서고, 연간 최소 선발 인원도 300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연도별 공인노무사 합격자 및 활동 노무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종 합격자	254	300	303	343	322	551	395	330
활동 노무사	4,115	4,449	4,792	5,178	5,550	6,170	6,634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한국공인노무사회 (2024년 활동 노무사는 미발표)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노동 규제의 등장은 기업의 법률 자문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과 같은 고용 형태의 다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사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 많은 관심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분쟁 해결이라는 사후적 역할을 넘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사전적 HR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노무사의 활동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잡해지는 노동 법규와 정책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새로운 노동관계

법령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기존 제도가 산업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복잡화는 기업의 자문 수요를 창출하여 노무사의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근로자 권리 의식 향상 및 노동 분쟁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분쟁도 늘고 있다. 이러한 노동 분쟁의 증가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대리하거나 기업 측을 대리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노무사의 고유 업무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전문화와 사내 노무사 채용 증가

과거 외부 자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인사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복잡한 노동 규제를 상시적으로 준수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노무법인 외에 일반 기업체라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노무사의 전체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업의 사전 예방적 HR 컨설팅 수요 증대

많은 기업이 전통적인 ‘사건·사고 처리’ 중심의 노무 관리를 넘어, ‘사전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HR 컨설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공정한 평가·보상 제도 설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핵심 인재 유지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인권 경영 및 공급망 내 노동 이슈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비소송 분야의 컨설팅 시장 확대는 노무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HR 테크의 발달과 노무 업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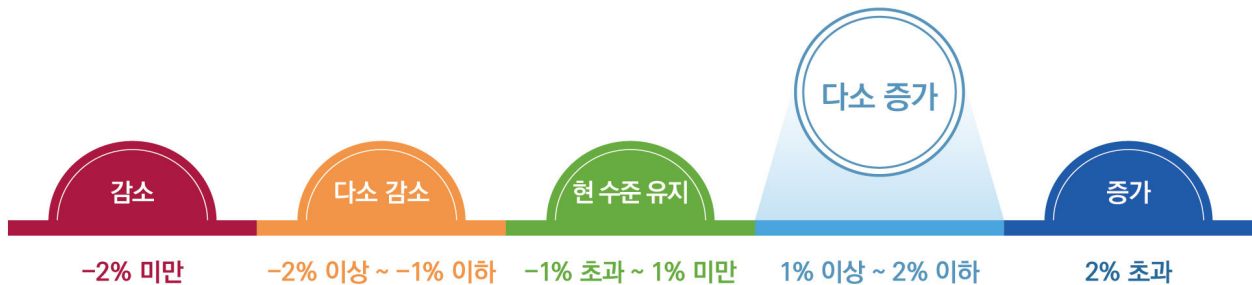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HR 테크 솔루션의 발전은 노무사의 업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다. 단순 급여 계산, 근태 관리,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점차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업무를 주업으로 하던 노무사나 사무직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노무사가 복잡한 법률 해석, 노사 전략 수립, 감정적 소통이 필요한 분쟁 조정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노동 인권 및 워라밸 중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HR 솔루션 발달로 단순·반복 노무 업무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컨설팅 투자 위축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사전 예방적 HR 컨설팅 및 조직 문화 개선 수요 증대, 사내 인사노무관리 조직 전문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인권·노동 분야 전문가 역할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강화 입법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인적자원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인적자원전문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외부에서 인사관리(HR)에 대한 전문 자문, 핵심인재 발굴(헤드헌팅), 경력 개발 컨설팅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기업 내부에서 수립된 제도를 운영·실행하는 '인사·교육·훈련사무원'과 구분되는 외부의 전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10년간 인적자원전문가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내부 역량만으로는 복잡한 인적자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며 외부 전문가의 전략적 통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개인의 경력 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커리어 컨설팅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의 예산 조정이나 AI 기반 HR 솔루션의 확산은 일부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적자원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속화되는 인재 전쟁과 전략적 인재 확보(TA)의 중요성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기업에 '인재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채용 공고를 내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비전과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전략, 평가 도구, 채용 브랜딩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인재 확보(Talent Acquisition)'가 중요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 플랫폼의 고도화와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을 통해 타깃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TA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HR 컨설턴트 및 헤드헌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조직 문화와 구성원 경험(EX) 관리 컨설팅 수요 증가

수평적 소통, 공정한 성과 인정, 일과 삶의 균형 등 긍정적인 조직 문화와 구성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특히 밀레니얼 및 Z세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조직의 현재 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구성원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설계할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내부 인력만으로는 객관적인 진단과 혁신적인 솔루션 도출에 한계가 있어, 외부 조직개발(OD) 및 조직 문화 전문 HR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관련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급격한 기술 변화와 리스킬링/업스킬링 전략 컨설팅

AI 도입 등 급격한 기술 변화는 기존 직무의 소멸과 새로운 직무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부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만큼이나, 내부 구성원들을 미래 직무에 맞게 재교육(Reskilling)하거나 역량을 강화(Upskilling)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성공적인 리스킬링 전략은 단순한 교육 과정 운영을 넘어, 미래 인력 수요 예측, 경력 경로 설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기획 등을 포괄하는 고도의 기획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인적자원개발(HRD)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일자리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 데이터 기반의 HR 애널리틱스 도입 확산

과거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운영을 최적화하려는 'HR 애널리틱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구성원의 성과 데이터, 퇴사율,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퇴사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하고,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분석하며, 보상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수요를 증가시키며, HR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HR 솔루션 고도화 및 인소싱(In-sourcing)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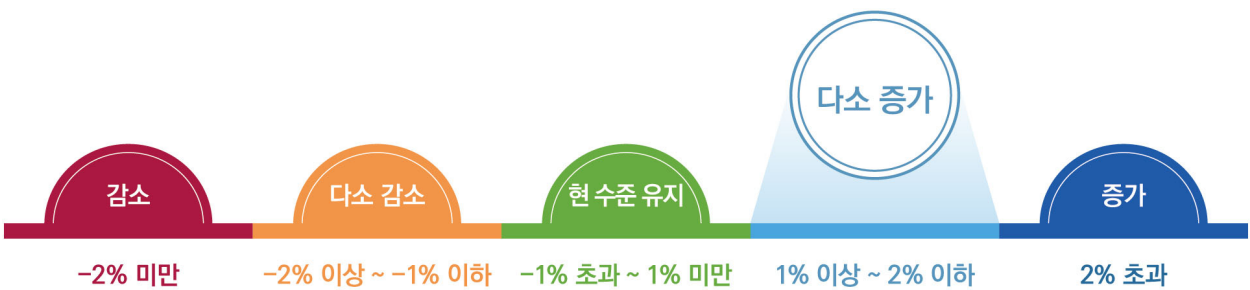
고도로 발전된 최신 HR 솔루션(HRIS, HRMS)은 인적자원전문가의 일자리에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했던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조직 문화 진단(서베이) 등의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가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대신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인사관리를 고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컨설팅 회사에 외주를 주던 HR 프로젝트를 내부 인력으로 수행하는 인소싱(In-sourcing)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일부 전통적인 컨설팅 시장의 성장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 확보 경쟁 심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조직 문화, 공정한 평가·보상, 구성원 경험(EX) 중시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기반의 HR 애널리틱스 도입 확산, 리스킬링 등 HRD 전략 수요 증대	• 고도화된 HR 솔루션이 전문가의 일부 기능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채용 및 컨설팅 예산 삭감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전략적 인재 확보(TA) 시스템 설계 및 고도화 수요, 핵심인재 양성/유지 컨설팅 증가	• HR 부문의 컨설팅 역량 내재화(In-sourcing) 경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수시/경력 채용 보편화,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기타 요인	• 개인의 경력관리 및 이직/전직 수요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회계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회계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회계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8%로 예측된다.

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고 회계 정보를 분석, 해석하여 보고하는 전문가이다. 주요 역할은 회계감사, 세무 조정, 경영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말 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등록된 활동 회계사는 약 2만 7천여 명에 달한다.

연도별 공인회계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종 합격자	915	879	1,009	1,110	1,172	1,237	1,100	1,250
활동 회계사	20,132	21,048	22,156	23,234	24,429	25,658	26,711	27,961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활동 회계사는 매년 말 기준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인원 수)

향후 10년간 회계사의 고용은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공존하며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신외부 감사법 시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는 회계사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다. 복잡해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수합병(M&A), 국제회계기준(IFRS) 등의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공지능(AI)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술의 발전은 단순 기장(장부 기록) 대리나 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여 일부 전통적인 회계 업무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회계사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회계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SG 경영 확산 및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ESG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면서, ESG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제3자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에서 회계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ESG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업무는 회계사의 새로운 전문 분야로 부상하며 신규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2026년 이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한 정책 방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의 영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외부감사법’의 시행은 기업의 회계감사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년 1,110명에서 2024년 1,25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규 강화로 기업들은 감사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회계법인의 감사 인력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2025년 빅4 회계법인의 신입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회계사의 직무 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다. 전표 입력, 계정 분류, 재무제표 생성 등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나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이는 저부가가치 회계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회계사가 빅데이터 분석, 이상 거래 탐지, 포렌식 회계 등 더 고차원적인 분석 및 자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한 자체 감사 플랫폼을 개발하여 감사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복잡한 기업 환경과 전문 서비스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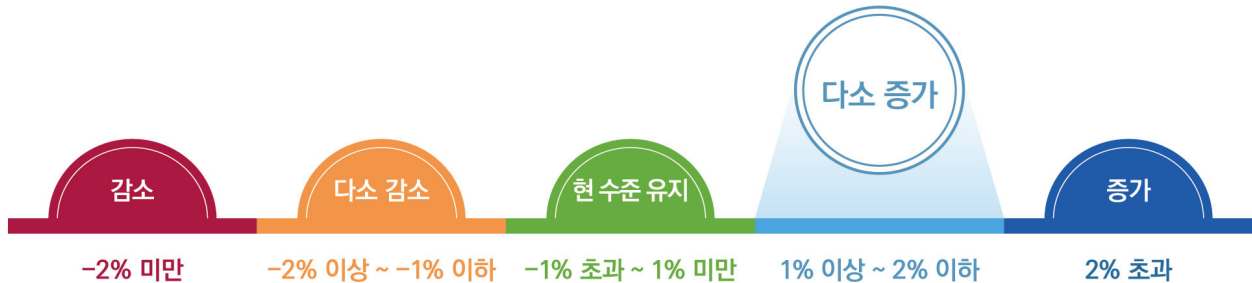
2024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M&A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회계 자문, 가치 평가, 실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업 실무에 정확히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한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하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 기준이 마련되면서 관련 전문 서비스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및 윤리 경영 중시	
과학기술의 발전	빅데이터 분석, 포렌식 회계, 가상자산 감사 등 신규 서비스 분야 확대	AI, RPA 도입으로 단순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침체 시 M&A, 컨설팅 등 자문 수요 감소 및 신규 채용 축소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M&A, 해외 진출 등 복잡한 경영 활동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	
환경과 에너지·자원	ESG 경영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신외부감사법 시행, ESG 공시 의무화,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기타 요인	회계 투명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세무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세무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5%로 예측된다.

세무사는 개인 및 기업 등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신청, 청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다양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계산과 세무 상담, 자문, 조세심판 업무까지 담당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복잡한 조세규정을 해석해 고객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5년간 세무사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1만 7천 명 이상이 등록된 상태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도별 세무사(CTA)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종 합격자	630	631	724	711	706	726	717	717
활동 세무사	12,479	13,010	13,648	14,242	14,841	15,455	16,063	16,780p

최종 합격자: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의 매년 보도자료

활동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의 매년 말 기준 등록회원 통계 (2024년은 추정치)

이는 급격히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자산 이전 시장의 팽창, 그리고 중산층까지 확대된 상속·증여 컨설팅 수요가 세무사의 새로운 주요 업무가 되고, 동시에 디지털 신산업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등장, 창업과 프리랜서 확대 등은 복잡한 소득원과 맞춤형 절세 전략 수요를 늘려 고부가가치 세무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장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 고도화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으로 단순 기장·신고 업무 영역은 줄어들고, 공급 확대와 시장의 구조적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며 감소 요인이 상존하기는 하나 성장수요가 워낙 강력하여 향후 10년간 세무사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성 강화와 시장 변화 대응이 미래 일자리 안정성과 성장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무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자산 이전 수요 확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무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까지 상속·증여세 대상이 확대되며, 사전 절세 전략과 신고 대행이 필수가 되어 고령화와 자산 이전 시장이 세무사 일자리 증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 확대 및 자동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특히 과세 관청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Pre-filled)’ 서비스의 대상자가 영세사업자에서 복수근로소득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 신고 대리 업무를 무료 공공 서비스가 대체하는 것으로, 세무 대리 시장의 구조적인 축소 요인이다. 여기에 민간의 자동 장부 플랫폼까지 더해져 단순 기장 및 신고 업무의 수익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세무사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복잡한 자문, 분쟁 해결, 전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문화되도록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

디지털 신산업 및 다양한 경제활동 성장

가상자산, 플랫폼 노동, 온라인 창작/방송 등 디지털 경제의 확장으로 소득원이 복잡해짐에 따라 맞춤형 자문, 글로벌 거래, 복합 소득 관리 등 신산업 전반에서 세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세무사는 스타트업, 창업자, 프리랜서, 국제거래, 복합 소득원 등에서 전문 역할을 강화하며 새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

시장 경쟁 심화와 포화

최근 5년간 신규 세무사 공급이 증가하며 중소 사무소·개업자 중심의 경쟁이 극심해지고, 저가 플랫폼 대행, 타 전문직 진출 확대 등으로 소득격차와 경영난도 거세지고 있다. 시장 포화 현상, 신규 개업자의 생존난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저해하는 중요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창업·프리랜서 및 중소기업 증가

창업, 1인 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사업자 신고, 회계자문, 절세전략,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 정책지원 등으로 세무사 채용 수요가 늘고 있으며, 컨설팅 중심 역할이 강화된다.

복잡한 조세 환경과 정책 변화

잡은 과세제도·법령 개정, 기업 규제, 국제조세 환경 변화로 기업·개인은 리스크 관리, 맞춤 전략, 분쟁 대응 역량을 세무사에게 의존하게 되며, 고도 전문성·해석력은 일자리 성장의 기반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상속·증여 수요 폭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창업·프리랜서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등 자동화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맞춤형 컨설팅 수요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디지털 신산업(가상자산 등) 관련 세무 수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조세 제도 복잡화와 규제 강화	• 국세청의 직접 납세 서비스(공공재) 확대
기타 요인		• 시장 포화, 경쟁 심화

2021년 작성, 2025년 수정

관세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무역·관세 분야 전문가이다. 주요 직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품목분류코드) 분류, 관세율 적용, 세액 계산, 세관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복잡한 통관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다. 향후 관세사의 역할은 단순 통관 대리인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무역 컨설턴트’로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 통관시스템의 고도화는 표준화된 서류 작업의 비중을 줄이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은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관세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최적화, 관세 리스크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직업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전체 고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관세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종 합격자	90	91	176	149	90	169	90	90
활동 관세사	1,921	1,968	2,015	2,063	2,111	2,228	2,335	2,431p

최종 합격자: 관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의 매년 보도자료
활동 관세사: 한국관세사회의 매년 말 기준 등록회원 통계 (2024년은 추정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통상 리스크’가 기업 생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단순히 관세율이 변하는 것을 넘어, 공급망 블록화, 탄소 국경세 도입, 우회 수출 규제 등 무역 장벽이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

문가의 전략적 자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대행에서 ‘공급망 리스크 컨설턴트’로 격상시키며 고부가가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요인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무역 환경의 복잡화

FTA의 확대에 의해 무역 환경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점이다. 과거 관세사가 단순 수출입 신고 대행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각 FTA별 상이한 원산지 기준과 복잡한 품목 분류(HS Code) 규정 등으로 인해, 고객사가 최대한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의 전문적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원산지 증명과 적합한 품목 분류 전략에 따라 적용 세율과 통관 전략이 달라지므로, 실무 경험과 해석력이 매우 중요하다.

■ 전자상거래(해외 직구) 시장의 폭발적 성장

해외 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함에 따라 물량과 품목 모두가 세분화되어, 수많은 소량·다품종 통관 업무가 늘고 있다. 기존의 대량 B2B 거래에서 벗어나, 다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통관이 많아지면서 실제 업무량 또한 폭증한다. 관세사는 IT 기술과 협업 플랫폼을 도입해 특송·배송업체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통관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신규 일자리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 통관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및 AI 기술 도입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AI 기반 품목분류 자동화 등 기술 발전으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 및 셀프 신고로 대체되고 있다. 정형화된 품목의 기본 신고는 기업 담당자 또는 시스템이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지만, 위험관리 및 FTA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여전히 관세사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즉, 기술 발전은 관세사 일자리의 전체적인 증가 폭을 제한하고, 단순 업무에서 고난도 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는 주요 감소 요인이다.

■ 강화되는 수출입 규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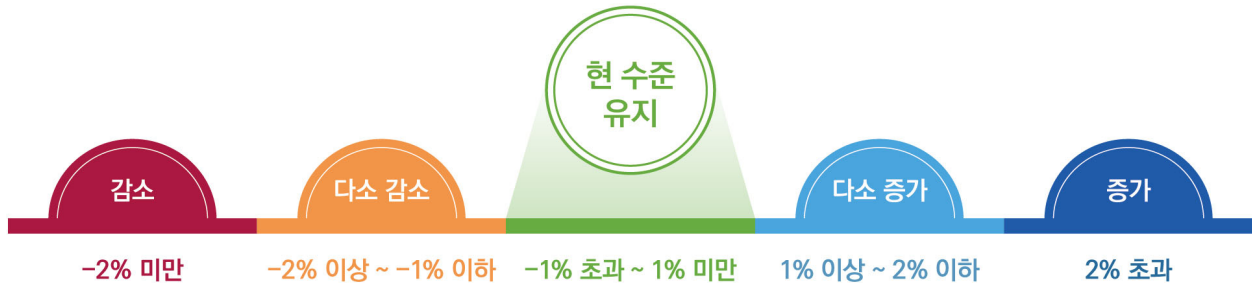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환경·안전·유해물질 등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 도입이 늘면서 위험 사전관리와 규정 준수 자문 등에서 관세사 전문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통관 과정의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 컨설팅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전략적 대응을 위해 관세사의 고도화된 자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해외 직구 등 소비 패턴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로 B2C/C2C 통관 물량 증대	• 통관 자동화(Uni-Pass) 및 AI 품목분류
국내외 경기 변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 글로벌 경기 침체 시 교역량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수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자상거래(B2C) 물류 폭증	
환경과 에너지·자원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 관련 컨설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관세조사 강화 및 AEO 등 인증제도 확대	• 통관 절차 간소화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감정평가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감정평가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IP), 기업 가치 등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직이다. 주요 직무는 부동산 거래, 담보대출, 경매, 공시지가 산정, 보상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AI 기반 자동가치산정 모델(AVM)의 등장은 아파트 등 정형화된 자산을 평가하던 기존 시장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재정 의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어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 부동산 가치 산정에서 벗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 기업가치, ESG와 같이 기계가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자산을 평가하는 고도의 전문 컨설팅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감정평가사는 단순·반복적인 가치 평가 업무는 감소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컨설팅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체 고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감정평가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종 합격자	152	170	181	184	203	202	204	195
활동 감정평가사	4,089	4,241	4,411	4,602	4,815	5,027	5,238	5,438p

최종 합격자: 국토교통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의 매년 보도자료

활동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매년 말 기준 등록회원 통계 (2024년은 추정치)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거래량 감소

2025년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의 하락 등으로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담보평

가, 경매, 일반 거래 평가) 수요도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할수록 감정평가 일자리 공급이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상, 시장 침체는 고용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 부동산과 대출 규제 확대도 수요 감소 압력을 더하고 있다.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가치산정모델(AVM),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평가 시스템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데이터가 풍부한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렴하고 빠른 시세 산정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단순 가치 산정 및 반복업무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평가 대상의 다변화 및 전문화

지식재산권(IP), 영업권, 기계·설비, 기업 가치, ESG 자산, 저작권 등 다양하고 복잡한 비정형자산의 평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분야들은 AI나 자동화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판단력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친환경·사회 가치 등 새로운 시장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 금융·정책 환경의 복잡성과 위험 관리 수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부실, 부실채권(NPL) 증가, 대출·경매 심사 강화 등 복잡한 금융·정책 환경에서 감정평가의 신뢰성, 법적 효력·분쟁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이의신청, 재개발·재건축사업 보상평가, 각종 정책변화 등에서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수이며, 해당 분야는 꾸준한 일자리 수요를 유지·확대한다.

■ 감정평가 시장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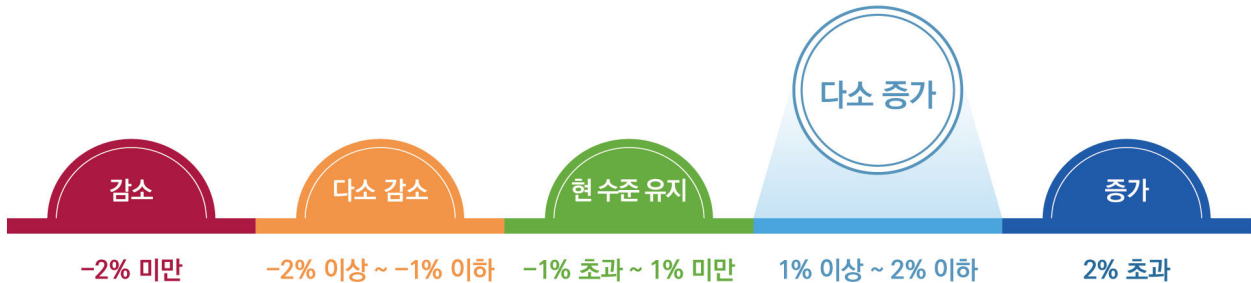
감정평가사 신규 배출이 꾸준히 늘면서, 기존 부동산 평가 시장이 경기와 기술변화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력 공급 과잉·수수료 경쟁·지역별 공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신규 감정평가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수익성·고용의 질 저하로 직업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상속·증여, 자산 분할 평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ESG·환경, 사회적 가치 평가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AI 기반 업무환경	• 자동화·반복업무
국내외 경기 변화	• 위험관리, 분쟁대응, 금융·법적 평가	• 경기침체·거래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무형자산·기업 가치 평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PF·부실채권, 환경·재개발 시장	• 경쟁 심화·공급과잉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부동산·에너지평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공공사업·보상·조세 평가	
기타 요인		• 시장 포화·수수료 경쟁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광고 및 홍보 전문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광고 및 홍보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1%로 예측된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광고·홍보·마케팅팀,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등에서 광고 전략 기획, 캠페인 운영, 미디어 플래닝, 브랜드·이미지 구축,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디지털·소셜 콘텐츠 제작, PR 이벤트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 디지털 플랫폼·빅데이터·소비자 행동 분석, 위기관리와 평판 관리, ESG 등 기업 내외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향후 10년간 광고·홍보 전문가의 직업 환경은 ‘파괴적 전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광고 시장의 축이 전통 매체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감이 아닌 데이터로 성과를 증명하길 원하며, SNS 시대의 위기 관리는 홍보 전문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대한 기술적 위협과 공존한다. 결국 미래의 광고·홍보 전문가는 AI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기획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일자리의 총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광고 시장 재편

광고 시장은 TV·신문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유튜브, SNS, OTT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매체 다변화와 파편화된 소비 행태 속에서 각 플랫폼별 최적화된 콘텐츠 기획·제작·확산 역량이 중요해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이 늘면서 디지털 채널 전문 광고인력의 고용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업무 자동화

생성형 AI가 광고문구·이미지 등을 직접 생산하고, AI 기반 광고 솔루션이 데이터 분석·매체 자동집행(프로그램매틱 광고)을 담당하게 되면서, 광고 시장 내 단순·반복적 업무(시장 데이터 수집, 광고 리포트, 기본 콘텐츠 제작)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 추세다. 이로 인해 광고·홍보 인력은 단순 제작에서 전략/창의/시장 대응 중심으로 역할이 전환된다.

데이터 기반 성과 측정 마케팅의 확산

모든 광고활동의 효율과 성과 분석(클릭률, 전환율, ROI 등)이 보편화되면서, 광고주와 기업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예산 집행을 선호한다. 데이터 분석 및 A/B테스트 실행, 실시간 효율 개선, 타겟 마케팅 등 정밀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고용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기업 평판 관리 및 위기 대응의 중요성 증대

SNS로 인해 기업 관련 이슈가 급속 확산되므로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위기 대응(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과 평판 관리, ESG 커뮤니케이션 등 전략적 역할이 강조된다. 온라인 부정여론·가짜뉴스·사회적 책임 홍보 등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기업 생존에 직결되어, 홍보 전문가의 전문성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요가 증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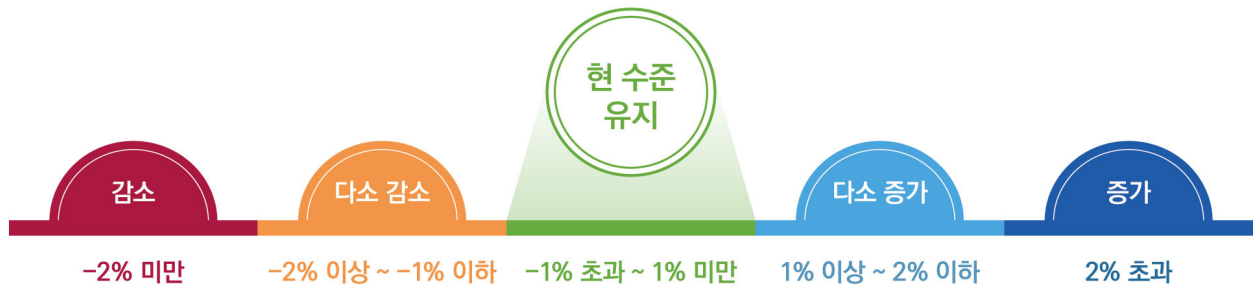
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 및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제품과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치열한 산업 경쟁, 저비용·고효율 디지털 마케팅의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광고·홍보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디지털 기반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시장 전체의 고용 저변이 넓어지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존경쟁·수익성 저하, 구직자 간 경쟁도 함께 심화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산업별·영역별 홍보 수요 증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맞춤·스토리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학기술의 발전	• AI·디지털 자동화, 데이터 분석	• 반복업무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소비자 트렌드, 시장 확대	• 경기 침체 시 광고비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브랜드관리·위기관리·평판관리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온라인 플랫폼 광고·미디어 성장	• 전통매체 광고산업 약화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 홍보, 친환경 캠페인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광고윤리·정책·규제 변화	
기타 요인	• 크리에이터·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 경쟁 심화·수익성 약화

조사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조사전문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전문가는 사회·시장·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업이나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국내 시장조사 산업은 꾸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조사전문가라는 직업은, ‘인사이트(통찰력)’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만, 그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기업과 사회의 표준이 되면서, 소비자의 숨은 욕구나 사회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AI와 자동화된 조사 플랫폼은 단순 설문 설계나 데이터 수집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조사전문가의 전통적인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조사전문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자를 넘어, AI가 찾아내지 못하는 복잡한 맥락을 해석하고, 비즈니스의 핵심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인사이트 큐레이터’이자 ‘전략적 조언가’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조사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보편화

기업 경영, 정부 정책 수립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이 과거의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조사전문가 수요를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신제품 출시 전 시장 수용도 조사, 광고 캠페인 효과 측정, 고객 만족도 분석,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요구가 모든 조직에서 보편화되었다.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조사 기획부터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역할을 꾸준히 필요로 하는 요인이다.

AI 기술과 DIY(Do-It-Yourself) 조사 플랫폼의 확산

조사전문가의 전통적인 업무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기술의 발전이다. 서베이몽키(SurveyMonkey),

구글 폼(Google Forms)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설문지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져 설문 문항 자동 생성, 데이터 자동 분석 및 시각화까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과거 전문가에게 의뢰했던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간단한 시장 조사를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조사전문가의 업무 일부를 대체하여 전체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UX 리서치 등 질적·심층 조사의 중요성 증대

AI가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의 숨은 욕구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왜(Why)’를 파악하려는 질적·심층 조사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개선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사용성 테스트 등은 사람의 공감 능력과 맥락을 해석하는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조사전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대체 및 보완

과거에는 소비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검색 기록, 구매 데이터 등 소비자들이 남긴 방대한 양의 행동 데이터(Behavioral Data)를 직접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설문조사 전문가보다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전문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빅데이터 분석가와의 협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직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복잡해지는 사회·정치 현상과 여론조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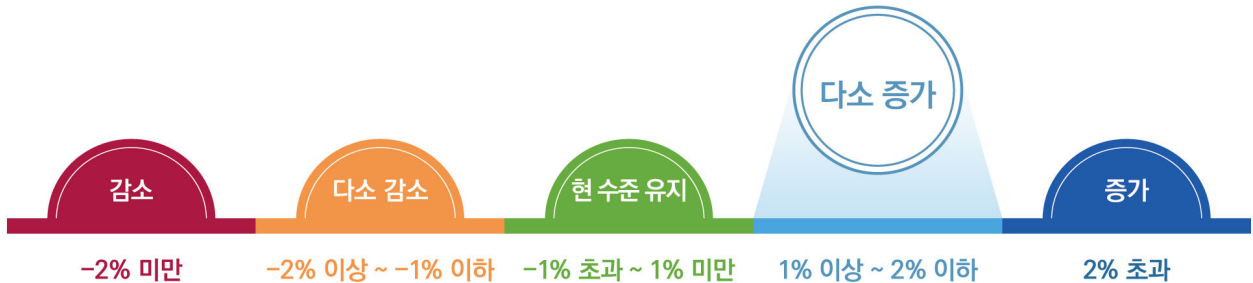
사회 갈등이 다양해지고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선거 예측 조사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을 측정하는 조사는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사회조사 및 여론조사 분야에서 조사전문가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UX 리서치 등 질적·심층 조사 수요 증대	• AI 기반 DIY 조사 플랫폼 확산, 빅데이터 분석의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보편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사회·정치 현상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수요 유지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상품 기획 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상품 기획 전문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상품 기획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5%로 예측된다.

상품 기획 전문가는 시장과 소비자를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출시 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10년간 상품 기획 전문가의 직업 세계는 중대한 기회와 구조적 위협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소비자 니즈가 극도로 다변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전문가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K-컬처의 세계적인 부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AI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대한 기술적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상품 기획 전문가는 과거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기획자를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고객의 잠재 욕구를 실체적인 상품으로 구현해내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조자’로서 그 역할이 재정의될 것이다.

상품 기획 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

상품 기획 전문가의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기술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패는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분화된 고객층을 공략하며, 차별화된 콘셉트의 상품을 기획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상품 기획 전문가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과거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시장 트렌드 분석, 수요 예측, 경쟁사 상품 분석 등의 업무가 이제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상품 기획의 초기 리서치 단계에 필요한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는 전통적인 상품 기획 전문가의 입지를 위축시켜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K-브랜드의 부상과 글로벌 상품 기획 수요 증대

K-팝,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는 이제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K-프리미엄' 시대를 열었다. 실제로 라면, 냉동김밥 등 K-푸드와 중소기업 화장품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문화적 인기가 실제 상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기획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 상품'을 기획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는 해외 각국의 문화와 규제,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상품 기획 전문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 온라인/플랫폼 경제의 확산

쿠팡, 쿠팡, 무신사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상품 기획 전문가의 활동 무대를 크게 넓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과 달리 공간의 제약 없이 수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기획할 전문가(주로 MD, Merchandiser)를 필요로 한다. 특히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한 퀵커머스나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 경쟁 등은 더 빠르고, 더 세분화된 상품 기획 수요를 창출하며 관련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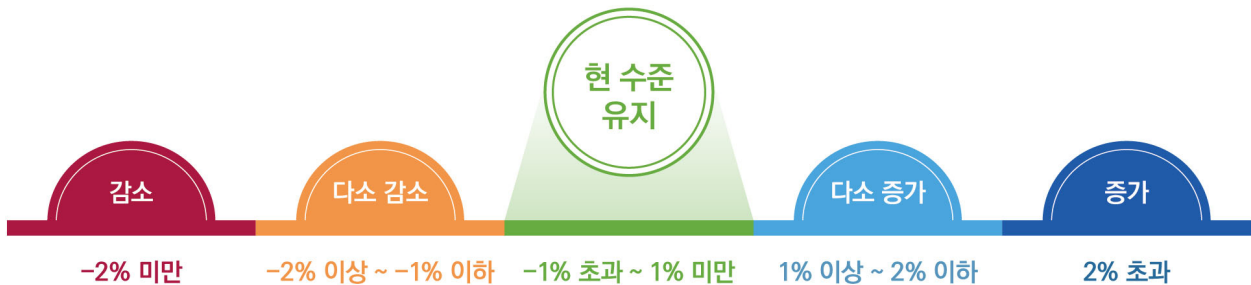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 경기 변동에 따른 신제품 개발 투자 위축

상품 기획 및 신제품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투자 영역이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잘 팔리고 있는 기존 주력 상품의 유지보수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전문가의 신규 채용이나 프로젝트 수요를 감소시켜, 시장 성장을 주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세분화 등 소비자 니즈 다변화, K-컬처 선호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시장 분석 및 수요 예측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신제품 개발 투자 위축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온라인 플랫폼 경제 확산, K-브랜드 기반 수출 상품 기획 증가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행사 기획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기업홍보 이벤트, 신제품 발표회, 산업·문화축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MICE 이벤트의 목적·컨셉트 선정, 장소·예산안 섭외, 협력업체 관리,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경험 디자인 및 실시간 현장 실행을 총괄한다. 변화하는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체험 마케팅,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접목) 행사, 글로벌 마케팅, 특화 테마 기획 등 고도의 융합·기술 역량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의 일자리는 기존 요인들을 종합할 때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강한 수요와 기업들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은 분명한 증가 요인이지만, 비용 효율적인 가상·하이브리드 기술의 보편화와 경기 변동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 두 힘의 균형점이 바로 ‘현 수준 유지’라는 것이다. 덧붙여, 최근 K-팝과 K-컬처를 넘어 K-방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K-브랜드’의 위상은 당초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높아진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국 MICE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 행사 유치를 가속한다면, 이는 애초에 전망된 ‘현 수준 유지’를 넘어 더 긍정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갈망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사회적 갈증이 크게 증가해, 팝업스토어·페스티벌·대면 이벤트·현장 행사 등 직접 체험 마케팅에 대한 기업 투자와 소비자 반응이 매우 활발하다. 현장 운영과 공간 기획을 총괄하는 행사 기획자의 전략적·실무 역량이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오프라인 중심의 체험 마케팅, 팬미팅, 브랜드 행사, 기업 신제품 발표회 등의 시장이 꾸준히 유지·확장되면서 현장 행사 기획자 채용 수요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가상·하이브리드 기술의 보편화

웹 또는 가상 컨퍼런스(메타버스), 온라인 전시 등 비대면/하이브리드 기술이 대규모 행사·국제회의·기업 세미나 분야에 빠르게 정착했다. 운영비 절감, 이동 제약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긍정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간 섭외·설치·인력 운영 등 기존 오프라인 기획자의 고용 변동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중대형 오프라인 행사기획·현장전문인력 수요가 장기적으로 정체·감소하며, AI·디지털 기반의 가상행사·기술 융합 인력 채용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

MICE 산업 성장과 기업 마케팅 경쟁 심화

정부·지자체의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신설, 국내/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비즈니스 이벤트·박람회·세미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론칭·기술박람회·전시회를 마케팅 및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며, 복합 이벤트 기획 분야의 고용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MICE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마케팅·브랜드 수요 지속은 다양한 행사 기획자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 및 신규채용 수요 증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경기 변동에 따른 예산 민감성

행사·전시 예산은 재량적 지출로, 경제위기와 시장불안,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 경기 변동 시 대규모 행사 취소·축소, 비용 감축과 채용 위축이 반복된다. 일자리 성장의 주기적 제약·정체 현상이 지속·반복될 수 있어 급격한 확장 또는 일자리 안정성 저하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

개인화 및 소규모·테마 행사 확산

대형 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취미·세대·취향·특정 가치(비건, 친환경 등) 기반 소규모·테마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커뮤니티 행사, 테마 페스티벌 등은 창의적 기획 역량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기획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대형 이벤트의 고용은 정체되더라도 틈새·전문 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 기획자가 필요한 구조로 고용 생태계가 다변화된다.

‘K-브랜드’ 부상과 MICE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K-팝·K-콘텐츠·K-방산 등 국가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며, 한국은 국제회의 개최 선두국가로 평가받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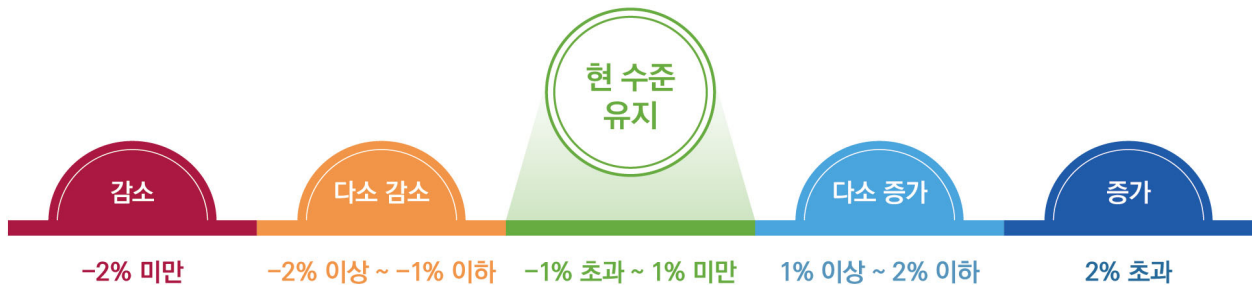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다. 정부의 전략적 육성 정책, 한류 영향력 확대 등으로 해외 글로벌 행사를 유치하거나 국내 행사 기획자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K-브랜드 시너지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애초의 ‘현 수준 유지’ 수준을 넘어, 글로벌 진출·고용 창출의 잠재 효과까지 내포해 더욱 긍정적인 일자리 전망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오프라인 체험, 현장 행사 수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테마·커뮤니티 이벤트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가상·하이브리드 행사	• 온라인·가상현실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현장 행사·운영 감소
국내외 경기 변화	• MICE 산업 성장, 비즈니스 이벤트	• 경기 침체, 예산 삭감, 일자리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체험마케팅, 제품론칭·페스티벌 경쟁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프리랜서·소규모·테마행사 고용	• 대형 이벤트 정체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비건·가치 테마 행사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MICE 정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타 요인	• K-브랜드, 한류 긍정 효과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조세 행정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조세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조세 행정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7%로 예측된다.

조세 행정 사무원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징수와 민원 응대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디지털행정 전환 및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의 확산으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서류 업무는 점차 자동화되고 있으나, 세정 환경의 고도화, 복잡한 사례 분석, 탈세 방지 및 복지 행정 확대 등에서 요구되는 실무 전문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및 효율화 기조는 신규채용 확대를 제한하는 핵심 제약 요인이지만, 데이터기반 행정의 고도화와 플랫폼 경제의 성장 등은 복합적 행정 수요를 증가시켜 인력의 역할 변화와 질적 고도화를 유도한다. 자동화와 행정 수요 확대의 효과가 혼재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해당 직업의 고용은 감소와 증가의 주요 요인이 맞물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고도화 및 AI 도입

국세청 홈택스 및 AI 기술의 고도화는 단순 서류처리, 납세 신고, 증명서 발급 업무를 자동화하며, 대면 창구 및 반복 사무 인력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다. 2025년 이후 주요 신고·민원 업무의 자동화가 완료되어, 정형적 행정 기능의 기술적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 인력의 역할은 데이터 오류나 복잡·비정형 사례 대응 등 전문 영역으로 이동하며, 보완적 인력 수요가 유지된다. 자동화에 따른 전체 인력수요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품질 유지, 신규 복잡 사례 대응 등에서 실무자의 중요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지능화되는 탈세 및 역외탈세 대응 강화

빅데이터 및 AI로 자동 선별된 탈세 의심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 거래 추적, 가상자산·해외계좌 활용

등 역외탈세의 실제 분석과 혐의 입증에는 인적 전문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 탈세 유형의 증가로 맞춤형 심층 조사와 사례 분석이 불가피한 영역이 되며, 기술의 한계로 인간의 조사 역량이 강화된다. 탈세 기법의 지능화는 조사·분석 중심의 행정 인력 수요를 견고히 유지하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근로장려금 등 조세 기반 복지 행정 확대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 등 복지정책 확대와 맞벌이 기준 완화로 복잡 사례 판별, 신청 자격 심사, 부정 수급 처리 등 복잡 민원 및 현장 업무가 크게 늘었다. 이런 복지 행정 확대는 자동화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급 자별 맞춤 행정 처리와 민원상담 등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 행정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효율화 기조

정부는 국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전체 행정 공무원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신규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와 동시에, 민원·조사·분석 등 고도 전문성 영역으로 인력 이동이 강화되고 있다. 인력구조 변화와 신규 업무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나 전체적인 고용 증가는 제한적이다.

■ 플랫폼 경제 확산 및 신종 세원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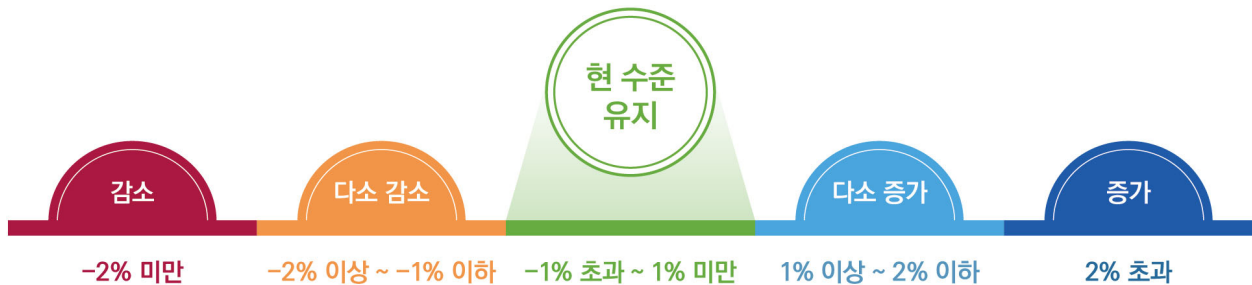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플랫폼 기반 소득 활동 인구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신종 소득자의 행정관리 수요는 증가하였다. 비정형 소득구조와 신규 사업모델 확산은 신고 안내, 과세관리, 민원 처리 등 복합 행정 업무를 새롭게 만들었다. 세원 추적, 신종 사례 심사, 납세자 교육 등 인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수요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실무 역할 고도화	• 신규 채용 제한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대응, 신종 사례 관리	• 홈택스·AI 도입에 따른 단순 업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플랫폼 경영 및 소득 구조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비정형 소득 특성, 신사업모델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근로장려금 정책 확대, 민원 유형 다변화	•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관세 행정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관세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행정 사무원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행정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주요 업무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관리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며, 수출입 실적을 관리하는 등 관세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세관의 실무를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관세 행정 사무원의 고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줄이는 강력한 힘과,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에 가까운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 AI가 단순 신고 업무를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서류 처리자의 역할은 분명히 축소된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민원을 처리하고, 마약이나 위조품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걸러내는 새로운 실무 수요가 채우게 된다. 결국 미래의 관세 행정 사무원은 단순 행정 처리자를 넘어,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증하는 국경 무역을 관리하는 ‘디지털 국경의 실무 운영자’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관세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시스템 및 AI 도입

관세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조적인 요인은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UNI-PASS)’의 고도화이다.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수출입 신고서 자동 심사, 위험 화물 1차 선별 등 과거 사무원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통관 업무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단순 서류 처리 및 데이터 입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전체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전자상거래(해외 직구)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접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리해야 할 개인 통관 물품의 절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자동화 시스템이 상당 부분을 처리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목록 오류 수정, 개인 통관 민원 응대, 반송·폐기 처리 등 실무 행정의 총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여, 기술로 인한 인력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가장 중요한 증가 요인이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효율화 기조

조세 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세 행정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거시적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량이 증가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존 인력을 고위험 분야나 신규 규제 분야로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마약·위조품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 강화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짝퉁) 유통, 안전 기준 미달 제품 반입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경 단계의 감시 및 단속 업무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AI가 위험 화물을 1차로 선별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현품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위법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은 여전히 세관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 요구는 관련 실무 인력의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여행객 휴대품 통관 및 대면 민원 수요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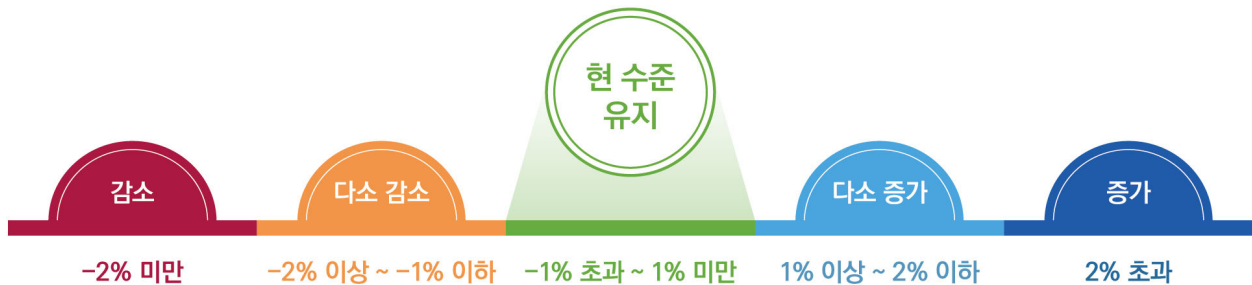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공항과 항만에서 여행객들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대면 행정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통관과는 다른 영역으로,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실무 인력의 필요성을 유지시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고도화, AI 도입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자상거래(해외 직구) 물동량 급증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마약·위조품 등 불법 물품 단속 강화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효율화 정책
기타 요인	•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대면 통관 수요 회복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병무 행정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병무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병무 행정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병무 행정 사무원이 되려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국방부 산하의 행정기관인 병무청에서 근무한다. 병무 행정 사무원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소집 대상, 병역 대체복무자, 병력동원 대상 등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징집 및 소집, 입영 통지, 병무 행정 민원 처리와 예비군·동원관리 등 병역 행정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위 업무를 계획·집행하여 국가 병역제도의 공정 운영과 병역의무자 관리, 예비군 동원체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 행정자동화와 온라인 민원 확대, 공무원 정원 동결 등 구조적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병역제도 다양화, 복잡 사례 증가, 예비군 및 동원관리 등 다양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요구로 인해 감소 폭은 완만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고, 온라인 민원·AI 상담 등 자동화가 반복업무를 대체하며, 신규채용 확대는 제한적이다. 반면,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방식의 다변화, 복잡한 복무 판정, 예비군·동원 업무 등의 지속성으로, 숙련 인력 수요는 일정 부분 유지된다.

병무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

병무 행정 사무원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20대 남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병무 행정의 핵심 대상인 병역자원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병역판정검사, 입영 통지, 신병 교육 등과 관련된 행정 업무의 총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직접적으로 병무 행정 사무원의 필요 인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병무청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병무민원포털’이 고도화되고, AI 챗봇이 단순 상담 업무를 대체하는 등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입영 신청, 연기, 각종 서류 제출 등 과거 창구에서 처리하던 많은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순·반복적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업무 자동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인력 수요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 병역제도의 다변화 및 복잡성 증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외에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이행 방식이 과거 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또한 질병이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역 처분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와 관리, 민원 상담에 더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업무의 총량은 줄어들더라도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숙련된 사무원의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효율화 기조

병무 행정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거시적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병무 행정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안보 환경과 예비군·동원 관리의 지속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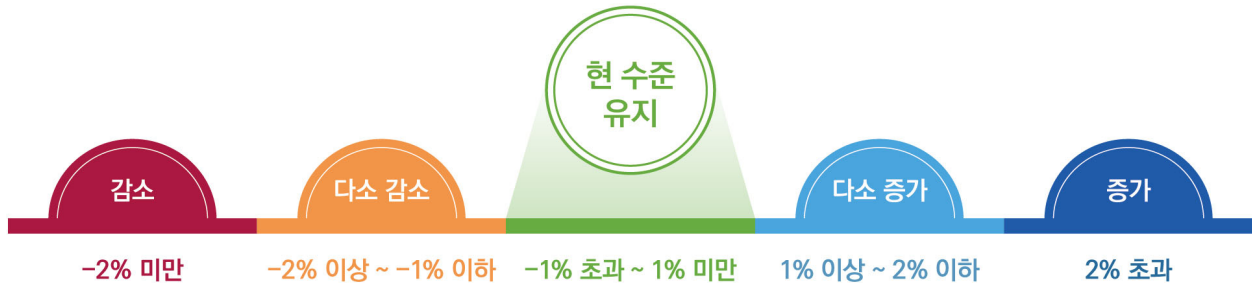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병역자원의 수는 줄어들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력 유지를 위한 행정체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이미 병역을 마친 수백만 명의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동원 훈련을 계획·실행하는 업무는 병무 행정의 중요한 축이다. 이러한 예비 전력 관리의 필요성은 병무 행정 조직과 인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예비군·동원관리 수요 유지	•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급감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복무제도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 민원 자동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병역제도 다변화·예비군관리	• 공무원 정원 동결
기타 요인	• 안보상황에 따른 행정수요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2%로 예측된다.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은 행정기관과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법규 및 공공정책을 집행하며, 민원인의 신청·상담, 각종 증명서 발급, 복지 및 생활 민원 처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주로 주민과 접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집중하며, 문제점 분석 및 정책 설계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공공행정전문가’와 명확히 구별되는 실무 중심의 직업이다. 향후 10년간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의 일자리는 기술적 대체라는 거대한 파고와 확장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방파제가 팽팽히 맞서며 거의 변동 없는 현상 유지 상태를 보일 것이다. 정부24와 AI가 단순 서류 발급과 민원 안내 업무를 빠르게 잠식하며 전통적인 창구 직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며, 복잡한 생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대면 행정 수요가 채우게 되어, 전체적으로 일자리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할 것이다.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무인화

‘정부·공공행정전문가’와 달리,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의 일자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 발전이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AI 챗봇 민원 상담 등은 과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창구에서 처리하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류 접수, 단순 안내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는 행정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의 핵심 업무를 줄여, 신규 인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무인화가 확대될수록 단순 반복업무 중심 인력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며 지원을 연결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창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일자리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첨단 기술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더라도, 실제 생활 민원·위기 가구 발굴 등 현장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져, 대면 인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유지된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및 효율화 기조

일반행정공무원(조세, 관세, 병무 제외) 역시 정부의 인력 효율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신규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디지털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인력을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신규 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전체 고용 규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의 다변화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 업무 외에 새로운 형태의 실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련 민원 처리,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갈등 중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처리해야 하는 생활 밀착형 업무이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 수요는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해결하기 어려워, 현장 실무 인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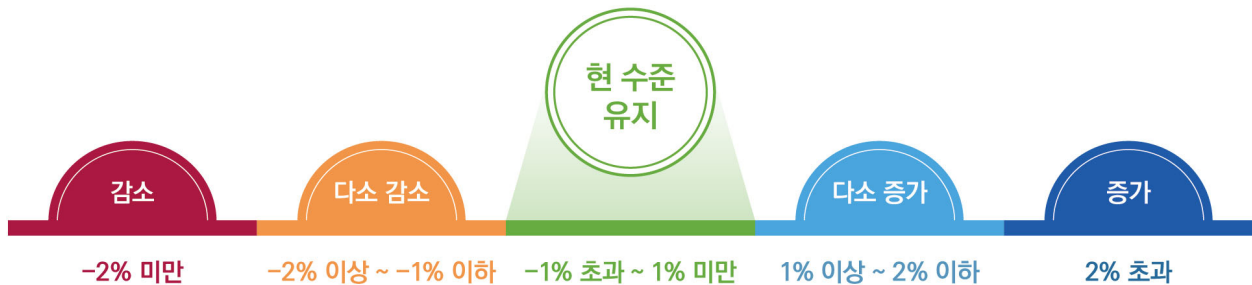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시설관리, 복지 프로그램 운영, 콜센터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공무원 직무 일부가 민간으로 이동하며,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 내 행정직 일자리 증가는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 신규채용 제한, 인력 효율화 정책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생활민원·복지·주민 지원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단순 창구 업무·행정서류 접수 발행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복지·서비스 민간위탁 확대	• 일부 서비스 민간 이전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복지·취약계층 지원 확대	• 정원 동결, 인력 재배치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경영 기획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경영 기획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경영 기획 사무원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 예산 관리, 사업계획 수립, 경영실적 분석과 보고, 경쟁 동향 파악 등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성과 기반 현황 분석, 목표 지표 관리, 부문 협업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략 실현과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실무자로 일한다. 향후 10년간 경영기획 사무원의 일자리는 AI 및 자동화, 아웃소싱 등의 구조적 고용감소 요인과, 데이터 기반 경영 확산·ESG 경영 강화·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실무 수요가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복적 데이터 취합·보고서 작성 업무는 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줄겠지만, 의사결정과 전략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양과 복잡성 증대, ESG 관련 실무 증가 등은 실무자의 역할을 꾸준히 유지시킨다. 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실적 분석과 전략 수립,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영 기획 사무원의 전문성과 적응력을 요구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아웃소싱 경향이 확대되며 신규 채용은 억제되나, 조직 내 전략 실무 수요 역시 일정 수준 유지된다. 결국 미래의 경영 기획 사무원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자동화 도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한 ‘데이터 오퍼레이터’ 및 전략 지원자 역할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기획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I 및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

AI와 BI 툴 도입으로 시장·실적 데이터 수집, 보고서 작성 등 반복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되는 중이다. 대규모 조직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도 정형업무의 필요 인력을 줄이고 있고, 단순 자료 처리와 정리 업무는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업무 효율 향상과 함께 신규 사무 인력 채용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데이터 기반 경영의 보편화

오차 없는 의사결정이 중요시되며, 실적 데이터, 시장·경쟁동향, 각종 경영지표의 수집·가공·분석 실무가 더욱 확대된다. 기획 사무원의 데이터 관리·분석 역량은 전략 실행에 직접 연결되며, AI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료·정보 활용 및 경영지원 역할은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잦은 계획 수정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시장 변동 등으로 인해 경영계획의 주기가 짧아지고, 월간·주간 단위의 실적 분석 및 시나리오 답안 작성 업무가 상시화되는 중이다. 실제로 실적데이터 업데이트, 신속 보고서 작성, 빠른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반복적인 데이터 분석과 문서 작성 업무가 지속된다.

ESG 경영의 확산과 새로운 실무 수요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 트렌드의 전면 확산은 탄소배출, 사회공헌, 지배구조 데이터의 관리 및 공시 등 신규 실무 영역을 확대한다. ESG 관련 지표 공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업무가 전담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관련 규제·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무자 수요가 완만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기획 업무의 아웃소싱 및 컨설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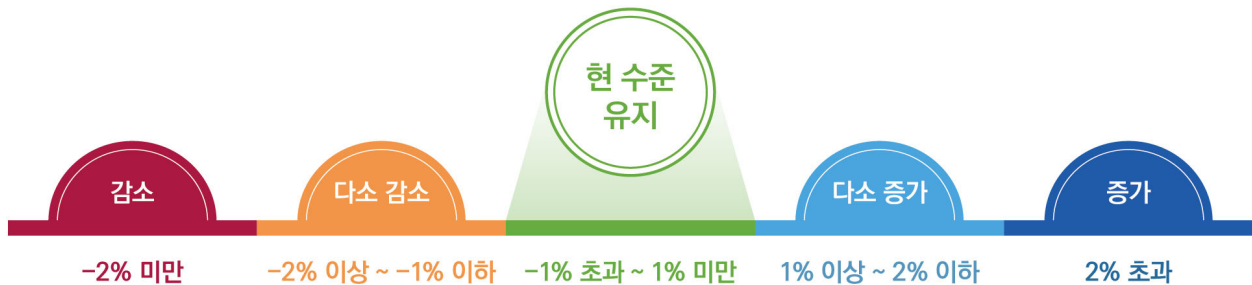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은 사내 정규직 기획보다는 컨설팅펌, 리서치기관 등 외부 전문가에 전략 수립과 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아웃소싱 확산으로 경영 기획 사무원의 직접 채용 규모가 제한되며, 일자리 증가가 억제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기반 업무 확장	• AI 및 자동화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 불확실성 대응 업무 증가	• 비용절감·저인원 조직 강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신사업·융합 분야 실무 증가	• 컨설팅 아웃소싱 • 인력 운영 효율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복합 데이터 업무·실적보고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 환경·에너지 실무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ESG·사회공헌 지표 관리 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은 기업과 기관에서 광고·홍보 캠페인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시장 및 소비 트렌드 조사, 브랜드 관리, 예산 집행, 각종 온·오프라인 콘텐츠 및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PR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소비자 인지 확대와 매출 증대,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활용한 전술 실행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향후 10년간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의 일자리는 AI·자동화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마케팅 활성화 같은 고용감소 요인과, 디지털마케팅 성장, 소비맞춤형 홍보 수요, 콘텐츠 시장 다양화 같은 고용유지·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현 수준 유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동화와 AI로 인해 단순 보고서/자료 작성 등 반복적 업무의 인력 수요는 줄지만, 디지털·SNS 중심의 시장 변화, 브랜드 전략의 다변화, 소비자 데이터 분석, 지역 행사·공공 마케팅 등은 전문 실무자의 역할을 계속 유지시킨다. 경기침체·기업 구조조정 시 일시적 고용 축소가 가능하나, 마케팅·브랜딩 경쟁 강화, 국제행사·공공 캠페인 확대 등으로 전체 인력 수요는 최소한 유지될 것이다. 미래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은 데이터·AI 기반 마케팅 도구를 적극 활용하며,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리딩하는 실무 기획자·콘텐츠 전문가로 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AI 기반 업무 확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플랫폼의 확산으로 데이터 분석·캠페인 모니터링, 반복적 자료 작성 등 단순/정형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직무의 기술적 변화가 실제 인력 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정부 공식 보고서 및 디지털광고 시장 전략에 따르면, AI가 광고성과 분석·소비자 행동 예측 등에는 자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기획·플랫폼 전략 설계 등은 전문 실무자의 가치가 유지된다.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 확장

TV·OTT·SNS·검색·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마케팅 플랫폼이 확산되며, 광고·홍보사무원의 활동영역 및 실무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소비자 분석, 멀티채널 기획 및 시장별 맞춤형 콘텐츠 생산 등은 마케팅 실무자가 계속 필요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광고 시장은 소비 트렌드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업종, 경쟁이 심한 업종 중심으로 콘텐츠와 집행 규모가 다양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광고·홍보·마케팅 조직은 경영위기·예산삭감·사업 구조전환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침체 시 공공/민간 광고 캠페인, 인력 수요 일시적 축소가 나타난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예산 확대와 사업 회복기엔 인력이 빠르게 재확대되는 회복성을 보인다.

콘텐츠 다변화 및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트렌드

브랜드와 소비자 접점에서 빅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맞춤형 캠페인, 실시간 피드백 등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이 강조되며, 전문 실무자 수요가 유지/증가한다. 소비자 특성별 광고 콘텐츠 기획, 지역 맞춤형 캠페인 등은 자동화로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다.

공공기관·국제행사·지역사회 커뮤니티 마케팅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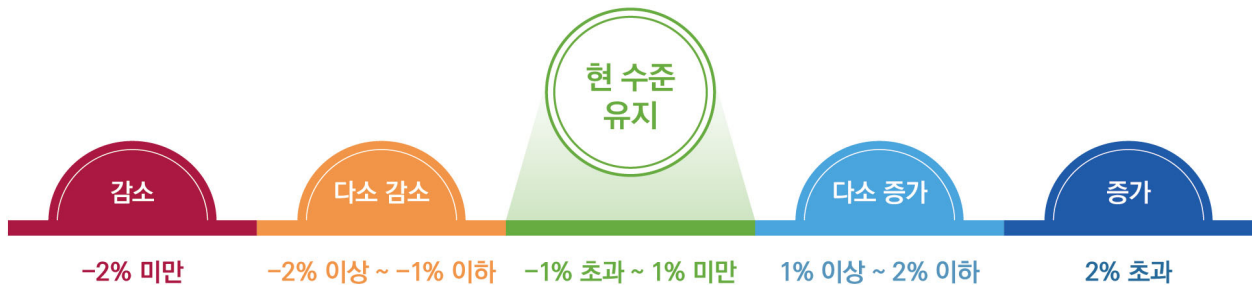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국제행사·선거·공공 캠페인·지역 이슈 등은 광고·홍보·마케팅 실무자의 현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 정책 및 지역사회 협업, 공공 브랜딩 등은 자동화/외주화가 어려워 실무자 인력의 필요성이 지속되는 분야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온라인 소비자 성장, 플랫폼 확장	
과학기술의 발전	• AI·플랫폼 활용, 콘텐츠 자동화	• 반복 업무 자동화 확대
국내외 경기 변화	• 지역사회 캠페인, 국제행사 확대	• 예산 축소, 광고 중단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소비자 맞춤·인터랙티브 마케팅 강화	• 민간 대형·외부업체 활용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복합 미디어 마케팅·플랫폼 관리	
환경과 에너지·자원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사회 정책 홍보, 환경 캠페인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공공기관 마케팅, 브랜딩 캠페인	• 구조조정, 예산삭감 정책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은 기업, 유통업체, 서비스기관 등에서 영업전략 수립, 영업현황 및 실적 데이터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 관리, 각종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부서 간 정보 연계 및 보고서 작성, 고객자료 관리 등 실무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팀과 경영진 사이에서 실적 관리·데이터 분석·프로세스 개선 등 핵심 운영을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은 CRM 및 SFA(영업 자동화) 솔루션의 고도화에 따라 과거의 수작업 지원은 빠르게 자동화되어 신규 사무원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한편, 온라인·디지털 판매 채널의 폭발적 성장으로 주문·고객관리 등 실무 수요가 오히려 유지·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데이터 기반 영업 전략을 위해 CRM 데이터를 정제·분석·보고하는 지원 직무를 신규로 강화하며, 고객 경험(CX) 관리가 조직 경쟁력 요소로 등장하면서 계약·주문·교환·납기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실무 행정의 세밀함이 요구된다. 인사이드 세일즈의 부상은 외부 영업 비중을 줄이지만, 내부 사무지원의 전문화를 새롭게 확대하는 경향도 있다. 경기·외주·업종 변화에 따라 단기적 인력 축소나 분업적 변화는 있으나,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 신속한 현장지원 등 특수역량 요구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기획·관리·지원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RM(고객관계관리) 및 SFA(영업 자동화) 솔루션의 고도화

세일즈포스 등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및 SFA(Sales Force Automation) 솔루션 도입으로 고객 정보 관리, 영업활동 기록, 실적보고서 생성, 잠재고객 관리가 자동화된다. 영업사원 스스로 데이터를 입력·관리함에 따라 중간 단계 행정지원 인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온라인·디지털 판매 채널의 폭발적 성장

이커머스, 소셜/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채널이 확대되며 주문, 재고, 고객 문의, 배송정보 등 운영 실무의 절대량이 급증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한계가 있어, 대량 온라인 거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 사무원 수요가 꾸준히 유지된다.

데이터 기반 영업전략의 확산과 지원 역할

모든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면서 현장 영업사원이 쓸 수 있도록 고객 데이터를 관리·분류하고, 영업활동 데이터를 정제·가공하는 사무 지원 역할이 중시된다. CRM에 쌓인 정보 준비, 영업회의 실적자료 등은 여전히 사무원의 고유 역할이며, 분석 실무의 기초를 담당한다.

고객 경험(CX) 관리의 중요성 증대

단순 판매에서 나아가 계약·주문·반품·교환 등 전 과정에서 고객 경험(CX, Customer Experience) 관리가 중요해졌고, 서비스·납기·클레임 등 영업 행정 지원의 신속·정확성이 실무자 필요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이드 세일즈(Inside Sales)의 부상과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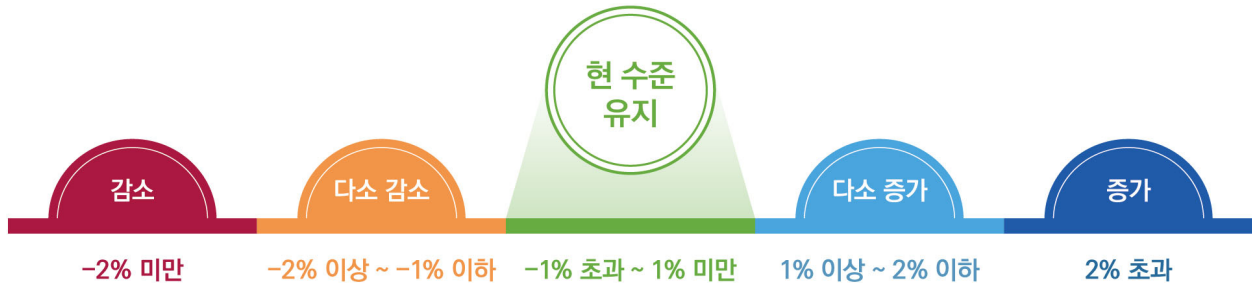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비대면 영업 방식의 확산으로 잠재고객 리스트 관리, 온라인 미팅 준비 등 사무지원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다. 전통적 지원 일부는 줄지만 인사이드 세일즈의 확대는 새로운 지원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CX 중심 업무, 개인화 영업 트렌드	• 영업 자동화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CRM/SFA, 데이터 기반 실무 확대	• 반복 실적관리, 데이터 입력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신규 채널·사업 확장	• 외주·구조조정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인사이드 세일즈·복합 프로젝트 강화	• 외부업체 활용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유통채널 관리 규정, 성과관리 강화	• 구조조정, 감축정책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인사·교육·훈련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증장 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인사 및 교육·훈련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인사·교육·훈련사무원은 인적자원전문가가 수립한 정책과 전략을 현장에서 운영·실행하는 실무 중심의 직업이다. 이들은 채용 공고 게시, 면접 일정 조율, 급여 및 복리후생 처리, 교육 훈련 준비 등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인사·교육·훈련사무원의 고용 전망은 상반된 두 힘이 팽팽하게 맞물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HR 테크 기술이 급여, 근태, 채용 등 전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며 전체적인 인력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잦은 이직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 복잡해진 고용 환경은 끊임없는 행정 실무 수요를 낳고 있으며, 인재 유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심한 온보딩과 같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지원 업무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줄이는 만큼,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또 다른 실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전체 고용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교육·훈련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HR 테크 발달과 행정 업무의 자동화

인사관리 시스템(HRIS), 급여 자동화 솔루션 등 HR 테크의 발전은 인사 사무원의 고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급여 계산, 4대 보험 처리, 연말정산, 근태 기록 관리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의 신규 채용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전체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채용 과정의 시스템화

과거 인사 사무원의 주요 업무였던 지원서 접수, 서류 검토, 면접 일정 조율 등 채용의 초기 단계가 채용 관리

시스템(ATS)을 통해 자동화되고 있다. AI가 지원서를 사전 스크리닝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면접 시간을 조율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행정 업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채용 실무를 지원하는 사무원의 역할을 축소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훈련 운영 방식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훈련 사무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장소 섭외, 자료 준비, 참석자 관리 등의 업무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대신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 지원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실무 행정의 복잡화

MZ세대의 유입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채용과 인력 재배치에 따르는 행정 실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 4.5일제,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처럼 고용 형태와 제도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운영하는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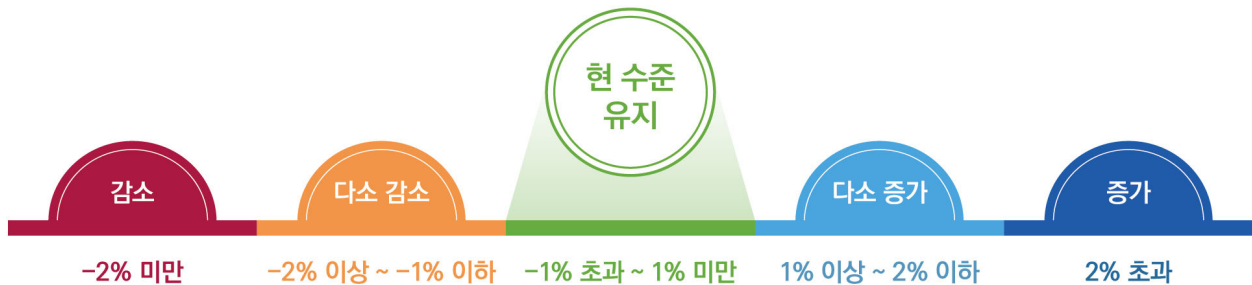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행정 지원 수요

인재 확보와 유지가 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자동화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실무 지원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특히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를 막고 조직에 정착시키는 ‘온보딩 프로그램’의 세심한 운영, 동료와의 네트워킹 주선, 개인적인 고충 상담의 1차 창구 역할 등은 시스템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처럼 사람의 온기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 사무원의 역할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긍정적인 직원 경험(EX) 중시, 유연근무제 등 제도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HR 테크 발달로 급여·근태·채용 등 핵심 실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체계적인 온보딩, 복리후생 운영 등 행정 지원 수요 유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잦은 이직, 비정규직 확대에 의한 계약 관리 등 실무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육아휴직 등 복잡한 노무·복리후생 행정 수요	
기타 요인		•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전통적 교육 지원 업무 감소

총무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총무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총무 사무원은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문서 및 기록 관리, 자산·비품·사무실 환경 유지, 복리후생·예산 및 행사 운영, 대외 연락, 근무환경 개선, 내부 의사소통 등 조직 내 사무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조직 내 경영진과 실무자, 현장·행정 간 연결고리로서 기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운영·지원 역할을 맡는다. 향후 10년간 총무 사무원의 일자리는 ERP, AI 등 행정 자동화 고도화 및 외주·아웃소싱, 근무형태 변화(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공유오피스 활용 증가) 등 구조적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완만한 감소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복적·기초 업무는 자동화나 외주로 대체되며, 하이브리드·재택근무 확산으로 고정 사무실 관리, 공간·비품 관련 현장업무 자체가 감축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반면, 현장 대면 지원, 복리후생·위기대응, 조직 소통·행사 관리 등은 여전히 자동화로 대체되지 않아 고용 감소 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구조조정, 분업 및 역할 복합화, 인력 효율화 전략이 보편화되어 약보합 또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나,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정책·보안·안전·대면 서비스 등 실무 주요 영역이 유지된다. 미래 총무 사무원에게는 행정자동화·ICT 활용력, 유연한 현장 대응력, 다기능·융합형 실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RP·행정 자동화 시스템의 고도화

총무 사무원의 고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사무비품 구매·재고 관리, 법인 차량 운행일지 관리, 부동산 등 고정자산 관리, 각종 비용 처리 등의 업무가 ERP(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s Process Automation)를 통해 대부분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므로, 전통적인 총무 행정 인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확산과 공유 오피스 활용 증가

재택·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며 고정 사무공간과 시설, 비품 관리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기업은 자사 공간 대신 공유오피스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공간·시설 관리 역할 상당 부분이 외부 오피스 운영사로 이동해 기업 내부 총무 사무원의 직접적 역할과 고용은 축소된다.

■ 외주·아웃소싱 서비스 및 비용절감 정책 확대

비핵심 분야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안전·환경관리, 사무실 관리·행사 대행 등은 외부전문가·용역에 이전되는 비중이 커져 일자리 감소 압력을 높인다. 경쟁력 강화와 비용 효율화 목적의 구조조정이 보편화되며, 총무직군의 일부 직무도 외부로 이전되는 흐름이다.

■ 복리후생·현장 대면지원·안전·조직 소통관리의 불가결성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사내 행사 등은 대면·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요해 자동화·외주화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으며 업종별, 기관 내 실질적 유지 수요를 만든다. 현장 소통·민원·안전관리 등도 총무 사무원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 공공기관·대기업 중심 현장관리 및 정책대응, 융합 직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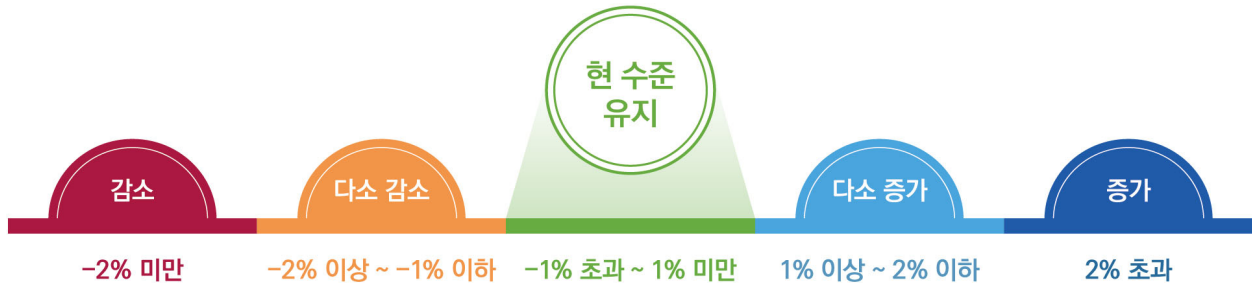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는 현장관리·정책대응·보안·민원 등 복합 행정지원 필요성이 유지되며, 최근엔 이직·타 기능과의 융합, 복합직무화가 두드러진다. 일부에서 고용 유지와 역할 재편이 동시에 일어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재택·유연근무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ERP 등 자동화 시스템 활용 • 반복 업무 자동화·전산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조직 운영 유연성, 복합직무화	• 외주화·구조조정 확대
환경과 에너지·자원	• 안전·환경 관리 및 정책 대응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보안·민원관리, 복리후생 지원 강화	• 정규직 축소·외주화 정책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감사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감사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감사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감사 사무원은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업무·IT 등 내부감사, 준법감시, 증빙자료 점검, 감사 결과 보고, 규정 위반 모니터링, 정책 및 ESG 관련 감사 등 조직의 윤리경영과 건전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증빙 확인, 위반 사례 점검, 정책·ESG·리스크관리 등 각종 현장 및 기록 감사를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점검과 현장업무를 병행한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에 가장 큰 감소 요인은 AI 기반 자동화 감사 시스템 도입과 반복감사 업무의 자동화, 외부감사 및 아웃소싱 확대, 그리고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정착에 따른 구조적 업무 축소이다. 이러한 변화로 반복적·정형화된 감사 업무는 빠르게 대체되어 신규 감사 사무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축소된다. 반면, 정부와 기업의 준법경영, 데이터 기반 내부통제, ESG·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대면·현장·특수감사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감소 폭을 제한하는 유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공공/금융/특수 업종에서는 현장 대면 감사, 위기·정책 대응 실무 등이 꾸준히 유지되며, 직무 변화 과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 있는 인력 수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복합직무화, 외주화 정책에 따른 일부 업무 축소 및 역할 변화가 동반되나, 데이터 분석력과 윤리의식·위기대응력 등 특수역량을 갖춘 감사 사무원은 조직 내 필수 인력으로 남을 전망이다.

감사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I·자동화 및 디지털 감사 플랫폼 도입

AI·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감사 시스템의 도입은 반복적 증빙 점검, 트랜잭션 검증, 보고 업무 등 심플한 감사 실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는 신규 인력 채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가장 큰 구조적 감소 요인으로, 향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기업·공공기관 모두 내부통제·감사 업무의 상당 비중이 자동화로 바뀌고 있다.

외부 감사·아웃소싱 및 효율화 정책 확대

경영 효율성 및 비용 절감 기조에 따라 일부 감사 실무가 외부 감사기관, 회계법인에 위탁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화와 함께 고용 감소를 가속화하는 정책적 변화로, 기존 내부감사 중심의 인력구조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감사 사무원의 직접 고용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에 따른 감사 업무 축소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확대에 따라 현장감사와 대면실무의 역할이 줄고, 원격 자료 점검과 비대면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가 비중을 늘린다. 이러한 전환은 사무직의 실질적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직무구조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주요 감소 요인이다.

준법경영·ESG·내부통제 및 특수 현장감사 수요

조직의 준법경영과 ESG·내부통제 정책 강화는 자동화로 대체되지 않는 복합적·현장형 감사 업무의 수요를 꾸준히 창출한다. 리스크관리와 정책 대응, 대면 점검이 요구되는 현장 실무에서 감사 사무원의 필요성이 유지되고, 감소 폭을 제한하는 주요 유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공·금융기관, 특수 업종에서의 대면·정책 감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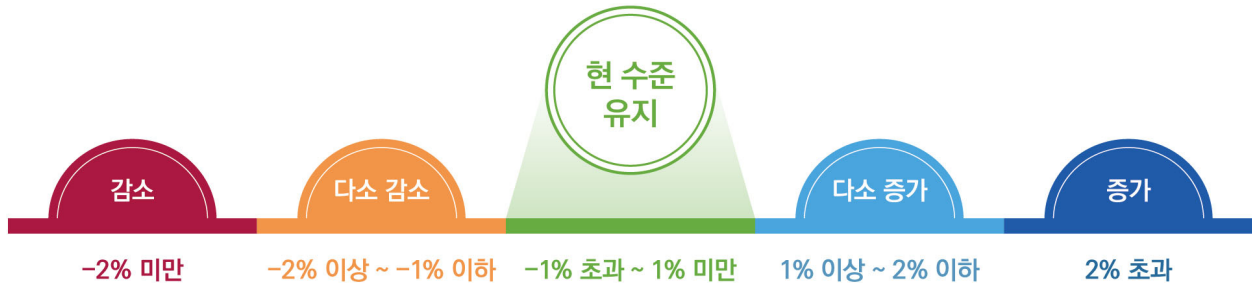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공공기관 및 금융·특수 업종에서는 대면 정책감사, 위기대응, 재난·리스크관리 등 현장 중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산업별 정책감사 및 특수 상황 대응에서 전문 감사 사무원의 역할과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반복 감사업무 자동화, AI·데이터 기반 감사, 자동화 플랫폼
국내외 경기 변화	• 위기·리스크 관리 강화	• 기업 구조조정·외주화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내부통제·준법경영·ESG 강화	• 외부 감사·아웃소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공공/금융기관 특수 대면감사	• 복합직무화, 겸직 인력 운영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친환경 정책감사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책감사, 내규 강화	• 인력 효율화, 정규직 감축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회계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회계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회계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2%로 예측된다.

회계 사무원은 회계사의 감독 하에 기업의 재무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핵심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전표를 처리하고, 매출·매입 등 거래 내역을 기록하며, 재무제표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급여 및 경비 처리 등 일상적인 회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회계 사무원의 고용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압도적인 효율화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총량 증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에 가까운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 AI 회계 프로그램과 자동화 솔루션은 과거 사무원의 핵심 업무였던 데이터 입력과 전표 처리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위협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의 절대적인 양적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결국 미래의 회계 사무원은 단순한 장부 기록자를 넘어, 자동화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복잡한 거래의 예외를 처리하는 ‘재무 데이터 운영자’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회계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의 보편화

회계 사무원의 고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AI 기술이 접목된 ERP(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회계 프로그램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자동 인식(광학문자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거래 내역 자동 분류, 은행 계좌 연동 및 대사 등 과거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기업의 신규 채용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경제규모 성장과 사업체 수 증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스타트업, 온라인 쇼핑몰 등 신규 사업체가 꾸준히 생겨나면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기업의 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기업당 필요한 회계 인력은 줄어들더라도, 회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규모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 청년층의 기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

세무 신고 기간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단순 회계 사무직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구인난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력 충원 대신 AI 경리 프로그램이나 기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고 있다. 즉,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 기술로 대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이는 해당 직군의 실질적인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 및 기장 대리 아웃소싱 확산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부에 회계 사무원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저렴한 월정액 기반의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회계법인에 기장 대리 자체를 위탁(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 인건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러한 아웃소싱 트렌드는 기업 내부의 회계 사무원 채용 수요를 외부 시장으로 이전시켜,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 금융 거래의 다변화와 관리의 복잡성

온라인 결제, 해외 거래, 정부 지원금, 각종페이 서비스 등 기업의 금융 거래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자동화 시스템이 대부분의 거래를 처리하더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항목을 찾아내고, 복잡한 비정형 거래를 올바르게 기록하며, 각종 금융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사람의 세심한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회계 사무원의 역할이 단순 입력에서 ‘데이터 검증 및 관리’로 전환되며, 고용이 유지되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 강화되는 투명성 요구와 내부 통제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재무 기록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모든 거래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내부 통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필수적인 업무로, 회계 사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게 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청년층의 3D 기피 및 구인난 심화
과학기술의 발전		• AI 회계 S/W 및 ERP 보편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제규모 성장 및 사업체 수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회계 투명성 및 내부 통제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아웃소싱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금융 거래 다변화(페이, 해외결제 등)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경리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경리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경리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1%로 예측된다.

경리 사무원은 기업의 돈의 흐름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일일 현금 출납 관리,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정리, 기초적인 경비 정산,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주로 일상적인 자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경리 사무원의 고용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압도적인 효율화와 경제 생태계의 양적 팽창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 AI 기반의 경비 처리 및 간편 장부 솔루션이 경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며 필요한 인력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수십만 개씩 생겨나는 신규 사업체들이 최소한의 재무 관리를 필요로 하면서 꾸준한 수요의 저변을 만들어내고,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를 검증하는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기에 급격한 감소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리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 처리 및 소액결제 자동화 솔루션의 확산

경리 사무원의 일자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 연동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영수증을 촬영하면 AI가 자동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솔루션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경리 사무원의 핵심 업무였던 '풀칠하고 영수증 붙이는' 일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 처리 자동화는 경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줄여, 고용 감소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다.

클라우드 회계 및 소상공인용 간편 장부 확산

과거에는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경리 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클라우드 기반의 간편 회계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었다. 은행 및 카드사와 연동되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사장이나 다른 직원이 기본적인 경리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경리 인력의 주요 수요처였던 소규모 기업에서의 채용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사업체 수 증가에 따른 기초 수요 유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고 완만한 감소에 그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신규 사업체가 꾸준히 생겨나면서, 아무리 자동화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기본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성은 유지된다. 자동화로 인해 기업당 필요한 경리 인력은 줄어들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 자동화 시스템의 검증 및 비정형 거래 처리

모든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정부 지원금 수령, 특수한 형태의 할인 적용, 해외 거래 등 자동화 시스템이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거래는 여전히 발생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책임지는 역할은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는 경리 사무원의 역할이 단순 입력에서 ‘시스템 검증 및 예외 관리’로 전환되며, 고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타 직무로의 역할 흡수 및 통합(Job to Ta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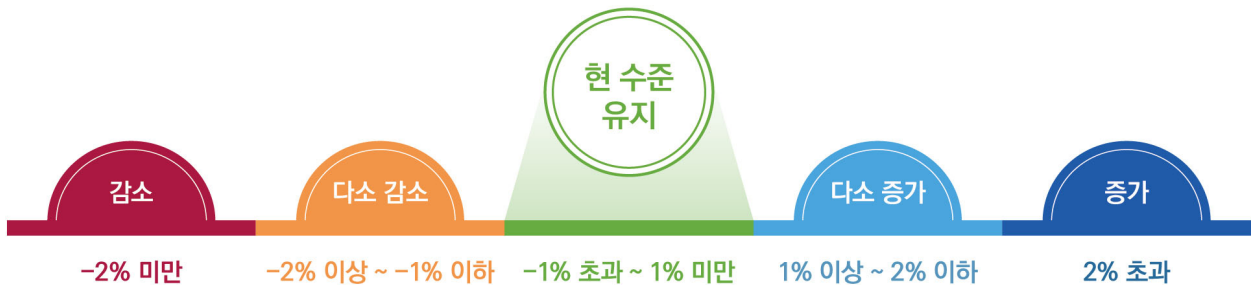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경리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경리 사무원’이라는 독립적인 직업(Job)보다는 일반 사무직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업무(Task)로 통합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총무 사무원이 기본적인 경리 업무를 겸하거나, 비서가 대표의 경비 정산을 돕는 식이다. 즉, 회계 프로그램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경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이 이를 겸임하는 ‘직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전담 경리 사무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자동화 시스템 검증 및 비정형 거래 처리 필요	• 경비 처리 자동화, 간편 회계 프로그램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직무 통합(Job to Task)에 따른 전담 인력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신규 창업 등 사업체 수 증가	• 비대면·전자 결제 보편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무역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무역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무역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무역 사무원은 수출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관리하고 통관 및 물류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수출입 신용장(L/C)이나 계약서 등 무역 서류를 처리하고, 선적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며, 운송 및 보험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무역 사무원의 고용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강력한 자동화 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라는 상반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무역 자동화 시스템과 AI가 단순 서류 작성과 데이터 입력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잡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무역 사무원은 단순 서류 전달자를 넘어, 자동화된 무역 플랫폼을 관리하고 복잡한 통관 이슈를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 오퍼레이터’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역 행정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무역 사무원의 일자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무역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AI 기술이 신용장(L/C) 등 표준화된 무역 서류를 자동으로 분석·생성하면서 과거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가 크게 줄었다. 이는 한 명의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무역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단순 서류 처리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확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무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 직구(수입) 물량의 폭증은 이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물류·포워딩 기업의 통관 및 서류 관리 업무를 증대시킨다. 또한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 수출이 급증하면서, 다품종 소량의 수출 건을 처리할 사무원의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B2C 거래의 폭증은 무역 실무의 총량을 늘려 고용 감소를 막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무역 환경의 복잡화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원산지 판정 기준이 협정마다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실무가 중요해졌다. 시스템이 기본적인 판정을 돕더라도, 최종적인 서류 준비와 검토, 사후 검증 대응 등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역 환경의 복잡성은 단순 업무는 줄어든 반면, 전문성을 갖춘 실무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공급망 관리(SCM)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송 과정을 최적화하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적 일정을 조율하고, 운송 상황을 추적하며, 재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물류 흐름 전반을 지원하는 무역 사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서류 업무 외에, 물류 관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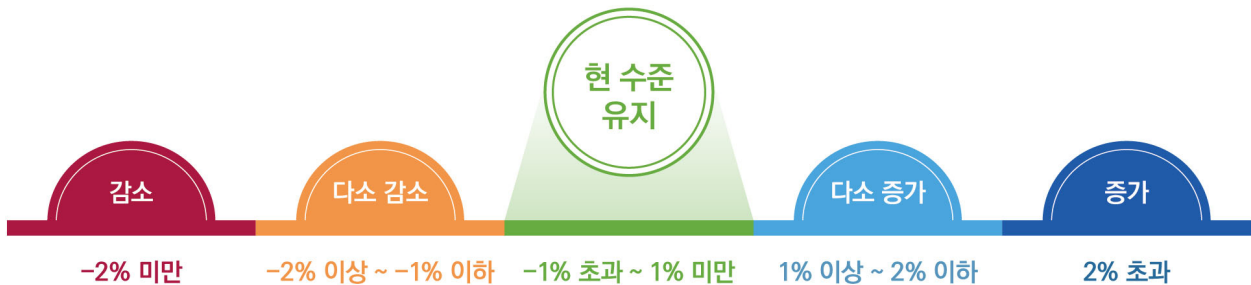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기업의 무역 업무 아웃소싱 증가

무역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무역 실무를 포워딩 업체나 관세법인 등 전문 서비스 기업에 위탁(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 인건비 부담 없이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러한 아웃소싱 트렌드는 기업 내부의 무역 사무원 채용 수요를 외부 전문 서비스 시장으로 이전시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무역 행정 자동화, AI 기반 서류 처리
국내외 경기 변화	• 글로벌 교역량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공급망 관리(SCM) 중요성 증대	• 무역 업무의 외부 위탁(아웃소싱)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운송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은 버스, 화물차, 열차, 지하철 등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핵심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운행 스케줄 관리, 화물 및 승객 관련 서류 처리, 운송 비용 정산, 배차 관리 등 운송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움직일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물류 분야(도로 운송)의 실무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한편, 무인·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여객 분야(철도운송)의 대면 서비스 인력은 감소하는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서로를 상쇄한 결과가 '현 수준 유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미래의 운송 사무원은 두 분야의 상이한 변화 속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운송 오퍼레이터'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성장과 생활물류 급증(도로운송 분야)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 쿠팡머스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처리해야 할 택배 및 화물의 절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는 도로운송 사무원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급증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배송 주문 접수, 운송장 관리, 재고 확인 등 기초적인 운영 실무의 총량이 함께 증가했다. 이는 물류센터나 운송업체에서 사무 인력의 수요를 꾸준히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 무인·자동화 기술 도입과 대면 서비스 축소(철도운송 분야)

철도·지하철역의 무인 발권기(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코레일톡 등)의 보편화는 철도운송 사무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과거 창구의 핵심 업무였던 승차권 발매 및 예매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되면서, 매표 창구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감소했다. 버스 터미널 역시 무인 발권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여객운송 분야의 대면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은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대중교통망 확대와 신규 여객 수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되고, KTX 및 SRT 등 고속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여객 운송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새로운 노선과 역사가 생겨남에 따라, 열차 운행 스케줄을 관리하고, 승무원의 근무 편성을 지원하며,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실무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철도운송 분야의 인력 감소를 일부 상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 스마트 물류 확산과 운송 업무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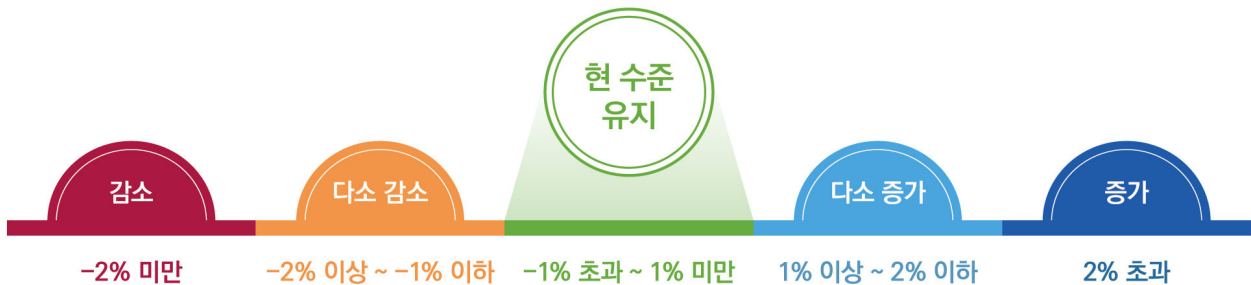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도로운송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원의 증가 폭이 제한적인 이유는 스마트 물류 기술의 확산 때문이다. 과거 사람이 하던 화물차 배차, 최적 운송경로 설정, 실시간 운행 관리 등의 업무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관제 시스템(FMS, Fleet Management System)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운송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므로, 도로운송 분야의 고용 증가를 일정 수준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관제·배차 시스템 도입, 무인 발권 시스템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물류량 급증, 대중 교통망(GTX 등)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운송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은 여객 및 화물의 해상·항공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약, 발권, 화물 접수, 운송 서류 관리 등 제반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 직업군에는 항공사 지상직, 선박회사 및 해운대리점의 사무원 등이 포함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수상운송 부문과 항공운송 부문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항공운송 부문은 엔데믹 이후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해상운송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해상 물동량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수요 측면으로 볼 때에는 분명 증가 요인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나, 셀프 체크인 등 급진적인 무인화 기술이 증가 요인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현 수준 유지'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운송 사무원은 기존의 단순 발권 및 서류 처리 업무에서 벗어나,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운송 오퍼레이터'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엔데믹 이후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 폭증

항공운송 사무원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공 여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항공 화물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운송량의 절대적인 증가는 예약, 발권, 수하물 처리, 화물 접수 등 관련 실무의 총량을 늘려, 공항 지상직을 중심으로 한 사무 인력의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 항공 서비스의 급진적인 무인화 및 자동화

항공 분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대부분의 승객이 모바일

앱으로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공항의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통해 셀프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을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AI 챗봇은 단순 문의에 24시간 응대하며 안내 데스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항공사 카운터 사무원의 핵심 업무가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단위 운송량당 필요한 인력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안정적인 해상 교역량과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무 수요를 발생시킨다. 선적 서류(B/L) 관리, 수출입 통관 지원, 선박 스케줄 관리 등은 필수적인 업무이다. 다만, 최근에는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물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항만 운영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항만’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부 서류 작업 및 정보 입력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항공 분야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수상운송 사무원의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 저비용 항공사(LCC)의 성장과 국제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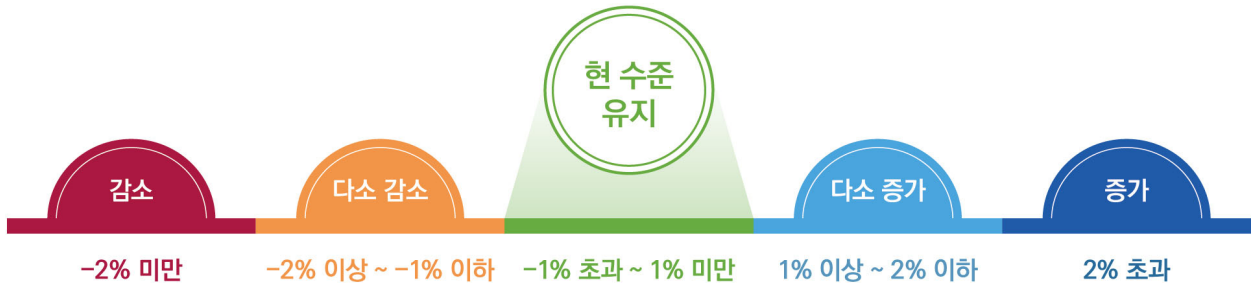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저비용 항공사(LCC, Low-cost carrier)들이 공격적으로 중·장거리 국제선을 확대하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 하면서 항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항공 운송량을 늘리는 동시에, 각 항공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상직 및 사무 인력을 유지·채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항공 서비스 무인화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급증	
과학기술의 발전		• 셀프 체크인, AI 챗봇 등 항공 서비스 무인화,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량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저비용 항공사(LCC)의 공격적 노선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자재관리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은 생산, 유통, 판매에 필요한 원자재, 상품 등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자재 수급 계획에 따른 구매 및 재고 관리, 물류센터의 입출고 및 보관 관리, 운송 데이터 관리 등을 포괄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자재·구매 사무원과 물류 사무원이 다른 양상을 띠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로 표현되는 제조업의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자재·구매 사무원’의 역할은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반면에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물류 사무원’의 수요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사무원의 역할은 단순 발주 및 재고 기록자를 넘어,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망 데이터를 관리하는 ‘물류 데이터 오퍼레이터’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자재관리 사무원(물류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RP 및 SCM 시스템 고도화(자재·구매 분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재·구매 사무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및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재고 파악, 발주서 작성, 납기일 관리 등의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되었다. AI는 수요 예측을 통해 최적의 재고 수준과 발주 시점을 제안하기까지 한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자재 관리가 가능하게 하므로, 전통적인 구매·자재 관리 인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킨다.

이커머스 성장과 풀필먼트 물류 확산(물류 분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 등 이커머스 시장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품을 보관·포장·배송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의 중요성이 커졌다. 최첨단 로봇이 상품을 이동시키는 등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이 거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주문을 확인하고, 재고를 실사하며, 반품을 처리하고, 입출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운영 지원 사무원의 절대적인 필요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용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화와 리스크 관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고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정 지역의 생산 차질이나 물류 대란이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대체 공급선을 파악하는 등의 실무 지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는 단순 구매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사무원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3자 물류(3PL) 등 물류 아웃소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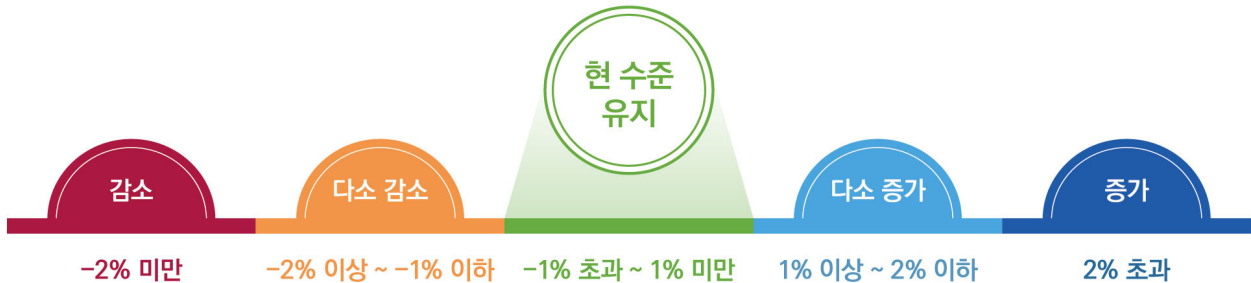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많은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이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물류 전문 기업에 보관, 재고 관리, 배송 등 물류 업무 전체를 위탁(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자재·물류 사무원 채용 수요를 외부의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기업의 고용은 늘어나는 등 고용 주체의 이동이 발생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급증	
과학기술의 발전		• ERP, SCM 등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물류 로봇·스마트물류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대	• 물류 업무의 외부 위탁(3PL)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른 풀필먼트 물류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0%로 예측된다.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은 제조 현장에서 생산 활동이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생산 계획에 따른 작업 일정 관리, 자재 투입 및 실적 데이터 집계(생산관리), 그리고 제품 검사, 품질 데이터 기록, 인증 관리(품질관리) 등을 포괄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0.0%라는 수치는 시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생산관리 사무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흐름을, 강화되는 품질 규제와 소비자 눈높이로 인해 ‘품질관리 사무원’의 수요가 거의 완벽하게 상쇄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미래의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은 단순 생산량 기록자를 넘어,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의 품질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 데이터 운영자’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생산관리 자동화

생산관리 사무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과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고도화되면서, 과거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생산 일정 수립, 자재 소요량 계산, 생산 실적 집계 등의 업무가 실시간으로 자동화되고 있다. AI는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고 최적의 생산 스케줄을 자동으로 제안하기까지 한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산 공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므로, 전통적인 생산관리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킨다.

강화되는 품질 기준과 소비자 안전 의식

품질관리 사무원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식품,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다. 이는 완제품 검사, 부품 수입 검사, 공정별 품질 데이터 기록, 각종 품질 인증(ISO 등) 서류 관리, 고객 클레임 대응 등 품질관리 실무의 총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업무는 자동화된 검사 장비가 있더라도 최종적인 기록과 관리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품질관리 사무원의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ESG 경영과 공급망 전체의 품질 이력 관리

과거에는 최종 제품의 품질만 중요했지만, 이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제품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공급망 전체의 이력을 추적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협력사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관리하며, 탄소배출량 등 환경 관련 생산 데이터를 기록하는 새로운 실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 사무원의 업무 영역을 기존의 생산 현장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장시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ERP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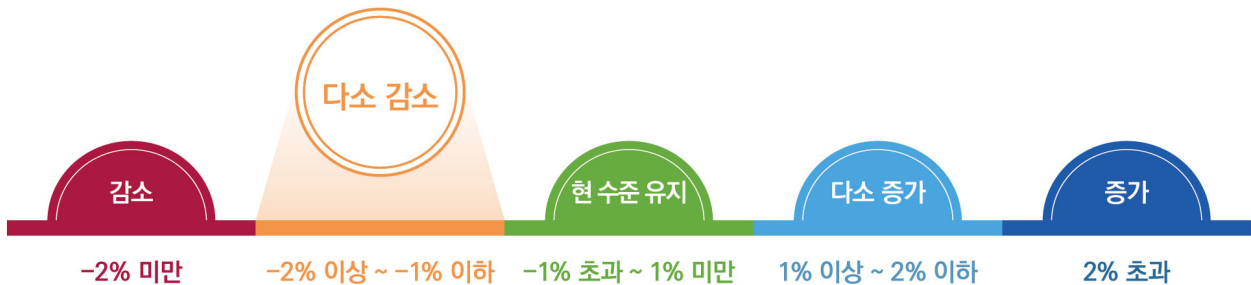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ERP나 MES와 같은 생산관리 솔루션이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저렴한 구독형 서비스로 출시되면서 중소 제조기업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생산관리 사무원의 전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장기적으로 생산관리 사무원의 전반적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소비자 안전 의식 및 품질 민감도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스마트 팩토리, MES, ERP 등 생산관리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공급망 품질 이력 관리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으로 중소기업 업무 자동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안전 규제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안내·접수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안내·접수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1%로 예측된다.

안내·접수원은 병원, 호텔,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의 입구에서 방문객을 응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약 및 접수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조직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면 서비스 직무를 수행한다. 향후 10년간 안내·접수원의 고용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키오스크(무인단말기)와 모바일 앱이 단순 예약·접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AI 챗봇이 24시간 문의에 응대하면서 전통적인 안내·접수원의 핵심 역할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감성적인 소통이 필요한 고급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에, 급격한 소멸보다는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안내·접수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의 전면적 확산

안내·접수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식당, 영화관 등 유통·서비스 현장은 물론, 병원, 호텔, 공항 등 거의 모든 서비스 현장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예약·접수·결제 that 보편화되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 및 셀프 체크인 역시 일상화되었다. 이는 과거 안내·접수원이 수행하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기술이 완전히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인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AI 챗봇과 자동 응답 시스템의 고도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에 응대하는 업무 역시 AI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기업 웹사이트나 앱에 탑재

된 AI 챗봇은 24시간 내내 대기 시간 없이 고객 문의에 응답하며, 고도화된 자동 응답 시스템(ARS)은 음성 인식을 통해 복잡한 안내까지 수행한다. 이는 콜센터 상담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 문의에 응대하던 접수원의 역할까지 축소시켜,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보편화

과거에는 병원 진료, 숙박, 공연 등을 예약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예약, 야놀자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예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예약 접수 및 확인, 일정 조정을 주 업무로 하던 병원 접수원이나 호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의 전통적인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예약 시스템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은 관련 사무 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고급 서비스 및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면 응대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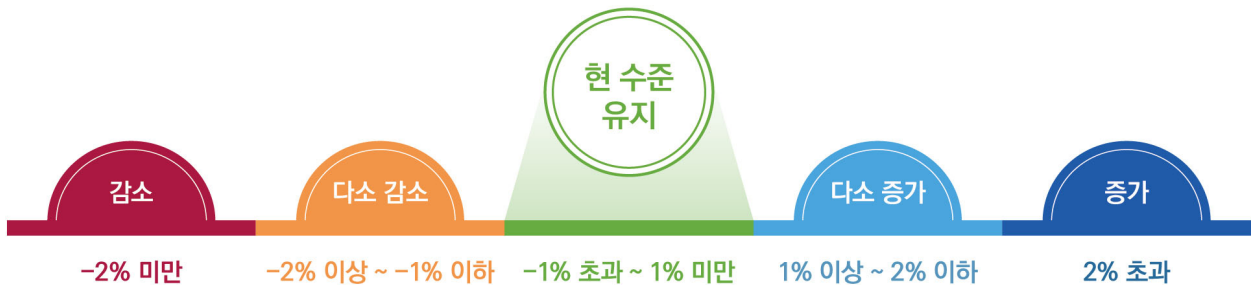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급 호텔, 프리미엄 병원, 대기업 본사 등에서는 조직의 품격과 긍정적인 고객 경험(CX)을 위해 전문적인 응대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복잡한 문제(예: 분실물 처리, 고객의 특별 요청, 긴급 상황 대응)를 처리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 계층을 돕는 역할은 사람의 공감 능력과 판단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로 정보소외계층도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를 둔화시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고급 서비스 및 인간적인 소통 중시	• 비대면 서비스 선호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키오스크, 모바일 앱, AI 챗봇 등 무인·자동화 기술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고객 경험(CX)을 위한 전문적인 대면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 정보소외계층 지원 필요	• 인력 감축 및 비용 효율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보편화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은 구직자와 구인처를 연결하여 인력의 단기 수급을 돕는 현장 중심의 중개인이다. 주요 역할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식당·가사도우미, 청소·경비 용역 등 특정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연결하고 관련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력 전체를 건설팅하는 '인적자원전문가(헤드헌터)'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향후 10년간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와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알바몬, 벼룩시장 등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 구인·구직 시장을 잠식하며 전통적인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돌봄 인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여전히 대면 중개를 선호하는 건설·농어업 분야의 견고한 수요가 그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은 단순 중개인을 넘어, 특정 분야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특화 분야 인력 수급 전문가'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중개 수요 급증

취업알선원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를 위한 간병인, 요양 보호사, 가사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대면 상담과 신원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지역 기반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분야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시장 성장 동력이다.

온라인 플랫폼 및 앱 기반 구인·구직의 보편화

전통적인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위협하는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알바몬, 알바천국 등 대형 플랫폼과 '일가

자'와 같은 일용직 전문 앱이 보편화되면서, 식당 서빙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표준화된 일자리는 구직자와 구인처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과거 직업소개소가 담당했던 단순 중개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여, 관련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 건설·농어업 등 특정 분야의 인력 수급 의존성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나 농번기의 농어촌 인력 등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및 행정 절차 지원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직업소개소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처럼 특정 산업 분야의 견고한 수요는 취업알선원의 고용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현장 인력 외주화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경영 유연성을 위해 청소, 경비, 단순 노무 등 현장 업무를 직접 고용에서 외주(Outsourcing)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이 인력 관리를 전문 업체나 중개소에 위탁하려는 수요는 온라인 플랫폼이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B2B 성격의 시장을 형성한다. 이는 취업알선원이 단순 알선을 넘어 인력 공급 및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유지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 정부의 고용 서비스 민간 위탁 확대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업무를 민간 직업소개소나 취업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에 밀착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취업알선원에게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고, 시장 규모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디지털 소외 계층의 존재 및 대면 상담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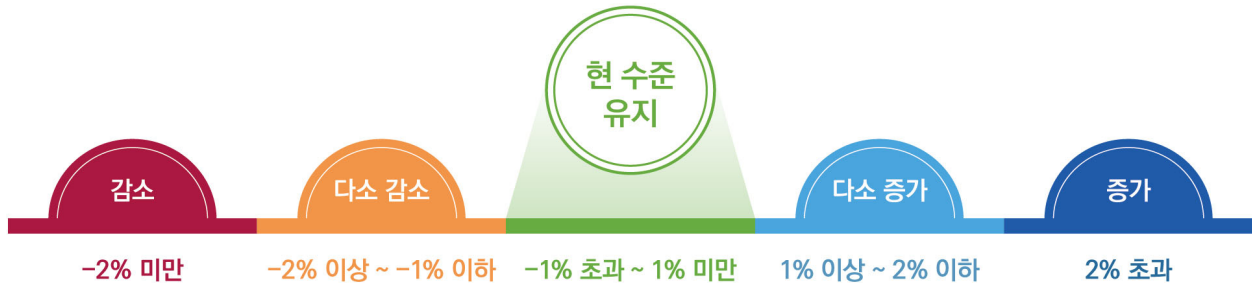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직업소개소의 주요 고객층인 고령층,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은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여전히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자리를 소개받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이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의 존재는, 대면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소개소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간병인 등) 증가 수요 급증,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재취업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앱 기반 비대면 구직 선호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 플랫폼 및 AI 매칭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현장직·일용직 외주화 및 인력 공급 수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건설·농어업 등 특정 분야의 현장 인력 중개 수요, 취업 취약 계층(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서비스 수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서비스 민간 위탁 확대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고객상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고객상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증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1%로 예측된다.

고객상담원은 전화,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문의나 불만을 해결하고,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최전선의 소통 전문가이다. 향후 10년간 고객상담원의 고용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이중적 모습을 보일 것이다. -0.1%라는 수치는 시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대상인 ‘인바운드(In-bound)’ 문의 응대 업무가 AI 챗봇으로 빠르게 대체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한편, 매출과 직결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상담원의 수요가 그 빈자리를 거의 메우는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미래의 고객상담원은 단순 정보 안내원을 넘어,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를 책임지는 ‘고객 관계 전문가’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고객상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I 챗봇을 통한 단순 인바운드 상담의 자동화

고객상담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수익이 되지 않는 단순 문의 응대, 불만 접수 등 ‘인바운드’ 업무는 비용 절감의 최우선 대상이다. AI 기술 기반의 챗봇과 보이스봇은 배송 조회, 요금 안내 등 단순·반복 질문에 24시간 응대하며 이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는 전체 상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담원의 절대적인 수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아웃바운드 영업 및 고부가가치 상담의 중요성 증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보험, 카드사의 상품 판매나 서비스 연장 권유 등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여전히 인간의 설득과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VIP 고객 응대나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불만 처리 등 브랜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인바운드’ 상담 역시 숙련된 인간 상담원의 공감 능력과 감성 지능이 중요하게 유지된다. 이는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셀프 서비스 채널의 확산

과거에는 모든 문의가 콜센터로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고객이 기업 홈페이지의 FAQ(자주 묻는 질문), 사용법 안내 동영상, 사용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채널의 확산은 콜센터로 유입되는 단순 문의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인바운드 상담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고객 경험(CX) 관리 중요성 증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긍정적인 고객 경험(CX, Customer Experience)은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한 명의 숙련된 상담원이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경험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상담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교육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는 숙련된 상담원의 가치를 높여 고용을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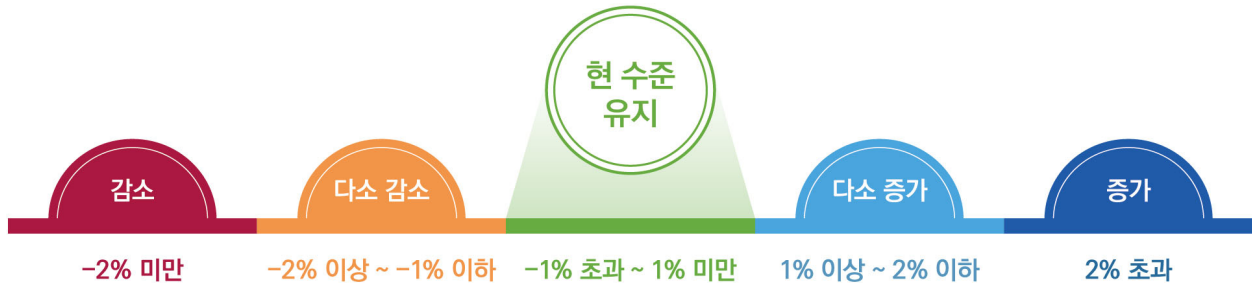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상담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고객과의 상담 내용은 제품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VOC, Voice of Customer)가 된다. AI가 1차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획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은 여전히 상담원의 몫이다. 이는 고객상담원이 단순 응대자를 넘어,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정보 분석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유지되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상담 데이터 분석 및 활용(VOC)	• AI 챗봇·보이스봇 도입으로 단순 인바운드 업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고객 경험(CX) 관리 중요성 증대, 아웃바운드 영업 강화	• 셀프 서비스 채널 도입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복잡·감성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상담원 필요	

의료코디네이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의료코디네이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1%로 예측된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전문직이다. 주요 역할은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과 의료진을 연결하고, 진료 예약, 통역, 숙소 및 관광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의료코디네이터의 고용은 과거의 성장 정체를 지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비대면 상담의 확산 등은 여전히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K-팝, K-드라마를 넘어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이는 과거 성형·미용 중심이었던 의료 관광을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며 고부가가치 시장을 열고 있다. 따라서 ‘현 수준 유지’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저부가가치 시장의 축소와 새로운 전문 시장의 성장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과도기를 의미한다.

의료코디네이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브랜드 부상과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

의료코디네이터 시장에 가장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 가치가 이제 K-바이오, K-의료 분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 과거 성형·피부과에 국한되었던 의료 관광이 암, 중증질환 등 고난도 치료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코디네이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며 전문 코디네이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온라인 플랫폼 및 불법 브로커와의 경쟁 심화

의료코디네이터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기반의 불법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특히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미용·성형 분야의 경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이들 플랫폼 및 브로커에게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다. 이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 요인이다.

의료 관광의 전문화 및 중증질환 환자 증가

단순 미용 시술을 넘어 암, 척추, 불임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복잡한 비자 문제, 장기 체류를 위한 숙소, 전문적인 의료 통역, 퇴원 후 케어 등 훨씬 더 복잡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 등에 대응하는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 코디네이터의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과 비대면 상담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관광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영향으로 비대면(온라인) 상담이 활성화되었다. 환자들이 입국 전 자국의 의료진과 함께 한국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2차 소견(Second Opinion)을 구하거나, 사전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입국 전 과정에서 코디네이터의 대면 역할 일부를 축소시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의료 관광 산업 육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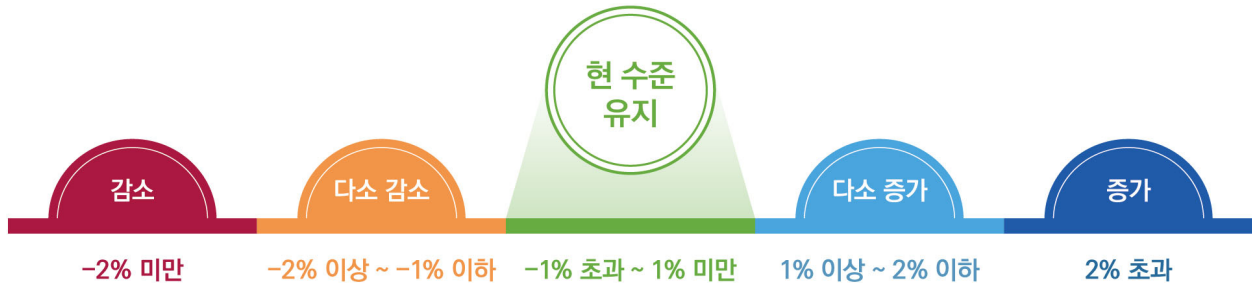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정부는 의료 관광을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 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우수 유치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료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K-컬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비대면·화상 상담 기술의 발전
국내외 경기 변화		• 온라인 플랫폼 및 불법 브로커와의 경쟁 심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중증질환 치료 등 의료 관광의 고부가가치화	• 성형·미용 등 저부가가치 시장 축소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관광 산업 육성 정책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통계 관련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0%로 예측된다.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원을 관리·감독하거나, 직접 응답자를 면접하여 설문지를 완성하는 등 통계조사의 현장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이다. 이들은 데이터 분석가나 단순 입력원과는 구분되는, ‘데이터 수집’ 단계의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와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조사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전화 조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통계나 중요한 사회·선거 여론조사처럼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이는 온라인만으로는 불가능한 전통적인 조사 방식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있다. 결국 ‘단순 면접조사원’의 감소와 ‘복합 조사 현장 관리자’의 수요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직무 대 전환에 대한 전망이 ‘현 수준 유지’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모바일 조사의 보편화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기업의 마케팅 조사나 간단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과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던 조사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무원의 필요성 또한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련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공공·사회조사의 신뢰성 요구 증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가계소득 등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공식 통계는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도가 생명이다. 온라인 조사만으로는 응답률이 낮거나 특정 계층(예: 고령층)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화나 방문을 통한 전통적인 조사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공·사회조사의 견고한 수요는 관련 조사 인력과 관리 사무원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부상과 설문조사의 역할 변화

과거에는 소비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 검색 기록 등 행동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설문조사 자체를 줄이는 요인이 되어, 관련 조사원 및 관리 사무원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 및 복합 조사의 필요성

온라인 조사가 보편화될수록,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의견이 통계에서 배제될 위험이 커진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방문·전화 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결합하는 등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복합적인 조사 방식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복합 프로젝트의 현장을 관리하고 조사원을 교육하는 숙련된 사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요인이다.

선거 등 정치·사회 여론조사의 꾸준한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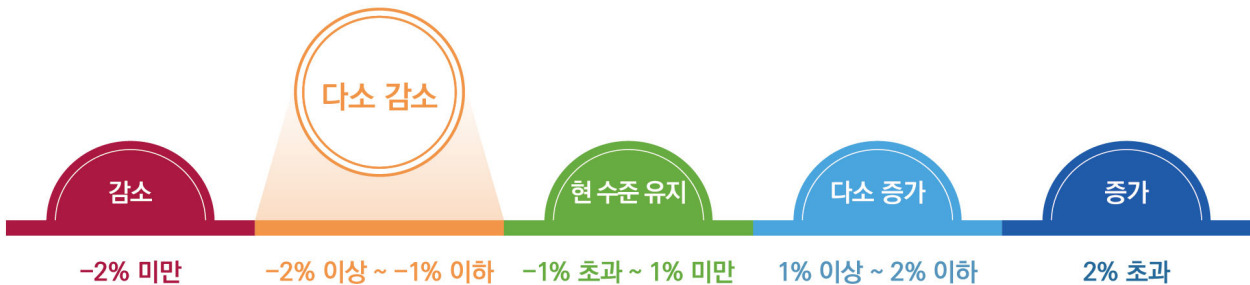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수요는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ARS(기계 자동응답) 조사와 달리, 조사원이 직접 전화하여 진행하는 면접조사는 더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러한 정치·사회 분야의 예측 조사는 관련 조사 인력 및 관리 사무원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모바일 조사 플랫폼 확산, 빅데이터 분석의 부상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공공·사회조사의 신뢰성 요구 증대	
기타 요인	• 선거 등 여론조사 수요 유지, 디지털 소외 계층 조사 필요성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비서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비서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비서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3%로 예측된다.

비서는 조직의 경영진이나 특정 부서의 책임자를 보좌하여 일정 관리, 문서 작성, 정보 관리, 내방객 응대 등 다양한 사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비서의 고용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 직무 내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공지능(AI) 비서, 협업 툴 등 사무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비서 업무를 대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 역시 1인 전담 비서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법률, 의료,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비서나 최고경영진을 보좌하며 전략적 판단까지 돕는 상급 임원 비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서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발전과 사무 환경의 자동화

AI 기반의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 자동 회의록 작성 툴, 실시간 번역 시스템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확산은 비서의 고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비서가 수행하던 정보 검색, 일정 조율, 간단한 문서 작성 및 요약 등의 업무는 이제 AI 비서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러한 디지털 툴 도입을 가속화함에 따라, 단순 사무 보조 성격의 비서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업무동향지표는 AI가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으며,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리더 3명 중 1명이 AI 비서 도입 시 인력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역시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사무직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기업 경영전략 및 조직문화의 변화

과거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신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임원 전담 비서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여러 임원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유 비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팀 전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팀 비서’ 형태로 직무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수평적 조직문화에서는 임원들이 비서 없이 디지털 툴을 활용해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어 전통적인 비서 채용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비서 수요의 유지

전체적인 비서직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비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법률 비서는 소송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의료 비서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보험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급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는 단순한 일정 관리를 넘어, 대외비 정보를 다루고 조직 내외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원격 및 유연 근무 형태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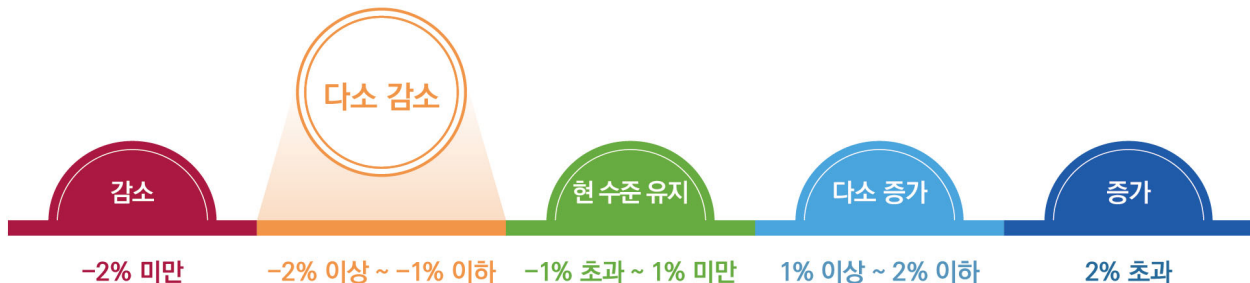
재택 및 원격 근무가 새로운 업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물리적 공간에 상주하며 대면 지원을 하던 비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직원 개개인이 온라인 협업 툴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게 되면서, 사무실 내 공통 지원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상시적인 대면 보좌가 필요 없는 중간 관리자급의 비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비대면·재택근무 확산, 개인의 사무 자동화 툴 활용 능력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I 비서, 협업 툴,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관리 지원 인력 우선 감축 경향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 수요	• 조직구조의 수평화, 공유 비서 시스템 도입, 비용 효율화 추구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 성장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0%로 예측된다.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단순 서류를 정리·복사하는 등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이다. 이들은 데이터의 의미를 가공하는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과 달리, 주어진 정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그대로 옮기는 '단순 입력'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OCR(광학 문자 인식)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이 명함, 영수증, 설문지 등 종이 문서의 내용을 타이핑하는 핵심 업무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 사무 보조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뚜렷한 일자리 감소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CR 및 AI 기술의 발전과 단순 입력 업무 대체

전산자료입력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과거 사람이 직접 타이핑했던 종이 문서, 명함, 영수증, 설문지 등의 내용을 이제는 AI 기반의 OCR(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 스캔 한 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 역시 녹취록 작성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 입력'이라는 직무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며 고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의 확산

단순 입력을 넘어, 데이터를 시스템 간에 복사하여 붙여넣는 반복적인 사무 보조 업무 역시 RPA(로봇 프로세

스 자동화) 솔루션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에 첨부된 주문서를 회사의 ERP 시스템에 옮겨 적는 것과 같은 업무를 이제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는 사무 보조 인력의 필요성을 크게 줄여, 관련 일자리 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의 보편화

전자계약, 전자결재, 웹 기반 설문조사 등 처음부터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는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이 보편화된 점도 고용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종이 문서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입력원의 필요성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위해 페이퍼리스 전환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산자료입력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구조적인 흐름이다.

■ 데이터의 양적 폭증과 검증 필요성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고 완만한 감소에 그치는 이유이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하는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다루는 데이터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자동화되지 않은 영역의 데이터 입력이나 정리 업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일자리의 급격한 소멸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 대규모 입력 업무의 외부 위탁(아웃소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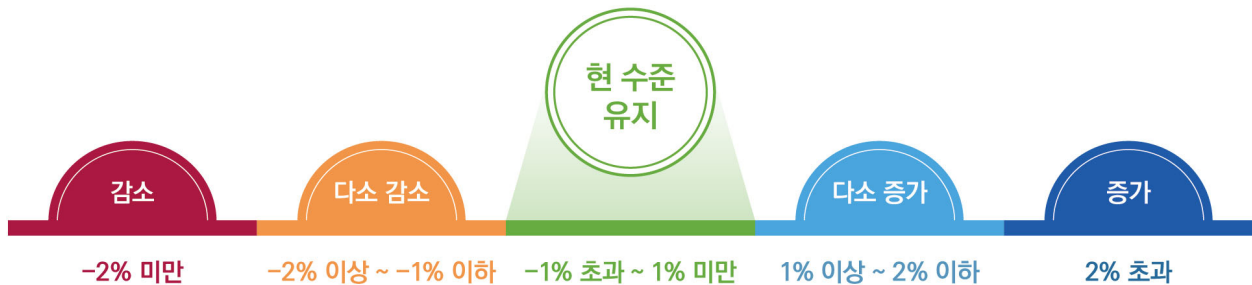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도서관의 장서 목록 DB 구축이나 오래된 종이 문서의 전산화와 같이 대규모의 단순 입력이 필요한 업무는, 내부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데이터 입력만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상용직 ‘전산자료입력원’ 채용 수요를 외부의 프로젝트성 일자리로 이전시켜, 고용 통계에 잡히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양적 폭증에 따른 일부 검증 수요	• OCR, RPA 등 자동화 기술로 단순 입력 업무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확산, 대규모 입력 업무 아웃소싱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속기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속기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기사는 실시간으로 발언 내용을 전문 장비나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문자화하는 전문가이다. 주요 역할은 국회, 법원, 의회 등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강연,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속기사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와 제도적 수요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AI 음성인식 기술이 일반 회의나 인터뷰 녹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중요한 국회, 법원 등의 '공식 기록' 시장은 인간의 최종적인 책임과 정확성을 요구하기에 그 수요가 견고하며,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실시간 자막 시장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속기사는 단순한 받아쓰기 전문가를 넘어, '공식 기록 인증 전문가'이자 '실시간 소통 지원가'로 그 역할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속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음성기록 서비스의 확산

속기사의 전통적인 업무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네이버 클로바노트 등 AI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와 STT(Speech-to-Text)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 기업의 회의록, 인터뷰, 강연 등의 녹취 업무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AI가 생성한 초안을 약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 속기사에게 의뢰했던 '참고용' 기록물 시장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속기사의 전체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록'의 가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속기사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국회, 지방의회, 법원, 검찰, 주주총회 등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이자 '증거'가 된다. AI의

기록은 오류 가능성이 있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의 기록은 공신력을 갖는다.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웃음, 탄식 등)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어, 고용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 실시간 소통 지원 및 정보 접근성 확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사회적 포용(Inclusion)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속기사의 새로운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TV 뉴스, 온라인 강의, 현장 세미나 등에서 AI 자동 자막의 부정확성을 보완하는 전문 속기사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속기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속기사에게 기존의 회의록 시장을 넘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증가 요인이다.

■ 영상 콘텐츠 증가와 자막 제작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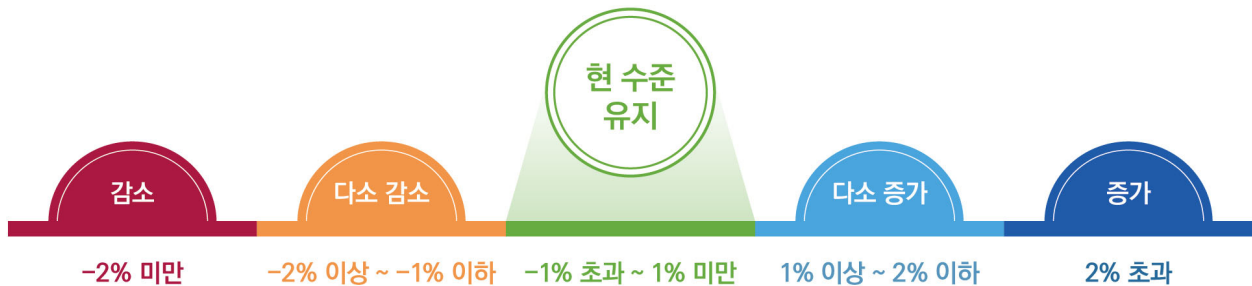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영상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자막 제작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거의 모든 영상에 자막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AI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신조어나 문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재미 요소를 더하는 ‘센스 있는’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는 속기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 분야로 진출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장애인 인권 등 사회적 포용 가치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영상 플랫폼 성장으로 자막 제작 수요 증가	• AI 음성인식 기술 발달로 일반 녹취 시장 잠식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회·법원 등 공적 기록물 작성 의무	

2021년 작성, 2025년 수정

출판·자료편집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출판·자료편집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자료편집사무원은 책, 잡지, 웹 콘텐츠 등 각종 저작물이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원고를 다듬고 교정하며, 전체적인 구성을 기획·관리하는 실무자이다. 주요 역할은 저자의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교열 작업을 통해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며, 출판물의 전체적인 체계와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이 직업의 고용은 ‘오래된 세계의 축소’와 ‘새로운 세계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의 위축과 AI 편집 도구의 발전은 분명한 위협 요인이다. 그러나 웹소설·웹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모든 기업이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시대의 도래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편집 실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결국 ‘현 수준 유지’라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전통 출판 시장의 감소분을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거의 메우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출판·자료편집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출판·자료편집사무원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국내 웹툰 시장이 약 1조 8천억 원, 웹소설 시장이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가 전통 출판 시장을 압도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웹툰 산업의 경우, 작품을 기획하고 작가를 관리하는 ‘웹툰 PD(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이들을 도와 연재 스케줄, 계약, 정산 등 방대한 행정 실무를 처리할 ‘편집 지원 사무원’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전통 출판 시장의 위축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일자리 창출 동력이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의 위축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의 영향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잡지, 단행본 등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성인 1인당 연간 종합독서량이 2021년 4.5권에서 2023년

3.9권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영상 매체 이용 시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독서 인구와 독서량의 동시 감소는 출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등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AI 교정·교열 도구의 발전

과거 편집 사무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였던 단순 오타자나 문법 오류를 찾아내는 교정·교열 작업이 AI 기반의 맞춤법 검사기나 전문 편집 도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편집자가 검토할 수 있는 원고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 단순 교정·교열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편집자가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전체적인 맥락과 기획에 더 집중하도록 역할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강화

이제 모든 기업이 잠재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블로그, 뉴스레터, 기술 백서, SNS 게시물 등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사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춰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고 문장을 다듬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출판사 외에 일반 기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독립출판 및 자가출판(Self-publishing) 플랫폼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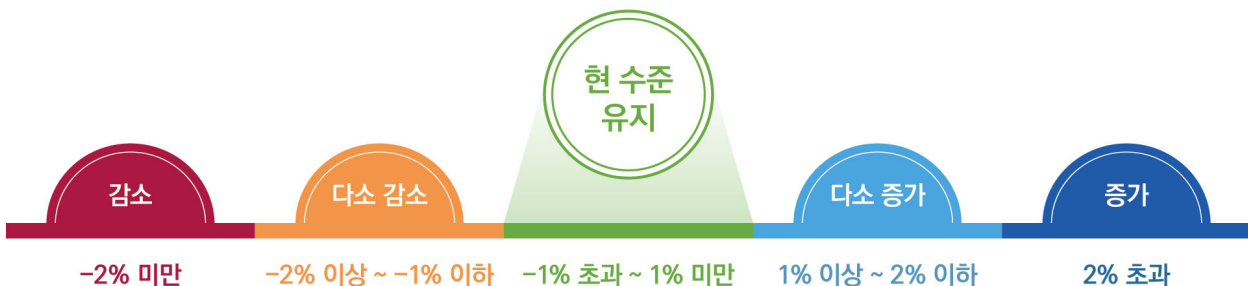
과거에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으면 책을 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주문형 소량 인쇄(POD) 플랫폼이나 전자책(e-book)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가출판 트렌드는 전통적인 출판사의 편집자 역할을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자가 직접 전문 편집자나 교정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리랜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독서율 하락, 영상 매체 선호
과학기술의 발전		• AI 교정·교열 도구의 발전, 자가출판 플랫폼 성장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강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	•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 위축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투자분석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투자분석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투자 및 신용분석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는 국내외 경제, 산업, 기업의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금융 상품의 가치를 예측하는 전문가이다. 주요 역할은 재무제표 분석, 시장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투자분석가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와 시장 고도화라는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AI와 로보어드바이저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초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석가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자산관리 수요 증대, 해외 투자 보편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정성적 분석 수요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통찰력과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투자분석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를 넘어, 복잡한 시장의 맥락을 읽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투자 전략가’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투자분석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발전

투자분석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AI 기술은 이제 방대한 양의 재무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초적인 분석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운용까지 해준다. 이는 과거 주니어급 분석가들이 담당했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여, 전통적인 분석가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자산관리 시장 확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100

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및 개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는 단기적인 주식 시세 예측을 넘어,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줄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은 투자분석가의 고용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해외 투자 보편화와 투자 대상의 다변화

국내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 가상자산, 미술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체 투자 대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 환경이 글로벌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새로운 자산의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투자 위험을 알려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는 투자분석가에게 새로운 전문 분야를 창출하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SG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 증대(AI 한계의 보완)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투자의 유일한 척도였지만, 이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탄소배출권, 공급망, 인권 문제,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등은 수치로 쉽게 계량하기 어렵지만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AI나 로보어드바이저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AI 도입으로 인한 분석 업무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비재무적 분석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고용 감소 요인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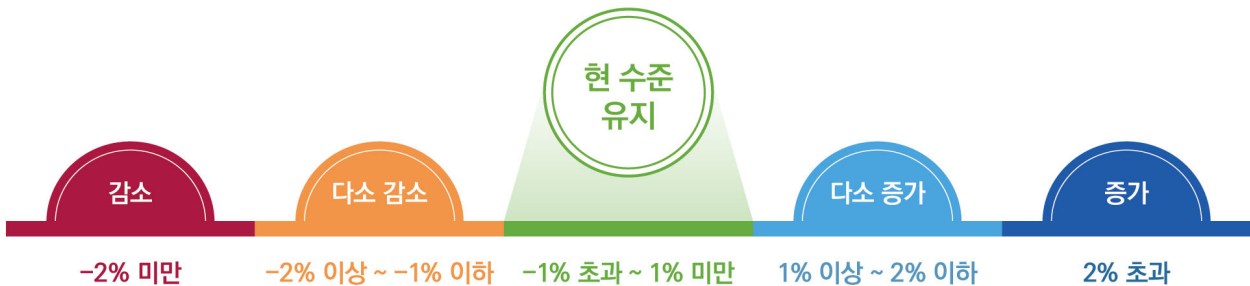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증가 및 정보 채널 다변화

유튜브, 증권 전문 방송, 투자 관련 커뮤니티 등 개인이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리포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취합하여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개인 투자자 대상의 리포트를 작성하는 분석가의 입지를 축소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연금 등 자산관리 수요 증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ESG 등 비재무적 요소 중시(AI 대체 불가 영역)	•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및 정보 탐색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I·로보어드바이저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저성장 기조 고착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ETF·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대상 등장	

신용분석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신용분석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투자 및 신용분석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신용분석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이다. 주요 역할은 은행의 대출 심사를 넘어, 보험사의 계약 인수, 자산운용사의 채권 투자,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정 등 금융 산업 전반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신용분석사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라는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AI 기반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전통적인 신용분석사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 부실 위험 증가와 ESG 등 새로운 비재무적 리스크의 등장은, 기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간 전문가의 가치를 오히려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미래의 신용분석사는 단순한 재무 분석가를 넘어, 복합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기업 위험 관리 전문가’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신용분석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고도화

신용분석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AI 기술은 개인 및 기업의 방대한 재무 데이터, 연체 이력 등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는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카드 발급, 보증보험 인수 등 정형화된 금융 거래 심사 과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하며 과거 심사역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크게 줄였다. 정부 또한 금융 분야의 AI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기업 부실 위험 관리 강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자동화된 시스템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 전망, 경영진 역량 등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숙련된 분석가의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회사채 투자나 보험사의 투자 심사 부문에서도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끌며 신용분석사의 수요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 핀테크 기업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은 통신비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정보 등 기존 금융권에서 활용하지 않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Thin File) 기존 시스템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신용평가의 자동화 영역을 더욱 넓혀 인간 분석가의 개입 필요성을 줄이는 또 다른 기술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 ESG 및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의 부상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벌금이나, 공급망 내 인권 문제로 인한 평판 하락 등은 재무제표에 즉시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위험이다.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고 신용도에 반영하는 역할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석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 기업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ERM)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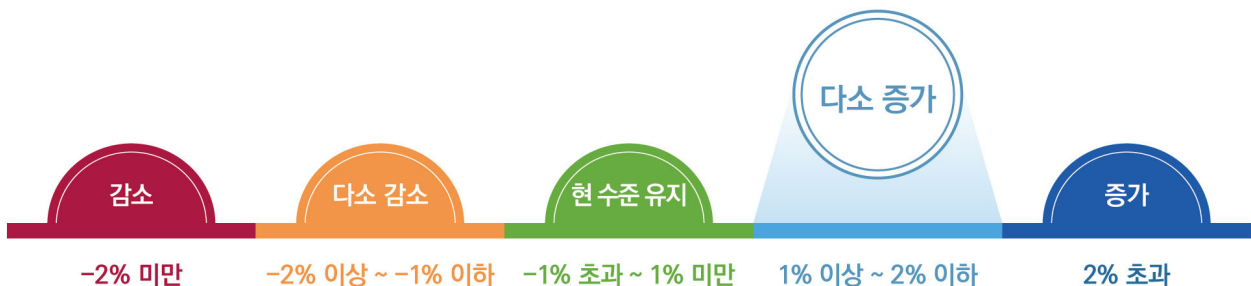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단순히 재무·신용 위험만 보는 것을 넘어, 운영, 전략, 평판 등 조직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위험 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신용분석사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평가 능력은 ERM의 다른 영역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신용분석사의 활동 무대가 전통적인 여신 심사를 넘어, 기업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전문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AI 신용평가시스템(CSS) 및 대안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 부실 위험 관리 강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전사적 위험 관리(ERM)체계 도입 확산	
환경과 에너지·자원	• ESG 등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 중요성 증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자산운용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0%로 예측된다.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최고 투자 전문가이다. 이들은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투자를 집행하며, 그 성과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전체 펀드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의 고용은 기술적 혁신이라는 거대한 위기와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거대한 기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질적인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AI 퀀트 투자와 저비용 패시브 펀드(ETF)의 확산은 전통적인 '주식 선택(Stock Picking)' 전문가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금융 상품화는 운용해야 할 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다. 결국 미래의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는 단순한 종목 추천가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설계하고 대체투자 등 복합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 자산 전략가'로 그 역할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사회와 퇴직연금 시장의 폭발적 성장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DC/IRP)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자금의 총량이 거대해짐을 의미하며, 이 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펀드매니저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AI·퀀트 투자 및 패시브 펀드(ETF)의 확산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퀀트(계량) 투자는 인간보다 빠르고 편견 없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또한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저비용의 패시브 펀드(ETF, 상장지수펀드)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액티브 펀드매니저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운용 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의 자본시장화(REITs) 및 대체투자 확대

직접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던 부동산 투자가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와 같은 ‘자본시장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금융 지식을 갖춘 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의 활동 영역이 실물 자산 시장으로까지 대폭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투자 자산은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분석이 까다로워 AI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해외 투자 보편화에 따라 글로벌 자산 배분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되는 금융 규제와 투자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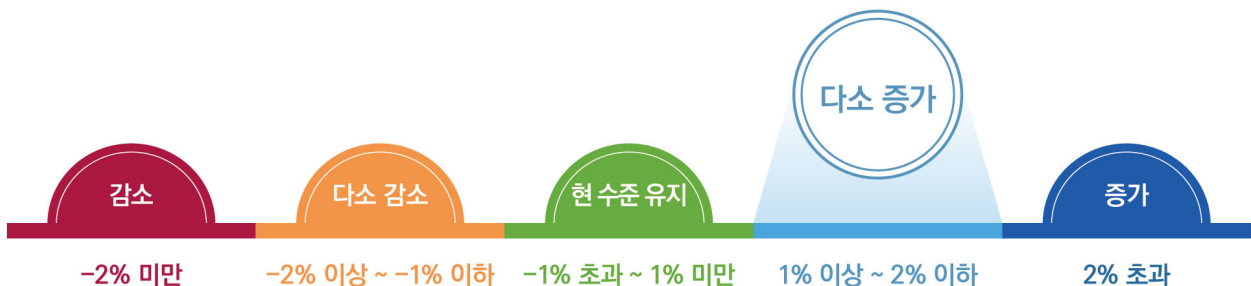
금융 시장이 복잡해지고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규제 준수(Compliance)와 리스크 관리는 이제 운용사의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와 위험을 정확히 설명하며,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채용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규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 급성장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액티브 펀드 선호도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AI 퀀트 투자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부동산 유동화(REITs) 등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보험계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험계리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계리사는 수학·통계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며, 보험사의 미래 재무 건전성을 예측·관리하는 리스크 전문가이다.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보험계리사는 AI라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도전을 마주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신종 리스크라는 가장 거대한 사회적 기회를 맞이하는 직업이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산출’의 영역을 자동화하며 전통적인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새로운 회계 제도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설계’하며 그 위험을 ‘증명’해야 하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미래의 보험계리사는 단순한 계산가를 넘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위험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 리스크 전략가’로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보험계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보험 상품의 등장

보험계리사의 수요를 견인할 가장 거대하고 구조적인 동력이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건강보험, 장기장병보험, 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상품의 판매 증가를 넘어,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질병 패턴에 맞춰 새로운 위험률을 계산하고 정교한 상품을 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계리 업무를 창출한다.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은 다른 어떤 감소 요인보다 강력하게 보험계리사의 수요를 이끌 것이다.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규제 강화

최근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과거의 원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계리 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도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계리 인력 수요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기후변화·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의 부상

과거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재산보험의 위험률 산정이 복잡해졌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러한 신종 리스크는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모델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계리 전문가의 창의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보험계리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증가 요인이다.

AI 및 데이터 과학의 발전

보험계리사의 전통적인 업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망률, 질병 발생률 등 기본적인 위험률을 계산하거나, 보험료 산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주니어급 계리사들이 담당했던 단순 데이터 처리 및 계산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여, 전통적인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계리사가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정교한 예측을 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직무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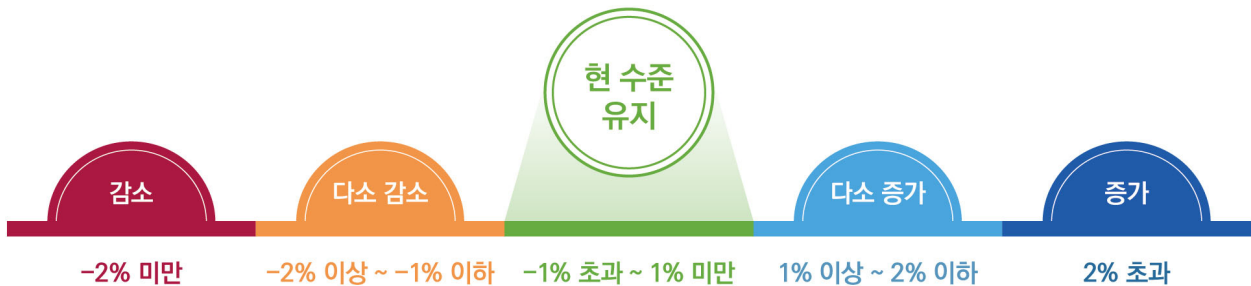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업의 성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험 스타트업(인슈어테크)의 등장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운전 습관 연동 자동차 보험, 건강 관리 연동 보험 등 개인화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하고 사업성을 분석할 계리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통적인 대형 보험사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신규 보험(건강, 연금 등) 시장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AI 발달로 단순 보험료 산출 및 데이터 처리 업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인슈어테크 기업의 혁신 상품 개발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기후변화·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 부상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규제 강화	

금융상품개발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금융상품개발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개발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수요와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예·적금, 펀드, 보험,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전문가이다. 전통적인 은행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10년간 금융상품개발원의 고용은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위협과 사회구조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회가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핀테크 기업의 빠른 상품 출시 속도와 AI의 시장 분석 능력은 전통적인 개발원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 수요의 폭발, 소비자 니즈의 초세분화, 강화되는 금융 규제 등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금융상품개발원은 단순한 상품 설계자를 넘어, 복잡한 사회 변화를 읽고 고객의 잠재 욕구를 해결하는 ‘금융 솔루션 아키텍트’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상품개발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와 생애주기 맞춤형 상품 수요 증대

금융상품개발원의 수요를 견인하는 가장 거대하고 구조적인 동력이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상속·증여 관련 신탁, 장기간병보험, 헬스케어 연계 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복잡한 위험률과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 설계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개발 인력의 수요를 꾸준히 창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핀테크의 부상과 상품 개발 속도 경쟁

전통적인 금융상품개발원의 역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은 ‘26주 적금’, ‘지금 이자 받기’ 등 단순하면서도 고객 친화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출시하며 시장을 혁신하고 있다. 이러한 애자일(Agile) 방식의 상품 개발 문화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소수의 상품을 출시하던 전통

금융사의 개발팀 규모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특히 단순한 구조의 수신·여신 상품 개발 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 소비자 니즈의 초세분화와 틈새시장 공략

과거의 ‘하나의 상품을 모두에게’ 판매하던 시대가 저물고, 특정 고객층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 보험’, MZ세대의 소액 투자 트렌드에 맞춘 ‘소수점 거래’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 등 세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특정 고객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 AI 및 데이터 과학의 발전과 역할 변화

AI 기술은 금융상품개발원이 시장을 분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AI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상품 수요를 예측하고, 신상품 출시 후의 시장 반응이나 수익성을 시뮬레이션하며, 복잡한 약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개발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이는 과거 개발팀이 수행하던 리서치 및 분석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하여, 필요한 인력의 수를 줄이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강화되는 금융 규제와 소비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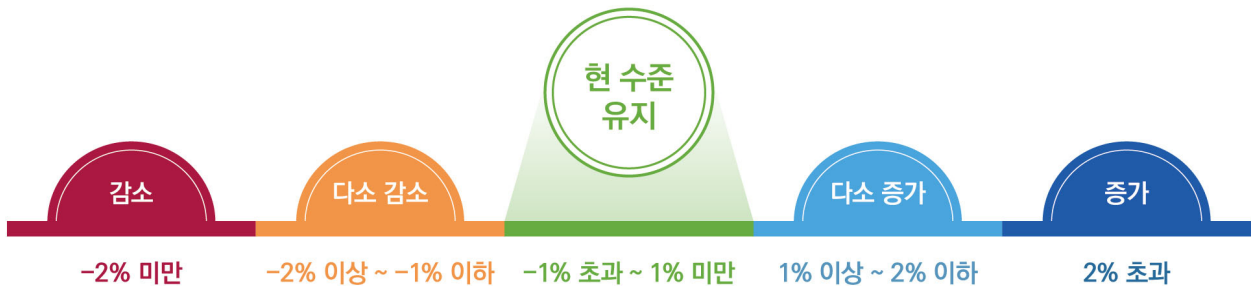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금융 시장이 복잡해지고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규제 준수(Compliance)는 상품 개발의 난이도를 높여, 관련 법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품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연금·신탁 등 신규 금융상품 수요 증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1인 가구, 펫코노미 등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과학기술의 발전		• AI의 시장분석 및 상품설계 과정 자동화, 핀테크의 빠른 상품개발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규제 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증권 및 외환 딜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증권 및 외환 딜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및 외환 딜러는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라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을 매매하고, 자기자본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거래 전문가이다. 향후 10년간 증권 및 외환 딜러의 고용은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해일과, 복잡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 강화라는 굳건한 방파제가 충돌하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초단타매매(HFT)와 자동화 시스템이 표준화된 시장의 단순 거래 업무를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채권 및 외환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비정형 거래의 특성,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의 위험 관리, 그리고 거액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딜러의 고유한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미래의 딜러는 단순 주문 실행자를 넘어, 고도의 시장 분석가이자 정교한 리스크 관리자로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증권 및 외환 딜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 및 외환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비정형성

주식 시장과 달리 채권 및 외환 시장은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표준화되지 않은 장외거래(OTC) 비중이 높다.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도입되었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일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과 조율은 여전히 숙련된 딜러의 역량에 의존한다. 이러한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특성은 자동화의 파고 속에서도 딜러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파생상품 등 복합 금융상품 시장의 성장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역할이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주가연계증권(ELS),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등 복잡하고 비표준화된 금융상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고, 가격을 협상하며, 계약에 따르는 신용 위험을 관리

하는 인간 딜러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숙련된 딜러의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대

금리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수익을 좇는 것을 넘어,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보유 자산의 위험을 관리(Hedging)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의 복잡한 위험 관리 요구에 맞춰 최적의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역할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인간 딜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변동성 역시 딜러의 위험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 증권사 및 금융기관의 대형화·통합 추세

국내 증권사 및 금융기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되는 추세는 딜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중복되는 트레이딩 데스크나 자금 운용 부서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금융 시장의 파이가 커지더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딜러의 총수를 줄이는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해외 투자 확대와 외환 거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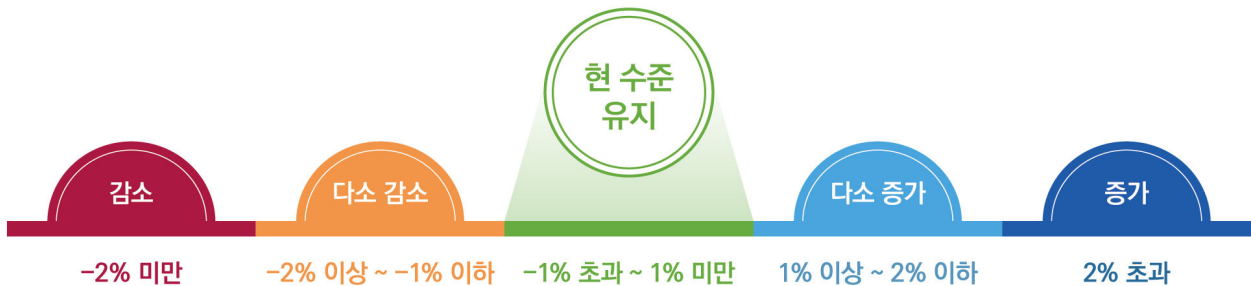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외환(FX) 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히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현물환 거래는 자동화되었지만,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선물환, 통화스와프 등 복잡한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여전히 전문 딜러의 영역이다. 이러한 외환 관련 기업금융 수요는 외환 딜러의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FX 수요	
과학기술의 발전		• 단순 주식 매매의 알고리즘화
국내외 경기 변화	•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헷지(Hedge) 수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금융기관 대형화 및 M&A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채권·외환 시장의 거대한 규모 유지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손해사정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손해사정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산정하는 전문직이다. 주요 역할은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업계의 전반적인 환경은 기술적 대체와 사회적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다. AI가 자동차 사고 사진을 판독하고 수리비를 자동 산출하는 등 단순·정형화된 손해사정 업무를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신종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위험이 늘고, 복잡한 보험 분쟁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미래의 손해사정사는 단순 계산가를 넘어, 복잡한 리스크와 분쟁을 조정하는 '종합 사고조사 전문가'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손해사정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손해사정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손해사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AI 기술은 사고 사진을 분석하여 차량 파손 정도를 판독하고 수리비를 자동 산출하거나(AOS알파),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하여 실손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등 정형화된 손해사정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미지 인식 및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동화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소액 건을 넘어 복합적인 사고 심사 영역으로까지 AI의 개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후변화·신종 재난 등 복합 리스크의 증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 대규모 자

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 중단 손실,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 등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리스크의 등장은, 현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고용 감소를 막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인구 고령화와 제3보험 시장의 성장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질병, 상해, 장기간병 등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제3보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사고는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과거 병력 등 비정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완전한 자동화가 어렵다. 특히 후유장애 판정이나 복잡한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고도의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다.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보험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주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반대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사 인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양측의 수요는 손해사정사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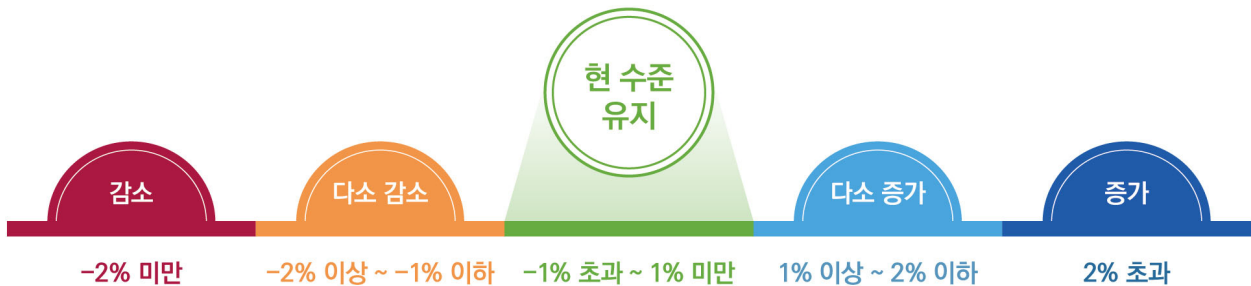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인슈어테크 및 비대면 청구 시스템 확산

AI 자동화와는 별개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비대면 시스템이 보편화된 점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설계사나 창구 직원을 통해 접수되던 많은 청구 건들이 디지털 채널로 전환되면서, 청구 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던 보상 인력의 역할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손해사정 업무의 전 단계에서 효율화를 가져와,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제3보험(건강, 상해 등) 시장 성장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	• 비대면(모바일) 청구 선호
과학기술의 발전		• AI 자동심사 시스템의 기술적 고도화 및 확산 가속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기후변화, 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 부상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보험사기 방지 및 조사 강화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로 예측된다.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 리스크 전문가이다. 이들은 보험계약의 최종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사의 문지기’로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언더라이터의 고용은 기술적 대체라는 거대한 해일과 복잡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라는 방파제가 충돌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AI 자동심사시스템이 건강한 표준체의 단순 보험 계약을 빠르게 잠식하며 전통적인 심사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기술의 한계점에서 발생하는 유병자, 고령자 등 비표준체의 복잡한 인수 심사와 기후변화, 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의 등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전문가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미래의 언더라이터는 단순 심사자를 넘어, 복합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최종 위험 인수 결정권자’로 그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보험인수심사원(언더라이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자동 인수심사 시스템(AUS)의 확산

언더라이터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AI 기반의 자동 인수심사 시스템(AUS, Automated Underwriting System)은 고객이 고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자동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건강하고 젊은 표준체의 실손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단순하고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심사 과정이 디지털 보험 형태로 자동화되었다. 이는 언더라이터의 전통적인 업무를 대체하여 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와 유병자 보험 시장 확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과거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나 고령자를 위한 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계약 심사는 표준화된 데이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의료 기록과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여전히 의학적 지식과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해하는 전문 언더라이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는 고용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기후변화·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의 등장과 전문성 요구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인수할 수 있는 전문 언더라이터의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기업의 재산종합보험 인수가 까다로워졌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을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신종 리스크를 담보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재보험 시장과 연계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정형화된 인(人)보험을 넘어 복잡한 기업보험 분야에서 전문 언더라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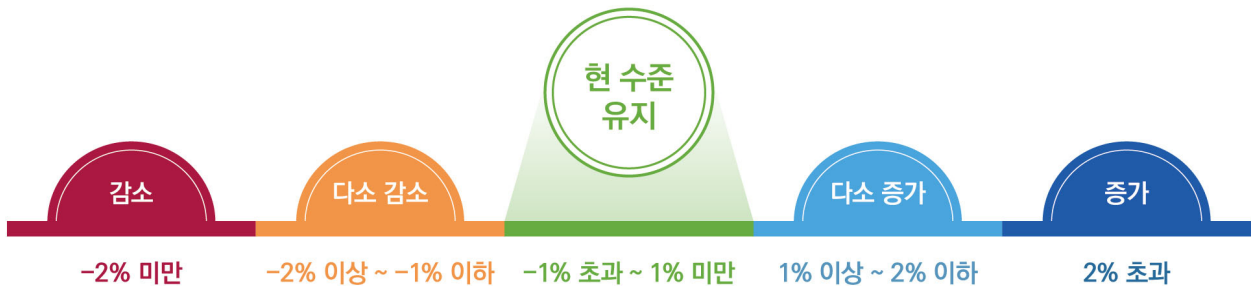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의 인수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AI 시스템이 내린 인수 거절 결정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결정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 심사 과정을 재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렵다. 이는 언더라이터의 일자리를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유병자 보험 시장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자동 인수심사 시스템(AUS)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기후변화, 사이버 등 신종 리스크 부상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강화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은행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은행 내에서 예금·대출·외환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 및 관리하고, 고객의 금융 상담 및 거래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신용 및 대출 신청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 업무 외에도, 신용대부 신청자의 연혁 및 신용 지위를 조사하고, 고객 계좌에 대한 신용 청구를 허가하며, 은행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사무를 처리한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인공지능(AI), 챗봇,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 기술의 발전은 단순 반복적인 금융 사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 영업 점포 수 감소 가속화 또한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복잡하고 개인화된 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의 심층 상담 수요 증가, 자산 관리 및 투자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직무 전환, 그리고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금융 서비스 이용자 감소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져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출생아 수 < 사망자 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잠재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신규 금융 상품 가입, 대출, 투자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연령층의 인

구 감소는 은행의 핵심 고객 기반을 축소시키며,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자산 관리나 은퇴 설계 등 특정 분야의 수요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영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는 은행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을 포함한 전체 은행 인력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영업 점포 수 감소 가속화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은행들의 경영 효율화 전략에 따라 영업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고객들의 지점 방문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은행들은 고정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 점포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제 은행들은 단순 창구 업무 인력을 줄이고, 소수 정예화된 인력이 복합 금융 상담 및 자산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신규 채용 감소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 또는 감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은행 전국 점포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은행	5,324	5,160	4,860	4,816	4,774	4,492	4,206	3,929	3,876	3,797
특수은행	1,989	1,976	1,962	1,988	1,984	1,962	1,938	1,919	1,918	1,886
합계	7,313	7,136	6,822	6,804	6,758	6,454	6,144	5,848	5,794	5,683

주: 1)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2)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포함(수출입은행 제외)
 자료: 한국은행(2025), 2024년 말 전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및 자동화 기술 발전

인공지능(AI), 챗봇, 모바일 뱅킹,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금융 기술의 발전은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일자리 감소를 이끄는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이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고객들은 예금 조회, 이체,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AI 기반 챗봇은 단순 문의 응대 및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상품 추천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자동화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과거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이 수행하던 단순 반복적인 창구 업무나 서류 처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여, 물리적인 지점 방문의 필요성을 줄이고 은행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비대면 채널 강화 전략은 은행들의 공통적인 추세로, 이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채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복합·개인 맞춤 금융 상품에 대한 심층 수요와 직무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개인화된 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의 심층 상담 수요 증가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담보 대출, 투자 상품, 은퇴 설계, 상속 및 증여 플랜 등 고액 자산 관련 금융 상품은 복잡한 구조와 높은 위험도를 수반하므로, 고객들은 자동화 시스템 보다는 숙련된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신뢰를 얻고 맞춤형 정보를 얻고자 한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자산 관리, 연금 상품, 상속 등 인생 전반에 걸친 금융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직무는 기존 단순 사무 처리에서 자산 관리 및 투자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은행들이 경쟁 심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단순 수수료나 이자이익보다는 자산 관리(WM, Wealth Management) 등 수익성 높은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들은 PB(Private Banking)와 같은 전문 자산 관리 인력으로 재편되거나, 기존 업무에 투자 컨설팅 역량을 더하는 방향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이고 개인 맞춤 심층 상담 수요의 증가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들이 직무 전환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일 자리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합 상품 등에 대한 상담 역량을 보유한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의한 업무 변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채널의 확대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업무 영역을 변화시키고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여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은행은 전국적인 지점망과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고객의 재무 상태와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 예금·대출 업무를 넘어 고객의 재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역량을 요구하며,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이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방카슈랑스 확대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 자리를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 지식 외에 보험 지식을 습득하고 판매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역할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유지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는 여전히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복잡한 금융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피해에 취약할 수 있어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친절하고 상세한 대면 안내와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고객에게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재편하거나, 거점 점포를 통해 대면 서비스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이러한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금융 상품 설명, 서류 작성 지원,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등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은행과 고객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대면 서비스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규제 강화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증대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와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업무 증대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자금 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제도), 고객 알기 제도(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적법성을 검증하여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 등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준수와 관련된 서류 처리, 데이터 검증, 내부 감사 등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상당한 인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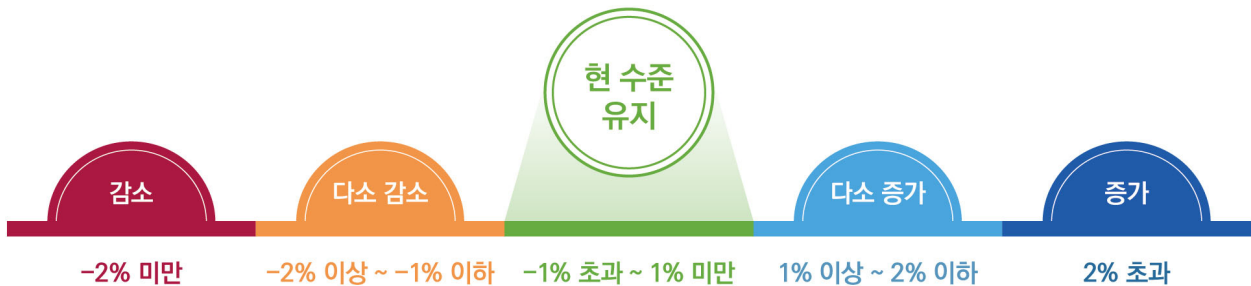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자동화 시스템이 일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규제 환경을 해석하고, 의심 거래를 분석하며, 법률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는 최종 책임은 인간 전문가에게 있다.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제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될수록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은행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사회 심화로 자산 관리, 은퇴 설계 등 전문 금융 조언 및 심층 상담 필요성 증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 금융 서비스 이용자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및 자동화 기술 발전(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지원 유지 - 자산 관리 및 투자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직무 전환	영업 점포 수 감소(통폐합) 가속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복합·개인맞춤 금융 상품 및 심층 상담 수요 증가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인한 업무 영역 변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 증대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증권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증권 및 선물 상품을 고객에게 증개 또는 판매하는 등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식 구매 및 판매 주문서 작성, 양도세 계산, 주식거래 확인, 증권의 인수와 전달, 주식 가격 변동 알림, 주식 액면가 계산 및 배당금 분배, 매일의 거래와 보유물에 대한 기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트레이딩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단순 매매 증개 및 정보 전달 업무의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증권 시장 참여 확대, 고도화된 금융 상품의 등장,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의 전문적인 투자 컨설팅 수요는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강화되는 금융 규제 준수 업무 또한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트레이딩 시스템 및 자동화 기술 발전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트레이딩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일자리 감소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증권 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단순한 투자 상담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과거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이 담당하던 단순 매매 주문 접수, 시세 정보 전달 등 반복적인 중개 업무의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증권사들은 디지털 채널 강화를 통해 영업점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지점 축소 및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레이딩 및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직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인력 수요를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개인 투자자의 증권 시장 참여 확대 및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개인 투자자의 증권 시장 참여 확대와 투자 정보 접근성 향상은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일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투자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질의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 결정에 있어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정보 제공 역할이 과거만큼 절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증권 시장 참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과열된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복잡한 투자 상품을 이해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조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단순 매매 중개 역할은 감소하겠지만, 정보 과잉 시대에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컨설팅 역할로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직무가 고도화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 고도화된 금융 상품의 등장 및 전문 투자 컨설팅 수요 증가

ELS, 파생결합증권, 대체투자 상품 등 고도화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의 등장은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컨설팅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높은 위험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은 상품 구조, 위험 요인, 수익성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로보어드바이저나 AI 시스템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과 투자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역할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 및 법인 투자자의 경우, 절세 전략, 상속 및 증여 계획과 연계된 투자 솔루션 등 매우 개인화되고 복합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이러한 고부가가치 투자 컨설팅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며, 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증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증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전문적인 역할 수요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시장 동향 분석, 개별 종목 분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위험 투자를 방지하며, 손실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내부 통제 및 규제 준수 업무에서도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및 교육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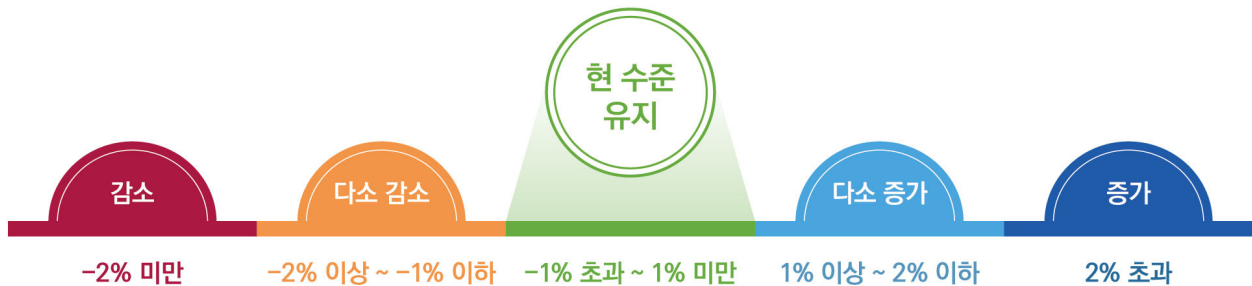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주로 고령층)의 존재는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의 대면 서비스 및 교육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식, 펀드 등 증권 상품 투자는 은행 예금보다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투자 경험이 적은 계층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 증권 사무원(출납창구제외)은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기본 개념부터 리스크 설명, HTS/MTS 사용법 교육, 계좌 개설 및 운용 절차 안내 등 친절하고 상세한 대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모든 투자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대면 서비스 및 교육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 투자자의 증권 시장 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 트레이딩 시스템 및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지점 축소
국내외 경기 변화	• 증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고도화된 금융 상품의 등장 및 전문 투자 컨설팅 수요 증가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및 교육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로 예측된다.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은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심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보험사의 핵심 관리 부문을 담당한다. 보험 심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와 관련하여 요청된 보험 신청 내용을 심사하거나, 대형 병원 등에서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보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등과 관련된 각종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거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퇴원, 사망, 출생, 치료 내용 등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의료보험 사항 기재 및 신청된 내용 심사, 배상 요구자 및 사고 목격자 진술 확보, 기록·보고서 작성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 보험금 청구 처리 및 행정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보험 설계 및 심층 상담 수요 증가는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및 노후 대비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심사 및 보상 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심사 및 RPA 도입 확산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 및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여 자동 처리하는 기술) 도입 확산은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석하고, 보험 계약 심사

를 자동화하며, RPA를 통해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서류 검토, 납입 확인 등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특히 정형화된 소액 보험금 청구나 간단한 계약 변경 업무는 AI와 RPA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보험사들의 인건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며,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이 담당하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보험 업계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직무의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및 맞춤형 컨설팅 수요 증가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상품의 등장은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전문적인 심사 및 맞춤형 컨설팅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단순히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넘어, 치매 보험, 유병자 보험, 여행자 보험, 사이버 위험 보험 등 특화된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각 상품마다 복잡한 약관과 보장 범위, 가입 조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설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보장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심화로 건강 및 노후 대비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심층적인 컨설팅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 심사원은 계약자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최적의 가입 조건을 제시하며, 사무원은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복잡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은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는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전문적인 역할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험은 고객의 미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불완전 판매 방지, 약관 설명 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 등 엄격한 법규와 제도가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심사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더욱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보험 심사원은 가입 심사 과정에서 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 판매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며, 보험금 청구 시 약관 해석 및 법적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원 역시 복잡한 규제에 맞춰 서류를 처리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AI 시스템이 일부 검증을 도울 수 있지만, 규제 해석, 윤리적 판단, 분쟁 조정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책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규제 준수 및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증대는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고령화사회 및 건강·질병보험 시장 확대

고령화사회의 심화와 건강·질병보험 시장의 확대는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 보험, 실손 보험, 치매 보험, 간병 보

험 등 건강 및 질병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 현재 건강 상태, 가족력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복잡한 의료 기록 및 진단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 심사원은 고령층 및 유병자 고객의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사무원은 고령층 고객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돕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 심사간호사’와 같이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 인력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보험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전문적인 심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일자리 증가 및 직무 전문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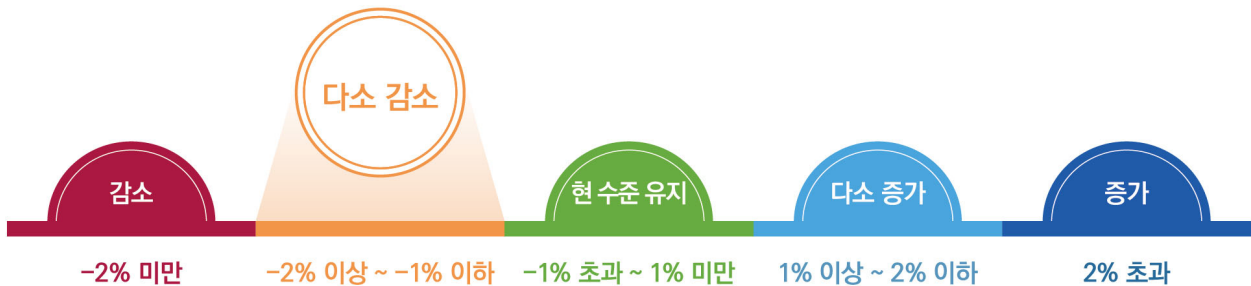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보험 심사 및 보상 과정에서의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역할이 유지될 것이다. 보험 업무는 고객의 민감한 건강 정보, 재정 정보 등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및 오남용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때가 많으며, 부당 청구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정당한 청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자동화 시스템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지만, 비정형적인 데이터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과 도덕적 책임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 증대는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질병보험 시장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AI 기반 심사 및 RPA 도입 확산으로 단순 업무 인력 수요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및 맞춤형 컨설팅 수요 증가 -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약관 설명 의무 등 엄격한 규제 준수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출납 창구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출납 창구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된다.

출납 창구 사무원은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금전의 수납, 환전, 지불 또는 우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고객의 현금 입출금, 송금, 공과금 납부, 수표 처리, 명의변경, 어음, 신용카드 지급, 우편환, 보증수표 등 현금 중심의 거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계좌 개설 및 저축 계획, 채권 구매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수표, 외화 및 우편환 매도 업무도 수행한다. 매일의 거래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정 잔액과 일치하는지 결산하고, 예금 전표 및 수표를 분류하여 철해 두며, 고객의 거래에 관한 문의에 답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광범위한 실무를 처리한다. ATM, 키오스크 등 현금자동화기기 확산과 모바일 banking, 인터넷 banking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의 보편화는 현금 중심의 창구 거래 수요를 급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기관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영업 점포 축소 및 인력 감축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금융 거래 처리,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인간의 역할은 일자리 감소 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TM 및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영업점 수 감소

ATM, 키오스크 등 현금자동화기기 확산과 모바일 banking, 인터넷 banking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보편화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 감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고객들은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 입출금, 송금, 계좌 이체,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의 현금 중심 거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키오스크는 단순 창구 업무를 대체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출납 창구 사무원이 담당하던 단순 반복적인 현금 처리 및 창구 응대 업무의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금융기

관들은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고 자동화 기기를 확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채용 규모 축소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은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금융기관 영업 점포 축소 및 경영 효율화 전략

금융기관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영업 점포 축소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들은 물리적인 지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정비 절감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영업 점포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출납 창구 사무원의 수요 또한 감소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상담 및 자산 관리 업무로 인력을 전환하거나, 인공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구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 점포 축소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신규 채용 감소 및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은행 전국 점포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은행	5,324	5,160	4,860	4,816	4,774	4,492	4,206	3,929	3,876	3,797
특수은행	1,989	1,976	1,962	1,988	1,984	1,962	1,938	1,919	1,918	1,886
합계	7,313	7,136	6,822	6,804	6,758	6,454	6,144	5,848	5,794	5,683

주: 1)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2)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포함(수출입은행 제외)
 자료: 한국은행(2025), 2024년 말 전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비정형적/복잡한 금융 거래 처리 및 문제 해결

단순 업무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금융 거래 처리 및 고객 문제 해결은 출납 창구 사무원의 일자리 감소 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 관련 예금 처리, 해외 송금 오류, 고액 현금 거래 시 신원 확인 및 자금 출처 확인,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및 보고 등은 단순 자동화 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인간의 세심한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는 금융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출납 창구 사무원은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고객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동화가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거래 및 문제 해결 역량은 출납 창구 사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유지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주로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존재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대면 서비스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층, 장애인, 혹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전히 금융기관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거래나 상담을 처리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복잡한 거래 절차나 디지털 금융의 보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출납 창구 사무원의 친절하고 상세한 대면 안내와 설명이 필수적이다. 금융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고객에게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대면 창구를 유지하거나, 탄력 점포 운영 등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려 노력한다. 출납 창구 사무원은 이러한 고객들에게 현금 입출금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안내, 서류 작성 지원,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등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접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면 서비스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사기 예방 및 고객 보호 역할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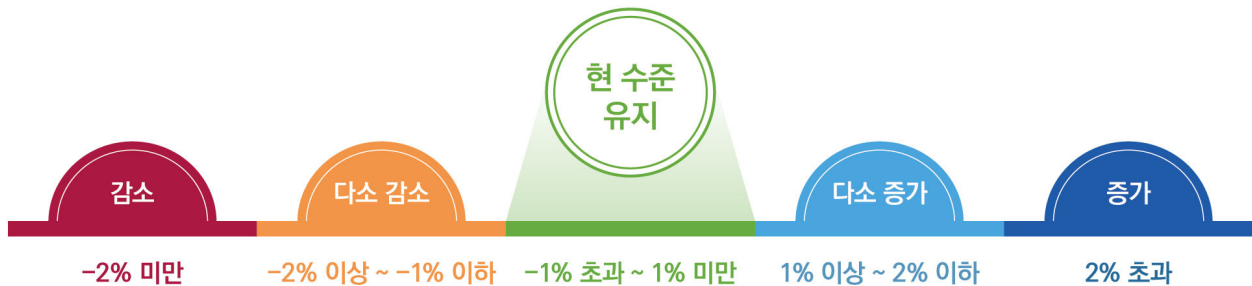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가 증가하면서, 출납 창구 사무원의 금융 사기 예방 및 고객 보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창구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고객에게 금융 사기 위험을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역할이다. 출납 창구 사무원은 고객 현금 인출 요청이나 비정상적인 계좌 이체 시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질문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금융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출납 창구 사무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일자리 감소 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비대면 금융 서비스 선호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TM 및 키오스크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 비정형적/복잡한 금융 거래를 위한 대면 서비스 유지 • 금융 사기 예방 및 고객 보호 역할 증대	• 영업 점포 축소(통폐합)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수급원 및 신용추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7%로 예측된다.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연체 채권을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채권관리 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연체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그 외 요금 미납금 등 연체금 회수를 위하여 고객에게 연체 및 체납 사실을 주로 전화나 우편(대금청구서, 지로청구서, 연체 통지서 등)으로 알려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채권자의 위임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같은 채권회수(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기일 경과 어음이나 미수 채권의 조기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순 채권회수보다는 합리적인 상환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 예시로는 수급사무원, 여신사후관리원, 채권추심원 등이 포함된다.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AI 기반 채권 관리 시스템,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 연체 알림 및 독촉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연체 채권 발생의 지속성, 채무자별 맞춤형 상환 계획 수립의 복잡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준수 및 윤리적 추심의 중요성은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재기 지원 역할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채권 관리 시스템 및 자동화 기술 발전

AI 기반 채권 관리 시스템,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금융기관 및 채권관리 전문회사들은 AI를 활용하여 연체

채권을 분석하고,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예측하며, SMS, 이메일을 통한 자동화된 메시지나 챗봇을 통해 연체 사실을 알리고 납입을 독촉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의 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많은 인력 투입 없이도 기본적인 추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과거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이 담당하던 단순 연체 알림, 독촉 전화, 정보 전달 등 반복적인 업무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다. 금융기관들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채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채용 규모 축소 및 기존 인력의 고부가가치 업무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자동화는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직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인력 수요를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연체 채권 발생의 지속성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연체 채권 발생의 지속성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상황 부담이 가중되어 연체 채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해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현상 자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는 인력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개인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므로, 채무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상담과 유연한 상환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동화 시스템이 일괄적인 독촉에 대한 알림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주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경기 변동에 따른 연체 채권의 지속적인 발생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수요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채무자별 맞춤형 상환 계획 수립 및 재기 지원 역할 증대

단순 채권 회수를 넘어 채무자별 맞춤형 상환 계획 수립 및 재기 지원 역할 증대는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감소 폭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강압적인 추심 방식이 문제 되었으나, 최근에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북돋고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채권 추심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 자산, 부채 규모,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환 방안(예: 분할 납부, 이자 감면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조정 제도나 금융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채무자와의 깊은 상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채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최적의 상환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것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 고유의 능력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맞춤형 상환 관리 역할은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수요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및 윤리적 추심의 중요성 증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와 윤리적 추심의 중요성 증대는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

구하며,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폭언, 협박, 반복적인 연락,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 비윤리적인 행위는 강력히 제재받는다.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은 이러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채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크다. AI 시스템이 규제 준수 여부를 일부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상황에서의 법률 해석, 윤리적 판단, 그리고 고객 민원 응대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로 남는다. 따라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이 전문성과 윤리적 역량을 보유하도록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으로서 본연의 역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비정형적·고위험 채권 관리 및 법적 절차 수행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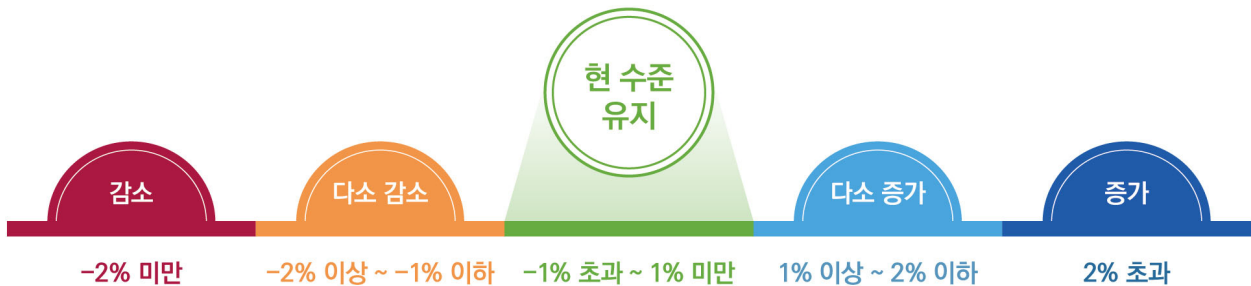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자동화 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형적·고위험 채권 관리 및 법적 절차 수행 역할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법적 절차와 연계된 채권, 담보가 복잡하게 얽힌 채권, 또는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의 채권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한다.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은 채무자의 재산 조사, 소송 진행,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며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AI 시스템이 판단하기 어려운 고위험 채권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회수 전략 수립 역시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채권 관리 영역은 신용추심원(채권관리원)의 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채권 관리 시스템 및 자동화 기술 발전
국내외 경기 변화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연체 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전문 관리 인력 필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비정형적·고위험 채권 관리 및 법적 절차 수행에 대한 관리 애로 • 채무자별 맞춤형 상환 계획 수립 및 재기 지원 역할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및 윤리적 추심의 중요성 증대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과 위촉 계약을 맺고,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 또는 제휴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들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재정 상황, 위험 선호도, 보장 니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안하며 계약 체결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잠재 고객 발굴, 보험 상품 설명 및 권유, 계약 체결 및 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 보험 계약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며, 보험 모집 종사자의 상호 배타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집 질서의 건전성을 지키고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은 보험중개인과 중복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에 소속되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AI 기반 상품 추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카슈랑스 채널의 확대는 전통적인 보험 판매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며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합리적 선택 니즈 증가, 고령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은퇴 및 자산 관리 수요의 증대,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단순 판매를 넘어 고객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역할과 수요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전문성 확보 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대면 채널 및 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온라인·모바일 채널과 AI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의 확대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전통적인 판매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객들은 대면 접촉 없이 자신의 주도하에 정보를 탐색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단기 상해보험, 저축성 성격이 약한 간단한 암보험 등 보장 내용이 명확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며, 고객이 인지하는 위험 부담이 낮은 상품일수록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채널별 판매 비중(초회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손해보험의 CM(Cyber Marketing) 채널 판매 비중은 1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원과의 대면 상담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인식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주된 판매 영역 중 하나였던 시장이 비대면 채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새로운 고객 유치 및 수익 창출 기회를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보험 가입률 증가 추세는 AI와 로보어드바이저의 정보 제공 역할이 상승 작용을 일으킨 측면이 강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객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기본적인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과 맞물려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상품을 비교하며 결정을 내리는 행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이 수행해온 역할 중 단순 정보 전달 및 표준화된 상품 설명의 필요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온라인·모바일 채널 및 AI 기반 서비스의 확대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기존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기술이 대체하면서 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인한 경쟁 심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채널의 확대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일자리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은행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보편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회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판매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69.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2024년 채널별 판매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이는 은행이 가진 높은 접근성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은행에서 예금, 대출과 함께 보험 상품까지 원스톱으로 상담받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장세는 특히 은행의 기존 고객층, 즉 재무 컨설팅 및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 고객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어, 이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은행 상품과 연계하기 쉬운 상품군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고객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지속적인 확대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게 고객 이탈에 따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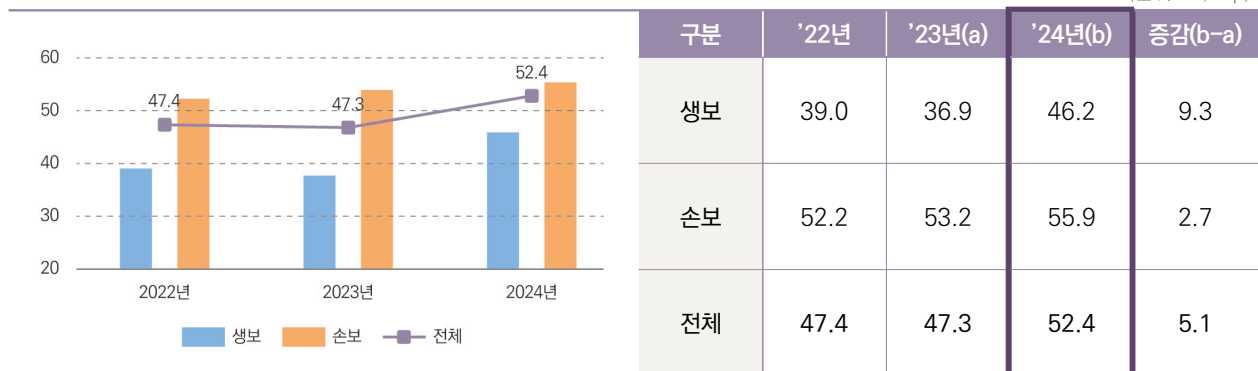
보험모집원의 인력 이동과 일자리 재편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시장의 성장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활동 채널 및 판매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에게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GA 채널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전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왔다. 많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들이 GA로 이동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소속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이다. 고객의 니즈가 복잡해지면서 단일 회사의 상품만으로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GA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리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조합하여 고객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수수료 체계이다. GA는 전속 채널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모집인의 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셋째, 영업의 자율성이다. GA 소속 모집인들은 특정 회사의 영업 정책이나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점(GA) 채널 판매 비중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속 채널(7.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판매 비중의 차이는 GA 채널의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며, 전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 전속 보험설계사의 GA 시장으로 이동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사 정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전속설계사 정착률(신규 등록 후 1년 경과 시 정상 활동 비율)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p 상승하였고, 이러한 정착률 상승의 배경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교육의 활성화, 정착률 KPI에 반영 등을 언급하였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우수 전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이탈을 막고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에게 차별화된 교육, 전문화된 상품, 디지털 영업 지원,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은 회사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있게 개발하거나,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전체 일자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총량 변화는 없지만 각 채널의 특성과 강점에 따라 인력과 영업 방식이 재편되는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보험설계사 정착률 현황

(단위: %, %p)



주: 보험설계사 정착률: 신규 등록된 전속설계사 중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4),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재구성

■ 고객의 복잡한 니즈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는 단순 판매원으로서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요인이다. 생명 보험, 손해보험은 물론 다양한 특화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각 상품의 약관과 보장 범위, 가입 조건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조합한 종합적인 재무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설명 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부당 권유 금지 등 엄격한 판매 규제는 금융 시장 전반에 적용된다. 이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게 과거와 같은 단순 ‘판매’를 넘어, 고객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설명을 이해시키는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과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AI 시스템이 규제 준수 여부를 일부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객과의 심층적인 상호작용과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 상품 지식만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역할은 향후 점차 줄어들 것이나,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종합적인 재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역량을 갖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는 이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고령화사회의 은퇴 및 건강·자산 관리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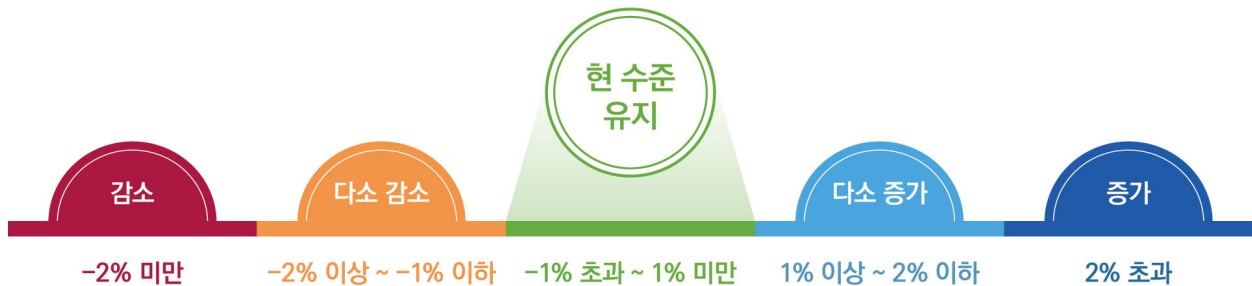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고령화사회의 심화는 은퇴 및 노후 대비,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단순 판매를 넘어선 전문성을 갖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은 연금,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 종합적인 노후 및 건강 관련 보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자산 증식의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높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무 설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게 한정될 여지가 크다. 또한 단일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보다는, 고객의 생애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한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를 예측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대리점(GA) 소속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여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사회 가속화는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FC)의 종합 재무 설계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사회의 은퇴 및 건강·자산 관리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금융소비자의 보험 상품 비교 분석 니즈 및 독립 정보원 선호
과학기술의 발전		• 비대면 채널 및 AI 기반 서비스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에 따른 전문 컨설팅 유지	•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의 인력 이동 가속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인한 경쟁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그 소속 형태에 따라 전속 대리인과 법인보험대리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속 대리인은 특정 보험회사에만 소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소속 대리인은 여러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반면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어느 한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즉, 보험대리인은 보험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대리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일자리 전망에서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GA 소속 대리인과 보험중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회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가 69.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은 대리점 채널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채널별 판매 비중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전속 채널의 비중은 생보 6.9%, 손보 7.2%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전속 모집 채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생명, 재해, 자동차, 화재, 해상 등 모든 형태의 보험에 관해 보상 종류와 지급 조건, 계약 관련 사항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제안한다. 주요 업무는 고객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생활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재무 목표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을 때 고객의 문의사항에 답하고 해결을 돕는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AI 기반 상품 추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 보험 판매 및 정보 제공 업무의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합리적 선택 니즈 증가, 고령화 사회의 은퇴 및 자산 관리 수요 증대, 그리고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고 오히려 전문성 있는 대리인·중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의 보험 상품 비교 분석 니즈 확대

금융소비자의 비교 분석 니즈 확대와 독립적인 정보원 선호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보 홍수 시대에 고객들은 특정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보다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주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 탐색은 쉬워졌지만, 복잡한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을 스스로 완벽히 이해하고 최적의 선택을 내리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고객의 복잡한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금융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특정 회사 상품 판매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독립 채널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중립적인 비교·분석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및 맞춤형 종합 재무 컨설팅 수요 증가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상품의 등장은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전문적인 맞춤형 종합 재무 컨설팅 수요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반려동물 보험, 사이버 위험 보험 등 수많은 특화 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상품의 약관과 보장 범위, 가입 조건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조합한 종합적인 재무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은 단순히 개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 미래 목표, 위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한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들은 고객의 은퇴, 자녀 교육, 주택 구매 등 다양한 라이프 이벤트에 맞춰 장기적인 재무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하기 어려운 인간 전문가만의 영역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와 종합 재무 컨설팅 수요 증가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전문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일자리 수요 창출

금융 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완전 판매 방지 규제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며,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설명 의무 강

화,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부당 권유 금지 등 엄격한 판매 규제는 금융 시장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다루는 대리인 및 중개인은 특정 회사에 유리한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은 복잡한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판매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규제 준수 여부를 일부 검증할 수 있지만, 고객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설명을 이해시킬 때 발생하는 미묘한 상호작용과 윤리적 판단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직무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이는 연쇄적으로 이들의 일자리 수요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은퇴 및 건강·자산 관리 수요 증가

고령화사회의 심화는 은퇴 및 노후 대비,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역할 변화 및 수요 유지를 이끄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은 연금,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 종합적인 노후 및 건강 관련 보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자산 증식의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한다.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은 고객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한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를 예측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 재무 설계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신뢰와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재정적 안정을 돕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며,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비대면 채널 및 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온라인·모바일 채널과 AI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의 확대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객들은 대면 접촉 없이 자신의 주도하에 정보를 탐색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단기 상해보험, 저축성 성격이 약한 간단한 암보험 등 보장 내용이 명확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며, 고객이 인지하는 위험 부담이 낮은 상품일수록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손해보험의 CM(Cyber Marketing) 채널 판매 비중은 1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객들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 판매원과의 대면 상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대리인 및 중개인의 주된 판매 영역 중 하나였던 시장이 비대면 채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새로운 고객 유치 및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보험 가입률 증가 추세에는 고객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기본적인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AI 기반 챗봇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정보 제공 역할 강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온라인·모바일 채널 및 AI 기반 서비스의 확대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기존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기술이 대체하고 시장을 잠식하면서 일자리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의한 경쟁 심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채널의 확대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일자리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은행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보편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채널별 판매 비중(초회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 판매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69.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가진 높은 접근성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은행에서 예금, 대출과 함께 보험 상품까지 원스톱으로 상담받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방카슈랑스 채널은 높은 접근성, 전국적인 은행 지점망, 막대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곳에서 보험 상품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주어 보험 상품 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금융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예·적금,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과 연계하여 보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장세는 특히 은행의 기존 고객층, 즉 재무 컨설팅 및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 고객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어, 이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던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은행 상품과 연계하기 쉬운 상품군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고객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지속적인 확대는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에게 고객 이탈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사회 가속으로 은퇴 및 건강·자산 관리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금융소비자의 보험 상품 비교·분석 니즈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서비스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보험 상품의 복잡성 심화 및 맞춤형 종합 재무 컨설팅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채널 선호 증가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확대에 의한 경쟁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일자리 수요 창출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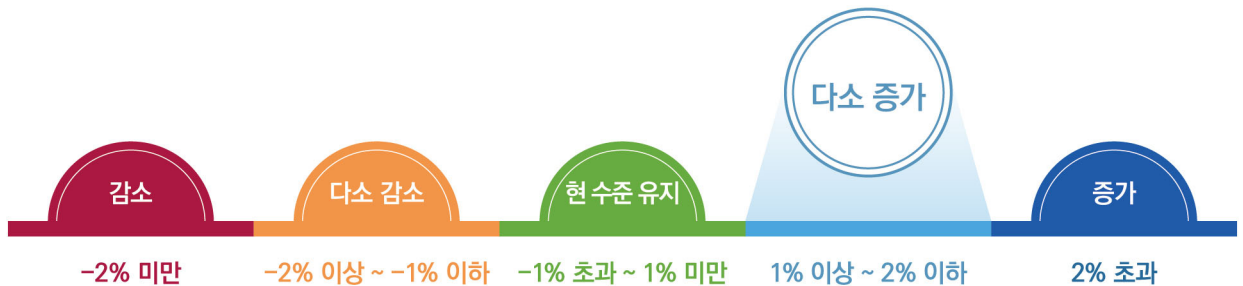
PART
2

직업별 일자리 전망

-
-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 2 보건·의료직(27개)
 - 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8개)
 - 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42개)
-

전문의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전문의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9%로 예측된다.

전문의사는 진료과목별 전문 의학 지식을 적용하여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며, 이미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상처를 입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유병률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 저하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수요 감소를 불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신규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 향상과 웰빙 중심 가치관의 확산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재활·정신건강·미용 등으로 의료 서비스 영역을 다각화시키며, 다양한 전문의사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입 증가와 의료관광 시장 확대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분야의 고용 기회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필수 의료 분야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가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사 공급 증가율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확산은 영상 판독·질병 예측 등 일부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의사의 전통적 역할을 변화시키고, 환자 맞춤형 진료 및 복합질환 관리 등 고차원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지속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의 유병률 증가로 직결되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 과목의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신규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과거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 재활, 미용, 정신건강 등 다각화된 영역으로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관련 전문의사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건강검진 분야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류의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 및 미용 기술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이는 관련 분야 전문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전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의사 인력 공급 현황 및 정책 변화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전문의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기피되었던 분야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인상, 근무 여건 개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지원책은 해당 분야 전문의사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어왔으나,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한시적인 증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다시 3,123명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203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으나, 그 이후의 공급 증가율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14만 명에 달했으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의사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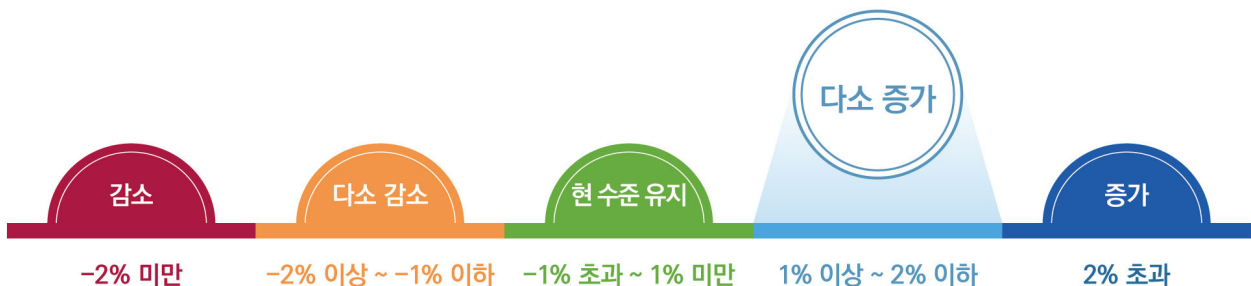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진단과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상 데이터 판독, 질병 예측 모델 생성 등에서 AI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일부 전문의의 전통적인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환자와의 소통, 복합적인 질환 관리 등 고차원적인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사의 역할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 저출산 현상에 따른 특정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수요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따른 환자 유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2025년 작성

일반 의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일반 의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9%로 예측된다.

일반 의사는 의료 부문의 일반적인 질환, 장애, 상해 및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일반 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 확산은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 수요를 높이며, 이는 일반 의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반 의사의 진료 환경을 안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경증 질환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녀, 일반 의사의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은 급성장하여 건강 검진과 내과적 관리 수요를 확대하며 일반 의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의료 AI 기술은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진단 보조 등에서 효율성을 높여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부 단순 진료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의 소통, 복합적 판단, 윤리적 결정 등 인간 의사의 고유 역할은 여전히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의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 환자의 급증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이 핵심이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일반 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 및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등에 대한 수요는 일반 의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정책

정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일반 의사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개원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어왔으나,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한시적인 증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다시 3,123명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203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신규 의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으나, 그 이후의 공급 증가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14만 명에 달했으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문의 진료 쏠림 현상

환자들이 경증 질환이나 불확실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의 특정 과목 전문의를 우선적으로 찾는 경향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 의사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의사의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환자들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건강검진이나 특정 전문 과목의 시술이나 수술 전후로 필요한 내과적 관리를 받기 위해서도 한국을 찾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은 내국인 환자에 한정되었던 의료 수요를 해외로 확장시켜 일반 의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진료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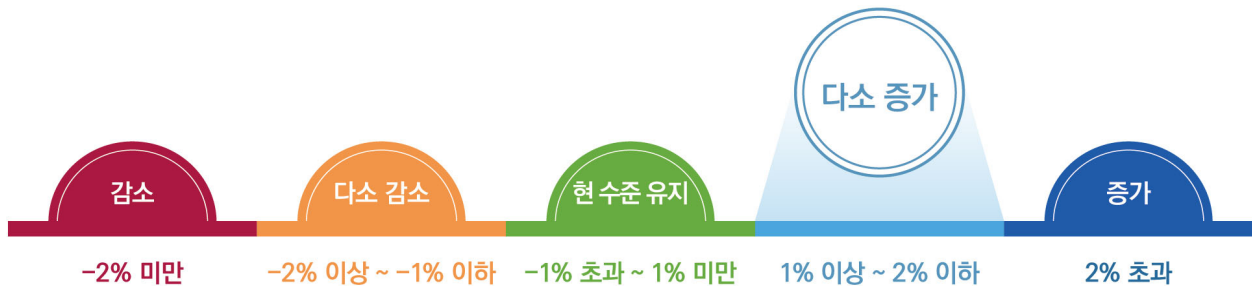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진단 보조 등 다양한 의료 영역에 접목되면서 일반 의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진료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순 진료 영역에서 인력 수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러나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 복합적인 상황 판단, 윤리적 결정 등 인간 의사의 고유한 역할은 AI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웰빙 중시 문화 확산으로 예방·관리 중심 의료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따른 환자 유입	• 전문의 진료 쏠림 현상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정책 추진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한의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한의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된다.

한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환자의 질병과 장애를 진찰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한의학 치료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과 전인적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한의학은 고령층의 복합적 건강 문제에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은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진단 신뢰도에 대한 인식 차이로 한방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한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진 모델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여 한의사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의학적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복합적인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인체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특정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고령층의 다약제 문제(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한의학적 접근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젊은 층의 한방의학 이용률 감소

반면,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첫 조사에서 86%였던 평생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024년에는 67.3%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방의료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중시하는 2030 세대가 한의학에 진단 방식이나 치료 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

정부는 한의사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한의학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취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의사와 한의사가 협력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한의학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암, 난임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을 지역사회 건강 증진 분야로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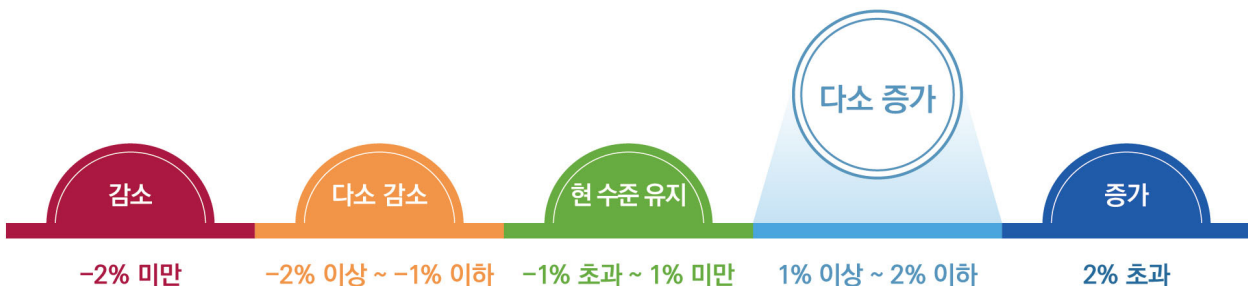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국내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젊은 층의 한의학 이용률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따른 환자 유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	• 타 의료 분야와의 경쟁 심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치과 의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치과 의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치과 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9%로 예측된다.

치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치아나 턱, 잇몸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임플란트, 틀니, 치주 질환 관리 등 고령층 중심의 치과 치료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더불어, 소득 수준 향상과 미용·웰빙에 대한 관심 확산은 치아 미백, 교정, 라미네이트 등 심미적 치과 시술 시장을 성장시키며,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차원의 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3D 스캐너, CAD/CAM, 인공지능 진단 보조 시스템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확산은 진단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인력 효율성을 향상시켜 신규 고용 창출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신규 치과 의사 배출은 인력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지만, 한정된 내수시장에서는 개원가 경쟁 심화를 유발해 고용 확대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치과 의료는 첨단 기술과 합리적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입을 늘리고 있고,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 변화는 국민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해 치과 서비스 이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치과 의사 고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과 의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치과 치료 수요 증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구강 건강 유지 및 기능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 치료와 치주 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 및 관리 차원의 치과 서비스 수요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치아

교정 등 심미적 목적의 치과 시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방 및 관리 차원의 치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치과 의사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조기 교정 및 예방적 진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확산

3D 구강 스캐너, CAD/CAM,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시스템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의 발전은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 만족도와 수요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기존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신규 치과 의사 인력의 꾸준한 공급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치과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전체 치과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의 개원가는 치열한 경쟁 상태로, 신규 개원 비용 상승과 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의 시장 포화는 치과 의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소도시나 신도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의 치과 병·의원 개원을 촉진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한국의 치과 의료는 임플란트와 교정 등 첨단 기술력과 합리적인 비용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 목적의 시술뿐 아니라 고난도의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치과 의사의 고용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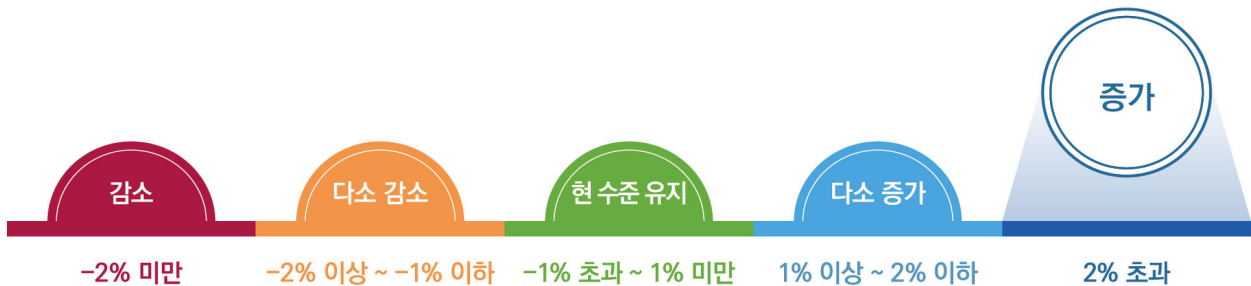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는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향후에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과 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될 경우, 이는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이어져 치과 의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치료 수요 증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예방 및 심미적 목적의 치과 서비스 수요 증가 - 소아 조기 교정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신규 치과 의사 인력의 꾸준한 공급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따른 환자 유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수의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수의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사는 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예방·진단·치료한다.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동물원 동물, 그리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꿀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정기 검진, 예방의학, 전문 진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복지 수준 제고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실험동물 윤리 관리, 국가·지자체 방역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 교역 확대와 기후변화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방역 담당 수의사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AI 진단 보조, 3D 프린팅 수술 모델 등 첨단 기술이 수의 진료 현장에 도입되며 진단과 치료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는 수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함으로써 진료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펫푸드, 펫보험,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상 외 연구, R&D, 정책, 컨설팅 분야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수의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5년 21.8%에서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중증질환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 건강검진, 예방의학, 전문 진료 분야의 고용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동물복지 및 가축 전염병 예방 정책 강화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사육 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 도입 등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동물 보호, 실험동물 윤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교역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축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축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방역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방역 담당 수의사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 및 확대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진료 환경의 변화

AI 기반 영상 진단 보조, 3D 프린팅 수술 모델 등 첨단 기술이 수의 진료 현장에 도입되며 진단 및 치료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수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서는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다. 동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문진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이상을 확인하며,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외과적 수술을 집도하는 등의 복합적인 업무는 여전히 수의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첨단 기술은 수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리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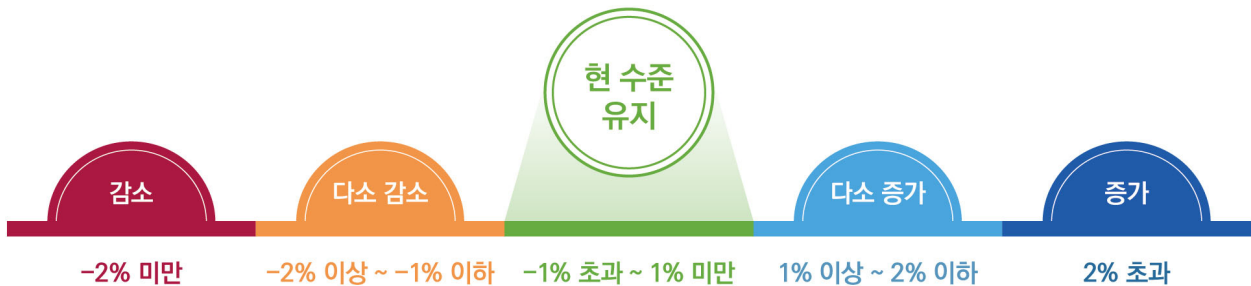
펫푸드, 펫보험,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등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상 외 분야(연구, R&D, 정책, 컨설팅 등)에서의 수의사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수의사 고용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반려동물 가구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반려동물 연관 산업(펫푸드, 보험, 의약품)의 성장 • 임상 외 연구, R&D 등 직업 분야 다변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동물보호법 등 동물복지 관련 제도 확대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약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약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약사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약물 복용에 대해 지도하며, 약의 생산·조제·공급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수요가 확대되고, 다약제 복용 관리와 복약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약사의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의 질과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확산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미용 관련 제품 수요를 높여 약사의 상담·관리 역할을 확대시키며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처방 조제 수요를 늘려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화 가능성은 지역 약국의 기능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위축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전통적 약국 외에도 제약바이오 산업, 임상시험, 품질 관리,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해지며, 이는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역시 처방 조제 및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소비 확대를 통해 약국 매출과 약사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자동 조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반복적 조제 업무를 대체하여 일부 고용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약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소비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약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약물 관리 및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미용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약사의 상담 및 건강 관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약사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관리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병원 방문 및 의약품 처방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약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는 약사 진업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약품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지역 약국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원격 복약 지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약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약사의 활동 영역 다변화

전통적인 약국 외에 약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약 개발 및 연구, 의약품의 제조·생산 및 품질 관리, 임상시험 관리, 의약품 정보 분석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하고 프로토콜을 검토하는 관리약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약사의 수요도 꾸준히 존재한다. 이처럼 약사의 활동 영역이 다변화되는 것은 약사 인력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작용할 수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환자들은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이는 해당 진료과목과 연계된 약국의 처방 조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치료 목적 외에도 약국에서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약국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 및 로봇의 도입

기술 발전으로 자동 조제 기계(Automatic Tablet Counter)와 같은 조제 로봇에 의한 조제 과정의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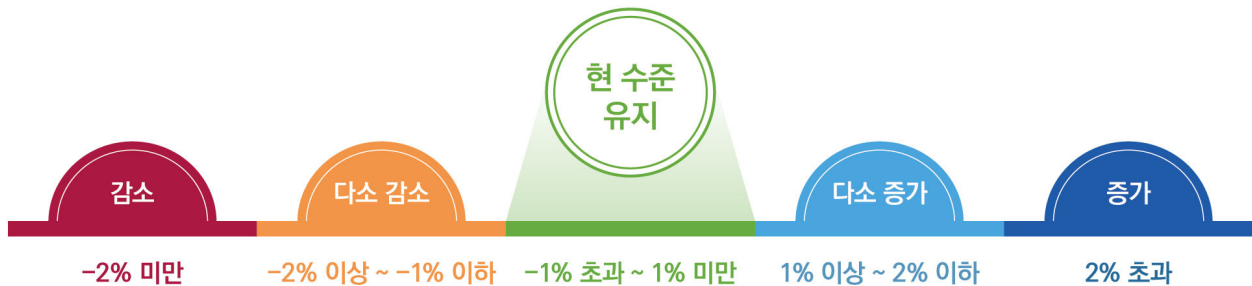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확대, 인공지능화된 웰페어기기(복지기기)를 활용한 자가 진단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효과 증대는 약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조제 자동화 기술 도입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 및 직무 영역 확대 •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한약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한약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한약사의 약물 관리, 예방적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와 같은 분야에서 한의학적 접근을 확산시키며 한약사의 역할을 넓히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은 지역사회 돌봄과 공공 보건 영역에서 한약사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더불어,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으로 한의원 방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적 수요 확대도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젊은 세대의 한방의료 이용률 감소는 한약사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약사와의 직역 갈등, 약사법상 한약·한약제제 구분의 불명확성, 그리고 한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함께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은 한약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제약하며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약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복합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인체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특정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고령층의 다약제 문제(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약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한의학적 접근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젊은 층의 한의약 이용률 감소

반면,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첫 조사에서 86%였던 평생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024년에는 67.3%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방의료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가 한의학의 진단 방식이나 치료 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의 건강돌봄 서비스 활성화, 한약 접근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어 한약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약사의 역할을 지역 사회 건강 증진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국내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약사의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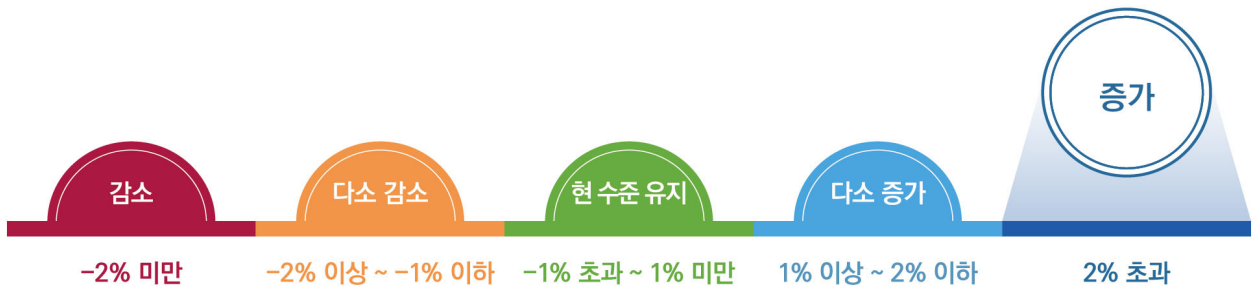
한약사의 직무 범위, 특히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둘러싼 약사와의 지역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과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한약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활동 범위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한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함께하고 있어 한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젊은 층의 한의약 이용률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따른 환자 유입	• 약사 직능과의 업무 범위 갈등 • 한의사의 처방·조제 겸업 관행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간호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간호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간호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7%로 예측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및 질병예방 등을 설명한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장기 요양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재가복지센터·방문간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교육 상담 등 예방적·건강증진 활동을 강화시켜 보건소, 산업체, 학교 등에서 간호사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근무환경 개선,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간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이직률을 낮추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에 따라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진료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기반 환자 모니터링과 기록 관리의 도입은 일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해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간호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간호사가 환자 관찰, 응급 대응, 정서적 돌봄 등 인간적 역량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화에 따른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질병 관리, 재활, 장기 요양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 방문간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산업체,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간호사의 예방적·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 국가 보건의료 정책 확대

정부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 간호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간 근무 수당 지원, 교대제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직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법령은 방문간호·지역사회 건강증진·만성질환 관리 등 병원 외 영역에서의 간호사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어, 병원·요양시설·지역사회 등의 영역에서 간호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가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를 통해 추진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숙련된 간호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의 성장은 국제진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 환자와 달리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기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간호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헬스케어 산업이 확장되면서 간호사는 임상시험, AI 헬스케어 개발, 건강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디지털 헬스 확산으로 간호사의 기술 협업 및 산업 기반 역할 확대를 언급하고 있어, 기술 발전은 간호사의 새로운 고용 영역 창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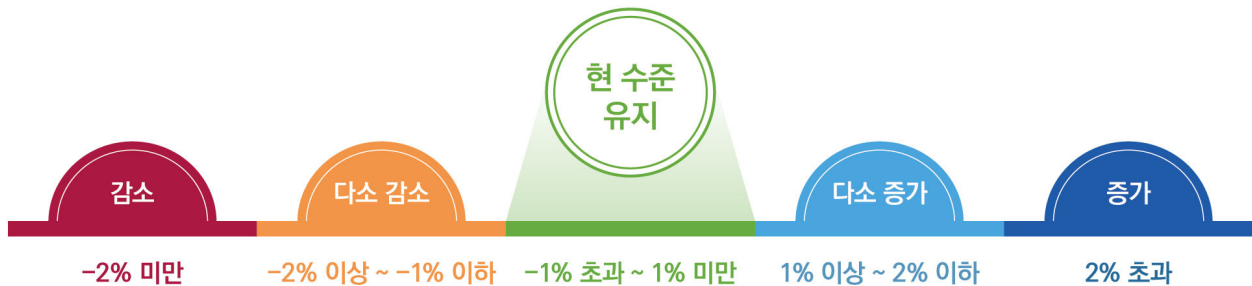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이 환자 모니터링, 의료 기록 관리 등 일부 간호 업무를 자동화함에 따라 간호사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AI는 간호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 도입으로 단순·반복 업무가 줄어들면, 간호사는 확보된 시간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응급상황 대처, 정서적 교감 등 대체가 어려운 고유의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간호사의 전체 고용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간호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부 업무 자동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보건 정책 강화 •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 추진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영양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양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영양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영양사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한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 요양·재가복지 서비스에서의 영양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양사의 일자리는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도입은 연구개발 및 상담 분야에서 영양사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기반한 영양관리사업 확대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급식 수요를 줄여 영양사 신규 채용을 제약하며, 단체급식의 외부 위탁 운영 확대는 정규직 감소로 이어져 고용 증가 폭을 제한한다. 더불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식단 관리 서비스는 표준화된 영양 상담 업무 일부를 대체하여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양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의 지속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관리를 위한 영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복지 서비스 등에서 식단 관리와 영양 상담을 담당할 영양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학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초·중·고등학교 수의 감소로 이어져 학교급식 영양사의 신규 채용 감소 및 기존 일자리 축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반 식품보다 특정 기능성을 강조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양사의 역할은 제품의 기능성을 설계하고 영양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개발(R&D) 직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분석하여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관련 판매업체에서 영양사의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 역량을 요구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영양관리사업 정책 확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의무 배치(1회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산업체)하고 자치단체별로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100명 미만 대상)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도 영양사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영양 정책 수립 및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국민 영양관리사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영양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영양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AI 기반 식단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화된 영양 상담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

■ 단체급식 위탁 운영 등 산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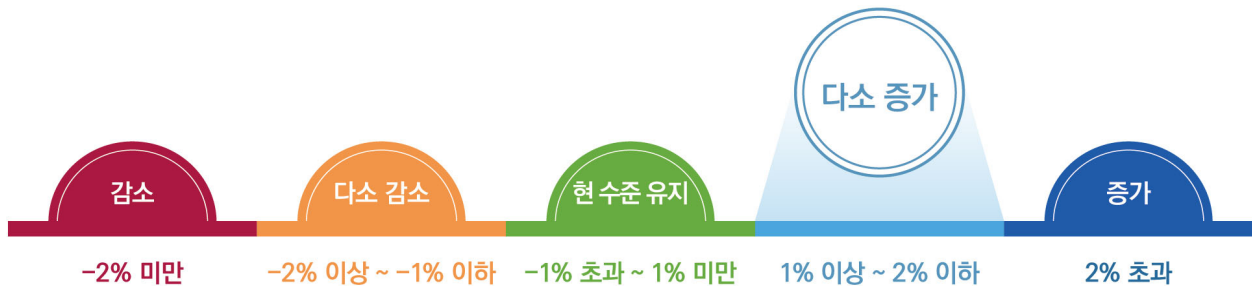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일부 단체급식 시설에서는 인력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양사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한 명의 영양사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어 전체적인 고용 규모 증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의 업무는 식단 작성, 검수, 위생 관리 등과 더불어, 조리실 현장 지원, 배식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은 잦은 이직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며, 빈 일자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에서의 수요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식단 추천 서비스의 등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 단체급식 위탁 운영 증가 • 영양사의 높은 업무 강도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영양사 의무 배치 및 관련 제도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임상병리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임상병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5%로 예측된다.

임상병리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지원 부서에서 일하며 다양한 의학적 분석법을 통해 인체로부터 유래된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의 검체를 살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고, 치료 경과를 알아본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암 환자 증가와 조기 진단 수요 확대는 임상검사 수요를 늘려 임상병리사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건강검진 시장 성장 역시 병원뿐 아니라 검진센터, 의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정밀의료의 발전과 분자진단·유전체 분석 등 첨단 검사 기법의 도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정부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 수요를 뒷받침한다. 반면, 혈액·소변 검사 등 대량 검체 처리 분야에서는 자동화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단순·반복 업무의 인력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자동화는 전체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상병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화에 따른 임상 검사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다중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진단검사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이어지며, 정확한 진단의 기반이 되는 임상 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검진 시장의 성장은 병원뿐만 아니라 검진센터, 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다.

■ 정밀의료의 발전 및 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 또한 전통적인 검사를 넘어 분자진단, 유전체 분석 등 첨단 생명과학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분자진단 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암 진단, 약물 반응 예측 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검사 기법의 등장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반면, 검사 장비의 자동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임상병리사의 고용에 있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혈액 및 소변 검사 등 대량의 검체를 처리하는 분야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사 과정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단순 반복 업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혈액 세포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미생물을 동정하는 등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의 검증, 정도 관리(Quality Control), 비정형 결과에 대한 판독 및 새로운 검사법 개발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자동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정부 정책 및 법적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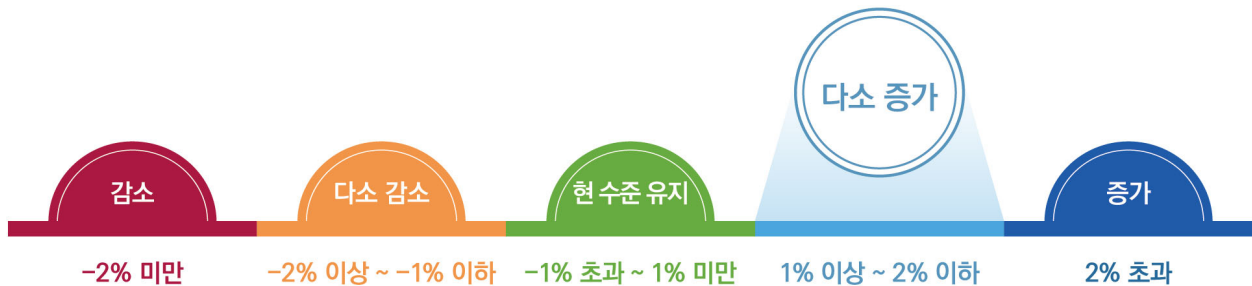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임상병리사를 포함하여 전문 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검사 항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진단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고용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임상 검사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및 건강검진 수요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분자진단 등 신규 검사 분야 확장	• 검사 장비의 자동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 증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방사선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방사선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방사선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7%로 예측된다.

방사선사는 전문적인 방사선 지식과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방사선 치료 업무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암,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영상진단 검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방사선사의 고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의 첨단화와 신기술의 도입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사선사 인력을 필요로 하여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영상 획득 표준화, 화질 개선, 자동 판독 보조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해 일부 고용 감소 요인을 제공하지만, 방사선사가 AI를 이해·활용하며 영상 품질 관리,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 등 고도화된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고가 영상검사의 이용 장벽이 낮아지면서 검사 건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방사선사의 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국가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시장의 성장 역시 방사선사의 수요를 증가시켜 방사선사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선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영상진단 검사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질환의 진단과 경과 관찰에는 영상진단 검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X선, CT, MRI 등의 검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첨단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

의료 기술의 발전은 방사선사가 활용하는 장비를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 장비의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중입자 치료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임상 현장에 도입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영상 획득 과정의 표준화, 화질 개선, 자동 판독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AI 기술은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 선량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의 발전이 방사선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최종적인 진단과 치료의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AI는 방사선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영상의학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AI 기술을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능력, 영상의 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검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등 방사선사의 역할은 고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뇌·뇌혈관 MRI, 초음파 검사 등 과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영상 검사들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영상 검사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방사선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건강검진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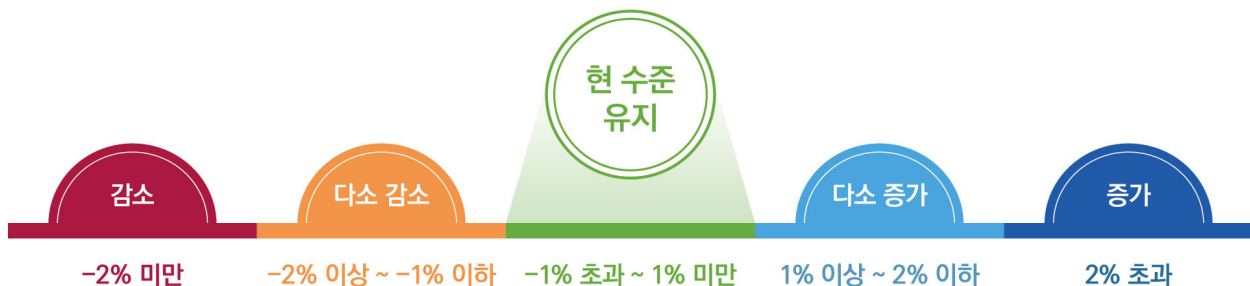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국가건강검진 비용 규모가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건강검진 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암검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검진과 규모가 비슷했으나 암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검진 수요 증가로 인해 일반검진의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검진 수요의 증가는 방사선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영상진단 검사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첨단 의료 장비 도입 및 고도화 •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방사선사 역할의 전문화	•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건강검진 시장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치과기공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치과기공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치과기공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치과기공사는 구강에서 얻은 모형을 바탕으로 치과 보철물 및 장치물을 과학적인 방법과 관련된 기술로 제작하여 구강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임플란트와 틀니 등 보철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심미적 개선을 위한 치아 교정·라미네이트·미백 등 심미 보철 시장의 확대는 치과기공사의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령층의 임플란트 치료 접근성을 높여 잠재 수요를 실제 치료로 전환시키며, 치과기공사의 안정적 고용을 뒷받침할 것이다. 반면, 3D 프린터, 구강 스캐너, CAD/CAM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제작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인력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다루며 맞춤형 보철물 설계와 임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치과기공사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기공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보철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에 의하면, 치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60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는 치과기공사가 제작하는 보철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심미 보철 수요 확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의 기능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적 개선을 위한 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등 심미 보철 분야

가 확대되는 추세는 치과기공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3D 프린터, 구강 스캐너, CAD/CAM(컴퓨터 지원 설계 및 제조) 시스템 등 기술의 발전은 치과기공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술은 보철물 제작 과정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양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치기공은 구강 내 보조물을 만드는 것보다 이를 장착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므로 실무경험과 더불어, IT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치과기공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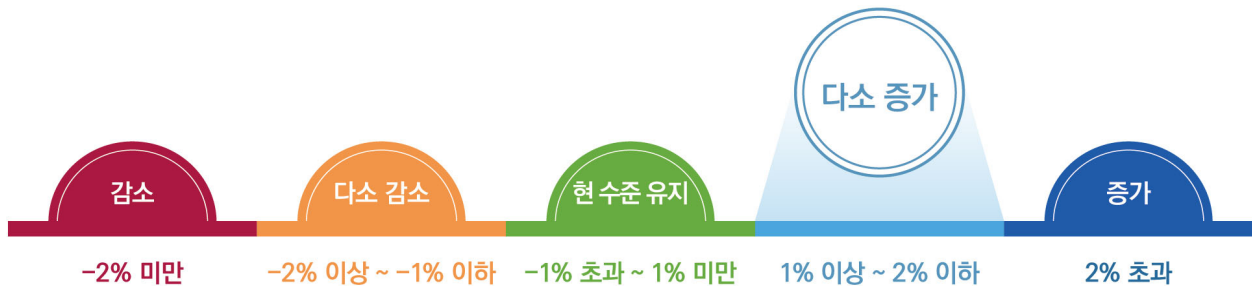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하고, 적용 개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치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전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보험 적용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임플란트 수요가 실제 치료로 이어지면서,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제작 물량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철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심미 보철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CAD/CAM, 3D 프린팅 등으로 인한 자동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치과위생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치과위생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치과위생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방사선 촬영 지시에 따라 구강을 촬영하는 등 치과 의사의 진료 또는 수술을 도와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조한다. 때로는 간단한 치과 처치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임플란트·틀니·치주 관리 수요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는 스케일링, 미백, 교정 등 예방 및 심미적 치과 서비스 확대를 이끌며 치과위생사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구강보건 정책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케일링 보험 적용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추진은 치과위생사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인 임플란트·틀니의 보험 보장성 확대 역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고용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디지털 텐티스트리와 AI 기술은 일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환자 상담과 예방 처치 등 치과위생사의 본질적 역할은 자동화가 어려워 일자리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 및 건강·미용 관심 증가에 따른 치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인구 증가는 임플란트, 틀니, 치주질환 관리 등과 같은 치과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과 심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치아미백, 교정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예방 처치와 구강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강보건 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진료로 전환되면서 예방 처치 및 구강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예방적 치과 진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의 치과위생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또한 관련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치과위생사의 고용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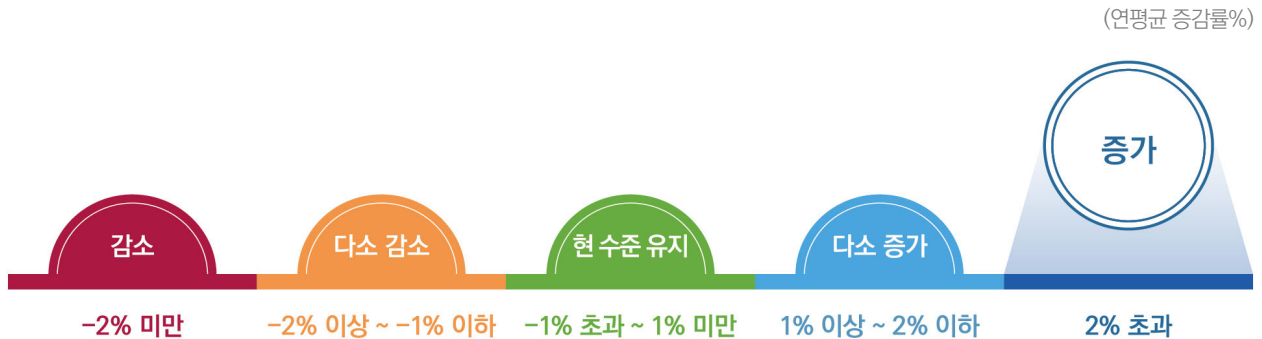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발전

3D 프린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발전은 일부 진료 보조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으나,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예방 처치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일부 단순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민 구강 건강 증진 정책 강화 (예방 중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스케일링, 노인 임플란트 등)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물리치료사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물리치료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물리 및 작업 치료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6%로 예측된다.

물리치료사는 운동요법이나 기타 기구·장비 등을 이용한 훈련으로 각종 재해 및 사고, 급성 또는 만성적 질환에 의한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재활을 보조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병원의 세분화는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수요를 꾸준히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스포츠 손상 재활 등 예방 및 관리 차원의 수요를 늘려 병원 외에도 스포츠 구단, 피트니스센터 등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역시 방문 재활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반면, 실손보험 개편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물리치료사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등 노인성 질환 및 만성 퇴행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도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자세 불균형과 근골격계 통증을 교정하고 관리받으려는 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확대

되면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재활 치료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물리치료사의 활동 영역을 병원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단,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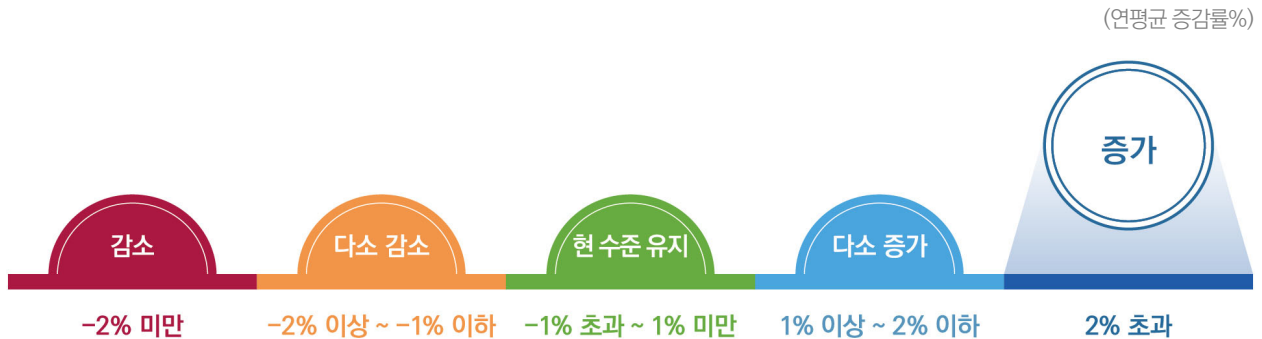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확대와 실손보험 개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물리치료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 정책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넘어선 가정 방문 물리치료, 지역 보건소 및 복지관에서 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정착될수록 고용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문요양 및 재활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으로 인해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는 의료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스포츠 손상 및 생활 습관성 통증 관리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재활·요양 병원 및 시설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에 따른 도수치료 시장 위축 가능성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작업치료사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작업치료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물리 및 작업 치료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6%로 예측된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정신적·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작업훈련을 통해 치료 활동을 수행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로 재활치료 수요가 커지면서, 치매·뇌졸중 환자의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일자리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은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공공 영역에서 작업치료사 채용을 의무화·확대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발달장애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는 작업치료사의 활동 영역을 아동발달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으로 확장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작업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재활 수요 증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및 다중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활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매·뇌졸중 등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환자의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는 작업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활동 영역 확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속적 개선으로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확대로 방문재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작업치료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작업치료사가 인지 재활 전문가로서 법적 필수 인력으로 포함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아동 발달 및 정신건강 분야 등 작업치료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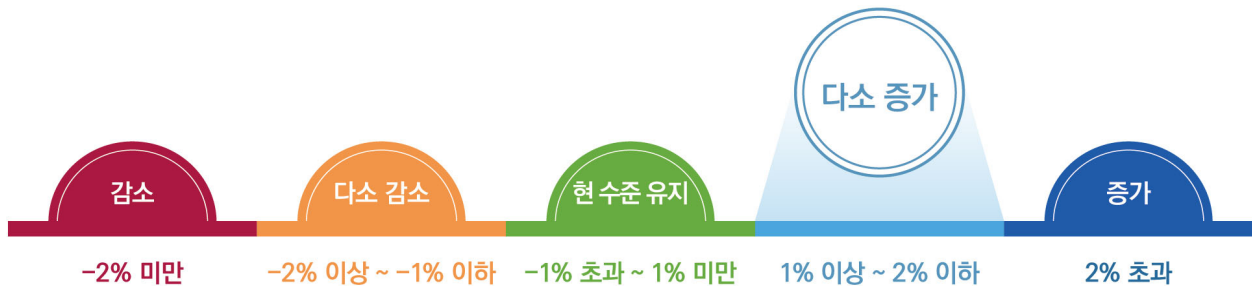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과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된 치료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작업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작업치료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활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아동 발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 정책 확대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개선으로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적응 문제, 각종 중독 문제, 정신분열, 섭식 장애, 주의력 결핍, 자폐, 학습장애, 성격장애, 두통 등 심리·생리적 문제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이해·평가·치료한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은 상담·치료 서비스 이용을 늘려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울감·소외감·인지 기능 저하 등 심리적 문제는 전문적 지원 수요를 높이며, 이는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의 정신건강 투자 확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책 강화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심리 상담 인프라 확충을 유도해 고용 증가를 가속할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상담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 확산은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나, AI 기반 챗봇 상담은 공감·신뢰 형성의 한계로 인해 대체보다는 보조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문제 심화에 따른 심리 서비스 이용 확대

현대사회의 복잡성, 경쟁 심화,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의 확대로 이어져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ADHD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5~19세 아동·청소년은 약 24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교 및 전문 상담 센터에서 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리·정서적 지원 수요 확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감, 소외감, 인지 기능 저하 문제와 1인 가구가 겪는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은 전문적인 심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의 정신건강 투자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회복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일자리 증가에 직접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청년층과 직장인 등 대상별 지원을 강화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상담 및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에는 직원의 신체적 안전에만 집중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정신건강 관리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보건 의무가 강화되면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에 상담 센터를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어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가 기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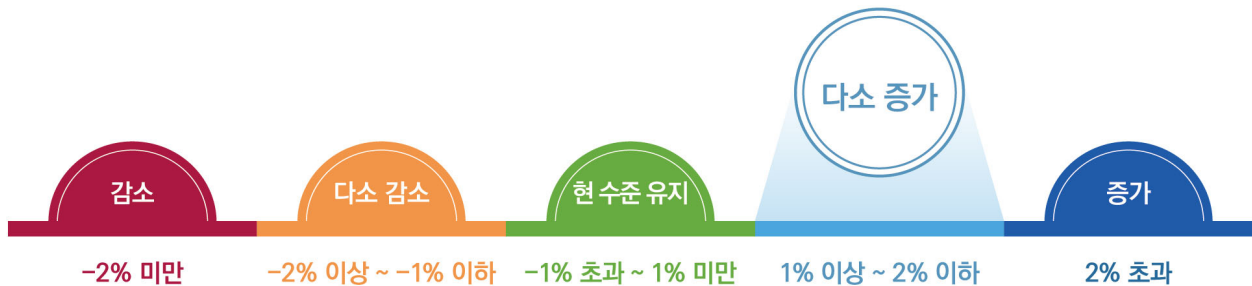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비대면 상담 플랫폼 및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비대면 상담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며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심리상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은 기존 대면 치료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공지능(AI) 챗봇 기술을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은 인간 치료사가 제공하는 깊은 공감과 신뢰 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어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분간 AI 기술이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리·정서적 지원 수요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정신건강 문제 심화에 따른 심리 서비스 이용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비대면 상담 플랫폼 및 디지털 치료기기 보급 확대	•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기술의 발전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신건강 투자 확대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상실 또는 약화된 신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기장비를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수리·판매하고, 올바른 착용을 지도하며, 보조기장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근력 저하, 관절 질환 등으로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고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웨어러블 로봇, AI 기반 보조기기,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운용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재활보조기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 정책은 산업 성장을 촉진해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고용 기반을 더욱 확장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화에 따른 재활 수요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3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 명(전체 인구의 29.9%)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근력 저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거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 첨단 기술 접목과 전문 인력 수요 증가

웨어러블 로봇, AI 기반 보조기기,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이 의지·보조기 분야에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지보조

기 제작이 가능해졌다. 단순 제작에서 사후관리, 사용자 평가,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분야 고용 증가에 따라 스타트업·바이오메카트로닉스 기업에서 재활공학기사(의지보조기기사)의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지원 확대와 보조기기 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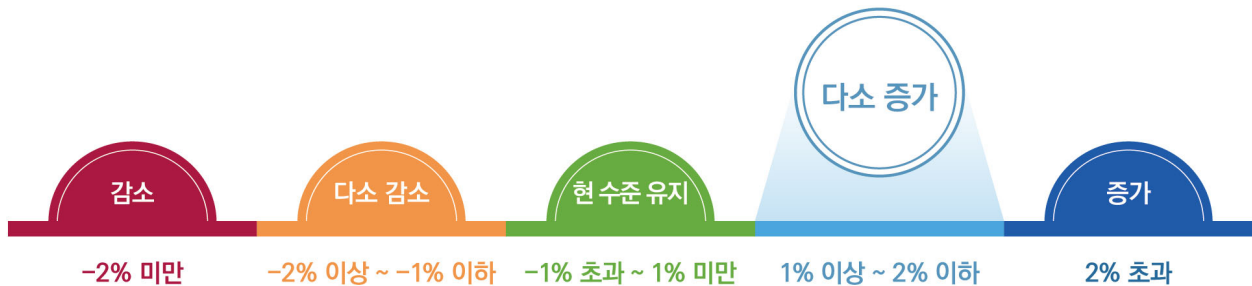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정부는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을 통해 의지·보조기 구매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확산은 지역 보조기기센터, 방문 서비스, 방문 보조기기 유지관리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활보조기기 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및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 산업 전반의 성장은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규격·품질관리 강화에 따라 보조기기 안전기준 강화, ISO 규격 준수 필요성 증가로 인해 품질관리(QA/QC)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재활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확대 - 보조기기 유지관리 전문 인력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의지·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품목 확대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재활보조기기 산업 육성 - 국제 규격·품질관리 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언어치료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언어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어치료사는 표준화된 검사와 관찰을 통해 언어장애 환자의 장애 원인을 평가·진단하고 치료한다. 저출산 현상은 잠재적으로 언어치료사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부모의 발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조기 개입 확대는 아동 대상 언어치료 수요를 늘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신경언어장애 환자가 증가하면서 성인·노인 대상 치료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은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AI·음성인식·AR 등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치료 플랫폼의 확산은 치료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 언어치료사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언어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발달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저출산 현상은 잠재적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어 발달 지연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아동 대상 언어치료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언어장애 환자 증가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신경언어장애 및 삼킴장애(연하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확대

언어치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는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치료에 대한 잠재 수요를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선별 검사 강화는 언어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언어재활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비대면 치료 플랫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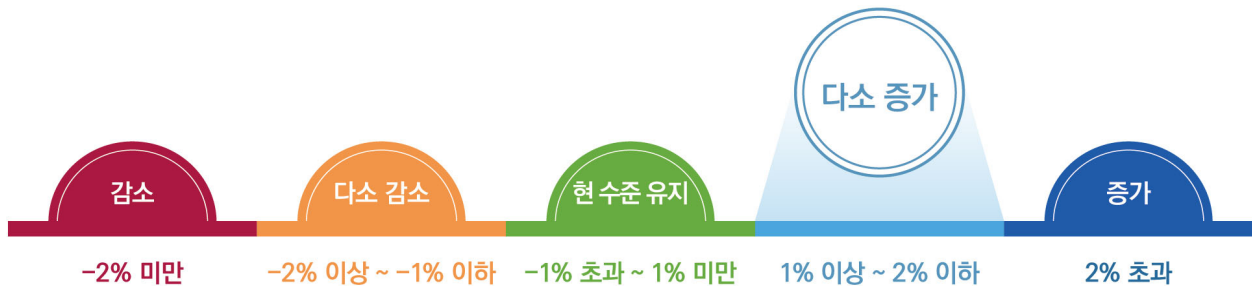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이 언어치료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평가 도구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개인별 맞춤형 치료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 치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치료 플랫폼의 확산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일부 표준화된 훈련을 자동화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 복합적인 상황 판단, 치료 계획 수립 등 언어치료사의 전문적 역할은 여전히 핵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언어장애 환자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아동 발달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조기 치료 수요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비대면 치료 플랫폼 확산에 따른 시장 확대	•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부 표준화된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정부 바우처 사업 확대 • 영유아 선별검사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청능치료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청능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능치료사는 청각 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심리사회적·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청각능력을 평가하거나, 보청기·인공와우 적합 여부 판단, 청능 재활 업무를 수행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환자의 증가와 젊은 층에서의 소음성 난청 확산은 청능치료 서비스 수요를 꾸준히 확대하며 청능사의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난청이 치매·우울증 등 2차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적극적인 재활과 관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더불어, AI 기반 보청기·인공와우 등 첨단 청각 보조기기의 발전은 정밀한 적합 및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해 청능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는 청각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청능사의 고용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능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 인구의 증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성 난청 유병률은 37.8%에 달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과 난청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청 진료 환자는 2019년 65만 명에서 2023년 80만 명으로 5년 사이 23%가량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청력 저하를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청각 평가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능치료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음성 난청의 확대

과거 직업 환경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어폰 등 개인 음향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소음성 난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청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기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난청 방치가 치매·우울증 등 2차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청능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청각 보조기기 기술의 고도화 및 시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음 감소, 무선 스트리밍, 스마트폰 연동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청각 보조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고도화된 기기는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맞는 정밀한 적합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요구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능치료사의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및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있어 청능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생아 선별검사 확대로 인해, 영유아 대상의 전문적인 청능 평가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능치료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능치료사의 법제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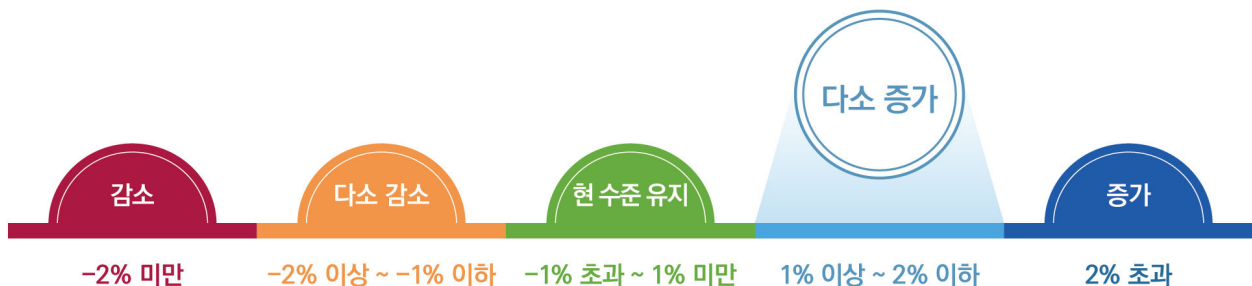
현재 청능치료사는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지위와 업무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난청 인구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청능사법」 제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국가자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청능치료사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민간 자격 소지자로서 보청기 판매 및 센터 운영 중심의 제한된 고용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이어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증가 - 청각 건강관리 인식 개선으로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보청기·인공와우 등 청각 보조기기 기술의 고도화 및 시장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장애인 및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 - 신생아 선별검사 확대	청능치료사 법제화 논의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놀이치료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놀이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놀이치료사는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원인을 평가하고 진단 및 치료한다.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학업·디지털 환경·포래 관계 등으로 인한 정서·행동 문제 증가, 그리고 정부의 아동 발달 지원 정책 강화는 놀이치료사의 고용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정책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또한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 등 신기술은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며 놀이치료사의 전문성을 보완할 전망이다. 반면, 지속적인 저출산은 잠재적 서비스 대상인 아동 인구를 구조적으로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일자리 수요를 제한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놀이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아동기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발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 있어야만 전문가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혹은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를 찾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했으며, 이 중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포래 관계의 어려움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아동이 늘어나는 현상은 놀이치료 서비스의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다.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원 확대는 놀이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놀이치료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치료 도구 개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놀이치료사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도구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DTx)는 ADHD, 불안, 우울 등 특정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임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과 깊은 신뢰 관계(라포)를 형성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하며 개입하는 놀이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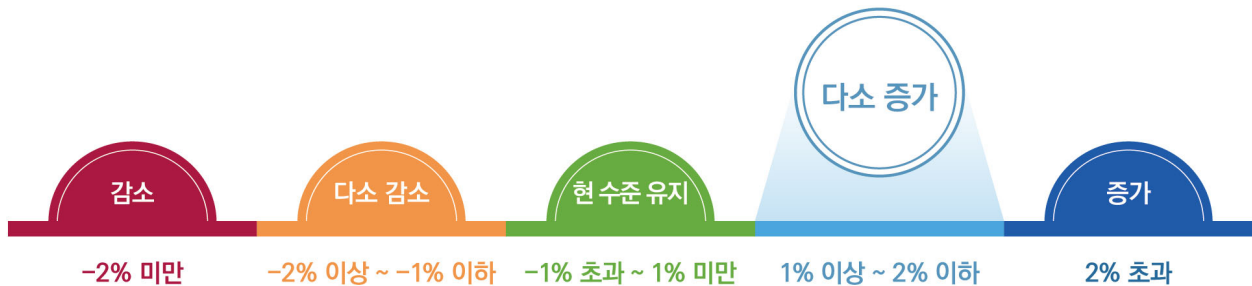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놀이치료사 일자리 전망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고객층인 아동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잠재적 치료 대상 아동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놀이치료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심리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접근성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치료 도구 개발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예술치료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예술치료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치료사는 사회적·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예술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진단하고 치료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노년층까지 서비스 수요를 늘려 예술치료사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울, 인지장애, 사회적 고립 문제는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복지관 등에서 예술치료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와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며,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반면, 지속적인 저출산은 아동 인구 감소로 장기적인 성장 폭을 제한할 수 있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확산은 초기 상담, 경미한 증상 관리 영역에서 대체 수단으로 작용해 고용 확대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깊은 신뢰 형성과 비언어적 표현 해석 등 예술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술치료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등이 늘어나고 있다. 예술치료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예술치료는 언어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감정 표현이 서툰 성인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인식되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심리치료를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예술치료를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치료 대상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예술치료사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예술치료사의 고용 증가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노년층의 증가는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 등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술치료는 노년층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선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서 예술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예술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은 예술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술치료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은 예술치료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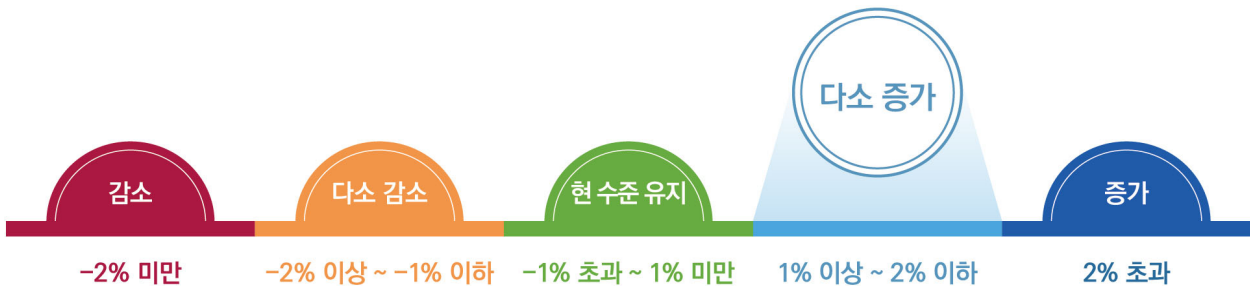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챗봇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신건강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시공간 제약 없이 즉각적인 상담 지원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초기 상담을 원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성장할 경우,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치료 서비스와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예술치료사의 고용 증가 폭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담자와 깊은 신뢰 관계(라포)를 형성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하며 개입하는 예술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 확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문제 심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심리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접근성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디지털 치료기기와의 경쟁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바우처 사업 등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 증가 추세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응급 구조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응급 구조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응급 구조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4%로 예측된다.

응급 구조사는 교통사고, 화재 발생 등 인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을 구한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고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구급 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안전과 건강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행사장, 스포츠 시설 등 민간 부문에서의 안전 인력 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응급 구조사 채용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응급 구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증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과 건강의 가치가 중시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소방안전 및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등산, 캠핑, 각종 레저 스포츠 등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장, 스포츠 시설,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 및 응급대응을 위한 응급 구조사 배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 확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 구급 서비스 이용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 실제 119 구급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40.8%에 달했으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도와줄 가족 구성원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전문 응급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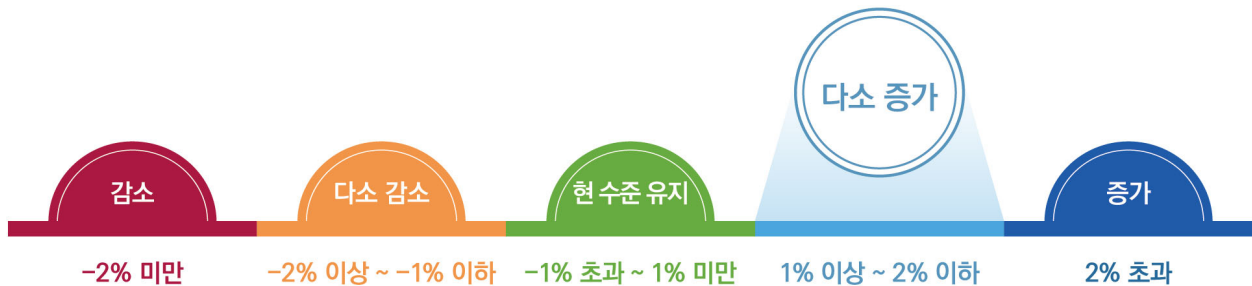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을 중심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고, 3인 구급대 탑승률을 높이는 등 구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응급 구조사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채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안전 및 건강 중시 문화 확산 - 여가 및 레저 활동 인구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국가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안경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안경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안경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1%로 예측된다.

안경사는 국민의 눈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시력 검안을 통해 소비자의 얼굴에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제작하고 판매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안 인구 증가와 디지털 기기 사용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 근시 및 안구건조증 환자 증가는 안경과 기능성 렌즈 수요를 확대해 안경사의 검안·조제·가공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라식·라섹·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술의 대중화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수요를 줄이고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안경광학과 졸업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젊은 층이 안경원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안경 산업 전반의 성장세와 의료기사로서 창업이 가능한 특성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안경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화로 인한 안경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안으로 인해 돋보기나 누진다초점렌즈를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의 전문적인 검안과 조제·가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시력 저하를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근시 유병률 증가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안구건조증 등은 기능성 렌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 시력교정술의 대중화 및 안경 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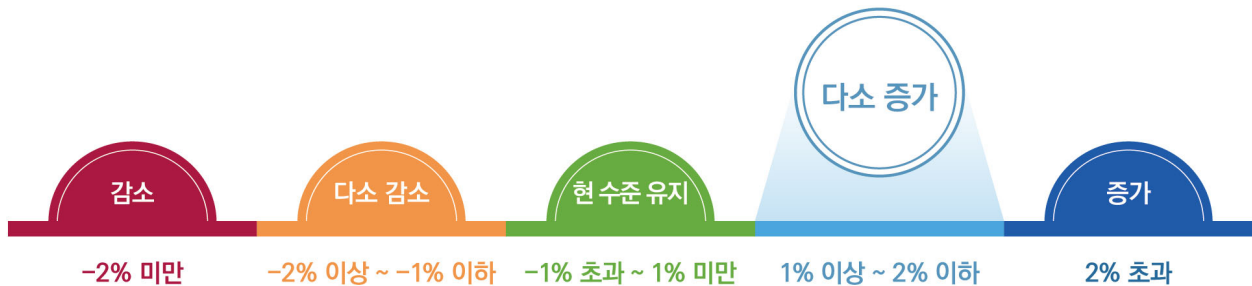
시력교정술의 발전과 온라인 판매 시장의 성장은 안경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술이 대중화되면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잠재적 수요자 일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 안경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점도 고용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안경광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증가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나 안경사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시간 근무하는 안경사의 업무 특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으로 젊은 층의 안경사가 안경원을 기피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안경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의료기사로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안경사의 미래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로 인한 노안 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로 인한 시력 저하 인구 증가 • 건강 및 눈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의 대중화 • 안경원 수 포화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정보 관리사는 질병의 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하며, 정보가 법적 요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의료 이용 확대는 방대한 의료정보 생성으로 이어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보편화와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단순 기록·보관을 넘어 데이터 표준화, 분석, 보안 관리까지 요구하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반복적인 입력·점검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은 있으나,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검증하는 전문성은 대체가 어려워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정부의 ‘나의건강기록’ 앱,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등 데이터 활용 정책 강화는 의료정보 관리 인력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정보량 증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잦아지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의료정보의 양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처방 내역, 영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유지·관리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되므로 고령화사회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의료 환경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며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현상은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보편화에 따른 의료이용률 증가에 따라 관련 의료 데이

터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넘어 축적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 직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병 분류 코드 입력이나 차트 완결성 점검 등의 업무는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수록 정보의 정확성, 표준화,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 데이터 활용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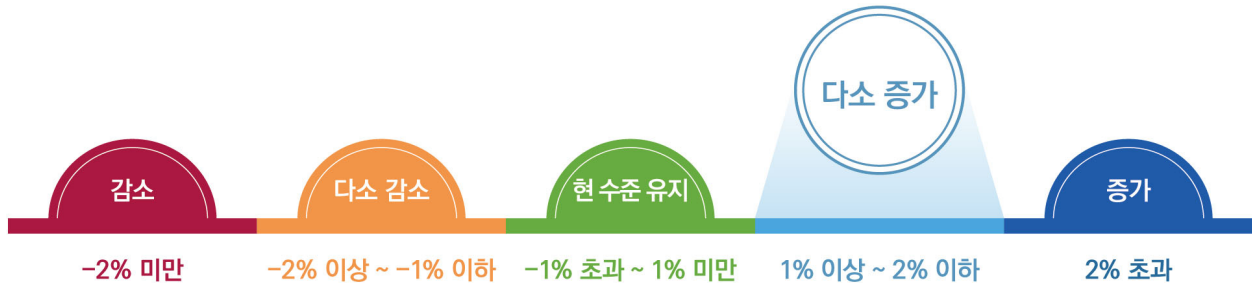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나의건강기록’ 앱과 같은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플랫폼(PHR)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을 책임질 보건 의료정보 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등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 정보인 의료 데이터의 보안 및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환경은 병원 내에서 의료정보가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활용되도록 감독하는 보건 의료정보 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정보량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전자의무기록(EMR) 보편화 -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 증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일부 단순 업무 자동화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데이터 활용 정책 강화 -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필요성 증대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의료정보 보안 및 관리 감독 역할의 중요성 증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간호조무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간호조무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된다.

간호조무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료 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를 놓고, 내원 환자를 안내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운동이나 활동을 돕는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확대와 요양병원·재활시설 등 돌봄 수요 증가는 간호조무사의 고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환자 배치 기준 강화는 간호조무사의 정규 채용을 촉진하며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삶의 질 향상과 미용·건강관리 수요 증대는 병·의원뿐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검진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해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행정 업무 일부를 자동화할 수 있으나, 돌봄·관찰·정서적 지원 등 대체가 어려운 핵심 직무 특성으로 인해 전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기관들에서 간호 업무 보조와 환자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령화 심화는 간호조무사 고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정부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은 간호조무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루어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정책 확대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정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부터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존 40명에서 최소 12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어, 더 많은 간호조무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미용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의원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간호조무사는 내원 환자 안내, 시술 보조, 기본적인 처치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간호조무사의 활동 영역을 다변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예약 관리, 기록 등 일부 행정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거동을 돕거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돌봄과 관련된 핵심 직무는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간호조무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조하여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4%로 예측된다.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여 진료, 검사,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펫코노미’ 시장이 성장하고,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자격을 갖춘 동물보건사 제도의 시행은 동물병원 고용을 촉진하며 직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첨단 영상 장비와 최소 침습 수술 등 고도화된 동물 진료 서비스는 전문 보조 인력의 필요성을 강화해 고용을 늘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AI 기술이 일부 단순 업무를 자동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동물을 다루고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은 대체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의 고용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의 수요를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펫팸(Pet+Family)족’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대시킨다. 실제로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의 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의 시행 역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다. 2021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직무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수의 테크니션', '동물 간호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직무를 표준화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동물병원들이 점차 대형화·전문화되면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인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을 채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특성 및 직무 영역의 다각화

반려동물의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노령 동물을 위한 재활 치료나 피트니스 등 헬스케어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단순 진료 보조를 넘어 재활 치료와 건강 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검역 및 방역 업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수의사를 보조하여 현장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동물 의료 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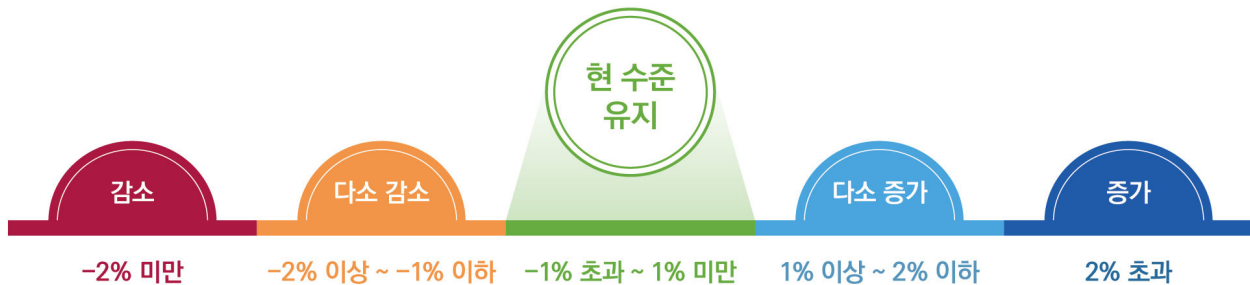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의료 기술의 발전은 동물 진료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수의학의 첨단화와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에는 진단이 어려웠던 질병들을 MRI, CT, 초음파 등 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나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관리하고 수술 및 처치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한편, AI 기술이 엑스레이 판독을 돕거나 간단한 문진을 수행하는 등 일부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실제 동물을 다루고 복잡한 의료 상황에 대처하는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술 발전은 수의사 보조원(동물보건사)이 더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 •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고도화된 의료 장비 운영 보조 수요 증가	• AI 기술을 활용한 일부 업무 대체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반려동물 재활 및 피트니스 전문 시장의 부상 • 공공기관 검역 및 방역 업무의 중요성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안마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안마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마사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한다.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고,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 욕구 증대는 안마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 퇴행성 환자 증가는 안마사의 고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기술 발전으로 고기능성 안마의자와 소형 마사지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전문 안마사의 일부 역할이 대체될 수 있어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을 위해 안마 바우처 사업과 안마사 파견 사업을 운영하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안마사 고용 기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채용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마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안마 수요 기반 확대

사회가 정보화시대로 변해가면서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마사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 및 만성 퇴행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안마사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과 대체 서비스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

고기능성 안마의자와 다양한 소형 마사지 기기의 개발 및 보급 확대는 안마사의 고용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안마의자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약 1조~2조 원 규모에서 정체기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술이 더욱 정

교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전문 안마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보호와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

현행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만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어르신에게 안마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또는 기업체가 직원들에게 안마·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마사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마사 파견 사업 과정에서 법인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데 대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따라 2023년 법 개정을 통하여 안마사 채용 기관과 사업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 수요층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디지털 시대의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 • 건강 및 삶의 질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고기능성 안마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안마 바우처 및 파견 사업을 통한 고용 지원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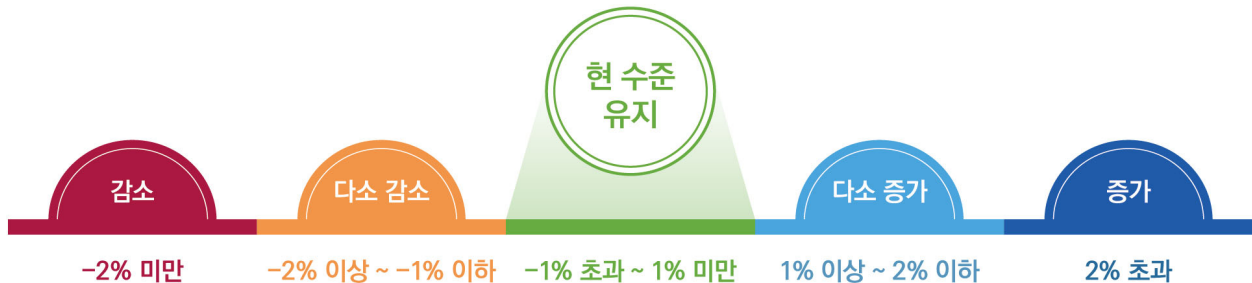
PART
2

직업별 일자리 전망

-
-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 2 보건·의료직(27개)
 - 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8개)
 - 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42개)
-

소설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소설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작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소설가는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 형식의 소설을 저술한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은 문예지와 정기간행물 발간 축소, 디지털 매체 확산으로 위축되며 소설가의 창작 활동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확장 가능한 원천 IP로서 가치가 상승하며 웹소설 시장 규모의 성장과 함께 작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OTT·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소비 확산은 독서를 하락을 불러와 소설 시장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 감소는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문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성형 AI는 아이디어 발상과 초고 작성 등 창작을 보조하는 한편 일부 장르에서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인간 특유의 감정과 세계관 창조에는 한계가 있어 작가의 창작 역량을 보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은 웹툰·드라마·게임 등과 연계된 원천 스토리 수요를 확대하며 소설가들이 다양한 매체로 작품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소설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 시장의 위축 및 웹소설 시장의 성장

소설가는 영향력 있는 문예지가 폐간되거나 기업의 사보,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이 위축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예지나 잡지, 사보 발간에 대한 기업 투자가 줄고, 인쇄 출판물이 디지털 매체로 상당 부분 대체되면서 문예지 및 잡지 등을 통해 등단할 기회도 다소 줄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KPIPA 출판산업 동향」에 따르면 소설 발행 종수는 2015년 7,682종에서 2023년 5,557종으로 최근 9년간 2,125종 약 27.6% 감소하였다. 한편으로는,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다변화되고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설, 특히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원천 지식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3,500억 원에 달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원천 스토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소

설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웹소설 플랫폼이나 독립 출판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OTT 및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의 부상은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변화시켜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독서 활동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3.0%로 2021년 대비 4.5%p 감소하여, 독서 인구의 감소가 소설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책을 활발하게 읽는 아동·청소년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현상은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시장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생성형 AI는 자료 조사, 아이디어 구상, 초고 작성 등 창작의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부 장르나 정형화된 글쓰기 영역에서는 인간 작가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가 인간 고유의 경험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감정선이나 독창적인 세계관을 창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AI 기술은 작가들이 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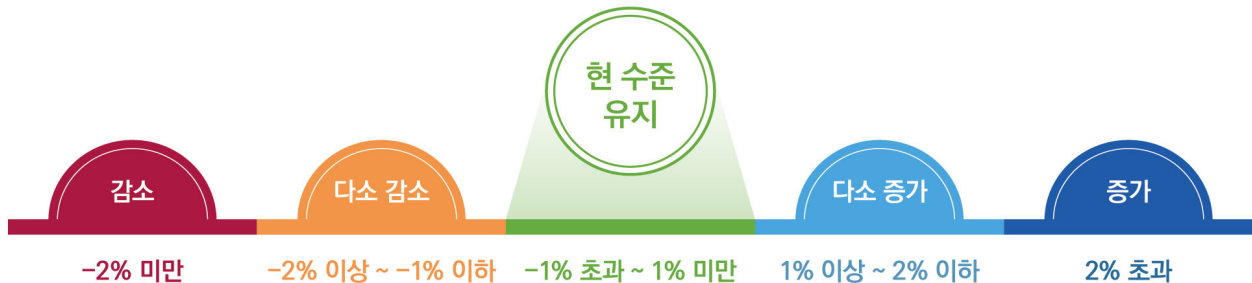
정부의 K-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은 소설가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 IP를 활용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소설가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소설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매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성인 독서율 감소 추세 - 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생산성 향상	생성형 AI의 글쓰기 대체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웹소설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진입 장벽 완화 - OTT 등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원천 IP 수요 증가	전통적 종이책 출판 시장의 위축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K-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영상시나리오작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상시나리오작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작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영상시나리오작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창작 글을 쓰거나 문학작품의 내용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대본)를 쓴다. 영화산업은 제작 투자 위축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영상시나리오작가의 경우 산업 규모 대비 인력이 매우 적고, 감독이 작가를 겸하는 관행이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내외 OTT 플랫폼의 가파른 성장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국내 OTT 시장은 2023년 5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027년 약 7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나리오 작가의 일자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투입과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하면서 콘텐츠 제작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어, 영상시나리오작가의 고용은 국내외 무대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생성형 AI가 일부 단순 대본 제작을 대체할 수 있어 향후 고용구조와 필요한 역량이 변할 수 있으며, AI와 협업하며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가 중심의 일자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영상시나리오작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산업의 위축과 OTT 플랫폼 시장의 성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산업은 제작 투자 감소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3년 영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6,872개로 2022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는 3만 1,403명으로 2022년 대비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약 5조 9,03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영상시나리오작가는 산업 규모 대비 그 수가 매우 적다. 영화사가 감독과 작가의 직무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화감독이 작가를 겸하는 경우도 흔해 일자리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외 OTT 플랫폼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시나리오작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내 OTT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에는 약 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은 2022년 55.9%에서 2024년 59.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OTT 기업들은 가입자 확보와 유지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여 독창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영화,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그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창작하는 시나리오작가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은 영상시나리오작가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와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시나리오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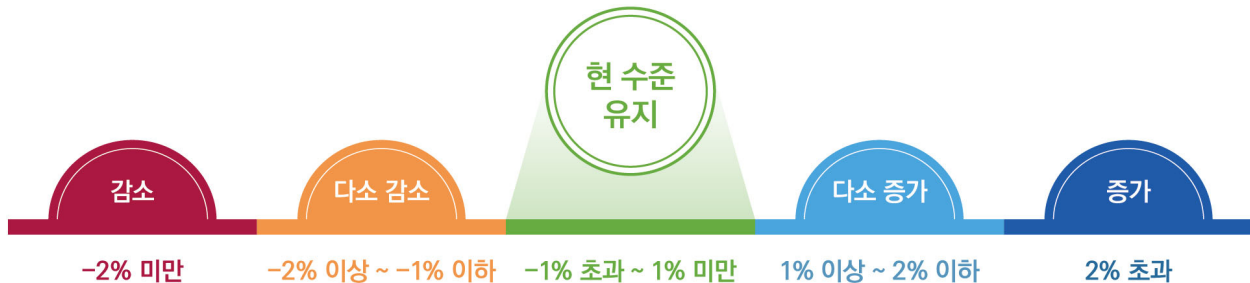
생성형 AI는 자료조사, 아이디어 구상, 초고 작성 등 창작 과정의 일부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적인 플롯이나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경우, 일부 저작권이 없거나 단순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에서 작가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작가의 고용 형태나 요구되는 역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AI와 협업하여 독창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K-콘텐츠의 세계화 및 위상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생산성 향상	• 생성형 AI의 글쓰기 대체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콘텐츠 제작 수요 증가	• 산업 규모 대비 적은 일자리 비율 • 영화제작 투자 감소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투자 확대 정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방송작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방송작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작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방송작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대본을 작성한다. 방송산업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전통적인 지상파·유선방송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방송사 및 제작사의 재정 악화와 함께 방송작가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OTT 플랫폼의 급성장은 방송작가의 활동 무대를 기존 방송사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OTT 서비스 이용률은 79.2%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되었고, K-콘텐츠 인기에 따른 해외 플랫폼의 국내 콘텐츠 수요 확대도 작가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생성형 AI는 기획과 초고 작성 등 창작 과정의 일부를 보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순한 대본 작성 등 일부 영역에서는 작가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고용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독창성과 감정 표현, 사회문화적 맥락을 담아내는 역량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워, 작가의 차별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료 지급과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여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방송작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산업의 위축과 OTT 플랫폼의 성장

인터넷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지상파방송, 유선방송을 비롯한 방송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이 감소하면서, 이는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방송사 및 제작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는 1인 미디어의 부상과 맞물려 기존 방송작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성장은 방송작가의 활동 무대를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24년 79.2%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역량 있는 작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에 힘입어 해외 OTT 플랫폼의 국내 콘텐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생성형 AI는 자료조사, 아이디어 구상, 초고 작성 등 창작 과정의 일부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플롯 구성이나 대본 작성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작가의 고용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의 독창성, 복잡한
감정선,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루는 창작 영역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처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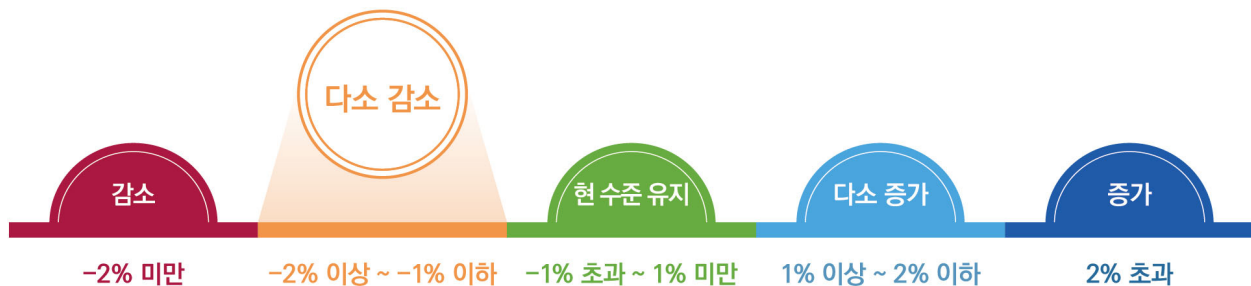
과거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18년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원고료 지급 방식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작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방송작가의 장기
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생산성 향상	• 생성형 AI의 글쓰기 대체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콘텐츠 제작 수요 증가	• 전통적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 •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부상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처우 개선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번역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번역가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번역가는 특정 언어로 작성된 문서, 보고서 또는 전문 서적이나 영상물 등을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가의 업무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능이 잘 발휘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번역가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급 및 중급 수준의 번역가에 대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정 전문 영역이나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는 AI에 의한 대체가 쉽지 않고 번역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급 번역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거나 시장 성장과 함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한 사회의 문화와 언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미묘한 어감 등을 AI가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고급 번역가의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AI에 의한 번역 자동화에 대응하여 번역가는 특정 분야나 문화에 대한 전문성, 디지털 도구 활용, 감수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번역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의 자동번역 기술의 고도화

번역가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이다. 번역 업무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로는 구글(Google) 번역기, 파파고(Papago) 등 컴퓨터가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MT), 효율적 번역 작업을 지원하는 번역 메모리(TM), 용어집, 품질 검토 등의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인 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다국어 콘텐츠의 번역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관리 및 최적화하는 번역관리시스템(TMS)이 있다. 최근에는 클로버X,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간단한 번역 업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번역 업무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광고, 마케팅, 게임, 문학 등 감정적 전달이 중요한 분야에서 언어의 맥락,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문화적 적합성까지 고려하여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트랜스 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의 고난도 번역 작업은 AI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번역 산출물을 사람이 교정 및 품질 검증하는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업무에 대한 전문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과 스마트화

AI 등에 의한 번역 업무의 자동화는 기업의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전략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별히 고품질의 번역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계번역에 의한 자동화 혹은 외주화(저비용 해외 국가 등)하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글로벌화 및 K-culture의 확산

세계화와 글로벌 교역의 활성화로 특정 산업(의약·법률·IT 등)에서 현지화와 전문 번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pop, OTT 중심의 영상 콘텐츠, 게임, 문학작품, 관광 등 K-culture의 글로벌 확산으로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 영역에 대한 번역 수요

전문 분야에서 번역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증 번역(Certified Translation, 공문서, 증명서, 이민서류 등), 법률 번역(계약서, 소송자료, 법령 등), 특허 번역(명세서, 심사의 견서 등), 의료 번역(임상시험 보고서, 병력 서류 등), 기술·공학 번역(매뉴얼, 설계서 등) 등이 있다.

■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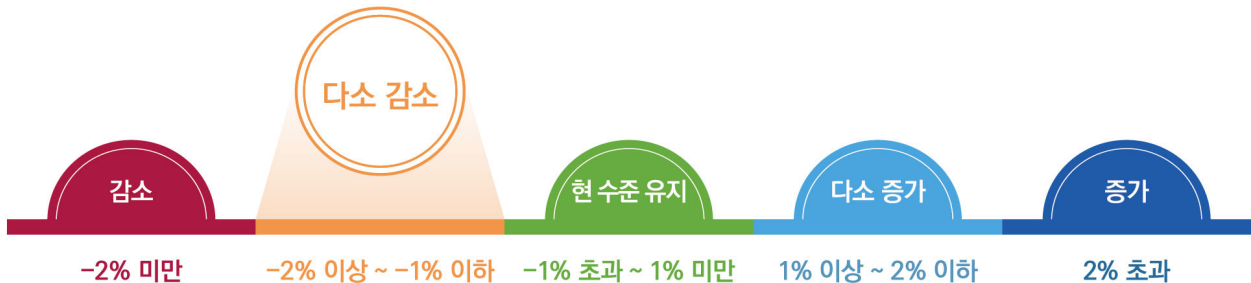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 및 이민자의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의료, 행정,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번역 서비스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숙한 이민자나 외국어에 능통한 내국인의 증가로 번역가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MTPE(기계번역 후 편집) 직무의 신규 등장 • 트랜스 크리에이션 등 고난도 번역은 AI 대체 어려움	• 생성형 AI, 기계번역(MT), CAT, TMS 등의 고도화로 간단한 번역 수요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전략에 따른 번역 업무 자동화 및 외주화(저비용 해외 국가 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K-pop, OTT 영상 콘텐츠, 게임, 관광 등 K-culture 확산에 따른 다국어 번역수요 증가 • 의약·법률·IT 등 특정 산업에서의 현지화 및 전문 번역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인증 번역, 법률·특허·의료·기술 분야 등에서 번역 수요 꾸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통역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통역가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통역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통역 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비즈니스,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통역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또한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의 증가도 통역가의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AI 기반의 자동통역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숙련 통역가의 일자리는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자동통역 기술의 영향력이 번역 부문보다는 덜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았을 때 통역 부문에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교, 법률, 의료, 기업 간 비즈니스 등과 같이 높은 신뢰도와 정확도가 필요한 고난도의 통역 부문에서는 인간 통역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역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 분야 통역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외교, 법률, 의료, 기업 간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이 필요한 고난도의 현장 통역은 여전히 인간 통역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AI 기반의 자동통역 기술의 고도화

통역가의 업무는 동시통역, 순차통역, 원격통역, 의료 등 전문통역, 커뮤니티통역 등으로 세분화되며, 기술의 영향력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통역 기술의 발전으로 통역가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역 업무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난이도와 정확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은 통역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가 되고 있다. 자동통역은 음성인식, 기계번역(MT), 음성합성(Text-to-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데, 여기에 최근 생성형 AI 및 멀티모달 AI 기술이 포함되면서 자동통역 기술이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이들 통역 지원 기술을 바탕으로 통역용 앱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AI 통역 이어폰이 출시된 바 있다. 특히 Zoom과 같은 회의 솔루션들이 실시간 자막 및 다국어 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실시간 통역(동시통역, 순차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통역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입력 형태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Multimodal AI)로 진화함에 따라 비언어적 정보(대화 상황, 동작, 억양, 표정 등)까지 통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통역 기술의 발전은 인간 통역가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오역 리스크 등으로 인한 고위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통역 도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 국제교류의 증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기여가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하고 미래차,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통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K-pop, K-드라마, 관광 등 K-culture의 글로벌 확산으로 관련 산업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경비 절감 노력

경제성장을 둔화, 보호무역 강화,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은 비즈니스 통역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기존 프로젝트 취소, 출장 감소, 컨퍼런스 감소로 이어지므로 통역 업무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만, 글로벌 경기와 국제협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통역가에 대한 수요도 유동적이다.

그리고 AI 기반 자동통역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 등이 경비 절감을 위해 회의나 출장 등 단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통역 기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 증가

다문화 가정 및 이민자의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의료, 행정,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통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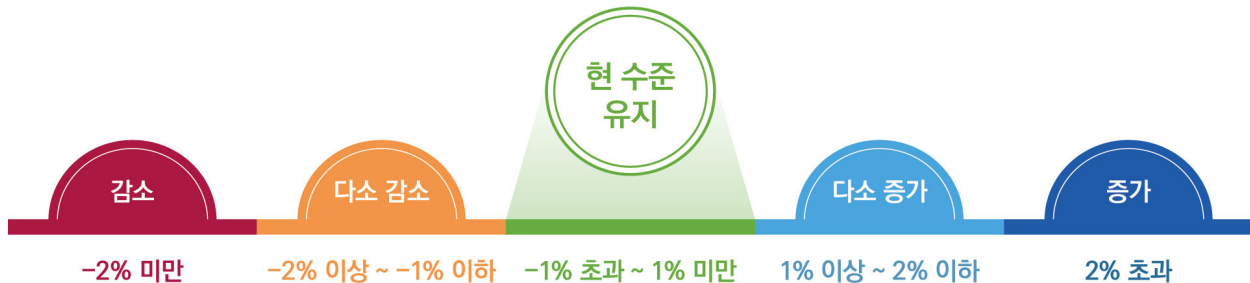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한국 통번역대학원 졸업생 수가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력이 전문 통역가로 공급되고 있어, 일자리 경쟁이 심한 편이다.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어에 능숙한 이민자나 외국인이 단순 통역 일자리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글로벌화로 예전보다 영어, 중국어 등 언어 능력이 높은 인력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환경에서 단순 통역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이에 더하여 AI와의 경쟁 구조까지 더해져 향후 일자리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높은 신뢰도와 고난도 영역에서 AI 기술의 한계	• AI 기반의 자동통역 기술의 고도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둔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국제교류의 증가	• 기업의 경비 절감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외교·법률·의료·기업 간 비즈니스 등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통역 수요 지속	
환경과 에너지·자원	• 환경·에너지 등 국제협력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출판물기획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출판물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9%로 예측된다.

출판물기획자는 독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주제와 내용의 출판물을 기획 및 편집하고 제작 관리를 담당한다.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는 저출산 및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의 경쟁에 따른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시장 축소의 부정적 요인이 커서, 인터랙티브북 등 기술 융합 콘텐츠, 독자층의 세분화와 취향 다변화, 콘텐츠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신규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출판산업 지원 정책 등 긍정적 요인을 상쇄하는 모양새이다.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 및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의 경쟁에 따른 독서인구 감소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은 독서인구의 감소와 출판시장의 침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및 청년 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받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SNS(유튜브 등) 및 OTT 기반의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및 선호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는 결국 전통적 단행본 시장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KPIPA 출판산업 동향(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신간 도서 발행 종수는 7만 9,416종으로, 전년 대비 1.5%(1,186종) 감소하였으며, 2019년 대비 2.8%(2,299종) 감소하였다. 2023년에 문학(9.6%), 예술/대중문화(2.4%), 실용(10.1%), 사회과학(4.6%), 과학기술(7.8%) 분야는 전년 대비 발행량이 증가했으나, 유아동(△4.1%), 교육(△18.2%), 인문(△1.1%) 분야는 감소하였다.

KPIPA 연간 발행 통계 (2019~2023년)

(단위: 종, %)

상위 분류	기본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발행 분포
유아동	유아, 아동(어린이)	7,337	7,641	7,259	9,045	8,671	-4.1	10.9%
교육	초등학습, 중고학습, 외국어, 취업/수험서/자격증	23,146	19,347	19,038	20,275	16,593	-18.2	20.9%
문학	소설, 시/에세이/희곡 등	14,997	14,629	14,728	14,595	15,995	9.6	20.1%
인문	철학/심리, 역사/문화, 종교, 기타인문학	11,417	11,310	10,884	11,086	10,966	-1.1	13.8%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3,764	4,032	5,228	4,376	4,481	2.4	5.6%
실용	자기계발, 가정/생활, 요리/취미, 건강/스포츠/레저, 여행	5,150	4,755	4,629	4,694	5,169	10.1	6.5%
사회과학	정치/사회, 경제/경영	9,331	8,216	8,463	8,693	9,093	4.6	11.4%
과학기술	IT/컴퓨터, 자연과학, 기술공학	6,573	6,794	7,495	7,838	8,448	7.8	10.6%
합계		81,715	76,724	77,724	80,602	79,416	-1.5	100.0%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5), 『KPIPA 출판산업 동향(2024 상반기)』, 77~78쪽 재구성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2025. 04.), 「2024년 출판시장 통계」에서 재인용

AI 자동화 및 기술 융합 콘텐츠 수요 증가

디지털 저작 및 자동화 툴이 보급되고,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출판물기획자의 업무 중 반복적인 업무(편집 등)가 자동화로 대체되거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출판사는 편집, 표지 디자인, 트렌드 예측 등에 인공지능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다만, 기획의 창의성, 트렌드 파악, 브랜드 전략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판물기획자의 업무가 완전히 자동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획자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 웹툰,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의 등장은 기획자 역할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포맷에 특화된 기획능력, 플랫폼별 타깃 독자 분석력 등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인적 자원의 필요성이 줄어들 우려도 있으나, 콘텐츠 다변화와 유저 참여 강화는 출판기획 관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 활용 도서, 인터랙티브북(독자의 터치, 소리, 움직임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가 반응하는 디지털 기반 도서) 등 기술 융합 콘텐츠 기획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층의 세분화와 취향 다변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고령층), 1인 가구 등 독자층이 세분화되고, 워라밸, 개인주의, 디지털 세대의 자기표현 욕구, 자기계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독자층 또는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출판기획 수요가 증가하는 점은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이다.

■ 콘텐츠의 글로벌화와 시장의 불확실성

K-컬처의 세계적 확산(한류), 해외 판권·번역서 확대 등은 국내 기획자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독점기획, 브랜드북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획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 경기 불안정은 고용의 유연화, 일시적 계약직화, 외주 기획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기침체는 도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출판기획 프로젝트의 예산 축소와 신규 채용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 정부의 중소출판사 등에 대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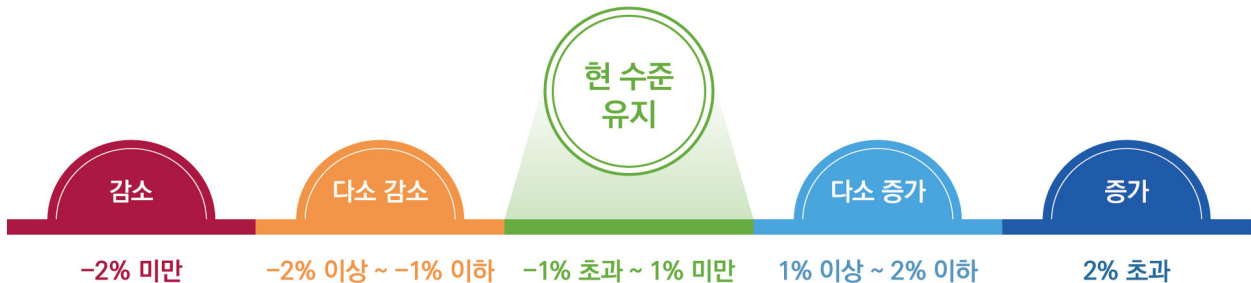
중소출판사에 대한 기획장려금과 출판제작비 지원, 장애인 독자를 위한 출판 지원 사업, 1인 기획자에 대한 창업 활동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은 출판물기획자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저출산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독서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 1인 가구, 워라벨 중시 등의 세분화된 독자층 증가 - 맞춤형 콘텐츠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AR, 인터랙티브북 등 기술 융합 콘텐츠 증가	AI, 디지털 자동화에 따른 편집·제작 등 반복 업무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콘텐츠 수요 증가	- 경기침체로 도서 소비 위축 - 출판 예산 축소, 신규 채용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고부가가치 브랜드북, 독점기획 등 전략 강화 - 차별화된 기획자의 전문성 수요 지속	단기계약화·외주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자책, 웹툰,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 증가 - 플랫폼별 전문 기획자 수요 확대	종이책 시장 축소에 따른 전통 출판물 기획 수요 감소 가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중소출판사 기획 장려금, 1인 기획자 창업 지원, 장애인 대상 출판 지원 정책 등 정부 지원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신문기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신문기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신문기자는 매체 형태에 따라 일간신문기자, 주간신문기자, 인터넷신문기자로 구분되며, 업무에 따라 논설, 취재, 편집, 교열, 사진동·영상, 온라인(SNS 포함)으로 구분된다. 신문기자의 일자리는 디지털 미디어와의 경쟁 심화, 신문 구독자 감소, 신문사의 광고 수익 감소, AI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해설형 기사, 영상 기반 보도 등 새로운 저널리즘 분야에서 신규 인재 수요가 있고, 지역 밀착형 취재, ESG 경영(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 과학기술 등 특정 주제 분야에서 전문기자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은 언론사 수익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신문기자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문기자의 전체 일자리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기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문 구독자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특히 20~40대)의 지속적 감소는 기존 신문에 대한 소비층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신규 신문 독자의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광고, 신문 구독 등의 매출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일간지의 구조조정 및 합병, 일부 지역신문의 폐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문사 수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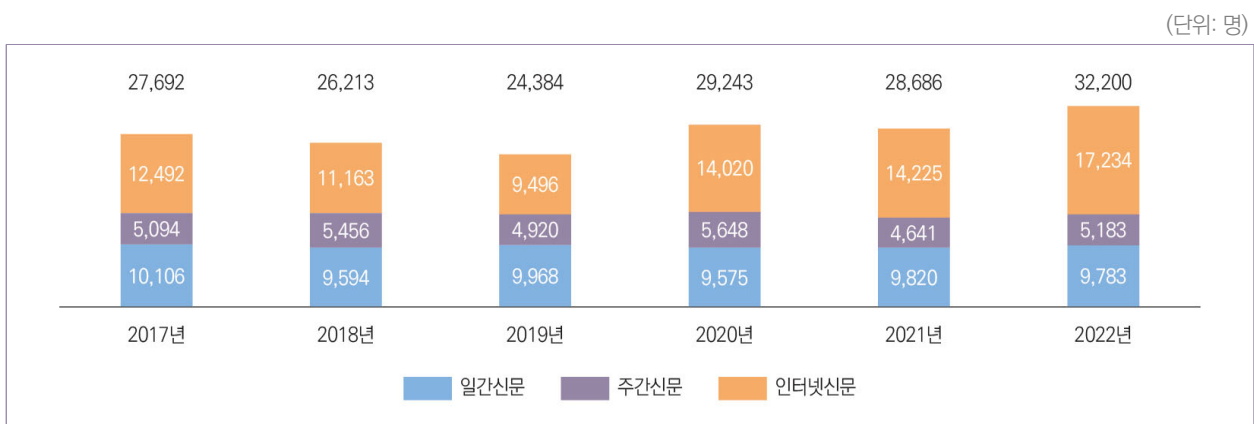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대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 뉴스 매체보다 본인이 구독하는 소셜미디어(SNS)나 포털 뉴스, 유튜브의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산업이 OTT, 유튜브, 포털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신문 구독 모델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신문사의 주수입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신문사의 수익 저하와 인력 감축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신문 취재의 결과물(인터뷰, 기사 등)을 2차 콘텐츠(영상, SNS 클립, 유튜브 콘텐츠 등)로 재가공·재활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문기자가 영상기자 또는 PD로 흡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신문으로 산업구조 전환

언론업계가 전통적 종이신문 중심에서 인터넷신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일간신문기자와 주간신문기자 종사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인터넷신문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감」(한국언론진흥재단, 각년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문산업 기자직 인원은 총 3만 2,240명으로 전년도(3만 2,200명)와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이지만, 2017년도(2만 7,692명)에 비해서는 16.4%가 증가한 것이다. 신문기자의 증가 이유는 주로 인터넷신문기자의 증가 때문으로, 인터넷신문기자는 2017년 1만 2,492명에서 2023년 1만 7,234명으로 무려 40.8%가 증가한 반면에 동 기간 일간신문기자는 1만 106명에서 9,757명으로 -3.45% 소폭 감소하였고, 주간신문기자는 5,094명에서 5,183명으로 1.7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통신기자 취업자 수는 한동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기자는 통신사(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속해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공할 스트레이트 기사(신속한 속보 기사)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신문기자·방송기자와 구분된다. 2023년 기준 통신기자 인원은 총 1,935명으로 2022년(1,907명)과 2021년(1,917명)에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2017년도(1,259명)에 비해서는 무려 53.7%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한국 언론 통계 데이터북」

■ AI 기반 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의 도입

신문사들은 AI 기반 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포츠, 날씨, 주가 동향, 통계, 단신 뉴스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신문기자들도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함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신문기자에 대한 인력 수요 축소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AI 기반 자동화가 심층 탐사보도, 심층 취재, 지역 밀착형 기획 기사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합적 역량을 요구하는 신문기자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신문기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다양화에 따른 니치 미디어 수요 증가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맞춤형 수요로 니치 미디어(Niche Media: 특정한 소수 집단의 관심사, 취향, 가치관을 정밀하게 겨냥하여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관심 사항이 다양해지면서 생활·트렌드, 건강·복지 등 특정 분야의 전문 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보, 과학기술, ESG(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산업 재편 등 비주류 이슈에 특화된 영역이나,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관련 해설형 기사 등에서 전문기자 수요는 제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형 언론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해설형 기사, 영상 기반 스토리텔링, AI 융합 보도 등 새로운 저널리즘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의 뉴스 저작권 제도 강화, 저널리즘 공익사업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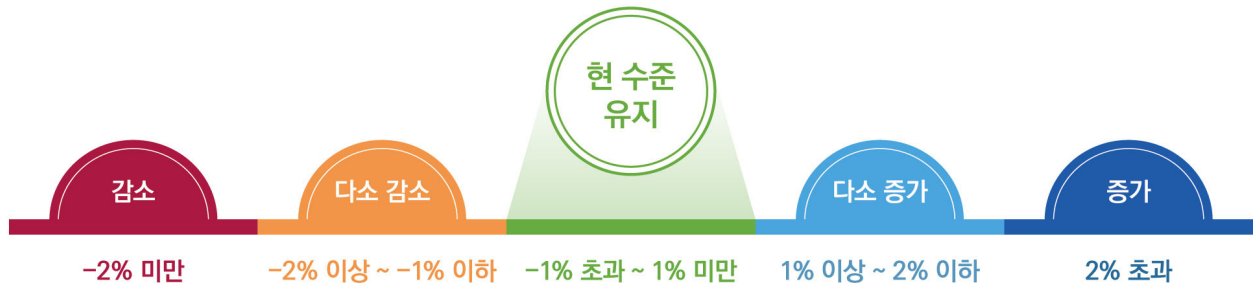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주도하에 AI 산업과 언론 콘텐츠 생태계 보호를 위한 뉴스 저작권 제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포털·플랫폼·AI기업 등과의 갈등 해소, 저널리즘의 경제적 가치 보호,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감소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결국 언론사의 수입 안정과 신문기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저널리즘 공익사업 및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금, 일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신문기자의 일자리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문 구독자의 축소 및 신규 구독자의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생활·트렌드, 건강·복지 등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전문기자 수요 증가 - 니치 미디어 시장에서 제한적 채용 가능성	디지털 미디어 등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영상 기반 스토리텔링, 데이터 저널리즘 등 융합 저널리즘 분야에서 기자 수요 존재	- AI 기반 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의 도입 -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수익 축소로 인한 신문사의 수익성 악화 및 신규 채용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대형 언론사를 중심으로 영상·분석형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에 대한 선별적 채용	전통 일간지 구조조정·합병, 지역신문 폐간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터넷신문과 통신사의 성장	전통적 종이신문의 침체
환경과 에너지·자원	ESG·기후위기 등 환경 이슈 전문 기사에 대한 수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뉴스 저작권 보호 정책, 공익 저널리즘 지원 사업, 지역 언론 활성화 지원 정책 등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방송기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방송기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방송기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TV 방송 혹은 라디오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편집하는 일을 하며, 주로 지상파방송(TV, 라디오), 종합유선, 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종사한다. 방송 뉴스는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히 방송기자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전통적 시청자의 감소,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 방송사 수익 개선을 위한 인원 감축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방송기자의 업무와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심층 취재, 데이터 저널리즘, 멀티플랫폼 뉴스 제작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일자리 기회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기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방송뉴스 시청자의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전통적인 방송 시청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MZ세대(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TV 및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한 뉴스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콘텐츠를 이용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 뉴스의 점유율을 낮춤으로써 방송기자에 대한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고령층 및 일부 중장년층에서 TV 뉴스 등 방송 저널리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은 지역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 뉴스 편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언어 뉴스 제작이 가능한 특화된 전문기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디지털 미디어 등 뉴스 매체의 다양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대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 뉴스 매체보다 본인이 구독하는 소셜미디어(SNS)나 포털 뉴스, 유튜버의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전통적 방송 뉴스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 다양한 포맷의 뉴스 콘텐츠 수요 증가

사회적 이슈 및 오락성 콘텐츠는 기존 TV 보도 못지않게 디지털 영상 뉴스, 실시간 이슈 스트림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워라벨, 개인주의, 취향 저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기자는 ‘기획·해설형 프로그램’, ‘심층 해설 다큐’, ‘실시간 커뮤니티 연계형 뉴스’ 등 다양한 포맷의 뉴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 뉴스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 도입

방송기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굴 및 기획, 인터뷰 등 취재 활동, 기사 작성, 스크립트 구성, 영상 및 음향 편집, 현장 보도 및 중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단순 기사 작성 및 스크립트 구성, 영상 및 음향 편집 등 자동화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업무에 대해 방송사 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고, 향후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송기자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 발굴이나 기획, 취재 활동, 현장 보도 등의 업무는 앞으로도 방송기자의 중요한 역할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일자리 축소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해설·분석형 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 경기 침체에 따른 방송사의 수익성 악화

경기 침체와 더딘 경기 회복세는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방송사의 수익 저하와 인력 감축을 불러올 수 있다.

■ 기업 경영전략 변화

방송산업 내 OTT, 디지털 채널, 멀티플랫폼 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 채널의 확산으로 심층기획기사, 데이터 기반 보도, 지역특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방송기자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뉴스 제작(콘텐츠 기획, 영상 데이터 분석, 크로스미디어 취재) 등 기술융합·플랫폼 전략에 특화된 융복합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이 기대된다.

한편, 지상파, 케이블, 종편, 보도 채널 등 모든 방송사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영상·편집·기획 등 일부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계약직·프리랜서 전환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 방송 뉴스의 공익적 성격 유지

예전의 공영방송 뉴스의 권위와 역할이 줄어들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생산 및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방송 뉴스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방송 뉴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 날씨 예보, 정치 일정, 지역사회 동향 등 필수 정보 전달은 물론 감염병 예방 등의 사회 계몽, 올림픽 중계 등의 국민 통합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으로 조직 및 인력이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 및 지역 방송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감」(한국언론진흥재단, 각년도)에 따르면 방송기자는 2023년 기준 3,906명으로 2017년 3,511명에 비해 11.3%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2년(3,928명), 2021년(3,918명)과 비교해보면 방송기자의 취업자 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뉴스 저작권 제도 강화, 저널리즘 공익사업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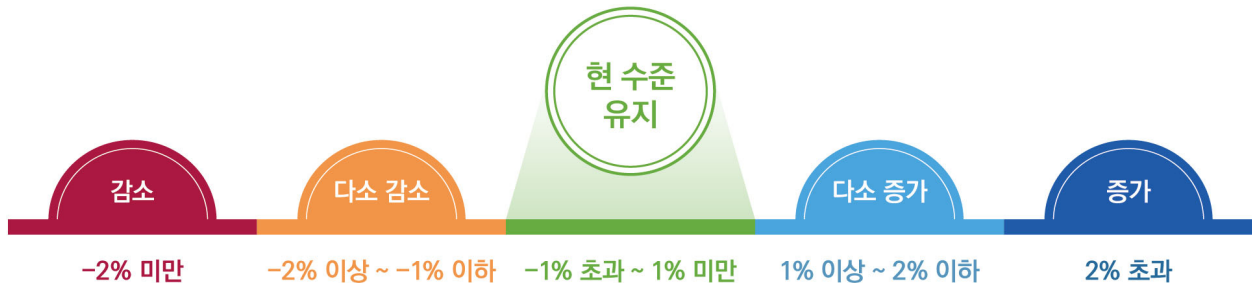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주도하에 AI 산업과 언론 콘텐츠 생태계 보호를 위한 뉴스 저작권 제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포털·플랫폼·AI기업 등과의 갈등 해소, 저널리즘의 경제적 가치 보호,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감소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결국 언론사의 수입 안정과 방송기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저널리즘 공익사업 및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금, 일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방송기자의 일자리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및 일부 중장년층의 TV 뉴스 수요 견고 -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다언어 뉴스 편성 증가와 특화 기자에 대한 수요 증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전통적 방송 뉴스 시청자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다양한 포맷의 뉴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 증가	MZ세대 중심 디지털 콘텐츠 선호로 전통 방송 뉴스 점유율 하락
과학기술의 발전		AI 도입에 따른 단순 기사 작성, 스크립트 구성, 영상 편집 등 자동화로 일부 일자리 감소 가능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침체로 광고 수익 감소와 방송사 인력 감축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데이터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방송 뉴스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조직 및 인력 유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뉴스 저작권 제도 강화로 언론사 수입 안정과 방송기자 고용 안정 기대 - 저널리즘 공익사업 및 취재 지원금,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 등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잡지기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잡지기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잡지기자는 잡지에 실을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 및 편집하는 일을 한다. 잡지기자의 일자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선호 및 소비 증가, 생성형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잡지 시장 축소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개인화·전문화 콘텐츠 수요 증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신규 수요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최근 몇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향후 10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잡지기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잡지 시장의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전체 잡지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잡지산업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잡지기자는 2023년 기준 총 2,525명이 종사하며, 세부적으로는 잡지발행사 621명, 도서출판사 344명, 언론사(잡지부행) 439명, 일반 기업·단체 1,022명, 1인 또는 독립발행 99명 등으로 구분된다. 2023년 종사자 수는 2년 전인 2021년(2,220명)에 비해 13.7% 증가했으나, 이는 2020~2022년에 창궐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4년(6,894명)을 정점으로 잡지기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최근에는 정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잡지산업 기자직 종사자 현황

연도	2010	2012	2014	2017	2019	2021	2023
종사자 수(명)	4,223	5,411	6,894	2,898	2,608	2,220	2,525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잡지산업 실태조사」(각년도)

■ 개인화·전문화 콘텐츠 수요 증가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 중시 문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개인 관심사별 전문 잡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액티브 시니어층(은퇴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여가·사회활동 의지가 강한 활동적인 50~70대 전후 세대)의 확산으로 건강, 여가, 취미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잡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분석과 트렌드 해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문적인 경제·산업 분야 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각종 디지털 미디어와의 경쟁

MZ세대는 물론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종합 잡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인 종이 잡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발행 부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잡지산업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2023년 잡지 사업체의 호당 평균 발행부수는 3,947부로 2년 전인 2021년보다 2,597부가 줄었다. 특히 월간지의 타격이 컸는데, 호당 평균 발행부수가 5,673부로 2021년의 57.9%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SNS)나 포털 뉴스, 유튜브의 정보에 대한 선호를 높임에 따라 전통적 잡지 산업과 잡지기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크로스미디어와 멀티플랫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영상, 팟캐스트, 웹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융합형 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생성형 AI에 의한 신규 인력 수요 감소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신규 수요 증가

잡지 업계에서도 많은 업체들과 종사자들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잡지기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면 취재, 데이터 저널리즘 등 AI를 활용한 새로운 역량을 갖춘 기사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규모 있는 잡지사에서는 오히려 매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경기 침체에 따른 잡지산업의 경영 악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와 구독료 축소가 잡지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잡지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잡지산업 총 매출액은 5,31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1.1%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잡지 광고 수입은 1,659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31.2%를 차지했으나, 이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잡지·정기간행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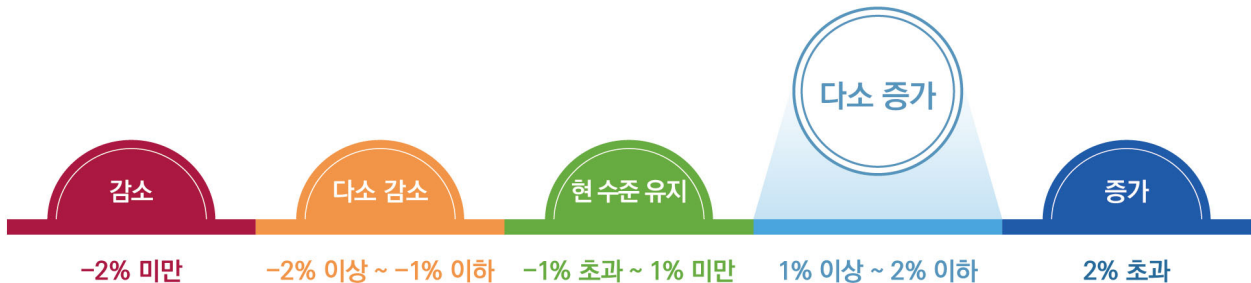
정기간행물진흥법에 근거해 정부는 잡지·정기간행물 산업 발전을 위해 잡지기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 유통 지원, 우수 잡지 구입 및 배포 등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 및 구매하여 전국 공공 도서관, 군부대, 재외 한국교육원 등에 배포함으로써 잡지사 경영 및 잡지기자 일자리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잡지 시장의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전문화 콘텐츠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 등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인력 수요 감소	• 유튜브 등 각종 디지털 미디어와의 경쟁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에 따른 잡지산업의 경영 악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술 융합형 기자에 대한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전문 인력 양성, 우수 잡지 구입 및 배포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학예사(큐레이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학예사(큐레이터)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예사(큐레이터)는 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준비·관리하고, 소장품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수행한다. 학예사(큐레이터)의 일자리는 국민의 문화 향유 수요의 증가, 액티브 시니어 등 문화복지 수요의 다변화, 디지털 전시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예사(큐레이터)의 역할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학예사(큐레이터)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의 인구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한계, 일부 업무의 디지털화 등은 학예사(큐레이터) 일자리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예사(큐레이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지원

정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융복합 문화 프로그램 강화 정책은 공공 부문의 학예사(큐레이터)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예술마을’, ‘시니어 여가센터’ 등 맞춤형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문화 다양성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에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하고 코리아센터를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확대할 예정이어서 해외 일자리 기회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약 10년간 박물관과 미술관의 증가와 함께 학예사(큐레이터) 종사자 수도 증가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사(큐레이터)는 2023년 기준 총 4,597명(박물관 3,528명, 미술관 1,069명)이며, 이는 전년(총 4,049명) 대비 13.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박물관과 미술관은 2023년 기준 총 1,199개소로 전년(1,194개소)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시설 수와 학예직원의 증감률을 비교할 때, 시설당 학예직 인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예사(큐레이터)의 역할과 업

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박물관과 미술관의 시설 및 학예직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명, %)				학예직원 (명, %)			
	박물관	미술관	합계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합계	증감률
2015	809	202	1,011		1,615	399	2,014	
2016	826	219	1,045	3.4%	1,575	389	1,964	-2.5%
2017	853	229	1,082	3.5%	1,613	425	2,038	3.8%
2018	873	251	1,124	3.9%	1,680	523	2,203	8.1%
2019	881	258	1,139	1.3%	3,009	826	3,835	74.1%
2020	897	267	1,164	2.2%	3,096	980	4,076	6.3%
2021	900	271	1,171	0.6%	3,177	844	4,021	-1.3%
2022	909	285	1,194	2.0%	3,064	985	4,049	0.7%
2023	913	286	1,199	0.4%	3,528	1,069	4,597	1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각년도)

문화 향유 욕구의 증가와 문화복지 수요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별·계층별(청년, 시니어, 가족, 장애인 등) 특화된 전시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확산으로 문화복지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문화예술 활동을 중요시하는 액티브 시니어(은퇴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여가·사회활동 의지가 강한 활동적인 50~70대 전후 세대)의 문화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K-pop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문화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시 업무의 증가 및 생성형 AI의 활용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의 전시 연출, 문서·사진·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장기 보존하고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관람객 참여형 전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전시 기획이 문화산업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 친화적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동화와 생성형 AI의 활용은 일부 전통적 학예사(큐레이터)의 업무(콘텐츠 설명, 가이드 등)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일자리 증가를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 문화시설의 운영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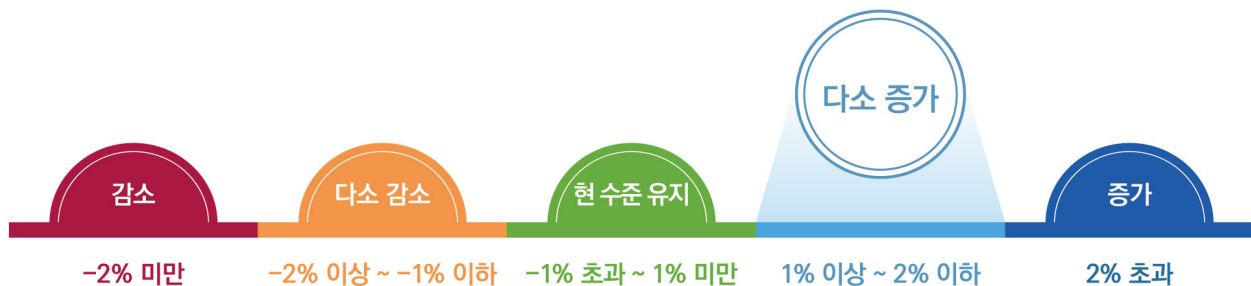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더불어, 문화시설의 신설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특히 사립 문화시설의 운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예사(큐레이터)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액티브 시니어 증가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의 다변화	지방 인구 소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국민의 문화 향유 욕구 증가 - K-pop과 K-컬처에 힘입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디지털·AI 기반 전시, 융복합 콘텐츠 등 수요 및 업무 증가	AI 자동화로 일부 업무(설명, 해설 등)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디지털 전시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예사의 역할 확대	지방 문화시설의 운영난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은 문화재(유물, 미술품, 공예품, 건축물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복원·수리·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복원 방법 등을 연구한다. 이들은 주로 박물관, 미술관, 공공 및 대학의 문화유산보존 연구소,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전문업체 등에 종사한다.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는 문화재 관련 예산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소비 증가,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위험 증가와 대응 등에 따라 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향후에도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소비 증가

공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속한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경우, 학예사(큐레이터) 신분이면서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으로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학예사(큐레이터) 중에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학예사(큐레이터) 인원의 증감 추이를 통해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인력 현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약 10년간 박물관과 미술관의 증가와 함께 학예사(큐레이터) 종사자 수도 증가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사(큐레이터)는 2023년 기준 총 4,597명(박물관 3,528명, 미술관 1,069명)으로 전년(총 4,049명) 대비 13.5% 증가하였고, 지난 8년간(2015~202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10.9% 증가하였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원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 문화재 보존·관리업의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산업조사>(2022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1,635개, 종사자 수는 9,45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박물관과 미술관의 시설 및 학예직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명, %)				학예직원 (명, %)			
	박물관	미술관	합계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합계	증감률
2015	809	202	1,011		1,615	399	2,014	
2016	826	219	1,045	3.4%	1,575	389	1,964	-2.5%
2017	853	229	1,082	3.5%	1,613	425	2,038	3.8%
2018	873	251	1,124	3.9%	1,680	523	2,203	8.1%
2019	881	258	1,139	1.3%	3,009	826	3,835	74.1%
2020	897	267	1,164	2.2%	3,096	980	4,076	6.3%
2021	900	271	1,171	0.6%	3,177	844	4,021	-1.3%
2022	909	285	1,194	2.0%	3,064	985	4,049	0.7%
2023	913	286	1,199	0.4%	3,528	1,069	4,597	1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각년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 향유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K-pop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문화 소비로 이어짐에 따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담당하는 문화재보존원에 대한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전략

정부는 2021년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2030’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유형유산(유물·건축물)을 3D 스캐닝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고정밀 데이터로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은 통합형 아카이브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지능형 큐레이션 시스템 개발 등 미래형 문화유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디지털화를 통해 기록 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각종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문화재 보존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점은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위험 증가와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풍수해 피해는 569건으로 이전 5년간(2015~2019년) 대비 133%(244건) 증가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난대응 역량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예방 보존과 응급 복원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 강화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국보·보물 등 다양한 국가유산의 지정·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광화문 월대 복원(2023.10.15.)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2023.11.12.),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제자리 복원(2024.11.12) 등 중요 유산의 역사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 등재 지속 추진으로 한국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외 문화유산의 환수와 현지 보존·활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엄격한 예산 관리 및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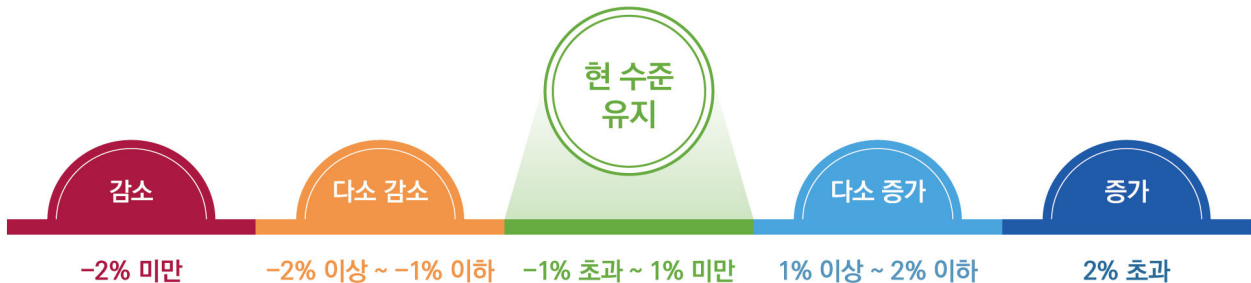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주요 고용처인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국가유산청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제약이 문화재보존원(컨서베이터)의 일자리에 가장 큰 제한 요인이 된다. 공공기관의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인력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공공사업 예산 증액도 한계가 있어 신규 채용 규모는 제한적이다.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이 1조 3,878억 원으로 1.6% 증액하는 데 그쳤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소비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증가
환경과 에너지, 자원	•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위험 증가와 대응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 강화 •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전략	• 엄격한 예산 관리 및 제한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사서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사서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적,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사서의 배치와 정원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사서의 일자리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소폭이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서의 취업자 수도 증가하여왔다. 더욱이 근래에는 도서관의 기능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사서의 역할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초고령사회 도래로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도서관의 신설과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서 업무 외에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을 위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서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학교 사서직의 축소 압력, 사서 및 도서관 업무의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은 사서의 일자리 증가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사서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 존재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이에 따른 사서직 축소 압력, 그리고 도서관 업무의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는 사서직의 수요 증가 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서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진화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도서관이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의 조용한 열람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전시, 공연, 교육, 휴게, 창작,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도

서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교육적 수요를 파악하여 강연, 전시, 동아리 활동 등을 기획·운영하는 등 사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와 정규직 사서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24년 현재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이며, 정규 사서 인원은 6,072명이다. 2020~2024년 동안 공공도서관은 연평균 2.5% 증가하였고, 정규 사서는 연평균 3.5%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방문자 수는 연평균 25.8% 증가를 보였다.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종합지표

(단위: 관, 명, 권, 건, 천원, %)

구분	공공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도서(인쇄)자료 수	정규 사서 직원 수	총결산액(천원)	방문자수
2020년	1,172	44,223	118,544,873	5,292	1,227,309,443	89,577,048
2021년	1,208	42,747	120,936,866	5,580	1,250,123,827	138,939,388
증감률	3.1	-3.3	2.0	5.4	1.9	55.1
2022년	1,236	41,617	122,603,018	5,756	1,364,767,486	175,709,852
증감률	2.3	-2.6	1.4	3.2	9.2	26.5
2023년	1,271	40,382	123,669,915	5,896	1,467,238,533	202,262,548
증감률	2.8	-3.0	0.9	2.4	7.5	15.1
2024년	1,296	39,519	124,384,893	6,072	1,450,723,064	224,207,926
증감률	2.0	-2.1	0.6	3.0	-1.1	10.8
연평균 증감률	2.5	-2.8	1.2	3.5	4.3	25.8

* 각 지자체의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수를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값으로 1관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5.15.), “공공도서관 증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 4만 명 아래로”(보도자료)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공공도서관 수요 증가

한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는 은퇴 후의 액티브 시니어(은퇴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여가·사회활동 의지가 강한 활동적인 50~70대 전후 세대)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핵심 이용자층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평생학습,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사서 배치 의무화와 정부의 도서관 기능 확대 정책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사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에 사서를 4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또는 면적에 따라 추가 배치),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학교 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향후에도 신규 도서관이 건립될 때마다 일정 수 이상의 사서를 채용해야 하므로, 사서의 고용 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학교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단순 장서 관리에서 벗어나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교육 허브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정보 활용 교육을 설계하고 교사들과 협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사서의 일자리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6~21세)의 감소와 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2024.03)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고,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도 54.3%에 이른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서직은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일자리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특히 지방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사서직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사서 및 도서관 업무의 AI 기반 자동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사서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미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의 단순 문의에 24시간 응대하는 AI 챗봇, 이용자의 성별·연령·관심사에 따라 도서를 추천하는 AI 키오스크, 서가를 직접 이동하며 도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서가점검 로봇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 AI 기반의 검색 및 요약 서비스 등 도서관 업무에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인공지능 등 기술 도입으로 전통적인 도서 대출·반납, 서가 정리, 단순 안내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상당 부분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비정규직 및 보조 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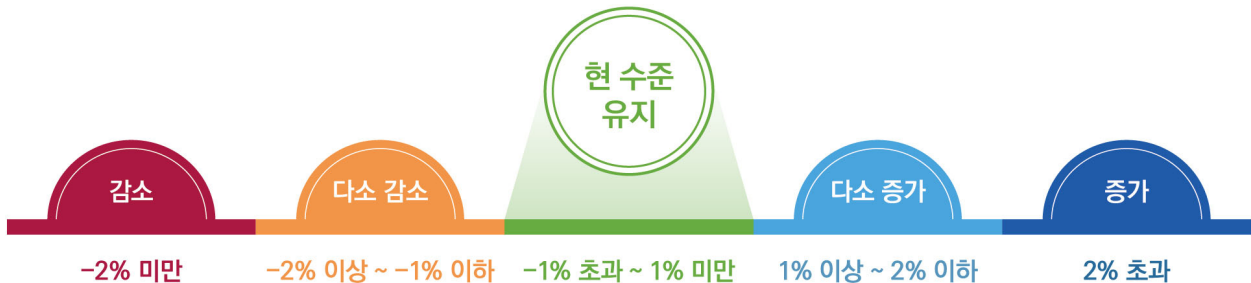
다만, 인공지능 등 기술 도입은 사서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다른 신규 직무를 창출하기도 할 것이다. 즉, 인간 사서는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기획이나 장서 개발(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집·평가·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무에서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공공도서관 수요 증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학교도서관) 통폐합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사서 및 도서관 업무의 AI 기반 자동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법령에 따른 사서 배치 의무화 - 정부의 도서관 기능 확대 정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는 영구기록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평가·편집하고, 기록물에 기초한 조사 활동에 참여하며, 기록물과 기록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산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속한 기록관에 주로 종사하며, 그 외에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기록 관리부서, 기록 관리 민간전문업체 등에 취업한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록물의 수집, 분석, 평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는 그 역할과 의무 배치 인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일자리 규모와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정부에서도 기록물관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의 증가와 함께 인력 배치도 증가해왔다. 다만, 어느 정도 기록물 관리체계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고, 기록물 정보 및 관리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일자리 증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일자리는 소폭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된다.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의무 법제화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는 그 역할과 의무 배치 인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일자리 규모와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민간기록물 관리 강화, 기록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 등이 새로 도입되고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 종사자 필수교육 확대와 관련 자격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634개소이고 그중 1,059개소에 1,230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실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1,188명)에 비해 3.5%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이전의 전문요원 총원을 알 수 없어 인력의 증감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2024년 기준 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은 2021년(1,435개)에 비해 13.9% 증가하였고, 실제 배치 기관은 2021년(968개)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전문요원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취득자 배출 현황을 보면, 2011년(128명)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220명) 정점에 이른 후 등락은 있지만 2022년(170명), 2023년(162명), 2024년(9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한 미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배출 인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대상기관의 확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제도 및 전문교육 체계화 등은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고, 신규 인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안·컴플라이언스 강화로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수요 증가

정보보안, 데이터보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요건 강화 등의 요인으로 금융·의료·연구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기록관리 전담부서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구관리 기록물의 보존·관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기록, 임상데이터, 진료이력 등 고도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기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자체 기록원의 기능 확대

지자체 기록원을 중심으로 단순히 기록물 관리 기능을 넘어 시민을 위한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SNS 및 사회관계망 중심의 기록문화 확산, 시민참여형 기록 활동 강화, 다양한 세대의 기록의식 고양 등으로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디지털 기록물 수집·활용 프로그램, 삶의 다양성 증시 등 사회문화 변화로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

최근 기록물 관리 분야에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자기록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AI를 활용한 기록물 분류, 개인정보 비식별화, 비공개 분류 기록의 공개 재분류 등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기록 관리의 디지털화와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으로 기록 보존·관리 시스템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설계·운영하고 신규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화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보존·정리 업무는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 업무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기록 관리 업무의 외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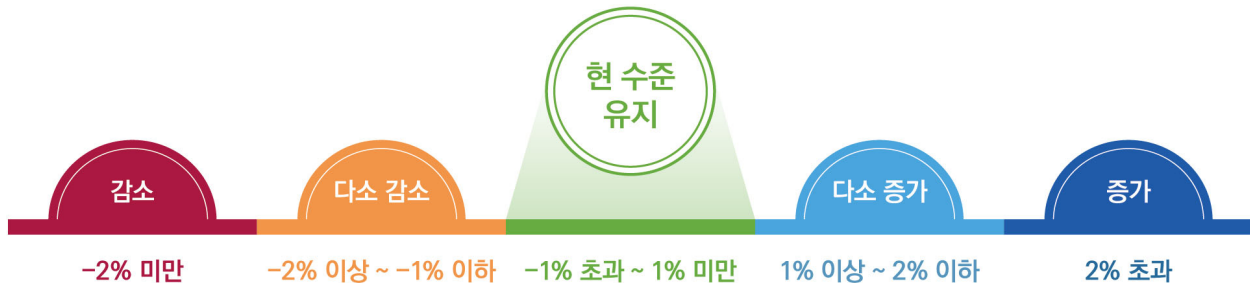
기록물 관리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이 발생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기업에서는 기록물관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업무를 타 직종(사서, 행정직 등)과 병행하게 하거나, 기록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스마트화된 기록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지자체 중심으로 기록원의 기능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기록 관리의 디지털화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수요 증가	• 디지털화와 AI에 의한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정보보안·컴플라이언스 강화로 기록물관리사 수요 증가	• 기록 관리 업무의 외주화
법·제도 및 정부정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의무 법제화 • 정부의 기록물 관리 기준 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화가 및 조각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화가 및 조각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가, 조각가 등 미술가의 일자리는 미술시장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 함께 글로벌 위상과 관심 증가로 미술시장도 급격히 성장하였다. 또한 많은 전시와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온 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미술품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신진작가의 활동무대가 커졌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미 술품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졌던 점도 미술가에 대한 수요를 높여왔다. 더욱이 정부의 생활문화예술 분 야 활성화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의 작가 지원 등도 화가와 조각가의 일 자리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술시장이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일지 확실하지 않고, 낮은 연소득 등 예술가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 쉽지 않으므로 청년층의 미술업계 유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순수미술 전공자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광고업계, 출 판업계를 중심으로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상업적 미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향후에는 미술시장의 성장세가 예전만큼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고,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상업미술에 대한 수요 감소로 화가와 조각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화가 및 조각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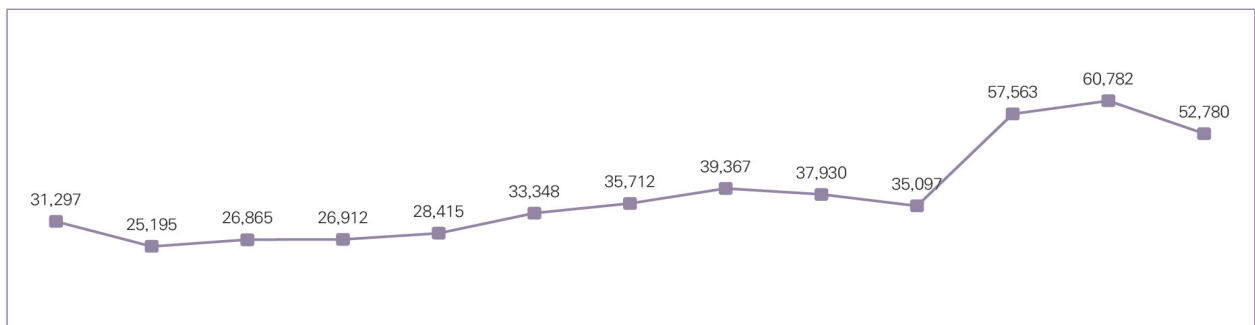
■ 국내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와 미술품 유통구조의 활성화

화가, 조각가 등 미술가의 일자리는 미술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조사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 미술작품 수는 2011년 3만 1,297점에서 2022년 6만 782점으로 약 10년 간 두 배 증가하였다(다만, 2023년에는 5만 2,780점으로 감소). 거래 규모도 2011년 4,722억 5,900만 원에서 2022년 8,065억 9,7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다만, 2023년에는 6,928억 3,200만 원으로 감소).

이처럼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성장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 주요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아트페어가 개최되면서 국내외 컬렉터의 신뢰도와 한국 미술품 수집이 증가한 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화랑 전시, 미술관 전시 등이 증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SNS 홍보 등으로 미술품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 갤러리, 메타버스 아트페어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진작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도 미술품에 대한 투자와 소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거래에도 익숙해서 미술품 거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술시장 거래 작품 수 추이(2011~2023년)

(단위: 점)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2024」, 2024

※ 거래 작품 수

미술시장 거래 금액 추이(2011~2023년)

(단위: 백만 원)

연도	주요 유통 영역				공공 영역				총거래규모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계	건축물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	계	
2011	289,358	78,238	9,832	377,428	83,557	832	10,442	94,831	472,259
2012	270,789	85,274	10,753	366,816	62,051	653	10,998	73,702	440,518
2013	188,123	59,216	8,407	255,746	58,718	1,372	9,091	69,181	324,927
2014	201,518	77,868	9,017	288,403	51,017	1,396	8,829	61,243	349,646
2015	233,846	98,472	7,932	340,250	34,323	2,085	13,724	50,132	390,382
2016	210,308	127,798	4,447	342,553	36,805	1,956	15,155	53,916	396,469
2017	238,733	149,282	2,568	390,583	87,932	2,054	13,674	103,660	494,243
2018	168,628	151,147	4,182	323,957	106,454	2,293	15,520	124,267	448,224
2019	179,393	115,820	3,314	298,527	97,361	2,558	16,227	116,146	414,673
2020	153,872	115,298	2,392	271,562	96,537	2,158	14,603	113,297	384,859
2021	300,772	338,463	7,310	646,545	97,092	1,557	11,076	109,725	756,270
2022	446,449	234,523	5,969	686,940	97,953	1,686	20,018	119,657	806,597
2023	402,013	157,216	2,687	561,916	112,987	1,286	16,642	130,915	692,832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2024」, 2024

■ SNS 중심의 예술 생태계 형성과 신진작가의 활동 기회 확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예술 작품의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화랑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가가 직접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짧은 영상으로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아트 튜토리얼’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가와 조각가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리고 있다.

■ 일반 대중의 예술 소비 증가와 작가의 부업 기회 증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직장인들의 취미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갖춘 액티브 시니어층이 새로운 예술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해, 화가와 조각가들에게 강사, 워크숍 진행자로서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실버대학 등에서의 미술 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예술 프로젝트 증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사업 등을 중심으로 도시 미관 개선, 지역 정체성 강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벽화, 공공조형물, 조각공원, 미디어아트 설치 등 공공미술·환경예술 프로젝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각 지자체의 거리공원 예술화 사업,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전환 사업 등에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벽화마을 조성, 조형물 설치, 야외전시 공간 확대, 도시 조각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정례화되며 관련 예술 장르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의 작가 지원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증가

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 아트 컬렉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내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화가와 조각가들에게 안정적인 후원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을 축소하면 기업 후원에 의존하던 작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독창성과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늘리고 있다. 패션, 뷰티, 생활용품 브랜드들이 한정판 상품 출시, 매장 아트워크 제작, 브랜딩 프로젝트 등에서 화가·조각가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생활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정부의 생활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화가와 조각가들이 강사, 멘토, 워크숍 진행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생활 밀착형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소득 불안정 해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창작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창작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청년의 진입 위축

미술품은 경기 민감 상품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분야이다. 2023년 한국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가 2022년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지속적인 경기 불안정성은 특히 중간가격대 미술품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신진작가나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던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수의 유명 작가들에게만 수요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술작가의 연 평균 소득이 약 603만 원에 불과하고, 전업 예술인(미술가 포함)이 52.5%(2021년 조사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술가의 열악한 상황은 청년들의 예술 분야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순수미술 전공자 감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5년 약 697만 8천 명에서 2035년 약 481만 9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예술 분야로 진입하는 청년층 자체를 축소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미술 계열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문 예술인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예술 장르의 출현 vs. 상업미술에 대한 수요 감소

생성형 AI,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이 예술가의 일자리와 직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 예술가가 AI를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AI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있다. 화가와 조각가들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불가능했던 복잡한 패턴이나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DALL-E,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의 활성성이 커지면서, 특히 광고업계,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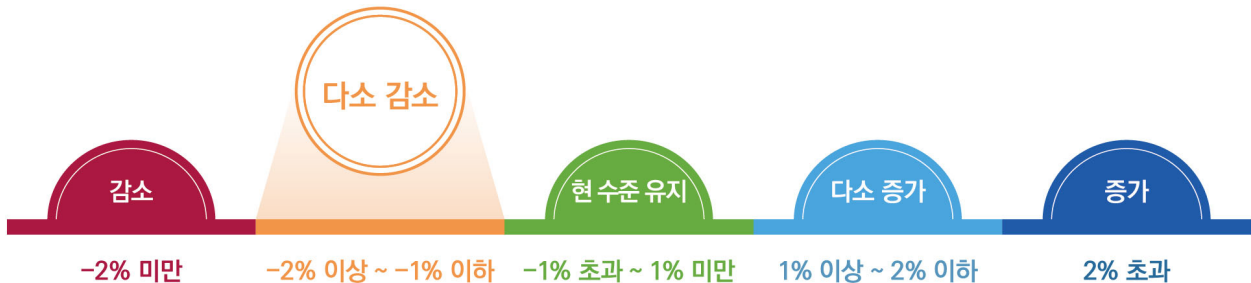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상업적 미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순수미술 전공자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의 미술품 투자 증가 • 일반 대중의 예술 소비 증가와 작가의 부업 기회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SNS 중심의 예술 생태계 형성으로 신진 작가의 활동 기회 확대 •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예술 장르의 창출	•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상업미술에 대한 수요 감소
국내외 경기 변화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청년의 진입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작가 지원 •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국내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 화랑 전시, 미술관 전시 등의 증가 및 온라인 플랫폼 및 SNS 홍보 등 미술품 유통구조의 활성화	
환경과 에너지·자원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예술 프로젝트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생활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정책 • 예술인 복지 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사진기자 및 사진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사진기자 및 사진사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사진기자 및 사진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사진기자와 사진사는 사진 촬영이라는 주요 업무가 유사하므로 생성형 AI 확산 등의 일자리 영향 요인과 전망 방향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종사 업종의 다름에 따른 차이도 있다. 사진사는 도서출판용 사진, 광고·홍보용 사진, 웨딩 및 행사 사진, 초상 사진, 산업·과학 사진 등 상업사진사가 있고 예술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예술사진사가 있다. 특히 상업용 사진사는 사진에 대한 수요 변화와 전반적인 경기 전망과 관련이 된다. 그에 비해 사진기자는 주로 신문사나 방송사, 잡지사 등에 종사하므로 미디어 업계의 경기 전망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진기자와 사진사의 일자리는 전문가 촬영 사진 수요의 감소,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 변화와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위축, 그리고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강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에서는 전문 사진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오래전부터 사진 업종의 디지털화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큰 일자리 감소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기자 및 사진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사

결혼적령기 인구의 감소와 '가치 소비' 트렌드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특히 청년층)는 웨딩사진 시장의 핵심 고객층인 결혼적령기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 2,807건에서 2023년 19만 3,657건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24년에 22만 2,412건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출산율(2024년 0.75명)이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혼인 건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진사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의 지속과 함께 ‘가치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실속형 결혼식을 추구하는 신혼부부들이 증가하면 전통적인 스튜디오 사진 촬영 업계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AI 기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향상과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

이전부터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진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왔다. 더욱이 온라인 사진 서비스와 셀프 스튜디오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사진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On-Device) AI가 탑재되면서 카메라의 성능과 사진 수정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문 사진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또한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진 편집 앱의 보급으로 간단한 사진 작업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사진사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이후 생성형 AI의 발전이 본격화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생성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사 사진이나 홍보, 내용 설명 등 상업용 사진을 AI 이미지 생성물로 아예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술사진이나 패션, 음식, 건축, 과학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업사진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진사의 영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 특수 분야의 전문 사진사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반려동물 등 신규 수요 창출

사진 기술이 AI 결합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순수예술사진을 비롯하여 자연·풍경, 인물·초상, 제품, 패션, 광고, 음식, 건축, 과학·의학, 스포츠 등의 특수 분야에서 전문 사진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 확산과 자아표현 욕구 증가는 맞춤형 사진 서비스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펫 사진, 가족 사진, 브랜딩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 사진 서비스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틈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사진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이다.

사진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위축

사진기자의 경우, 202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는 신문, 잡지 등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이다. 특히 기존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신규 신문 독자의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광고, 신문 구독 등의 매출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일간지의 구조조정 및 합병, 일부 지역신문의 폐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문사 구조조정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대는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뉴스 매체보다 본인이 구독하는 소셜미디어(SNS)나 포털 뉴스, 유튜브의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산업이 OTT, 유튜브, 포털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신문 구독 모델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을 가져옴에 따라 신문·방송사의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신규 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과 자동 촬영 기술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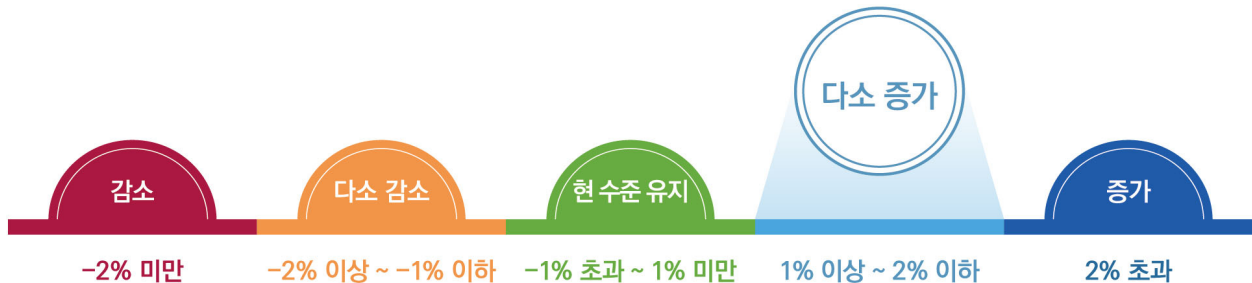
AI 기반 사진 편집·생성 기술, 드론·360도 카메라 자동 촬영, 자동 트래킹 시스템, 사진 자동 분류(Image Tagging)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확산으로 기존 사진기자 고유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고, 기존 사진기자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특히 신문 및 방송사 등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취재와 콘텐츠 생산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면서 표준화된 사진·영상 생산 업무의 일자리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장의 긴장감이나 사회적 맥락을 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 사진기자가 필요하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결혼저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웨딩 촬영 감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위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반려동물 등 신규 수요 창출	‘가치 소비’ 트렌드의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향상과 사진 편집 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에 의한 이미지 생성 기술 발전 - 자동 촬영 기술의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문사 구조조정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특수 분야의 전문 사진사에 대한 꾸준한 수요 - 오래전부터 사진 업종의 디지털화로 전반적 구조조정 진행	- 전통 사진관·스튜디오의 쇠퇴 가속화 -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 변화에 따른 미디어 시장 위축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0%로 예측된다.

만화가는 만화나 웹툰의 주제 및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에 따른 그림을 그린다.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는 각종 게임물, 텔레비전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CD 타이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동영상물 등에 활용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과 콘티의 제작, 촬영, 편집 등을 수행한다. 만화가(웹툰 작가)와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는 웹툰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웹툰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은 MZ세대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확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 증가, 웹툰 기반 OSMU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전략(국산 인기 웹툰을 애니메이션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으로 제작), 글로벌 OTT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해외 진출 증가, 유통 채널의 다양화, 정부의 지원 등에 기인하며, 이를 통해 만화가(웹툰 작가)와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의 일자리도 다소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성형 AI에 의한 작업 과정 자동화 정도에 따라 일자리 증가가 제한될 수 있다.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애니메이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웹툰 산업의 급성장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웹툰 작가는 7,40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국내 웹툰 플랫폼의 독점 작가(한 플랫폼에서만 연재한 작가) 수는 총 2,697명이며, 비독점 작가(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 비독점 작가 수는 플랫폼별로 중복 집계되므로 전체 작가 수 해석에 주의 필요) 수는 4,7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실태조사에는 웹툰 작가 인력 현황 자료가 없으므로 인력 증감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웹툰 산업의 성장세를 통해 웹툰 작가의 인력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4)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3년 2조 1,890억 원

으로 6년 동안 무려 476%가 증가하였다.

만화 산업의 전체 종사자를 통해서도 웹툰 작가의 증가를 추정해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5)에 따르면, 웹툰 작가가 주로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과 만화 출판업에 소속된다고 볼 때,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종사자 수는 2023년 3,914명으로 2021~2023년 동안 연평균 24.4% 증가했다. 만화 출판업은 2023년 2,929명으로 2021~2023년 동안 연평균 13.4% 증가했다.

■ MZ세대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증가

개인주의 성향 강화는 개인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MZ세대는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주요 콘텐츠로 소비하며, 이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은 모바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웹툰 이용률은 매우 높으며, 이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포털사이트, 웹툰 서비스 플랫폼, SNS 등을 통해 쉽게 만화와 웹툰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웹툰 유료 결제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만화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웹툰 기반 OSMU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웹툰 기반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 및 해외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만화와 웹툰의 원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글로벌 OTT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해외 진출 증가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급성장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의 픽코마 등 웹툰 플랫폼이나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본, 북미, 중화권,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웹툰 시장의 성장은 다시 우수한 인재를 웹툰 산업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이 확보되면서 기존 TV 방송에 의존했던 애니메이션 산업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국산 인기 웹툰의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Markets N Research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2022년 3,946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하여 5,2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으로도 K-pop, 영화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웹툰 및 애니메이션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애

니메이션 영화이기는 하지만, 성공 요인이 K-pop과 한국 전통문화의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정부의 지원

만화·웹툰 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2030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수를 2023년 6,417명에서 2030년 9,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OTT·숏폼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만화·애니메이션 소비층의 감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감소는 전통적인 만화·애니메이션 소비층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1인 가구 증가와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패턴의 확산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10~20대의 굿즈 소비와 50~60대의 출판만화에 대한 익숙함 증대에 따라 만화와 웹툰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생성형 AI에 의한 작업 과정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

생성형 AI 등 AI 기술 도입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일부가 자동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터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보드 제작, 캐릭터 채색, 배경 이미지 제작 등의 업무에서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분야의 초급 및 중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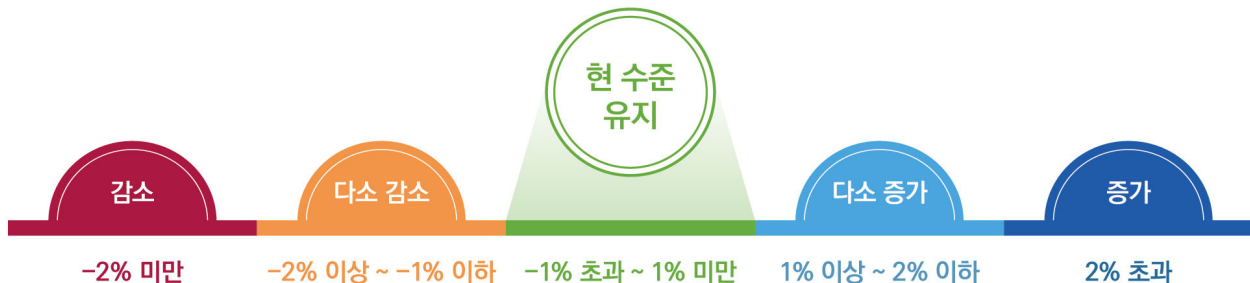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그러나 AI 기술은 동시에 새로운 창작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초보자도 상당한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만화·애니메이션 소비층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MZ세대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I 도구를 활용한 초보자의 인력 유입 기회 가능성	• 생성형 AI에 의한 작업 과정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
국내외 경기 변화	• 글로벌 OTT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해외 진출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웹툰 기반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비즈니스 모델 확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웹툰 산업의 급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만화·웹툰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국악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국악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인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판소리나 민요를 부르거나,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과 같은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등 국악 공연을 주된 업무로 한다. 그 외에 교육, 개인 레슨 등 다양한 일을 한다. 따라서 국악인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근래에 우리나라 국악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악인의 활동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국악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24년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시행하고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악 소비층의 고령화에 따른 국악 소비(공연 관람, 교육 등)의 정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과의 경쟁, 10~30대 청년층의 국악에 대한 낮은 관심, 대학 국악과의 구조조정, 불안정한 고용구조, AI에 의한 국악기 연주자 대체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국악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악에 대한 관심 저하와 국악 소비층의 축소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대가 높으며, 이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람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인구 비중이 높은 연령대의 고령화가 공연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에 익숙한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국악 소비층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 세대에 걸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단체 공연이나 가족 단위 국악 관람 수요를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국악 공연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잠시 주춤한 적이 있지만, 이후 2022년(1,941건)과 2023년(1,956건)에는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연 횟수는 2019년(4,710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 2,690회, 2023년 2,984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 저하와 국악 소비층의 축소로 예전과 같이 국악 공연 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도별 국악 공연 건수 및 횟수

(단위: 건, 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건수	1,507	1,583	1,735	1,929	645	1,435	1,941	1,956
공연 횟수	4,310	3,860	3,470	4,710	847	9,393	2,690	2,984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표 10」 공연예술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2024년 말 초고령화사회(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초과)의 도래와 함께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 여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으로 국악 공연에 대한 관람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도 국악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뮤지컬 등 유사 공연예술과의 경쟁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0~30대인데, 이들 소비층을 대상으로 국악계는 대중음악이나 서양음악(성악, 기악, 오페라 등), 뮤지컬 등 유사 공연예술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중음악과 서양음악 부문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데 비해, 국악계의 경우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 증가의 혜택이 국악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비약적 발전, 10~30대 청년층의 국악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국악과의 구조조정과 한정된 안정적 일자리 규모

학령인구 및 입학생 감소,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계열 입학정원도 축소되고 있어, 국악과 정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국악과 폐과를 추진하거나 다른 유사 학과와 통합하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악인 양성 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국공립 국악단과 같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매우 한정적이고 신규 채용도 드문 편이다. 또 많은 국악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점은 국악인의 취업자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인한 국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K-POP을 비롯하여 드라마, 영화의 글로벌 인기로 힘입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국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연 등을 통해 국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고,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 대한 국악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AI에 의한 국악기 연주자 대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 무대 확장

국립국악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5년에 추진하는 ‘국악합주곡 디지털 음원 데이터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1,000여 곡의 악기별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음원 데이터베이스는 음악 전용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창작과 국악 음원 제작에 사용될 것이다. 이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나 퓨전 음악, 게임 음악 등에서 활동해왔던 가야금, 대금 등의 국악기 연주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무대 공연에서도 일부 국악기 연주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악인의 활동 무대가 공연장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공연 영상 온라인 생중계 확대, 해외 무대와의 비대면 협업,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시행과 국악 산업 진흥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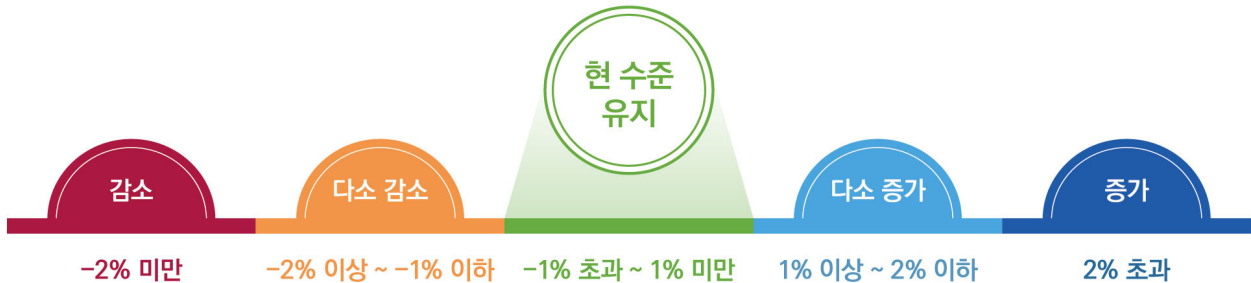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2024년 시행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국악을 포함한 전통예술의 산업적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신한류(K-헤리티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기반하여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을 비롯한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단체 지원,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면 국악인이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악 소비층의 축소 • 대학 국악과의 구조조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대중음악·뮤지컬 등 유사 공연예술과의 경쟁 • 10~30대 청년층의 국악에 대한 낮은 관심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 무대 확장	• AI에 의한 국악기 연주자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인한 국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한정된 안정적 일자리 규모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시행과 국악 산업 진흥 정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지휘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지휘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휘자는 교향악단(오케스트라), 오페라, 합창, 앙상블, 크로스오버 악단을 지휘하여 공연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외에 교육, 상업 음악 제작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휘자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 시장은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 및 클래식에 익숙한 성인 증가에 따른 관람객 증가, 캐주얼 클래식 등 관객 유인을 위한 업계의 노력, 뮤지컬 시장의 성장,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등의 요인으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지휘자의 일자리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 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 확장성의 한계, 안정적 일자리의 부족 등은 지휘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지휘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 증가,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의 증가

지휘자의 주요 업무는 기악, 합창, 오페라 등 공연에서 단원을 지휘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관련 공연의 연간 건수와 횟수를 통해 일자리 증감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양악 공연(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잠시 주춤했지만, 다음 해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3년(1만 5,222건)에는 이전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는 이미 2021년(1만 9,313회)부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휘자의 활동 무대인 양악 공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양악 공연과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화 향유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함께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람이 늘었고, 또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도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양악 공연 추이

(단위: 건, 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건수	11,098	12,034	12,949	14,224	5,155	10,316	13,683	15,222
공연 횟수	14,553	14,654	15,332	16,891	6,650	19,313	18,183	17,87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 캐주얼 클래식을 통한 관객 유인 노력, 해외 진출 기대

최근 클래식 공연 업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 연출, 대중음악·국악·발레 등 다른 장르와의 결합, 관객 참여형 공연 진행, 문화관광과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주얼 클래식의 부상은 지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휘자의 해외 콩쿠르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의 일환으로서 K-클래식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오페라단과 교향악단의 해외 공연이 기대된다.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년 관련 예술가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창작활동 지원, 공연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청소년 예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클래식 공연이나 음악가 양성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단체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문예진흥기금 운용, 기업의 후원 등이 지휘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재정적 지원 등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지휘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 확장성의 한계

저출산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0~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 시장의 70% 정도가 뮤지컬에 집중되어 있고, 향후에도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교향악단(오케스트라)은 대극장 뮤지컬에서 연주를 담당하고, 중소극장 뮤지컬에서는 5~10명 규모의 라이브밴드 또는 MR(반주 음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뮤지컬 업계의 공연 트렌드에 따라 지휘자의 활동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음악학과의 구조조정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

학령인구 및 입학생 감소,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음악 계열 입학정원도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휘자 양성 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국공립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과 같이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점은 지휘자의 취업자 증가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직업적 특성상 AI에 의한 낮은 대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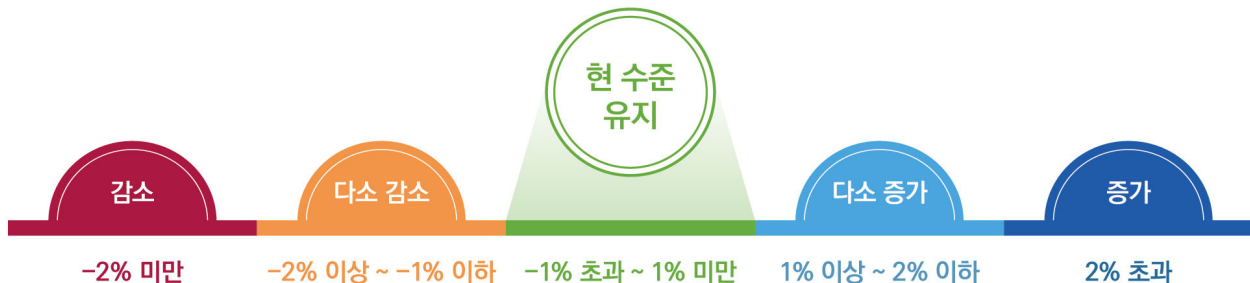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및 음성 콘텐츠 생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작사, 작곡, 악기 연주, 노래, 음원 제작 등의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휘자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휘자는 공연할 음악을 선정하고 음악을 재해석한 후, 악기 연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통하면서 연습 과정을 지도하고, 실제 무대 위 공연을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에버 6’가 국내 최초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여 공연을 한 적이 있지만, 정해진 지휘 동작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창의적 음악 해석을 바탕으로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공연 중의 돌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휘자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AI 로봇이 지휘자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봇 지휘자가 인간 지휘자를 대신하여 기초 연습이나 반복 학습, 교육용 시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2025년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없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의 증가 -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	-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 대학 음악학과의 구조조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조기 음악 교육 확산에 따른 관람객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직업적 특성상 AI에 의한 낮은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지휘자의 해외 진출 기회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캐주얼 클래식을 통한 관객 유인 노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뮤지컬 시장의 성장	- 안정적 일자리 부족 - 뮤지컬 중심의 공연예술 시장 성장에 따른 확장성의 한계
법·제도 및 정부 정책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작곡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작곡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곡가는 주로 대중음악(K-pop, 트롯, 발라드 등)과 영화·드라마 OST를 위한 작곡을 하며,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을 위한 작곡을 한다. 그 외에 음악 프로듀서나 편곡자, 사운드 디자이너, 교육자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곡가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작곡가의 일자리는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에 따른 트롯 시장의 성장,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 음악 생성기의 활용 확산으로 BGM, 배경음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작곡가에 대한 수요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작곡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과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작곡가는 주로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대중음악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근래에 국내 및 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시장은 2024년 89억 5천만 달러에서 2033년 179억 달러로 동기간 두 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스트리밍+다운로드) 규모는 2019년 6억 9,200만 달러에서 2023년 13억 1,800만 달러로 9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7년에는 16억 9,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4.8.31.~2025.8.31.)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 판매액은 9,320여억 원으로 지난 동기(6,961여억 원) 대비 33.9% 증가하였고, 동기간 티켓 판매수는 734만 3,983매로 지난 동기(599만 9,452매)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음악시장과 국내 음악시장이 급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디지털 음원 시장

의 성장에 있다. 디지털 세대인 유소년 및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원 다운로드, OTT 플랫폼이나 쇼츠 등을 통한 뮤직비디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특히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 음반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도 가수의 글로벌 진출과 함께 작곡가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트롯 시장의 성장

고령화에 따라 구매력과 문화예술 향유 의지가 있는 액티브 시니어(50대 중반에서 60대 연령층)의 부상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한 축인 트롯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55~69세 인구는 2025년 1,213만여 명에서 2035년 1,22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1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트롯에 대한 팬덤문화를 형성하면서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대한 향수와 젊은 시절 억제되었던 문화 향유 욕구를 자극하는 트롯에 대한 팬덤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티브 시니어의 노령화에 따라 팬덤문화가 트롯에서 1970~90년대 음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는 2024년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음악 저작권(IP) 기반 창작 활동 지원과 저작권 수익구조의 개선, 그리고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음악 분야의 신진 작곡가 및 프리랜서들의 창작 및 참여 기회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음악 창작 생태계 다양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층의 축소

낮은 출산율(2024년 합계출산율 0.748)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인 10~30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19~34세)는 2025년 1,025만여 명에서 2035년 81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21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의 감소는 콘서트 공연이나 음반 및 디지털 음원 구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AI 음악 생성기에 의한 일부 작곡 업무 대체

2025년 현재, AI 작곡 기술은 상업적 음원 제작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Suno, AIVA, Soundraw 등의 AI 도구들이 텍스트 입력만으로 고품질 음악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 제작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AI 협업 실시간 작곡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가 기타로 몇 음을 연주하면 AI가 즉시 화음과 드럼, 베이스를 추가해주는 'JamGPT' 같은 모델이 등장해 혼자서도 밴드 전체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AI는 반복적

인 편곡과 미디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특히 배경음악, 광고음악, 게임 BGM 등 상업적 음악 분야에서 인간 작곡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반복적·상업적 음악 제작(광고, 배경음악 등) 분야에서는 작곡가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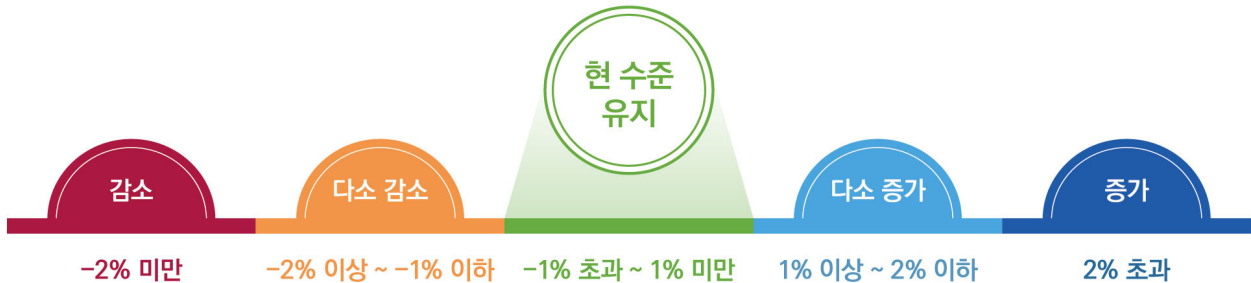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도 예술성과 혁신성이 필요한 고품질의 창작, 뮤지컬 등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창작 등의 분야에서는 인간 작곡가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트롯 시장의 성장	•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층의 축소
과학기술의 발전		• AI 음악 생성기에 의한 일부 작곡 업무 (BGM, 배경음악 등)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연주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연주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악(악기) 연주는 기악 독주회, 교향악단, 오페라 공연, 뮤지컬 공연, 성악 공연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외에 대중음악 등에서 세션 연주자로 참여하며, 음반이나 게임음악 제작에도 참여한다. 또 교육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주가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연주가의 일자리는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에 따른 자녀와 부모의 관람 증가,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 인구의 증가, 캐주얼 클래식 등을 통한 업계의 관객 유인 노력, 유명 연주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기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등의 긍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K-pop 등 대중음악과의 경쟁, 대학 음악학과와의 구조조정, 안정적 일자리 부족 등의 부정적 요인이 진행 중이다. 또한 AI 음악 생성 및 연주 합성 기술에 따른 상업 음악 분야의 연주 영역은 인간 연주가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연주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 증가,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의 증가

기악(악기) 연주의 전통적 활동 무대인 양악 공연을 통해 일자리 증감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에 따르면 양악 공연(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잠시 주춤했지만, 다음 연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3년(1만 5,222건)에는 이전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는 이미 2021년(1만 9,313회)부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주가의 활동무대가 되는 양악 공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양악 공연과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화 향유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함께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람이 늘었고, 또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도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양악 공연 추이

(단위: 건, 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건수	11,098	12,034	12,949	14,224	5,155	10,316	13,683	15,222
공연 횟수	14,553	14,654	15,332	16,891	6,650	19,313	18,183	17,87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 캐주얼 클래식을 통한 관객 유인 노력, 해외 진출 기대

최근에는 클래식 공연 업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 연출, 대중음악·국악·발레 등 다른 장르와의 결합, 관객 참여형 공연 진행, 문화관광과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주얼 클래식의 부상은 연주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주가의 해외 콩쿠르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주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의 일환으로서 K-클래식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오페라단과 교향악단의 해외 공연 증가가 기대된다.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년 관련 예술가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창작활동 지원, 공연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청소년 예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클래식 공연이나 음악가 양성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단체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문예진흥기금 운용, 기업의 후원 등이 연주가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재정적 지원 등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연주가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AI 음악 생성 및 연주 합성 기술에 따른 상업 음악 분야의 연주가 대체 가능성

최근 딥러닝 기반의 AI 음악 생성 및 연주 합성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연주자의 참여 없이도 특정 악기 소리를 모방하거나 새로운 곡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AI는 광고, 게임, 유튜브 같은 B2C 상업 음악 영역에서 인간 연주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라이브 무대, 오케스트라와 같이 현장성과 예술적 표현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연주가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다. 또한 프리미엄 음원 제작, 클래식·재즈·국악 등 독창성과 해석력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연주가의 활동 무대가 공연장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공연 영상 온라인 생중계 확대, 해외 무대와의 비대면 협업,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대중음악과의 경쟁

저출산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0~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음악 산업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클래식 음악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연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의 높은 관심과 인기는 상대적으로 고전음악에 대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0~30대인데, 이들 소비층을 대중음악에 뺏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학 음악학과의 구조조정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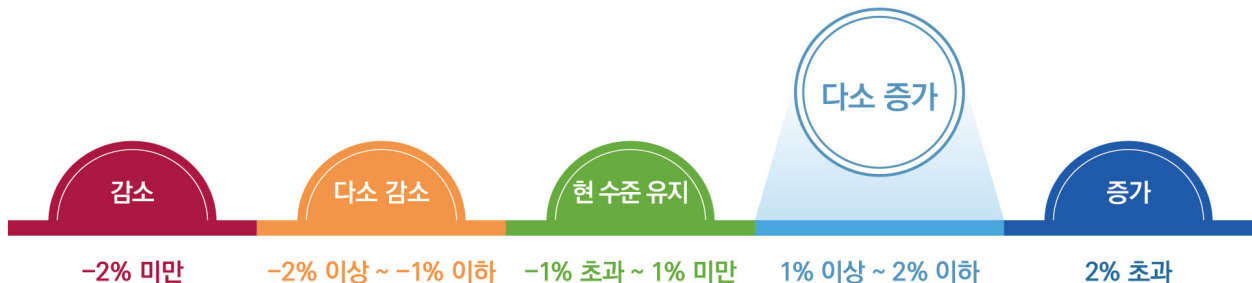
학령인구 및 입학생 감소,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음악 계열 입학정원도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연주가 양성 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국공립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과 같이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점은 연주자의 취업자 증가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연주자의 일자리 대부분은 사교육 레슨 시장에서 유지 또는 창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 -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 인구의 증가	-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 대학 음악학과의 구조조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에 따른 자녀와 부모의 관람 증가	K-pop 등 대중음악과의 경쟁
과학기술의 발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 무대 확장	시에 의한 상업 음악 분야의 인간 연주가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캐주얼 클래식 등을 통한 업계의 관객 유인 노력 - 유명 연주자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기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사교육 레슨 시장에서의 꾸준한 수요	안정적 일자리 부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가수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가수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수는 주로 콘서트 공연, 앨범 및 음원 제작에 참여하며, 그 외에 뮤지컬 배우나 보컬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가수의 일자리는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 국내 기획사의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에 따른 트롯 시장의 성장,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년층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층의 축소, AI 기반 음악 및 음성 생성 도구에 의한 가수 역할 대체 등의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수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

근래에 국내 및 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시장은 2024년 89억 5천만 달러에서 2033년 179억 달러로 동기간 두 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스트리밍+다운로드) 규모는 2019년 6억 9,200만 달러에서 2023년 13억 1,800만 달러로 9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7년에는 16억 9,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4.8.31.~2025.8.31.)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 판매액은 9,320여억 원으로 지난 동기(6,961여억 원) 대비 33.9% 증가하였고, 동기간 티켓 판매수는 734만 3,983매로 지난 동기(599만 9,452매)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음악시장과 국내 음악시장이 급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에 있다. 디지털 세대인 유소년 및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원 다운로드, OTT 플랫폼나 쇼츠 등을 통한 뮤직비디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특히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 음반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적 인기에 따라 가수 간에 활동 기회와 수입이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어, 음악 산업의 성장이 곧바로 일자리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과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역량 있는 기획사들이 국내외에서 아이돌 멤버를 발굴·영입하여 체계적으로 가수 육성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가수 지망생들의 데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수에 대한 글로벌 팬덤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음반 발매 뿐 아니라 월드투어,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활동 무대와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다.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트롯 시장의 성장

고령화에 따라 구매력과 문화예술 향유 의지가 있는 액티브 시니어(50대 중반에서 60대 연령층)의 부상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한 축인 트롯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55~69세 인구는 2025년 1,213만여 명에서 2035년 1,22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1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트롯에 대한 팬덤문화를 형성하면서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대한 향수와 젊은 시절 억제되었던 문화 향유 욕구를 자극하는 트롯에 대한 팬덤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티브 시니어의 노령화에 따라 팬덤문화가 트롯에서 1970~90년대 음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는 2024년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음악 저작권(IP) 기반 창작 활동 지원과 저작권 수익구조의 개선, 그리고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진 가수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쇼케이스 확대, 대중음악 앨범 제작 지원, 중소 기획사에 대한 제작·홍보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은 단순히 신인 가수의 데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가수들의 활동 무대를 국내외로 확장시켜 장기적으로 대중가수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층의 축소

낮은 출산율(2024년 합계출산율 0.748)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인 10~30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19~34세)는 2025년 1,025만여 명에서 2035년 81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21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의 감소는 콘서트 공연이나 음반 및 디지털 음원 구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AI 기반 음악 및 음성 생성 도구에 의한 가수 역할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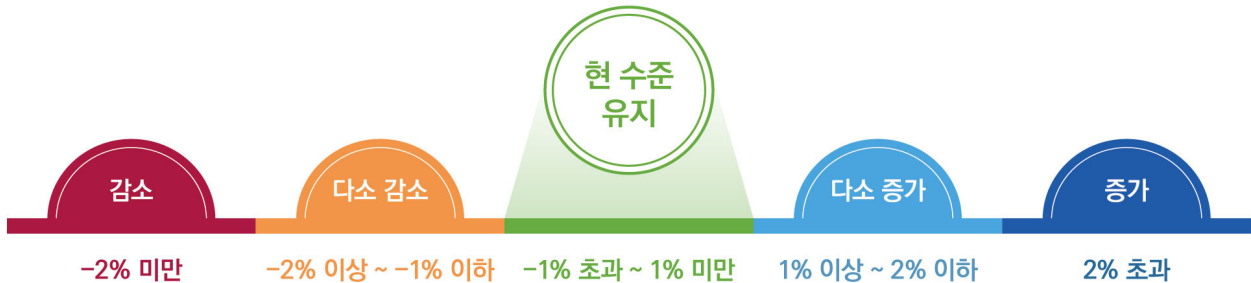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최근 생성형 AI와 AI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가수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음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음성 합성 기술로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목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개발하여 앨범 발매를 한 사례가 있다. 실제 유명 가수가 불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AI 커버 음원이 유튜브,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광고, 배경음악, 온라인 콘텐츠 BGM 등의 상업 음악 제작 분야에서는 AI가 대중가수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인간 가수를 대신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대 공연처럼 관객과의 감정 교류가 필요하거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트롯 시장의 성장	•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층의 축소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반 음악 및 음성 생성 도구에 의한 가수 역할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K-pop의 글로벌 인기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성악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성악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악가는 성악 독창(솔리스트) 외에 합창이나 오페라 공연을 주로 한다. 그 외에 뮤지컬 배우, 교육 및 개인 레슨, 상업 음악 제작 참여 등 다양한 일을 한다. 따라서 성악가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 시장은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 및 동서양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 증가에 따른 관람객 증가, 캐주얼 클래식 등 관객 유인을 위한 업계의 노력, 뮤지컬 시장의 성장, 해외 진출 증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등의 요인으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성악가의 일자리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대중음악과의 경쟁, AI 음악 및 음성 콘텐츠 생성 기술에 의한 상업 음악 분야에서 성악가 대체 가능성, 대학 성악과의 구조조정, 안정적 일자리 부족 등은 성악가의 일자리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성악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과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의 증가

성악가의 주 활동 무대는 성악 독창(솔리스트) 외에 합창과 오페라 공연 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성악가 관련 공연(성악, 합창, 오페라)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잠시 주춤했지만, 다음 해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2년(2,225건)과 2023년(2,485건)에는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도 2020년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후 2021년부터는 이전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2023년 2,918회에 이르렀다. 이는 성악가의 주 활동 무대인 공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성악 공연의 경우, 오페라를 제외하면 개별 공연 규모가 크지 않고, 티켓 파워가 있는 일부 유명 성악가에게 공연 기회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연 건수와 횟수의 증가 추이만으로 성악가의 일자리 증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양악 공연과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화 향유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와 함께 조기 음악 교육의 확산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람이 늘었고, 또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도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성악, 합창, 오페라 공연 추이

(단위: 건, 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성악	공연 건수	918	359	992	1,004	605	964	1,250	1,110
	공연 회수	1,153	449	1,227	1,134	1,002	1,959	1,342	1,184
합창	공연 건수	635	679	931	915	159	355	579	915
	공연 회수	659	723	1,014	1,099	178	442	628	996
오페라	공연 건수	366	409	362	317	161	334	396	460
	공연 회수	635	708	658	527	252	547	634	738
합계	공연 건수	1,919	1,447	2,285	2,236	925	1,653	2,225	2,485
	공연 회수	2,447	1,880	2,899	2,760	1,432	2,948	2,604	2,918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뮤지컬 시장의 성장, 캐주얼 클래식을 통한 관객 유인 노력, 해외 진출 기대

국내 공연예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뮤지컬 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악가의 활동 무대도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뮤지컬 시장에 유명 대중가수 출신이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점은 성악가 일자리에 부정적 요인이다.

최근에는 클래식 공연 업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 연출, 대중음악·국악·발레 등 다른 장르와의 결합, 관객 참여형 공연 진행, 문화관광과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주얼 클래식의 부상은 성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K-컬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성악가의 해외 진출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조수미, 임형주 등 유명 성악가의 해외 공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오페라단과 교향악단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년 관련 예술가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창작활동 지원, 공연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청소년 예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클래식 공연이나 음악가 양성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단체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문예진흥기금 운용, 기업의 후원 등이 성악가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불확

실성이 커지면 재정적 지원 등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성악가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대중음악과의 경쟁

저출산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0~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음악 산업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클래식 음악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연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의 높은 관심과 인기는 상대적으로 고전음악에 대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0~30대인데, 이들 소비층을 대중음악에 뺏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AI 음악 및 음성 콘텐츠 생성 기술에 의한 상업 음악 분야에서 성악가 대체 가능성

최근 생성형 AI와 AI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성악가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AI 기반 음악 및 음성 콘텐츠 생성 플랫폼은 오페라의 소프라노와 테너 음색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다른 AI 플랫폼은 오페라 한 편을 전적으로 AI로 작곡·연주·노래까지 제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유명 성악가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광고, 배경음악, 온라인 콘텐츠와 같은 상업적 제작 환경에서 인간 성악가 대신 AI 음성을 사용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무대 예술처럼 인간의 예술성과 감정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성악가의 일자리가 유지되겠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상업 음악 제작 분야에서는 성악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성악가의 활동 무대가 공연장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공연 영상 온라인 생중계 확대, 해외 무대와의 비대면 협업,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대학 성악과의 구조조정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

학령인구 및 입학생 감소,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음악 계열 입학정원도 축소되고 있어, 성악과 정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성악과 폐과를 추진하거나 다른 유사 학과와 통합하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성악인 양성 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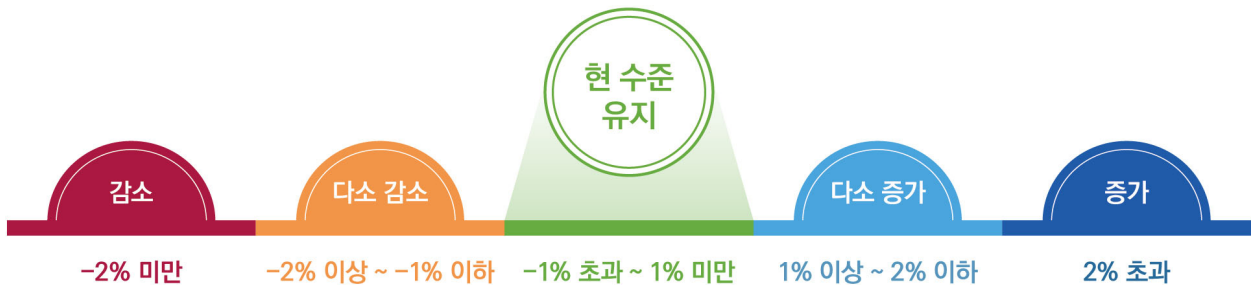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더욱이 국공립 오페라단, 합창단, 교향악단과 같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신규 채용도 드문 편이다. 또 많은 성악가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점은 성악가의 취업자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성인층의 증가 •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 지출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	•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높은 청년 인구의 감소 • 대학 성악과의 구조조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조기 음악 교육 확산에 따른 관람객 증가	• 대중음악 공연과의 경쟁
과학기술의 발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 무대 확장	• SI에 의한 상업 음악 분야의 성악가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 성악가의 해외 진출 기회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캐주얼 클래식을 통한 관객 유인 노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뮤지컬 시장의 성장	• 안정적 일자리 부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무용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무용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용가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거나 뮤지컬, 오페라 등의 무대 등에서 춤을 담당하며, 순수무용가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중가수나 아이돌 콘서트의 백댄서 또는 힙합, 브레이킹, 재즈댄스 등의 장르에 따라 대중적 춤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대중무용수(백댄서)와는 차이가 있다. 무용가의 일자리는 생활 수준 향상과 꾸준한 문화 향유 욕구,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수요 축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순수무용에 대한 관심 감소, AI와 가상 무용가에 의한 대체 가능성 증가, 대학 무용과의 구조조정, 안정적 일자리 부족 등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무용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수준 향상과 꾸준한 문화 향유 욕구

국내 순수무용 산업은 한국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현대무용과 발레가 차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공연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잠시 주춤했지만, 다음 해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3년(2,539건)에는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도 2023년(6,368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무용 공연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용 공연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 향유 욕구가 큰 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무용 공연 추이

(단위: 건, 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건수	1,924	2,355	2,583	2,525	3,159	880	1,962	2,195	2,539
공연 횟수	8,450	7,516	8,090	6,800	6,825	2,888	7,210	3,976	6,368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단체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문예진흥기금 운용, 기업의 후원 등이 순수 무용 업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무용가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창작활동 지원, 공연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청소년 예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클래식 공연이나 음악가 양성을 후원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은 무용가의 일자에 부정적 요소이다.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

순수무용 업계는 전통적인 무대 공연을 벗어나 온라인 무용 공연, 댄스필름, 숏폼 영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무용가의 활동 영역 확장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수요 축소와 순수무용에 대한 관심 감소

낮은 출산율과 학령인구(6세~21세)의 감소는 무용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아 및 초등학교생의 인구 감소로 순수무용에 대한 교육 수요를 축소하고, 부모와 자녀 동반의 가족 관람객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의 K-pop 인기와 함께 힙합, 브레이킹, 재즈댄스 등의 대중무용 장르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수무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순수무용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순수무용 시장의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와 가상 무용가의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대체 가능성

무용가는 인간 고유의 육체적 활동을 통해 현장성, 즉흥성, 감정표현 등 예술성이 강한 직업이므로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딥러닝 및 모션캡처 기술을 활용한 ‘가상 무용가’ 생성을 통해 일부 공연이나 미디어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온라인 댄스 교육 콘텐츠·트레이닝 분야에서 AI가 동작 평가·코칭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무용가의 현장성과 예술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면 ‘가상 무용가’가 인간 무용가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VR 콘서트, 홀로그램 공연, 메타버스 플랫폼 협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 무용과의 구조조정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

학령인구 및 입학생 감소,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무용 계열 입학정원이 축소되거나 폐과 또는 실용무용으로 개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무용가 양성 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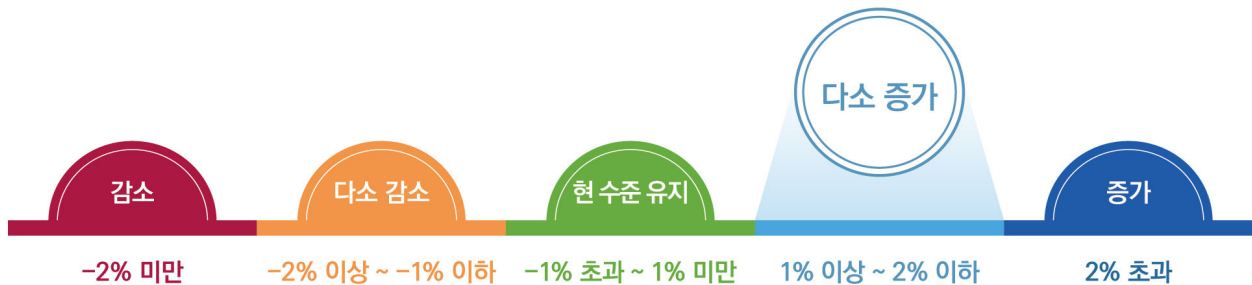
더욱이 국공립 현대무용단, 한국무용단, 유니버설발레단과 같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신규 채용도 드문 편이다. 또 많은 무용가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점은 무용가의 취업자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수요 축소 • 대학 무용과의 구조조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꾸준한 문화 향유 욕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순수무용에 대한 관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AI와 가상 무용가의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대체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안정적 일자리 부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안무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안무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의 경우는 장르별로 전문 안무가가 있고, 대학교수가 안무를 창작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무용의 경우에는 전문 안무가가 안무를 창작하기도 하고, 비보잉 등의 분야는 댄서 스스로가 안무 창작을 한다.

안무가의 일자리 증가에 가장 영향 요인은 K-pop과 더불어, K-pop 댄스의 글로벌 인기와 그에 따른 각종 콘텐츠의 제작 수요로 새로운 안무 창작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그 외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안무가의 기회 창출 및 기업과의 협업, 문화예술 및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이 있다.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층의 축소, 단순 안무 창작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안무가의 직업적 특성상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무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순수무용 등 문화 향유 욕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공연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잠시 주춤했지만, 다음 해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3년(2,539건)에는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도 2023년(6,368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무용 공연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무용 공연 시장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 향유 욕구가 높은 계층이 꾸준히 존재하는 점이 크다.

연도별 무용 공연 추이

(단위: 건, 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건수	1,924	2,355	2,583	2,525	3,159	880	1,962	2,195	2,539
공연 횟수	8,450	7,516	8,090	6,800	6,825	2,888	7,210	3,976	6,368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각년도)

K-pop 댄스 등 대중무용의 글로벌 확산

K-pop 댄스를 비롯하여 스트리트 댄스(비보잉, 팝핀, 힙합 등), 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콘서트 공연, 영상 콘텐츠 제작, 각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이어지면서 안무가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K-pop 아이돌의 퍼포먼스에서 안무가의 창작 스타일은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유명 안무가의 영향력과 시장 수요가 높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기회 창출, 기업과의 협업

무용·댄스 업계는 전통 무대 공연을 넘어 온라인 공연, 댄스필름, 숏폼 영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등 새로운 매체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틱톡 기반의 댄스 챌린지는 안무가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댄서·안무가와 협업을 늘리고 있어, 안무가의 활동 범위와 경제적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안무가의 직무 전문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고 세분화되면서, 안무가는 전통적인 무대 안무 외에도 퍼포먼스 디렉터, 무브먼트 디렉터(Movement Director)로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형 기획사에서는 퍼포먼스 디렉터가 아티스트와 안무가를 연결하며 공연 전반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 무브먼트 디렉터는 연극, 뮤지컬, 영화, 패션쇼,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인물의 감정과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이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무가의 활동 영역의 확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 및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는 2024년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으며, 음악 IP 기반 창작 활동 지원, 저작권 수익구조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K-pop과 댄스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공연·창작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청소년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민간단체의 후원도 순수무용과 안무가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

럼 공공·민간 차원의 지원은 앞으로도 안무가의 고용 안정과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층의 축소

낮은 출산율(2024년 합계출산율 0.748)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인 10~30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19~34세)는 2025년 1,025만여 명에서 2035년 81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21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소비층의 감소는 대안무가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 안무 창작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

현재 AI는 안무 시퀀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동작 조합을 제안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연구 프로젝트와 버추얼 아이돌 공연 등 제한적 무대에서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 특히 AI는 인간이 쉽게 떠올리지 못한 새로운 동작 패턴을 제안하거나, 댄서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음악·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실험적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 모션, 메타버스 아이돌 안무, 숏폼 및 광고용 단순 댄스 제작 등에서 안무가의 일부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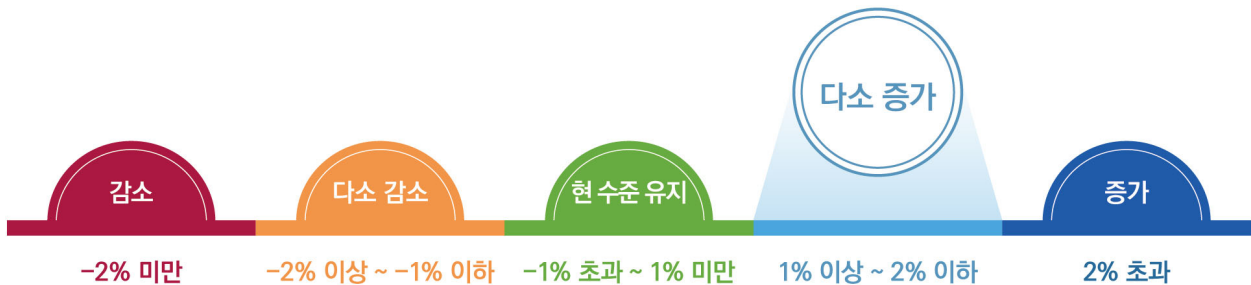
그러나 안무가는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 노래와 무대의 맥락, 관객의 취향과 문화적 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무를 창작하고, 현장에서 댄서를 지도·수정하는 고도의 예술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I가 안무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창작 도구이자 협업 파트너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무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층의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순수무용 등 문화 향유 욕구 - K-pop 댄스 등 대중무용의 글로벌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단순 안무 창작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K-pop 댄스 등 대중무용의 글로벌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기회 창출 - 기업과의 협업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안무가의 직무 전문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법·제도 및 정부 정책	문화예술 및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대중무용수(백댄서)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무용수(백댄서)는 스트리트 댄스(비보잉, 팝핀, 힙합 등), 재즈댄스, K-pop 댄스 등의 장르에 따라 대중적 춤을 전문으로 공연하거나 대중가수나 아이돌 콘서트의 백댄서로 활동한다. 이들은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순수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순수)무용가와 구분된다.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는 대중무용에 대한 인기 확산으로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청소년과 일반인, 외국인 대상으로 댄스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K-pop의 글로벌 인기 확산으로 백댄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 기업과의 협업 증가,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이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층 감소, 한정된 일자리 수요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AI와 가상 무용가의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대체 가능성 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중무용에 대한 인기 확산으로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영역 확대 및 댄스교육 수요 증가

K-pop 댄스를 비롯하여 스트리트 댄스(비보잉, 팝핀, 힙합 등), 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각종 댄스 경연대회 개최, 댄스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문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K-pop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외에서 K-pop 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숏폼 플랫폼을 통한 K-pop 댄스 챌린지 확산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 K-pop 전문 아카데미와 학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대중무용수(백댄서)의 교육 활동 및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K-pop의 글로벌 인기 확산과 백댄서 수요 증가

케이팝(K-pop)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인기와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 미국,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 백댄서, 방송 무대 댄서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댄스 관련 사업(댄스 스쿨 운영, 공연 기획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무대를 다양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들 일자리의 상당수는 단기·프로젝트성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 낮은 구조적 한계도 공존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와 기업과의 협업 증가

대중무용 업계는 전통적인 무대 공연을 넘어 온라인 공연, 댄스필름, 숏폼 영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형식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문화 마케팅과 브랜드 홍보의 일환으로 댄서와 협업하는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시도는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며,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는 2024년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음악 저작권(IP) 기반 창작 활동 지원, 저작권 수익구조 개선,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K-pop 및 댄스 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감소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층의 축소

낮은 출산율(2024년 합계출산율 0.748)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대중음악의 핵심 소비층인 10~30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19~34세)는 2025년 1,025만여 명에서 2035년 813만여 명으로 동기간 약 21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소비층의 감소는 대중무용수(백댄서)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정된 일자리 수요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방송, 공연, 유흥시설(놀이공원, 호텔, 클럽 등) 등에서의 댄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는 규모가 한정적이며, 계약 기간이 짧고 프리랜서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낮다. 특히 일부 유명 댄서나 인기 그룹에 기회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직업적 지속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사설 무용단은 수시 채용을 진행하지만, 긴 연습 과정과 생활 여건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아 대체 인력 수요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AI와 가상 무용가의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대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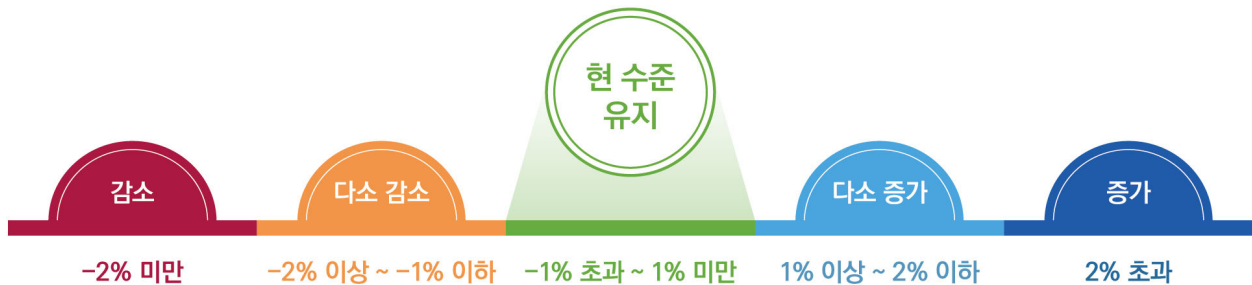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대중무용수(백댄서)는 인간 고유의 육체적 활동을 통해 현장성, 즉흥성, 감정표현 등 예술성이 강한 직업이므로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딥러닝 및 모션캡처 기술을 활용한 ‘가상 무용가’ 생성을 통해 일부 공연이나 미디어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온라인 댄스 교육 콘텐츠·트레이닝 분야에서 AI가 동작 평가·코칭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대중무용수(백댄서)의 현장성과 예술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면 ‘가상 무용수’가 인간 무용수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VR 콘서트, 홀로그램 공연, 메타버스 플랫폼 협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층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대중무용에 대한 인기 확산으로 대중무용수의 활동 영역 확대 • 국내외 댄스교육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AI와 가상 무용가의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 K-pop의 글로벌 인기 확산과 백댄서 수요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확대 • 기업과의 협업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한정된 일자리 수요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K-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제품 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제품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제품 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제품 디자이너는 주로 제조기업이나 디자인 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전자제품, 가구, 통신장비, 자동차를 비롯하여 문구류, 완구류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디자인한다. 제품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 요소 중시 트렌드, 첨단기술 적용 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 K-컬처 인기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굿즈 등 문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1인 가구·고령자 및 액티브 시니어·MZ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 디자인 수요 등의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축소,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초급 제품 디자이너의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긍정적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 요소 중시 트렌드

마케팅 인사이트 리포트 플랫폼의 2023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로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 ‘AI 등 최신 기술이 포함된 가전제품’, ‘1인 가구 맞춤형 기능’ 등을 꼽았다. 이러한 구매 영향 요인들은 제품 설계와 디자인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위해 제품 디자이너에 대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적용 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

기존 TV, 냉장고, 자동차 등 익숙한 제품에 AI, IoT, 친환경 재료 같은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품 고도화와 차별화를 위해 제품 리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웨어러블, 전기차, 바이오헬스기기 등 완전히 새로운 첨단제품 개발에 따른 디자인 수요는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첨

단기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제품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K-컬처 인기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굿즈 등 문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영화·드라마, K-pop 등 K-컬처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문화 및 문화상품에 대한 인기도가 상승 중이다. 국내 캐릭터 시장이 안정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K-pop 아이돌의 굿즈 매출(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뷰티가 전체 쇼핑 지출의 35%를 차지하는 등 문화 연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박물관이 기념품 고급화 전략을 통해 기획 및 판매하는 ‘뮤즈(MU:DS)’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기념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K-컬처의 인기 확산에 힘입어 한국 문화 제품의 구매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품 디자이너의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초급 제품 디자이너의 단순·반복 작업 자동화

생성형 AI는 제품 디자인 전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며, 제품 디자이너의 일자리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더 많은 프로젝트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면에 초급 디자이너의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초급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축소와 맞춤형 제품 디자인 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제품에 대한 소비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품 디자이너에 대한 인력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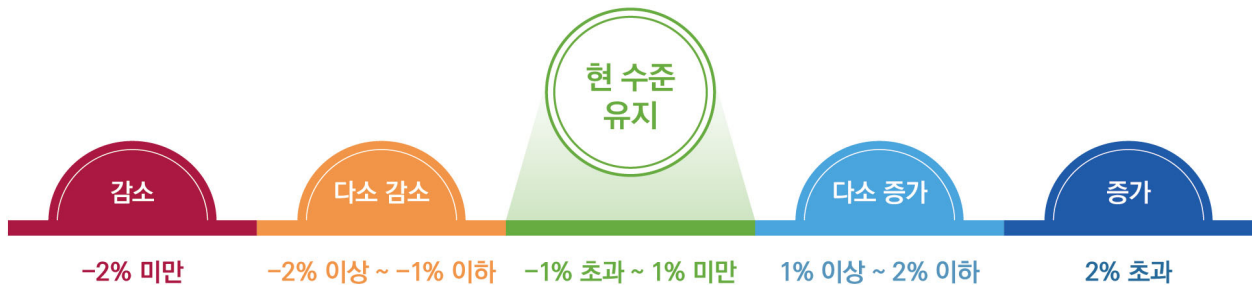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및 액티브 시니어층의 확산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소형 가전, 고령자 친화적 제품 등에 대한 디자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으로 커스터마이징 제품 디자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고령자 및 액티브 시니어, MZ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 디자인 수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의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 요소 중시 트렌드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초급 제품 디자이너의 단순·반복 작업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K-컬처 인기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굿즈 등 문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첨단기술 적용 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의상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의상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패션 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의상디자이너는 주로 패션 브랜드·의류기업에 고용되거나 독립 브랜드를 운영하며, 일부는 무대·공연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동한다. 의상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저출산·고령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의류 시장의 축소에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의류 제조기반 약화, 기업 패션 브랜드의 축소·통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라 디자인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어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저숙련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K-패션의 글로벌 진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 시장의 성장, 스마트 의류 시장의 가능성, 정부의 K-패션 육성 정책 등은 의상디자이너의 일자리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해 보면, 의상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상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의류 시장의 축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의류 및 신발의 실질 소비지출액(물가상승률 제거)은 2024년 53조 3,01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고, 10년 전인 2015년 58조 8,480억 원에 비해서는 -7.7% 감소하였다. 국내의 전체 소비지출액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신발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동복 시장이 급격한 축소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는 고령층은 물론 중장년층의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류 시장의 축소는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시니어 패션 시장이 성장하고, 시니어 특화 의류 디자인, 헬스케어 의류 디자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의류 제조기반 약화

국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의류·섬유 회사들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이전이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제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 현장에 기반하여 일을 해야 하는 단순·보조 디자이너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패션 브랜드 축소·통합과 경력직 선호

패션 산업은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브랜드 축소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의류·신발 등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인력을 최소화해 핵심 경력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신입 디자이너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기회

패션디자인 분야에도 AI, 3D 바디 스캔, 3D 프린터 등의 첨단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현재 패션 기업들과 의상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초기 스케치 작업, 패션 트렌드 예측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AI 활용으로 디자인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저숙련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디자이너는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AI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AI와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을 접목해 환경과 사용자 상태에 반응하는 스마트 의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상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K-패션의 글로벌 진출과 온라인 유통구조의 변화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으로 K-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의류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패션 대기업들의 브랜드 축소·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정부의 K-패션 육성정책과 제도적 지원

정부는 'K-패션 글로벌 진출 지원', '의류 제조 경쟁력 강화', 'K-패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섬유·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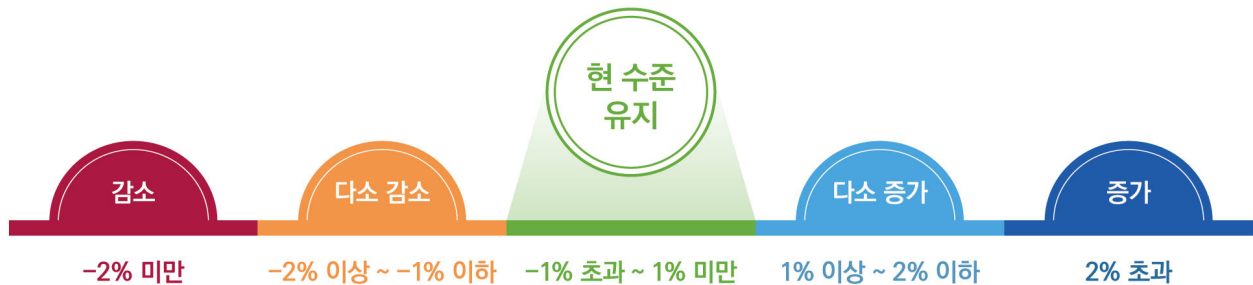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5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패션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증가	• 저출산·고령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의류 시장의 축소
과학기술의 발전	• 스마트 의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디자인 생산성 향상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K-패션의 글로벌 진출	•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의류 제조기반 약화 • 패션 브랜드 축소·통합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 시장의 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K-패션 육성정책과 제도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는 의상을 제외한 가방, 신발, 벨트 등 각종 소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므로 패션 브랜드·의류기업이나 소품 전문 브랜드·제조업체, 명품·럭셔리 브랜드 하우스 등에 취업을 하거나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한다. 그 외에 프리랜서나 스튜디오 소속으로서 특정 브랜드와 협업해 맞춤형 소품을 제작하거나 영화·드라마·뮤지컬·아이돌 무대의 소품 디자인을 하기도 한다. 럭셔리·프리미엄 패션소품 시장은 경기 침체기에도 고가 소비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패션소품 시장이 성장하고, 정부의 K-패션 육성 정책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K-패션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점, 그리고 향후 업사이클링·지속가능 패션 트렌드의 강화,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의 급성장, 메타버스 가상 아이템 디자인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므로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의 일자리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패션소품 제조기반 약화,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은 제한적이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럭셔리·프리미엄 패션소품 시장의 유지·확대

가방·신발은 '투자재(Investment goods)'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경기침체에도 고가 소비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패션소품은 의류보다 단가가 낮고 사이즈 제약이 적어 온라인·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 특화 기능성 소품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K-패션의 글로벌 진출과 온라인 유통구조의 변화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으로 K-패션소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트렌드페이'에서

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000여 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바이어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소규모 패션소품 브랜드도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졌다.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 럭셔리 가방 시장은 2024~2032년 동안 연평균 약 4.5% 이상 성장하여 2032년에는 약 16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틈새시장에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패션 대기업들의 브랜드 축소·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패션소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업사이클링·지속가능 패션 트렌드의 강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패션(sustainable fash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발·가방 분야에서도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현수막이나 자동차 가죽 시트를 업사이클링해 가방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브랜드들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ESG 경영 확산,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확대, 정부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발·가방은 비교적 소규모 제작과 실험적 소재 활용이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업사이클링과 지속가능 패션 트렌드는 신규 브랜드 창업이나 틈새시장 진입을 통해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의 급성장과 메타버스 가상 아이템 디자인 수요

스마트 패션소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Research Nester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은 829억 달러 규모에서 2037년 9,467억 달러로 연평균 20.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 주얼리, IoT 기반 액세서리 등에 전문성을 갖춘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여 일상화된다면 가상 세계에서 소비되는 가상 아이템(디지털 스니커즈, 가상 가방 등)에 대한 디자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전직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 정부의 K-패션 육성 정책과 제도적 지원

정부는 'K-패션 글로벌 진출 지원', '의류 제조 경쟁력 강화', 'K-패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패션소품 분야에서는 주얼리, 가방, 액세서리 등의 IP 보호 강화를 통한 디자이너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5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패션소품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친환경 소재 가방 등 지속가능한 패션소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25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패션소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패션소품 제조기반 약화

국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의류·섬유 회사들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이전이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패션소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상 해외 이전이 더욱 활발하다.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제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들이 직접 제품 개발과 샘플 제작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현장에 기반하여 일을 해야 하는 단순·보조 디자이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제한적인 일자리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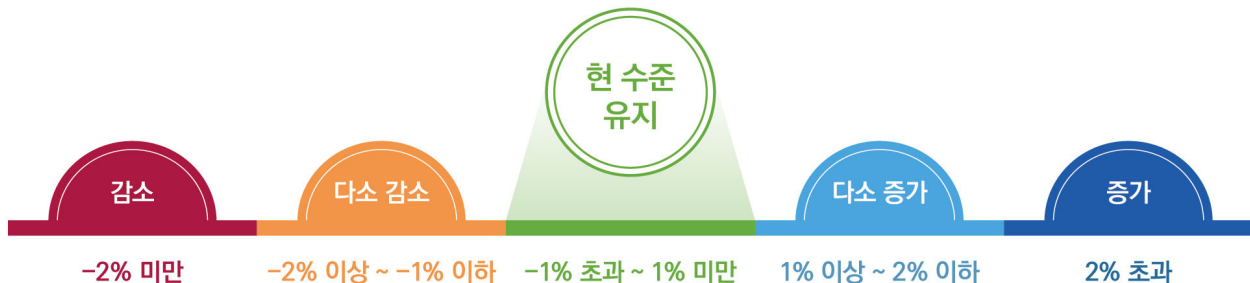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패션소품디자인 분야에도 AI, 3D 바디 스캔, 3D 프린터 등의 첨단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현재 패션소품디자이너(의상제외)들은 가방 디자인, 액세서리 패턴 개발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AI 활용으로 디자인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단순 반복적인 디자인 업무 중심의 저숙련 디자이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패션소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으므로 AI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 인력 수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의 급성장 - 메타버스 가상 아이템 디자인 수요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K-패션의 글로벌 진출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패션소품 제조기반 약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럭셔리·프리미엄 패션소품 시장의 유지·확대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패션소품 시장 성장	
환경과 에너지·자원	업사이클링·지속가능 패션 트렌드의 강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K-패션 육성 정책과 제도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실내장식 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1%로 예측된다.

실내장식 디자이너는 주택, 호텔, 백화점, 병원, 상점, 레스토랑 등의 실내공간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디자인하고 장식하는 일을 한다. 1인 가구의 증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중시, 주거 공간의 기능 확장 등 사회·문화적 변화는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디자인 수요를 촉진하는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친환경·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실내장식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신규 건설 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AI 기반 디자인 툴의 보급은 고용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설계 업무는 점차 자동화되어 디자이너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증가와 공간의 개인화 트렌드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확산은 실내장식 디자이너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 가구는 1,023만 2,425세대로 전체 가구의 42.2%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 가족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인테리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과 자기개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형 주택이라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기능 가구나 스마트 가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소비 트렌

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가구 및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콤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내장식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요구에 맞춰 한 정된 공간을 효율적이고 미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 ‘집’의 기능 확장과 경험 중심의 소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 홈스쿨링, 홈트레이닝 등이 일상화되면서 주거 공간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일, 학습, 여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레이어드 홈(Layered Home)’ 트렌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공간의 기능적 분리와 유연한 활용을 위한 인테리어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실의 일부를 홈오피스로 바꾸거나, 발코니를 홈카페나 정원으로 꾸미는 등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공간이 주는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고 과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미학적으로 뛰어난 공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실내장식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감성과 스토리를 공간에 담아내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AI 기반 디자인 툴의 보급과 업무 대체 가능성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예산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공간 레이아웃, 가구 배치, 색상 조합 등을 제안하는 디자인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툴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2D 도면 및 3D 모델링 작업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표준화된 공간이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 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AI 툴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저예산 프로젝트나 부분적인 스타일링 시장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저숙련 디자이너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디자인

개인 맞춤형으로 소비하는 인테리어의 특성에 따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디자인으로 고객과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기술적 발전은 단순 설계작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높여 실내장식 디자이너가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에 집중하여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설 경기 불확실성과 신축 시장 위축

실내 디자인 산업은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향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신규 주택 및 상업 시설의 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국내 건설 투자는 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의 신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와 협력하여 B2B(기업 간 거래)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는 디자이너들은 신축 시장의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시장의 확대

신축 시장의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일자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기존 공간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건축 후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50.2%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 매매량 급감에 따른 단기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는 경기와 무관하게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설비를 교체하는 대규모 리모델링부터, 주방이나 욕실만 개선하는 부분 리모델링까지 시장의 범위는 매우 넓다. 또한 집 전체를 개보수하는 대신, 부엌, 욕실 등 특정 공간만 취향에 맞게 고치는 ‘부분 시공’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즉, 노후 아파트나 주택을 개조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주택 개선 사업 및 도시 재생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이 추진되는 점도 실내장식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은 이러한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은 실내 디자인과 건축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주된 활동 무대가 신축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현장으로 이동하며, 전체적인 고용 총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친환경·에너지 효율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 소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소비를 넘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실질적인 요구와 연결된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실내장식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단열 성능을 높이는 창호와 마감재를 선택하고, 고효율 조명 시스템을 설계하며,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디자이너는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 분야는 향후 실내장식 디자이너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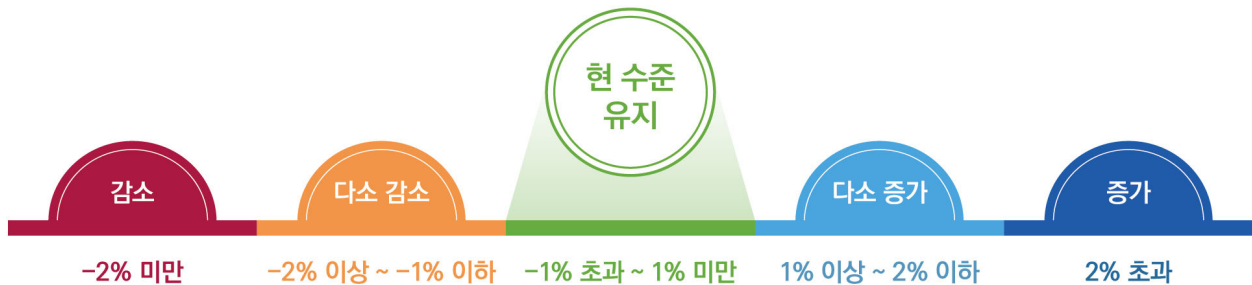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리 잡으며 관련 인력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및 소형 주택 수요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의 취향 및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확산 • SNS 등을 통한 공간 디자인 관심 증대 • '레이어드 홈' 등 주거 공간의 기능 다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 VR/AR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 및 자동화 툴 보급
국내외 경기 변화		• 신규 주택 건설 등 건설 경기 변동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노후 주택 개선 사업 및 도시 재생 사업, 재건축 사업 관련 수요 존재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지속가능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시각 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시각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시각 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시각 디자이너는 인간의 행위, 사고 등의 정보가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 효율적으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도안하고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와 시각적 소통의 일상화 등 디자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과 생성형 AI 발전으로 인한 단순 업무 대체의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각 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적 소통의 폭발적 증가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감성적 경험과 스토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영상에 기반한 시각적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자신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표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시각 콘텐츠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 콘텐츠 수요 증가는 디자이너의 역할 중요성과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위협이자 기회인 생성형 AI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인의 이미지와 그래픽 생성, 색상 추천, 레이아웃 자동 배치 등 단순 반복 작업이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다. 시각디자인 도구가 템플릿화·자동화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비전문가도 쉽게 디자인할 수 있어 기술숙련도가 낮은 신입 디자이너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협업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시안을 신속하게 생성하고,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역할이 단순히 만드는 사람(Maker)에서 인공지능(AI)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창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

고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기획자 및 전략가로 변화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각 디자인의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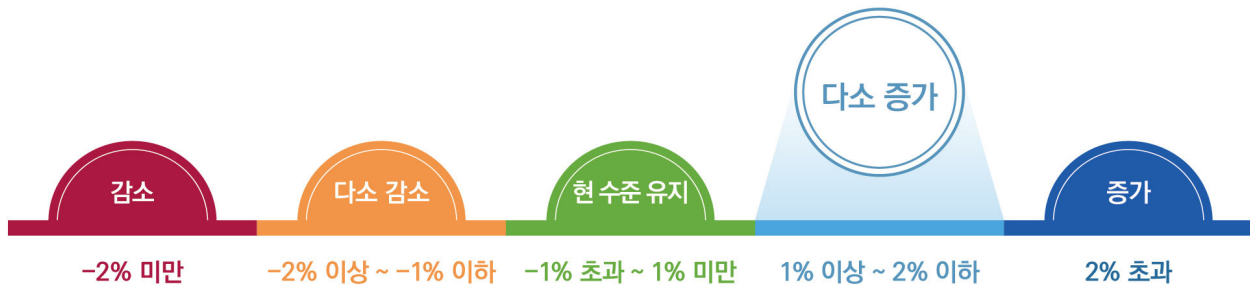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웹사이트, 모바일 앱, 상세 페이지 등 사용자 접점에서의 UI/UX 디자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인포그래픽과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 콘텐츠 수요 증가가 시각 디자이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증대 •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과학기술의 발전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 생성형 AI의 단순 반복 업무 대체 • 저숙련 디자이너 일자리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UX/UI 등 신규 디자인 분야 수요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웹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웹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웹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웹디자이너는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웹의 구축 목적 및 내용을 웹사이트상에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을 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일부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 되는 위협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사용자 경험(UX)의 중요성 증대, 새로운 소비층(액티브 시니어, 1인 가구)의 등장 등은 웹디자이너의 역할과 수요를 더욱 확대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웹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부상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웹디자인 시장에도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위한 웹 접근성 및 사용성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층이 쉽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명확한 색상 대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등을 적용한 ‘시니어 친화적’ 웹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구독 경제 등 ‘솔로 이코노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관련 분야의 웹디자인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초개인화와 사용자 경험(UX)의 부상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은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획일화된 웹사이트 전략보다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웹디자이너의 역할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과 심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설계하는 UX/UI 디자이너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비롯

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는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반응형 웹디자인(감지된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페이지가 재배열되는 디자인) 등 웹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양면성, 대체 위협과 고도화의 기회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웹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이나 템플릿 중심의 디자인 업무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웹디자인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숙련 디자이너의 입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순·반복적인 디자인 작업 자동화는 디자이너가 서비스 콘셉트 기획 등 더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AI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고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UX)을 설계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이 확장되면서 AI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웹디자이너 수요는 증가하고,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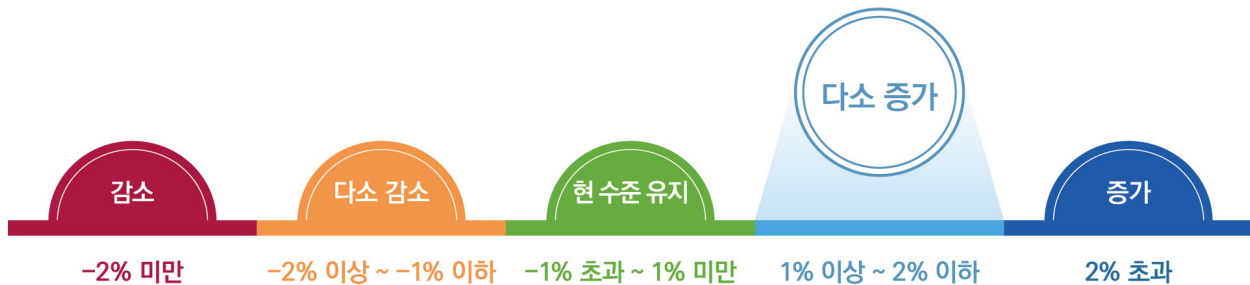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더 이상 정보통신(IT)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제조업, 유통, 금융,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앱, 온라인 쇼핑몰 구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웹디자인의 활동 무대가 IT 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웹디자이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과의 온라인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웹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관련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 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에 따른 맞춤형 웹디자인 수요 증가 • 고령층을 위한 웹 접근성 및 사용성 개선(UI/UX) 전문가 수요 확대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 둔화 가능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른 UX/UI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 • 모바일 중심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반응형 웹·앱 디자인 수요 지속	
과학기술의 발전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확장 • AI 도구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생성형 AI 및 자동화 툴 발전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디자인 업무 대체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 이커머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관련 웹디자인 수요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게임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게임그래픽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게임그래픽디자이너는 컴퓨터게임 등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등을 디자인하여 만드는 일을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일부 직무의 자동화를 촉발하여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요구 증대, 신규 플랫폼의 확장 등의 요인이 완만한 증가세의 고용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성형 AI의 양면성, 효율성 증대와 대체가능성

AI 기술은 단순 애셋(asset) 제작이나 기존 이미지 수정 등 주로 주니어급 디자이너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에 그래픽 제작을 맡기는 아트 아웃소싱 시장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 제작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성형 AI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래픽 애셋(asset) 제작, 텍스처링, 배경 생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디자이너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콘셉트 기획, 아트 디렉팅, 독창적인 세계관 구축 등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화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방대하고 디테일한 게임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결국 더 많은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으로 이어져 디자이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시장 확장과 플랫폼 다변화

국내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 중심에서 벗어나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

히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AA급 콘솔 게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영화적 수준의 고품질 그래픽과 사실적인 비주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을 갖춘 그래픽 디자이너의 꾸준한 수요로 이어진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몰입형 콘텐츠 시장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3차원 그래픽 디자인 역량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신규 플랫폼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 시각적 경험 중시 문화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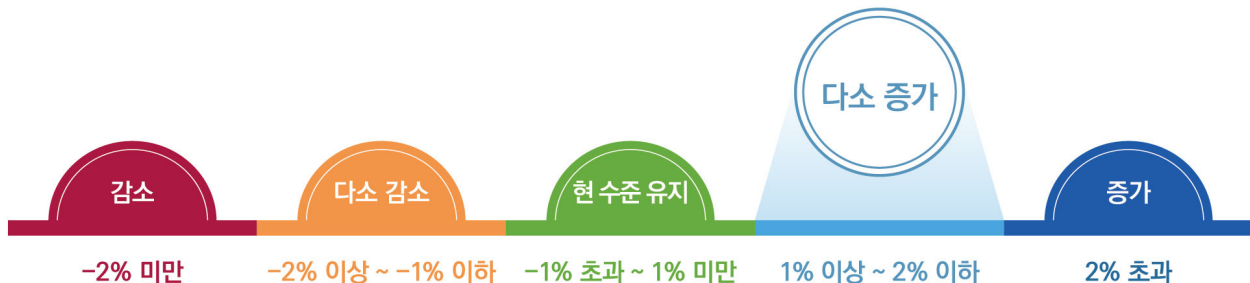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게임을 선택할 때 스토리나 시스템만큼이나 그래픽의 심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하며, 이는 게임 개발사들이 그래픽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게임 플레이를 스트리밍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보는 게임’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해졌다.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래픽은 게임의 흥행과 직결되므로, 기업들은 독창적이고 뛰어난 비주얼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고품질 시각적 경험 요구 증대 • ‘보는 게임’ 문화 확산으로 인한 그래픽의 중요성 부각	
과학기술의 발전	•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디자이너 수요 증대	• 생성형 AI의 단순·반복 업무 대체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 진출 확대에 인한 그래픽 수요 증가 • 신규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전문 인력 필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영상그래픽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영상그래픽디자이너는 방송의 뉴스, 일기예보, 속보 등에 사용되는 글, 그림, 데이터, 문자 등을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일상화,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 실감형 기술의 발전 등은 영상그래픽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는 일부 저숙련·반복 업무를 대체하며 고용구조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중심의 소통 문화 확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전 세대에 걸쳐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이미지보다 영상을 선호하는 ‘영상 중심(Video-centric)’의 소통 방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Short-form) 콘텐츠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영상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일상 기록과 소통을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마케팅, 홍보, 교육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의 성장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방송, 영화 등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광고, 교육,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필요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모션 그래픽과 특수 효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영상그래픽디자이너

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실감형 기술 및 생성형 AI의 부상

과학기술의 발전은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몰입형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상 공간, 아바타, 인터랙티브 오브젝트 등을 디자인하고 구현할 수 있는 3D 그래픽 및 특수효과(VFX)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의료, 교육, 제조,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생성형 AI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시각화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나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템플릿 기반의 간단한 모션 그래픽, 단순 배경 제거 및 합성, 자막 디자인 등 비교적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작업은 AI 기술에 의해 상당 부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히 주니어급 디자이너나 단순 제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디지털 마케팅 강화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예산은 영향을 받지만, 전통적인 광고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체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 광고, 제품 소개 영상, 사용법 안내 등 다양한 목적의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정된 마케팅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타기팅과 성과 측정이 용이한 디지털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 광고는 높은 주목도와 정보 전달력으로 인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영상그래픽디자이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 K-콘텐츠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제작 지원, 금융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고,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등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이어져 고품질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숙련된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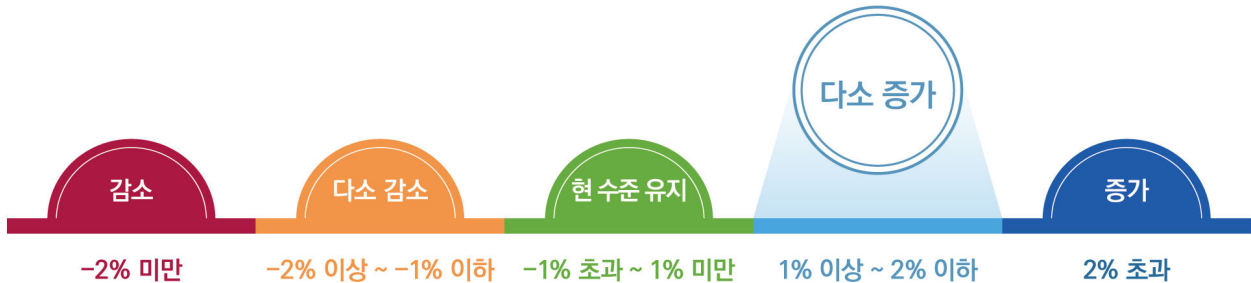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영상 중심의 소통 및 정보 습득 문화 정착	짧은 호흡의 콘텐츠(숏폼) 유행으로 깊이 있는 장편 콘텐츠 시장 위축 가능성
과학기술의 발전	- AI를 활용한 제작 생산성 향상 -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수요 창출	생성형 AI로 인한 단순·반복적 그래픽 작업의 자동화 및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전통 광고에서 디지털 영상 광고로의 마케팅 전략 전환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K-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및 제작 지원 확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UI/UX디자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UI/UX디자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UI/UX디자이너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2%로 예측된다.

UI/UX디자이너는 IT 기기 등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한다.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요구 증가로 인해 사용자와 디지털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UI/UX디자이너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UI/UX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전반적인 산업의 디지털화, 신 기술의 등장, 그리고 사용자 계층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 속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부 업무의 자동화라는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의 가치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고도화된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UI/UX디자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성형 AI와 공존하며 고도화되는 전문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단순 아이콘 제작, 와이어프레임 생성, 디자인 시스템 관리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의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생성형 AI기반 UX/UI 설계 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UI/UX 직무가 하나의 직무로 통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UI/UX디자이너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UI/UX디자이너는 AI가 생성한 디자인 시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와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종 결과물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설계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디자이너의 역할은 '생산자'에서 '전략가' 및 '조정자'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2D 화면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 설계 수요를 창출하며 숙련된 UI/UX디자이너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술 발전 및 역할 변화는 단순 기능 인력

에 대하여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UX 경영의 확산

과거 IT 및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었던 UI/UX디자이너의 수요는 이제 금융, 의료, 유통, 제조 등 전통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직관적이고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접목하는 것이 곧 브랜드 충성도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UX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보기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목표와 사용자 요구를 연결하는 총체적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UI/UX디자이너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홈, 스마트카, 웨어러블 기기 등 스크린이 탑재된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서, 각 기기의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UI/UX를 설계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UI/UX디자이너를 참여시켜 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며, 이는 디자이너의 역할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포용적 디자인과 개인화된 경험의 중요성 증대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UI/UX 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쉽고 접근성 높은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 금융,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없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과 '디지털 접근성'이 법적·사회적 요구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사용자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UI/UX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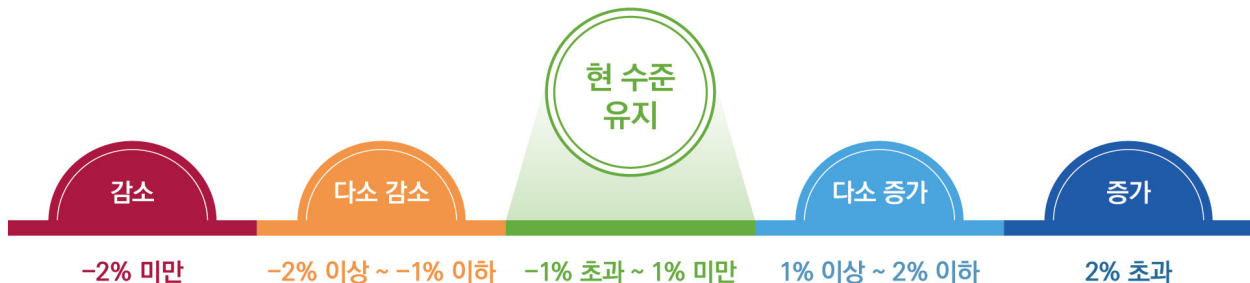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동시에, 개인의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촉진하는 동력이 된다.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 행동 패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개인화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용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고도의 UX 리서치 및 설계 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는 UI/UX 디자이너의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고 UI/UX디자이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 및 접근성 강화 요구 증대 - 개인화·맞춤형 서비스 디자인 수요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사용자 경험(UX) 자체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높은 사용성 기준 충족을 위한 디자인 고도화	
과학기술의 발전	-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신규 디자인 수요 창출 -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UX 설계 전문가 수요 증가	생성형 AI로 인한 단순·반복적인 디자인 업무의 자동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방송연출가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방송연출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방송연출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방송연출가는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 보도, 교양, 오락(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제작과정과 섭외, 예산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작 전반을 총괄한다.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방송 광고 시장의 위축과 제작 환경의 변화는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강화, 그리고 웹·숏폼 등 디지털 플랫폼의 다변화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며 고용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연출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통 미디어의 위축과 OTT 중심의 재편

전통 방송 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이었던 광고 시장의 축소는 방송연출가 일자리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기준, 국내 방송사업 매출액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9.2% 급감하며 방송사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축소, 신규 채용 감소, 그리고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연출가 활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청 행태가 VOD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실시간 방송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 또한 기존 방송사의 연출가 수요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한편, OTT 플랫폼의 성장은 방송연출가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OTT인 티빙, 웨이브 등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제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양산하며, 이를 기획하고 실행할 방송연출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I 기술 도입과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방송 제작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료 검색, 데이터 분석, 편집점 자동 추천, 자막 및 효과 생성 등 제작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여 연출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AI의 역할이 커지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보조 인력이나 주니어급 연출가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AI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제작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연출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방송연출가의 창의성을 보조하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한다면, 가상 프로덕션,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및 생성 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출 기법과 포맷을 탄생시킬 수 있다. 즉, 연출가를 대체하기보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출가의 창의적 판단과 기획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기술 이해도를 갖춘 융합형 인재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콘텐츠 소비의 개인화와 다양성 증대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 성향의 확산은 다채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과거처럼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주제에 깊이 파고드는 마니아 장르,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 있는 ‘숏폼’ 및 ‘웹 예능’,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서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의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유튜브, 틱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하며, 짧은 호흡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방송연출가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과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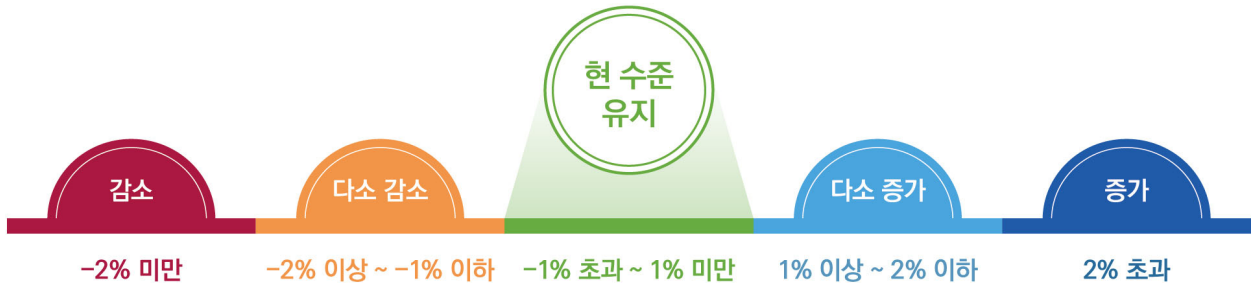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K-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방송연출가 일자리의 가장 강력한 증가 요인 중 하나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면서 방송 콘텐츠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출 규모는 연평균 10.7%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약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확대된 글로벌 시장은 국내 제작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더 높은 품질과 더 큰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해외 로케이션 경험,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글로벌 시청자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는 역량을 갖춘 방송연출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더 많은 제작 프로젝트와 연출 인력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된 취향에 맞춘 콘텐츠 수요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인공지능(AI) 기술의 제작 현장 도입 • 기술 이해도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연출가 수요 증가	• 제작 과정의 일부 업무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 방송 콘텐츠 수출액 증가 •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재편 • 글로벌 및 국내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급증	• 전통 방송 광고 시장 축소로 인한 방송사 재정 악화 • 지상파·케이블 채널의 제작비 감축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영화감독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화감독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감독 및 기술감독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영화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연기자와 제작진의 활동을 조정·감독하고 촬영 및 편집 등 영화제작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MZ세대와 실버세대 등 새로운 관객 층의 등장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성과 OTT시장의 확대와 AI 및 버추얼 프로덕션 등의 새로운 기술 도입은 영화감독에게 창의적 시도와 제작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전통 극장 시장의 침체와 숏폼 콘텐츠의 부상은 영화감독의 입지를 위협하는 양면성을 보이며, 스크린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신인 감독들의 성장 토대를 위축시켜 영화감독의 고용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배우 및 탤런트는 영화, TV 드라마에 출연하여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연기를 한다. OTT 플랫폼의 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강력한 증가 요인과, 생성형 AI 및 버추얼 휴먼 기술의 발전이라는 감소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며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감독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TT의 영향력 확대와 극장의 위기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국 콘텐츠 투자는 영화감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거대 자본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극장 개봉 영화 외에 ‘OTT 시리즈’나 ‘OTT 영화’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기존 영화보다 러닝타임이나 소재, 표현 방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감독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특히 시리즈물의 경우 한 시즌을 연출하며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주요 투자배급사 역시 극장 개봉과 OTT 공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감독의 활동 무대는 극장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는 곧 영화감독의 총 일자리 수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던 극장 시장의 침체는 영화감독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팬데믹 이후 관객 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높아진 티켓 가격과 OTT라는 강력한 대체재의 존재는 관객들을 극장으로 유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극장 흥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텐트폴 영화’에 대한 투자를 선별적으로 집행하거나, 흥행이 보장된 스타 감독 및 배우에게 자본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신인 감독이나 중저예산 규모의 영화를 연출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보수적인 투자 경향은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감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개인화된 취향과 새로운 관객층의 요구

1인 가구의 증가와 MZ세대가 주요 문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흥행 공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능동적으로 찾아 소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주제에 깊이 파고드는 독립·예술 영화나, 사회적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등 다양성 영화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작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개성 있는 연출력을 가진 신인 감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버 세대’ 등 새로운 관객층을 겨냥한 영화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역시 감독의 수요를 다변화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습관 변화는 전통적인 영화감독에게 위협적인 요소다. 1~2분 내외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이들에게 2시간가량의 영화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영화계 내부에서도 관객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한 빠르고 자극적인 전개 방식이 선호될 수 있으며, 이는 감독의 연출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극장을 단순히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닌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순수한 연출 능력 외에 관객과 소통하고 화제성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감독에게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감독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 AI의 도입과 제작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AI), 버추얼 프로덕션, 시각특수효과(VFX)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영화 제작의 물리적·비용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어 감독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막대한 예산으로만 가능했던 장면들을 이제는 버추얼 스튜디오의 LED 월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AI는 시나리오 초안 작성, 콘티 제작, 편집 과정의 효율화 등 사전 제작 및 후반 작업 단계에서 감독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면, 더 많은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감독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젊은 감독들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감독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부 창의적인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가 시나리오 생성, 연출 스타일 제안, 심지어 영상 소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소규모 프로젝트나 특정 장르에서는 인간 감독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첨단 제작 기술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스튜디오에 집중될 경우, 자본력을 갖춘 제작사와 일하는 감독과 그렇지 못한 감독 간의 기술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감독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기술적 환경에서 작업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결과로 이어져,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K-콘텐츠 육성과 스크린 독과점 문제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제작 지원,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 해외 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 제공 등은 영화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감독들에게 더 많은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영화의 위상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맞물려 해외 자본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용이하게 하며, 이는 한국 감독들의 국내외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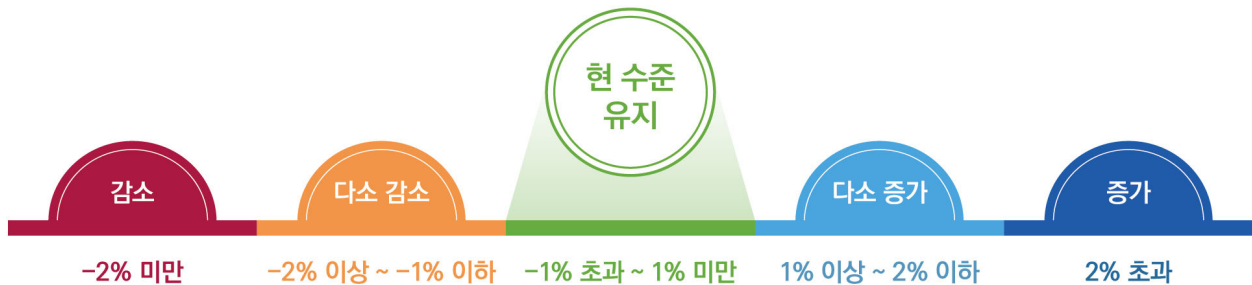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수의 대형 배급사가 특정 시기에 스크린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은 다양한 영화가 관객과 만날 기회를 박탈하고, 중소·독립 영화 감독들의 입지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감독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화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견 감독이나 잠재력 있는 신인 감독들이 성장할 토대가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감독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새로운 관객층(실버 세대 등) 타깃 영화 제작 수요 발생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다양성 영화 수요 증가	• 숏폼 등 짧은 콘텐츠 선호로 인한 장편영화 기피 현상
과학기술의 발전	• 제작 비용 및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제작 편수 증가 가능성	• AI의 연출 영역 대체 가능성 대두
국내외 경기 변화	• 저예산/독립 영화에 대한 상대적 관심 증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OTT 오리지널 등 새로운 형태의 연출 기회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감독 활동 무대 확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영화 제작 지원	• 스크린 독과점 문제로 인한 신인·중소 감독 진입 장벽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연극연출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연극연출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극연출가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연극연출가는 공연 작품을 해석하고 연극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하며, 연극공연 전반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개인의 경험과 현장 예술의 가치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뮤지컬 시장의 성장은 연극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다. 또한 신기술과의 융합은 연극연출가의 역할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제작비 상승 부담과 양극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화, 대학로 소극장 생태계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연극연출가의 고용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연극연출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험과 현장 예술 가치 부각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장 예술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연극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대규모의 획일적인 문화 콘텐츠 소비에서 벗어나, 소극장 연극과 같이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서사를 제공하는 예술 장르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객과 배우가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연극 특유의 현장성과 몰입감은 OTT 서비스나 영화가 제공할 수 없는 독점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차별점은 연극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는 연극연출가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경쟁 심화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은 연극 시장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관객들이 연극 공연장을 찾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보편화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공연 예술의 관객을 흡수하는 결

과를 낳았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대체재와의 경쟁 속에서 연극이 대중의 문화적 선택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관객 유입이 정체되고 전체 연극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극 제작 편수 감소로 이어져 연극연출가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융복합 공연의 등장과 연극연출가의 역할 확장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이 공연 예술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공연이 등장하고 있다. 무대 연출에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각적·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영상화나 V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연극 제작 등은 연극연출가의 활동 영역을 기존의 물리적 극장 공간 너머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연극연출가에게 전통적인 희곡 분석과 배우 연기 지도 능력을 넘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무대 언어를 확장할 수 있는 연극연출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연극연출가의 역할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기술 대체 가능성과 제작비 상승 부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시나리오 창작이나 연출 구상 단계에서 인간 연출가의 고유한 창의성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무대 구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극단이 대부분인 국내 연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도입이 가능한 대규모 상업 프로덕션과 그렇지 못한 소규모 극단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극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극연출가들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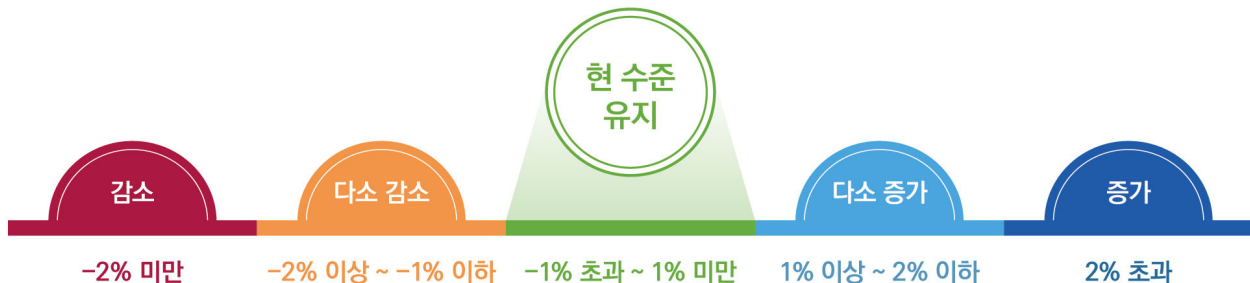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 대학로 소극장 생태계의 위기

국내 연극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학로 소극장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높은 임대료와 제작비 부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관하는 소극장이 늘어났다. 이는 신진 연출가들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극계의 허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극장은 신인 연출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소극장 생태계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연극연출가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전체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현장 예술의 가치 부각 및 경험 소비 선호 •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 대체 콘텐츠와의 경쟁 심화 • 비대면 콘텐츠 소비의 보편화
과학기술의 발전	• 신기술 접목 융복합 공연 등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 영역 확장	• 기술 도입에 따른 제작비 상승 및 양극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대학로 소극장 생태계의 위축 및 폐관 증가

광고영상감독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광고영상감독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광고영상감독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광고영상감독은 광고주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광고 영상물 제작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전통적인 방송 광고 시장의 쇠퇴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부 업무의 대체 가능성, 경기 변동에 따른 광고 예산 삭감 등은 광고영상감독의 고용에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영상 광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광고 기반 OTT 서비스의 확장은 광고영상감독의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광고영상감독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숏폼 콘텐츠와 Z세대의 부상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짧고 직관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선호한다. Z세대는 광고마저도 재미와 의미,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콘텐츠’로 인식할 때 비로소 반응하며, 이는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인 영상 광고를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플랫폼에 최적화된 광고 영상 제작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한 광고 영상감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생성형 AI의 효율성과 대체 가능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광고 영상 제작 환경에서 기획안 작성, 스토리보드 제작, 영상 편집 등 제작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감독이 창의적인 연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저예산으로도 높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영상 광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새로운 일자리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AI 기술의 고도화로 일부 영상 제작 영역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형화된 형식의 광고나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과정의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 이는 해당 분야의 감독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OTT 플랫폼의 확장

국내 광고 시장은 이미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전체 광고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 광고 시장의 성장은 매우 가파르다.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전통적인 TV 광고에서 벗어나 유튜브, 소셜미디어, 커넥티드 TV(CTV)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맞춘 영상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들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광고 영상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광고 산업의 무게 중심이 디지털 영상으로 완전히 이동함에 따라, 이를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기존 방송 광고와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 특성에 맞는 광고 영상 제작 수요를 창출하며 광고영상감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광고영상감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경기 변동에 따른 광고비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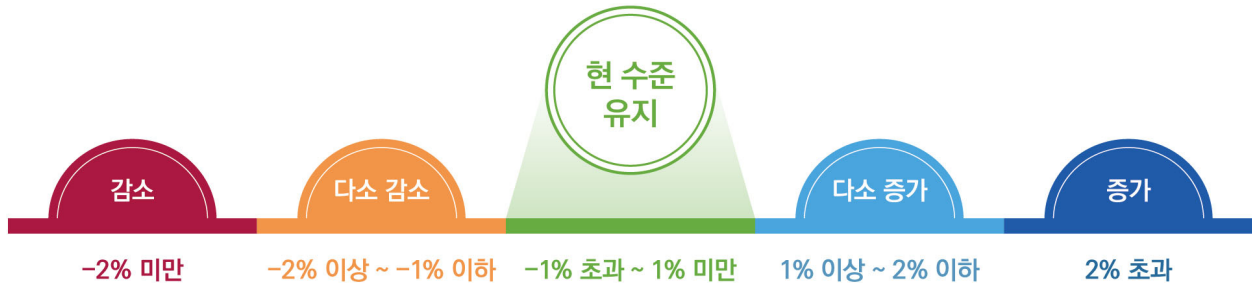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광고 산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마케팅 및 광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다. 2025년 이후 국내외 경제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갈등과 같은 여러 하방 요인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광고 집행을 위축시켜 광고영상감독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진정성 및 재미를 강조하는 콘텐츠형 광고 수요 증가	• 전통적 광고에 대한 Z세대의 거부감 심화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및 도입 • AI 활용을 통한 제작 효율성 증대	• 단순·정형화된 광고 영상 제작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광고비 삭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광고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OTT 플랫폼의 확장 • 디지털 영상 광고 시장의 구조적 성장	• 지상파 등 전통 매체의 광고 시장 축소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은 영화, 방송영상물(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등), 상업용 영상물 등의 연출 및 제작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 업무를 계획하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지도·조정하는 일을 한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제작 공정의 자동화와 효율화, 그리고 산업 내 양극화 심화는 전통적인 기술 인력의 입지를 좁히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OTT의 투자 확대, 가상 프로덕션과 같은 신기술 도입, 융합적 기술 역량을 갖춘 기술감독의 수요 증가로 인해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고용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반 제작 자동화의 영향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던 데이터 관리, 색 보정, 음향 편집, 단순 컷 편집 등의 작업이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되면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점차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촬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편집점을 제안하거나,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창의적인 영역의 일부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이 AI, 빅데이터, XR 등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한 역량을 갖춘다면 업무 범위 확장을 기대해볼 가능성도 있다.

가상 프로덕션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확대

최근 콘텐츠 제작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상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과 실감형 콘텐츠

(AR/VR) 기술의 확산은 숙련된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대형 LED 벽에 실시간 3D 배경을 구현하여 배우와 배경을 동시에 촬영하는 가상 프로덕션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고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 이해와 운영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상 환경 통합 운영이 가능한 기술감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가상 프로덕션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OTT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한국을 주요 콘텐츠 제작 기지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품질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고 있다. 이 플랫폼들은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의 촬영, 조명, 음향, 시각효과(VFX) 등 모든 기술 파트를 총괄하는 기술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해상도 촬영과 입체 음향 등 최신 기술 표준을 능숙하게 다루는 연극영화방송기술감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 제작 환경의 양극화와 외주 제작의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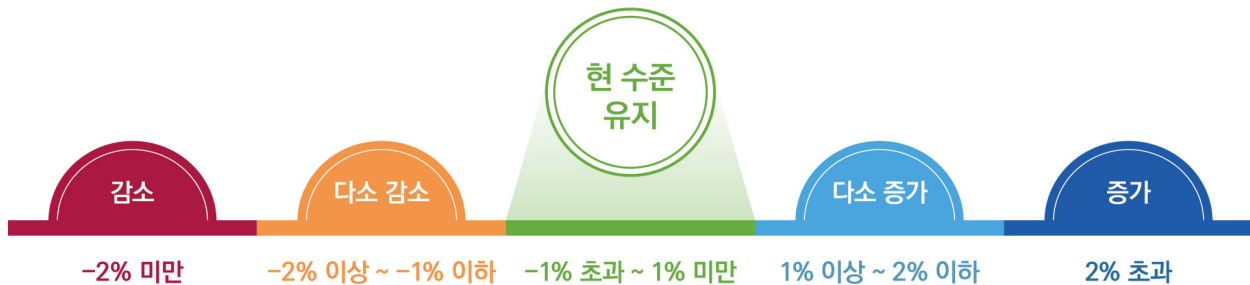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대형 드라마 제작은 활발한 반면,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 프로덕션은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등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최상위 기술감독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수의 기술 인력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의 경우 자체 제작 인력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을 외주 프로덕션에 맡기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 형태로 불안정한 일자리 제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고용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 •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술의 중요성 부각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부 제작 공정의 자동화 및 인력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방송사의 외주 제작 확대 및 프로젝트 기반의 불안정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급증	• 콘텐츠 산업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중소 제작사의 어려움 가중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영화배우 및 탤런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화배우 및 탤런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영화배우 및 탤런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영화배우 및 탤런트는 영화, TV 드라마에 출연하여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연기를 한다. OTT 플랫폼의 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강력한 증가 요인과, 생성형 AI 및 버추얼 휴먼 기술의 발전이라는 감소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며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배우 및 탤런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TT 플랫폼의 성장과 K-콘텐츠의 세계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콘텐츠 제작 편수의 증가는 영화배우 및 탤런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으로 이어져 배우들에게 더 많은 출연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들은 기존의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보다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여 신인 배우나 개성 있는 조연 배우들에게 새로운 등용문이 되고 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 내 비영어 콘텐츠 소비에서 K-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추세이다. 덕분에 한국 배우들의 국제 무대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톱스타에게 국한되었던 해외 진출이 이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배우들에게 열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우의 전체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생성형 AI와 버추얼 휴먼의 도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기술의 발전은 영화배우 및 탤런트 직업에 위협 요인으로 볼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배우의 얼굴, 목소리, 연기 스타일을 학습시킨 후, 이를 통해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액터’ 또는 ‘버추얼 배우’의 등장은 단역이나 보조 출연자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고, 단편 영화, 웹드라마 등 상대적으로 제작 규모가 작은 콘텐츠 영역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 배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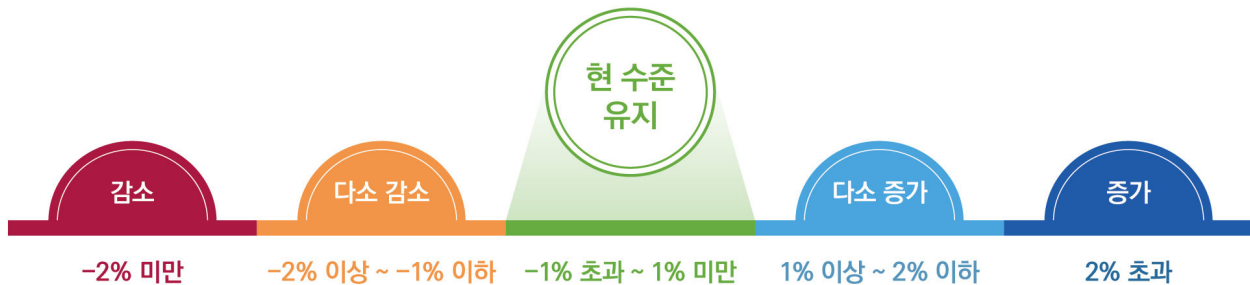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나아가, 고인이 된 배우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여 작품에 출연시키거나, 배우가 직접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지 않고 AI가 생성한 디지털 더블(Digital Double)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배우의 안전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배우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새로운 연기(모션 캡처, 아바타 등) 수요 발생	• 생성형 AI, 버추얼 휴먼 기술 발전에 따른 단역·보조 출연자 역할 대체 • 디지털 더블 활용 증가로 실제 배우의 필요성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콘텐츠 제작 편수 절대량 증가 •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로 인한 배우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모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모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모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모델은 상품 선전이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해 다양한 몸자세를 취하거나, 창작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서 워킹을 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 모델 등장과 경기 변동성은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시니어 모델 등 새로운 시장 확대는 고용 수요를 창출하며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상 모델의 등장과 자동화의 그림자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에 따라 이미 다수의 가상 인플루언서와 AI 모델이 광고 캠페인에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실제 모델 고용에 따르는 비용(촬영,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과 인적 리스크(사생활 문제 등)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모델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탈로그 등에서 인간 모델 역할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티브 시니어’와 다양성의 부상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모델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젊고 이상적인 신체를 가진 모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역에 중장년 및 노년층의 시니어 모델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 등 기존에 소외되었던 이들의 활동 영역 또한 점차 넓어질 것이

며, 이는 모델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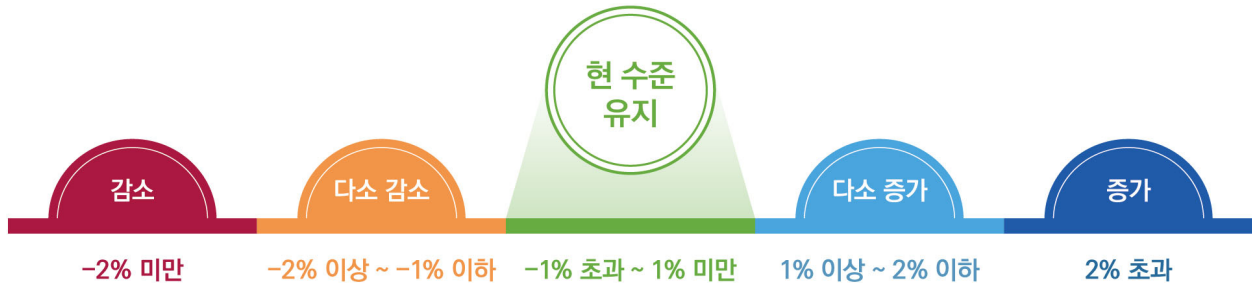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모델의 주 활동 무대인 패션 및 광고 산업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TV 광고나 인쇄 잡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라이브 커머스가 핵심적인 마케팅 채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모델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증가 요인이 된다. 특히 짧은 주기로 다량의 상품을 선보여야 하는 온라인 패션몰과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상품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모델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시니어 모델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AI 가상 모델 및 디지털 트윈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모델 대체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뉴미디어 플랫폼의 성장	• 전통적인 인쇄 매체(잡지) 영향력 감소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연극 및 뮤지컬배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연극 및 뮤지컬배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극 및 뮤지컬배우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연극 및 뮤지컬배우는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여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연기를 한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 SNS를 통한 팬덤 문화의 강화, K-콘텐츠의 세계화에 따른 K-뮤지컬의 해외 진출 확대 등과 같은 요인들은 공연 시장의 수요를 꾸준히 창출하고, 배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부 역할의 대체 가능성,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위축되는 문화 소비의 특성, 그리고 소수 스타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산업의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극 및 뮤지컬배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경제 확산과 팬덤 문화의 영향력 증대

물질적 소유보다 고유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가 사회 전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함과 희소성을 지닌 공연 관람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한다.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특정 배우나 작품을 반복적으로 관람하고 관련 상품을 구매하며 적극적인 팬덤 활동을 펼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연극 및 뮤지컬배우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NS의 발달은 관객들이 공연 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며, 이는 잠재 관객의 관람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한다. 배우들 역시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팬덤을 확장할 수 있어, 이는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팬덤 문화의 결합은 공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배우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생성형 AI의 등장과 실감형 기술의 융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연극 및 뮤지컬배우의 직업적 영역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 음성 합성 기술은 이미 인간의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여, 공연의 내레이션이나 단역, 혹은 목소리 연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인간 배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가상 캐릭터나 디지털 휴먼이 무대 영상의 일부로 등장하거나 온라인 공연에서 배우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일부 배우의 역할을 대체하며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과학기술 발전은 배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연 실황을 촬영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온라인 상영’이 활성화되면서 배우들은 더 넓은 관객층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배우의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결국 기술은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예술의 핵심인 인간 배우의 감성과 현장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공존할 것이다.

■ 글로벌 K-콘텐츠 열풍과 플랫폼 다변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으로 촉발된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창작 뮤지컬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넘어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뮤지컬의 해외 라이선스 수출이나 투어 공연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배우들이 해외 무대에 설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연극 및 뮤지컬 배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는 국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도 이어져 공연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공연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히 배우들의 고용 환경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소수의 스타 배우에게 출연 기회가 집중되고, 대다수의 신인 및 무명 배우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수입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연극영화과 등 관련 학과 졸업생은 매년 배출되지만, 한정된 무대에 설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는 전반적인 고용 총량의 증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한 문화 소비와 잠재적 불안정성

연극, 뮤지컬과 같은 공연 티켓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탄력재’이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가계는 문화비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바로 티켓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공연 제작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 배우들이 설 수 있는 무대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 불황은 배우들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또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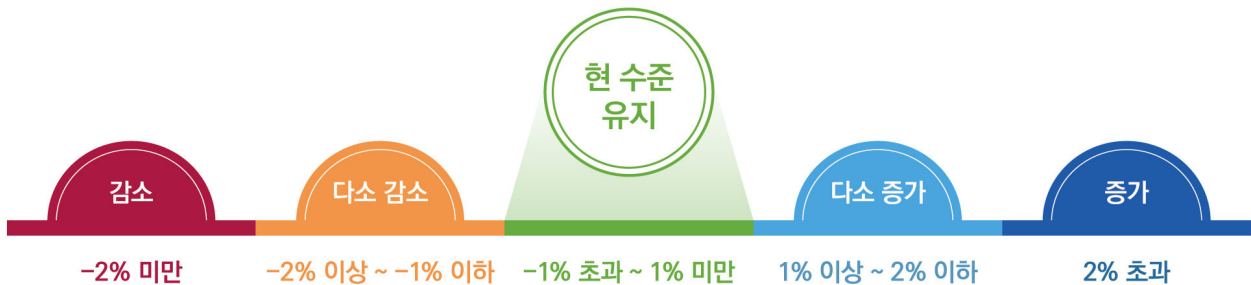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들의 문화예술 분야 후원 및 협찬도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들은 마케팅 및 사회 공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연 제작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신규 창작 공연의 시도를 위축시키고 배우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 • SNS를 통한 팬덤 문화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부 연기(내레이션, 단역 등)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 한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공연 관람 수요 증가	• 경기 침체 시 가계의 문화비 지출 우선 삭감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K-콘텐츠 인기 상승에 따른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확대	• 배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 구도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개그맨 및 코미디언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개그맨 및 코미디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개그맨 및 코미디언은 관객 및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공연장에서 익살스러운 대사나 행동으로 연기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분명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분은 유튜브와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과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로 상쇄될 것이다.

개그맨 및 코미디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사 중심에서 다중 플랫폼으로의 이동

과거 개그맨 및 코미디언의 주된 활동 무대는 지상파 방송사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시청률 하락과 제작비 부담 등의 문제로 이들 프로그램이 연이어 폐지되면서 방송사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 기회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개그맨 및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구조적 변화이다.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성장은 개그맨 및 코미디언의 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증가 요인이다. 다수의 코미디언들은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여, 방송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코미디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 유통하며 높은 수익과 인지도를 얻고 있다. 방송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코미디언이 단순 출연자에서 콘텐츠 창작자이자 사업가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를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화된 웃음 코드와 ‘부캐’ 문화

1인 가구의 증가와 SNS를 통한 소통 강화는 콘텐츠 소비의 개인화·세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 담론보다는 특정 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서브컬처’ 코미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개성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코미디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획일화된 방송사 코미디의 문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코미디언들이 팬덤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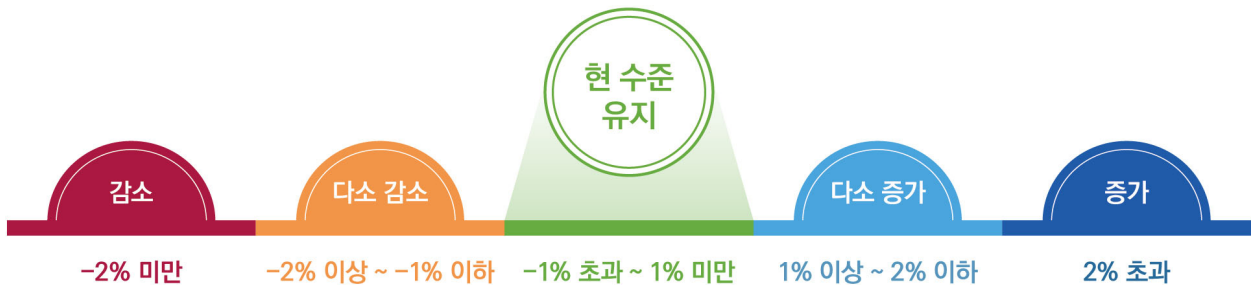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또한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다양한 가상의 정체성, 즉 ‘부캐(부캐릭터)’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코미디언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코미디언들은 기존의 희극 연기뿐만 아니라 가수, 배우,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부캐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고 대중과 소통한다. 이는 코미디언 한 명이 여러 개의 잠재적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부캐’ 문화를 통한 활동 영역 다각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 •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개인 창작 활동 기회 확대	• 지상파 방송사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 감소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성우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성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성우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성우는 외국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우리말로 더빙하고,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다. 단순 정보 전달, 정형화된 음성 서비스는 점차 AI로 대체될 것이며, 지상파 외화 더빙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의 축소 또한 성우의 고용 감소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해외 콘텐츠 더빙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오디오북 시장의 급성장, 콘텐츠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는 전문 성우의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성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I 음성 합성 기술과 인간 고유성의 가치

생성형 AI와 음성 합성(TTS, Text-to-Speech)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성우 고용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임, 광고, ARS 안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등 일부 영역에서는 AI 성우가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도입되고 있다. AI 음성 기술은 다국어 지원이 용이하고 수정이 간편하며, 24시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특히 정형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녹음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 일부 해외 게임에서는 캐릭터 음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성우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AI 기술은 인간 성우가 표현하는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 복잡한 캐릭터 해석, 순간적인 호흡과 톤의 변화 등 유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기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과 깊은 몰입감을 선호하며 서사의 감정선이 중요한 고품질 콘텐츠에서는 전문 성우의 역할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다. 성우가 대체 불가능한 ‘연기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전통 매체의 축소와 신규 플랫폼의 부상

과거 성우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지상파 방송의 외화 더빙 편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라디오 드라마와 같은 전통적인 오디오 콘텐츠 시장 역시 축소되었다. 이는 일부 성우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방송사 공채 중심의 전통적인 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전통 매체의 영향력 감소는 성우라는 직업의 진입 장벽과 활동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전통 매체의 축소는 OTT 플랫폼, 오디오북, 게임 산업 등 새로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상쇄되고 있다. 글로벌 OTT는 막대한 양의 해외 콘텐츠를 국내에 공급하며, 한국어 더빙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성우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과 멀티태스킹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으로 오디오북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출판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성우들의 중요한 활동 무대로 자리 잡아 성우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듣는 경험’의 확장과 고품질 콘텐츠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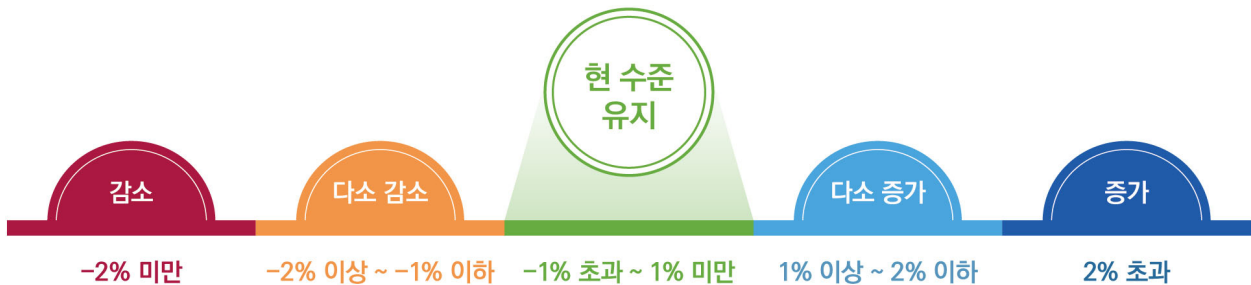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영상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시각적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듣는 콘텐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운전, 운동, 가사노동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의 특성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부합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내용을 듣는 것을 넘어, 성우의 연기력을 통해 전달되는 ‘잘 만든 경험’을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콘텐츠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은 저품질의 AI 음성이나 비전문가의 연기가 아닌, 숙련된 전문 성우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멀티태스킹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듣는 콘텐츠’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생성형 AI 및 음성 합성 기술 발달로 인한 단순 녹음 업무 대체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오디오북 등 신규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성장 -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따른 더빙 및 내레이션 시장 확대	지상파 방송의 외화 더빙 축소 등 전통 매체 시장의 위축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아나운서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아나운서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나운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를 한다. 아나운서의 일자리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단순·반복 업무의 대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채용 규모 축소 등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 수요 증대, 정보 과잉 시대에 따른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가치 상승은 아나운서 일자리의 증가 요인으로 공존하며, 전반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아나운서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 미디어의 위축과 뉴미디어 생태계의 확장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전통적인 방송 광고 시장은 점차 위축되는 추세이다. 시청자들이 TV 수상기 앞을 떠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보편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과 광고 수익은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방송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신규 채용 규모 축소, 비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증가 등 고용의 질과 양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방송사의 꽃’으로 불리며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지상파 아나운서 공채의 문은 향후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며, 아나운서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 미디어의 위축과 동시에 뉴미디어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자체 유튜브 채널이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운영하는 ‘사내 방송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에서는 전문적인 진행 능력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갖춘 아나운서 출신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또한 각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도 정책 홍보나 캠페인 진행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을 늘리면서 아나운서의 활동 영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E-스포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전문 캐스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강사, 각종 포럼 및 세미나의 전문 사회자 등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무들이 계속

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산업에서 아나운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수요 증대

1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으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 과잉 시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훈련받은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아나운서 특유의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 그리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AI나 일반 인플루언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 현안이나 전문 지식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해설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아나운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바꾸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제되고 권위적인 톤의 전달 방식보다, 친근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아나운서의 역할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 능력,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 그리고 엔터테이너로서의 ‘끼’가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아나운서상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따라서 아나운서 지망생 및 현직 아나운서에게는 표준어 구사 능력과 같은 전통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시청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 대체와 확장의 기로에 선 아나운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아나운서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미 국내외 여러 방송사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람과 유사한 목소리와 모습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AI 앵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24시간 재난 방송, 정시 뉴스, 날씨 정보 등 정형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에서 인간 아나운서를 대체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 AI 아나운서는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비용 효율성이 높고, 다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방송사 입장에서 도입을 확대할 유인이 충분하다. 특히 단순 정보 전달이나 반복적인 방송 영역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신규 채용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가 자료 조사, 스크립트 작성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과거 아나운서가 담당했던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어 인력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OTT, 유튜브, 팟캐스트 등 디지털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나운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전통적인 방송국을 넘어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다양각색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신선하고 전문성 있는 진행자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시사, 교양, 스포츠, 경제 등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과 진행 능력을 갖춘 아나운서는 독자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경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들은 방송사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인플루언서로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과 협력하거나 자신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더 큰 영향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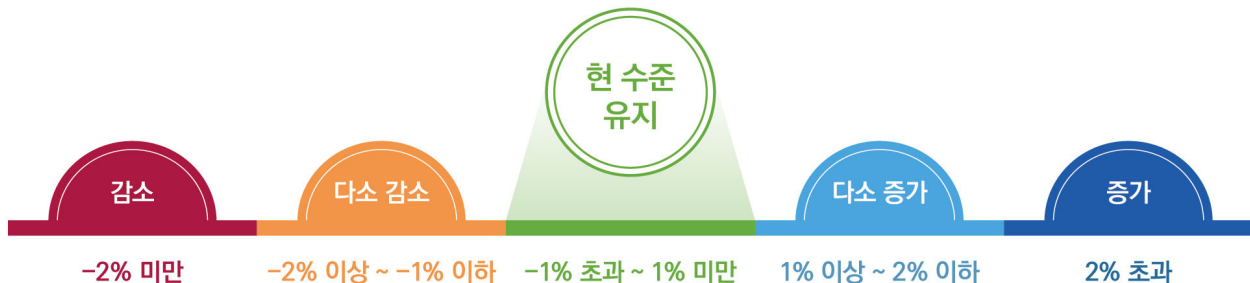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이처럼 기술 발전은 아나운서의 역할을 ‘정보 전달자’에서 ‘콘텐츠 기획자 및 창작자’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정보 과잉 시대 속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권위적·정형화된 전달 방식보다 친근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 선호
과학기술의 발전	- 뉴미디어 플랫폼의 확장으로 활동 무대 다변화 - 신규 산업 분야의 전문 진행자 수요 발생	- 생성형 AI(AI 앵커)의 발달로 정형화된 뉴스 전달 영역 대체 가능성 - 콘텐츠 제작 과정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침체 시 기업 광고비 축소로 방송사 재정 악화 및 신규 채용 감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들의 자체 브랜드 채널 운영 확대로 인한 진행자 수요 증가 - 인력 아웃소싱 증가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 기회 확대	방송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계약직 채용 비중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MCN 산업 성장 및 1인 미디어의 전문화·고도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리포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리포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포터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 코너에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한다. 향후 10년간 리포터의 고용 환경은 ‘대체’와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전통 미디어의 쇠퇴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리포터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뉴미디어 플랫폼의 확장, 데이터 저널리즘의 부상,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 정보 요구 증가는 새로운 형태의 리포터 역할을 창출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리포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의 확산과 리포터 직무의 변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 정리 및 요약, 인터뷰 녹취록 작성 등 정형화된 업무가 AI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리포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계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력 효율화로 이어져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AI 기술은 리포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증가 요인으로도 기능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AI를 활용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팩트체크’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편향성을 검증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해석과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은 여전히 전문 리포터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AI를 취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포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미디어의 위기와 뉴미디어의 부상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인쇄 신문 등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은 광고 수익 감소와 구독률 하락으로 인해 지속

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전통 미디어 기업의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져 리포터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 방송사나 중소 언론사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반면, 유튜브, OTT, 팟캐스트, 전문 분야별 웹진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은 리포터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핵심적인 증가 요인이다. 이들 플랫폼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요구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리포터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1인 미디어나 소규모 콘텐츠 제작팀이 증가하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리포터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언론사에 소속된 리포터 개념에서 벗어나, 플랫폼이나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포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전문성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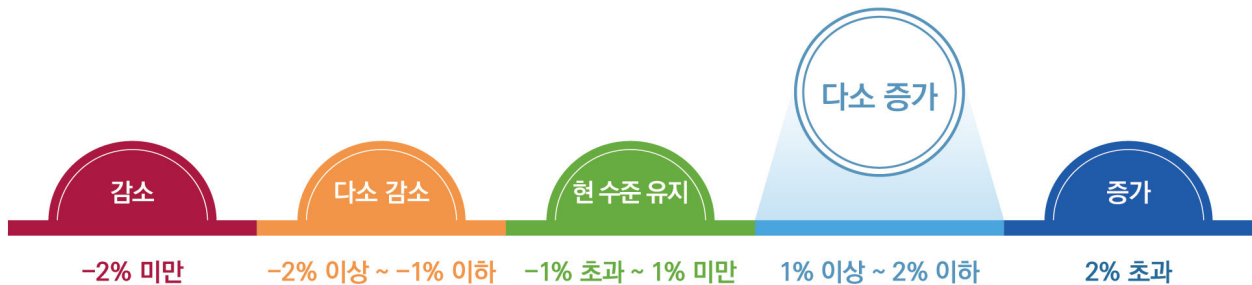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함에 따라, 대중의 정보 소비 패턴은 신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리포터에게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경제, IT, 의료,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리포터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막론하고 그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해석과 전망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리포터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리포터 직업 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심층적·전문적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저널리즘, AI 활용 팩트체크 등 새로운 직무 등장	• 생성형 AI로 인한 단순 기사 작성 업무의 자동화 및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광고비 축소로 인한 언론사 경영 악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유튜브·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성장	• 신문·지상파 방송 등 전통 미디어 산업의 쇠퇴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촬영기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촬영기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촬영기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1%로 예측된다.

촬영기사는 방송,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물체나 대상을 촬영하는 일을 한다. 향후 10년간 촬영기사의 일자리는 AI 기술의 발전이 일부 자동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OTT 시장 확대, K-콘텐츠의 세계화, 제작 기술의 고도화라는 세 가지 주요 동력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품질 영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촬영기사의 활동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다. 특히 4K/8K 고해상도 촬영, 가상 프로덕션, 특수 장비 활용 능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촬영기사는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촬영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소비의 일상화와 다변화: 촬영기사의 활동 무대 확장

OTT 플랫폼의 대중화는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켰다. 2023년 국내 OTT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에는 약 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으로 이어져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 제작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 및 영화 산업을 넘어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할 촬영기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더불어, 1인 미디어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증가는 영상 콘텐츠 제작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전문적인 영상 품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촬영 및 편집 전문가와의 협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프리랜서 촬영기사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기업들 역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고품질의 홍보 영상, 인터뷰, 소셜미디어용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인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전문 촬영기사의 가치 상승

과학기술의 발전은 촬영기사의 역할과 역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K를 넘어 8K 초고화질 영상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고해상도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숙련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촬영기사는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색, 조명, 구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시청자에게 최상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LED 월을 배경으로 실시간으로 가상 환경을 구현하여 촬영하는 ‘가상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의 확산은 촬영기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 기술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국내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관련 스튜디오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가상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카메라 트래킹, 실시간 렌더링 엔진(Unreal Engine 등)에 대한 이해와 VFX(시각특수효과) 팀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기술을 갖춘 촬영기사는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편, AI 기술은 자동 초점, 피사체 추적, 장면 분석 등 촬영 보조 기능을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촬영 업무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 감독의 창의적 의도 구현, 미학적 영상 구성 등 고도의 판단과 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촬영기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히려 촬영기사는 AI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의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작 규모 확대와 품질 고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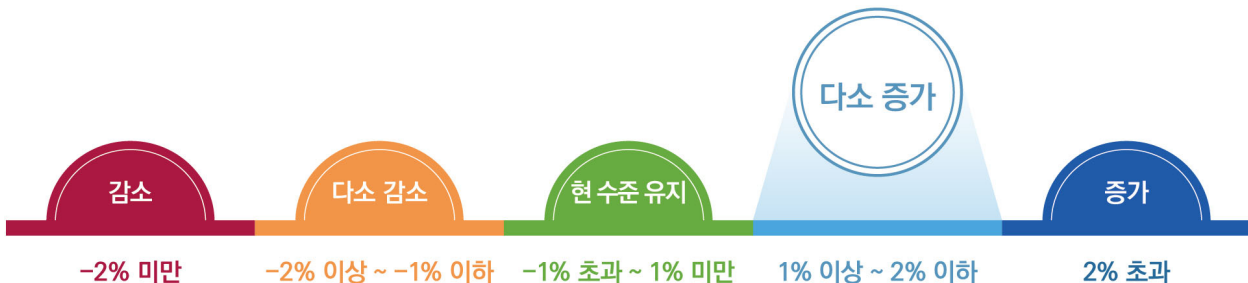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성공으로 입증된 K-콘텐츠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국내 영상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규모가 커지고 영상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고, 더 숙련된 촬영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2022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약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달러를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의 성장은 촬영기사를 포함한 제작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360도 카메라 촬영이나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촬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촬영기사가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 새로운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촬영기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과학기술의 발전	- 고해상도 영상 제작 보편화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	AI 기반 촬영 자동화 기술의 단순·반복적 업무 대체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제작 투자 변동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미디어 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인한 제작 규모 증대 - 실감형 콘텐츠(VR/AR) 등 신규 시장 창출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음향 및 녹음 기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음향 및 녹음 기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향기사는 음향감독의 지휘 하에 마이크를 배치하거나 음향 상태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녹음기사는 녹음 장비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리, 음악, 목소리 등을 녹음 및 가공하는 일을 한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단순 업무가 자동화되는 위협 요인도 존재하지만, OTT 플랫폼의 성장, 개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고품질 사운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 실감형 미디어 시장의 개화 등의 요인은 음향 및 녹음 기사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향 및 녹음 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품질 콘텐츠 소비의 일상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보편화는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고화질·고음질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소비자들의 콘텐츠 품질에 대한 기대치를 상향시켰으며, 특히 음향은 영상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명한 대사 전달은 물론, 실감 나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은 시청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 실제로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음향 품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곧 전문 음향 및 녹음 기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헤드폰이나 고품질 스피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늘면서, 미세한 사운드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품질 사운드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음향 및 녹음 기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증가 요인이다.

■ 실감형 오디오 기술의 부상과 AI의 활용

과학기술의 발전은 음향 및 녹음 기사의 직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전통적인 2차원 사운드를 넘어 3차원 공간 음향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용자에게 극대화된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의 소리 위치와 방향, 거리감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현하는 ‘공간 오디오’ 기술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실감 음향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며, 해당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음향 기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와 같은 객체 기반 오디오 기술의 확산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다. 영화관을 넘어 홈시어터, 모바일 기기,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몰입형 사운드 포맷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음향 믹싱 엔지니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일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음향 기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음원 분리 기술, 노이즈 제거, 자동 믹싱 및 마스터링 도구 등은 과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로 인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단순 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엔지니어가 더욱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의 음향 기사는 AI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플랫폼 다변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 K-콘텐츠는 이제 내수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규모와 투자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콘텐츠 품질의 핵심 요소인 음향 분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할리우드 수준의 사운드 디자인과 믹싱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K-콘텐츠의 흥행으로 인해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및 음향 기술 기업들이 ‘귀한 몸’이 되었으며, 해외 제작사의 협업 문의가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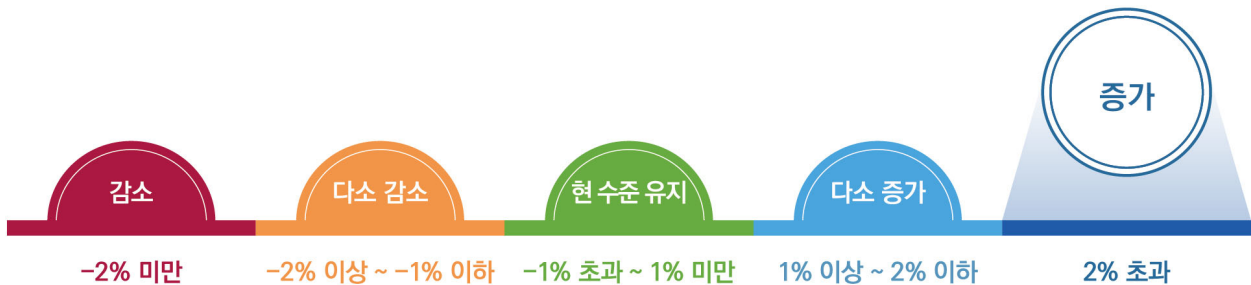
또한 과거 지상파 방송사와 영화 제작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콘텐츠 제작구조가 OTT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으로 다변화된 점도 고용 증가에 긍정적이다.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소규모 스튜디오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음향 및 녹음 기사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졌다. 이는 대규모 방송·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음향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화된 고품질 미디어 소비 확대	• 신규 인력 유입 둔화 가능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OTT 등 고품질 콘텐츠 소비의 일상화 • 공연, 체험형 전시 등 현장감 있는 사운드 경험에 대한 선호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공간 음향 전문가 수요 증가 • 몰입형 오디오 포맷의 보편화	• AI 기반 자동 믹싱/마스터링 기술 발달로 인한 단순·반복 업무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 • 제작 주체의 다변화	• 전통 미디어(지상파 방송 등) 시장의 점진적 축소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3.1%로 예측된다.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는 방송 프로그램의 송신신호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정판(콘솔)을 조작하거나 영화·방송에 쓰이는 필름·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을 대본에 맞게 편집하는 일을 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반복적인 편집 업무를 대체하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는 직업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직무 내용의 고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TT 플랫폼의 확산과 1인 미디어의 성장, 사회 전반에서 영상의 활용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소비의 일상화와 개인화

현대 사회에서 영상 콘텐츠 소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중심으로 숏폼(Short-form) 콘텐츠부터 장편 시리즈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소비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콘텐츠 수요를 증가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다. 개인의 취향에 맞춰진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영상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획일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특정 타깃층을 공략하는 세분화된 콘텐츠 제작 인력, 즉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강화되면서 개인이나 기업 모두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편집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I 기술의 양면성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술의 고도화

고화질 카메라, 드론, 특수 촬영 장비 등 영상 기술의 발전은 더욱 생동감 있고 몰입감 높은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개화하면서, 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숙련 편집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고기술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제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은 영상 편집 분야에서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 컷 편집, 자막 생성, 색 보정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편집기사가 보다 창의적이고 기획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I 기술을 보조 도구로 능숙하게 활용하여 전반적인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기사는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성형 AI 기술 발전은 단순 편집 작업의 자동화를 넘어, 간단한 영상 클립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편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컷 편집이나 간단한 효과 삽입 등 저숙련·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기사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 있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는 인력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상 편집 시장은 AI를 활용하는 고숙련 전문가와 단순 작업 인력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와 산업 간 경계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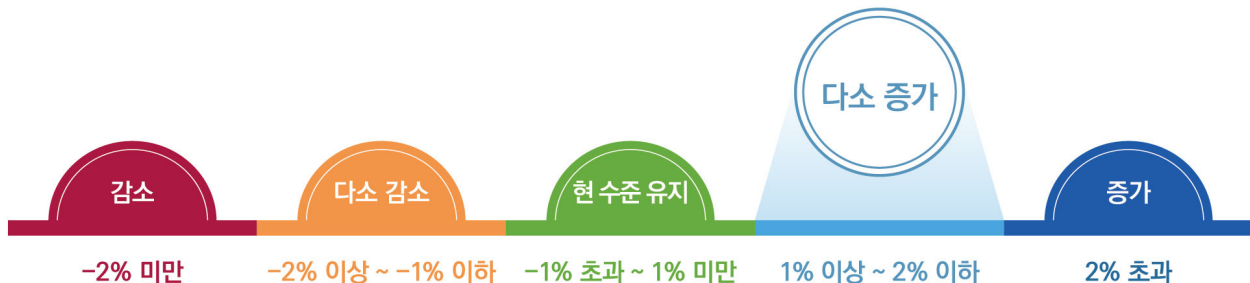
지상파 방송 중심의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 구조는 OTT, 유튜브, 틱톡 등 뉴미디어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국내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면서, 영화, 드라마 등 고품질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할 촬영, 편집, 후반 작업 인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증가 요인이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의 성장은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일자리 요인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수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콘텐츠 제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영상 편집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마케팅, 사내 교육, 제품 소개 등에 영상 콘텐츠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계 역시 온라인 강의, 교육용 실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전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의 고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콘텐츠 소비의 개인화 및 일상화 •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콘텐츠 수요 확대 • SNS를 통한 영상 기반 소통 문화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AI 기술의 발전 및 제작 기술 고도화 • 품질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확대 • AI 기반 편집 자동화 툴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 AI 기술의 단순·반복 편집 업무 대체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 및 융합 •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 1인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성장 • 기업·교육 등 비미디어 분야의 영상 콘텐츠 활용 급증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조명기사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조명기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기사는 조명감독 지시 하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카메라 특성에 맞는 조명연출을 구사하는 일을 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필두로 한 콘텐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상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과 같은 새로운 제작 기술의 도입, 엔터테인먼트 전환에 따른 공연 및 이벤트 시장의 회복은 조명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조명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조작 능력을 넘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 인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조명기사의 직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명기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디어 시장 재편과 콘텐츠 제작 급증이 가져온 고용 기회 확대

국내외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방송 및 영화를 넘어 OTT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명기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작품의 시각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조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 강화 역시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높은 수준의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는 숙련된 조명기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과거 한정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던 콘텐츠 제작이 다각화되고, 제작 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조명팀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어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실감형 콘텐츠 및 신기술 융합형 전문가 수요 증가

LED 월(LED Wall)을 활용한 가상 프로덕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을 포함하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성장은 조명기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기존의 크로마키 배경과 달리, LED 월 기반의 버추얼 스튜디오는 실제와 같은 배경과 조명을 실시간으로 구현하여 배우의 몰입감을 높이고 후반 작업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명기사는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가상 배경과 실제 피사체 간의 빛을 이질감 없이 조화롭게 제어하고 설계하는 핵심적인 기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D 그래픽 및 게임 엔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기술 융합형 조명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조명기사의 고용 시장을 확장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 발전은 조명기사의 직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I가 촬영 환경, 카메라 값, 배우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조명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명 작업이나 소규모 프로덕션 환경에서 인간 조명기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영역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조명감독이나 디자이너와 같이 창의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부각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AI 기술은 일자리의 '감소'보다는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인력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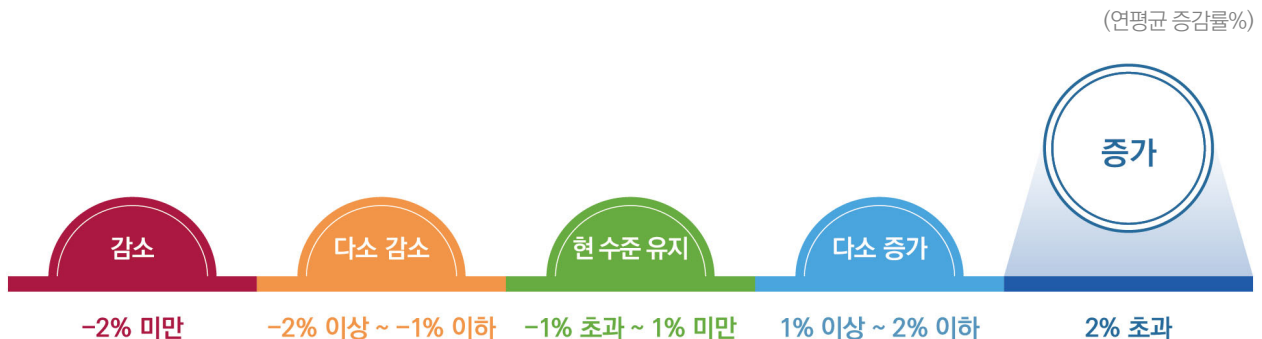
오프라인 공연·이벤트 시장 회복에 따른 조명기사 역할 증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문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콘서트, 페스티벌, 뮤지컬 등 대규모 오프라인 공연 및 이벤트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장감과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관객에게 몰입감 높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무대 연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명은 무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시각 요소로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위한 조명 디자인 및 운용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체험형 전시, 팝업 스토어, 기업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독창적인 조명 연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조명기사의 활동 무대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 및 이벤트 시장 활성화 • 현장감 콘텐츠 소비 트렌드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가상 프로덕션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성장 • 조명 장비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	• AI 기반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OTT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 편수 급증	• 일부 소규모 프로덕션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웹방송 콘텐츠를 기획, 편성하고, 촬영, 편집 등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제작진을 구성하여 제작 및 방송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개인화되고 세분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생성형 AI 기술 활용에 따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창작자의 활동 영역과 역할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부상과 ‘숏폼(Short-form)’ 콘텐츠 선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일자리 증가는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획일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 미디어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텍스트보다 영상에 익숙하며,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데에도 능숙하여 잠재적인 콘텐츠 창작자 그룹을 형성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는 숏폼 플랫폼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5G 통신, 실감 미디어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AI는 대본 작성, 영상 편집, 배경음악 제작, 번역 및 더빙 등 제작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여 창작자들이 기획과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인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편,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영상의 단순 컷 편집, 자막 생성, 데이터 분류 등과 같이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보조 인력의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성장과 산업 간 융합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넓히는 핵심 동력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웹소설, 디지털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즉 ‘K-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국내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나 재미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잠재 고객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에 소속되거나 협업하는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웹방송전문가)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창작자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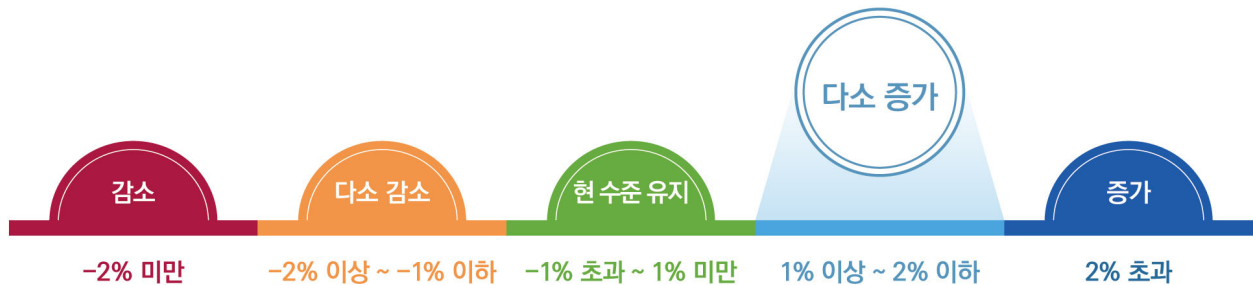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 전문 교육, 저작권 보호,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구독자 규모에 따라 제작비를 차등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재제작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 창작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해당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콘텐츠 생산 및 소비 주도	
과학기술의 발전	• 제작 도구의 보편화로 인한 창작자 진입 장벽 완화	• AI에 의한 단순 편집 및 자막 생성 등 반복 업무 자동화
국내외 경기 변화	•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기회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의 성장 및 수익 모델 다각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및 제작 지원 정책 강화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는 콘서트, 뮤지컬, 연극, 발레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영화, 음반 등 문화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의 소재 선정, 투자 유치, 예산 수립, 제작 인력 섭외 등 프리 프로덕션의 과정을 기획 및 실행하는 일을 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강화, OTT 플랫폼의 급성장, 기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 등 긍정적 요인이 산업의 확장을 견인하며 기획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획 업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고용 증가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과 다양성 추구, 팬덤 문화의 진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취향과 경험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연·영화·음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독창적이고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 페스티벌, 팬 이벤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팬덤 문화의 진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팬미팅, 사인회 등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젝트,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팬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 역량을 갖춘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와 AI 기반의 기획 고도화

AI 기술의 발전은 기획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시장

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의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는 단순 업무 수행을 넘어,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공연·영화·음반 기획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과거 기획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객의 취향, 소비 패턴, 흥행 요소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I는 시나리오 초안 작성, 캐스팅 후보 추천, 음원 흥행 예측, 타깃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기획의 전 과정에 활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테크-기획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맞는 공연과 콘텐츠를 기획할 전문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OTT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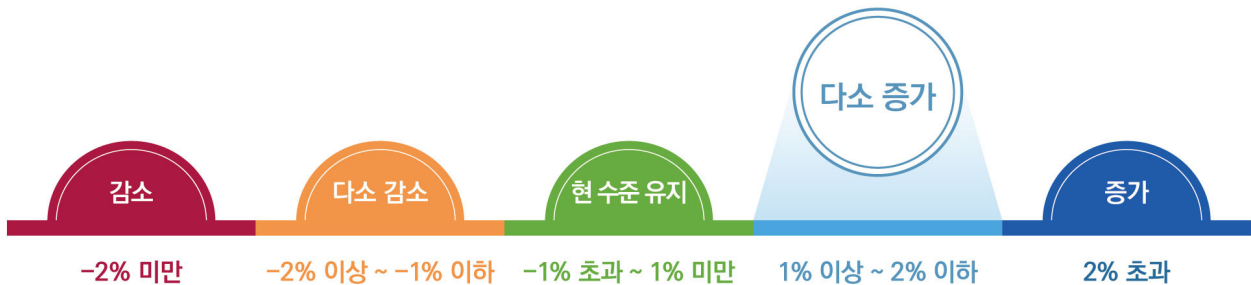
K-팝, K-드라마, K-무비 등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관련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팬덤 형성으로 해외 투어 공연, 글로벌 영화 공동 제작, 해외 음반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춘 기획 인력의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또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극장 개봉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OTT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영화 및 시리즈물 기획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콘텐츠 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기획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경험 중심의 소비 트렌드 확산 - SNS 활성화 및 팬덤 문화의 진화	
과학기술의 발전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기획 업무의 고도화 및 효율화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부 정형화된 기획 업무 자동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연예인매니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연예인매니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예인매니저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개그맨 등 연예인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업무 자동화와 근로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 증가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연예인 매니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확장되고 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매니저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고용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매니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팬덤의 확장과 소통 방식의 다변화

한류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K-팝 아이돌, 배우 등의 활동 무대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어, 프로모션, 현지 미디어 대응 등 글로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매니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버스(Weverse), 버블(Bubble)과 같은 팬덤 플랫폼의 성장은 팬들과의 소통을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매니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팬덤이 조직화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팬덤의 니즈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는 기존의 로드 매니저나 행정 지원 인력을 넘어, 팬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전문 매니저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연예인매니저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과 AI 기술의 보조적 활용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의 과학화를 이끌고 있다.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팬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연예인의 활동 계획, 콘텐츠 기획, 홍보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매니저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감지 기술 등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법적 대응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연예인 매니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단순 일정 조율, 자료 수집, 동선 관리 등 일부 반복적인 관리 업무는 AI 기반의 자동화 도구나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로드 매니저 등 현장 지원 인력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매니저들에게는 기술 활용 능력이 기본적인 직무 역량으로 요구될 것이다.

■ 근로 환경 개선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직업 안정성 강화

과거 불안정하고 열악한 직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연예인매니저의 노동 환경이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근로 시간 규제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한 명의 매니저가 담당하던 과도한 업무를 여러 명의 인력이 나누어 맡게 되는 방식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며 전체적인 고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준수 및 체계적인 인력 관리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기획사의 경우, 신규 채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고용 증가세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글로벌 팬덤 확장에 따른 해외 활동 지원 인력 수요 증가 - 팬덤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소통 및 마케팅 전문 인력 필요성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인력 수요 발생	AI 기반 관리 도구 도입으로 인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경쟁 심화로 인한 중소 기획사의 채용 여력 감소 가능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업 안정성 강화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 증가 - 근로 시간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가능성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감독 및 코치는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시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운동선수단의 운영 및 경기력 향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생활 체육 참여 인구를 늘려 코칭 서비스 수요를 견인하여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일자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코치의 대체 가능성 등은 고용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 시장의 경우, 인기 종목을 제외한 다수 종목은 구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코칭 스태프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생활 체육 분야에서의 꾸준한 수요 증가가 학원 스포츠 분야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 과학기술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큰 변화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과 삶의 질 중시 문화 확산

삶의 질 향상과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려는 인구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생활 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유소년, 성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강습 및 코칭 수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과거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 증진과 취미 활동을 위한 스포츠 교육 시장이 성장하면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활동 영역 또한 전문 선수 육성에서 일반인 대상의 생활 체육 지도로 넓어지고 있다.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도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퍼스널 트레이닝, 종목별 클럽, 온라인 코칭 등 개인 맞춤형 지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점은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스포츠 참여 증가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유소년 스포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고용 감소 요인이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선수 자원이 줄어들면서 학교 운동부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소년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의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설 유소년 스포츠 클럽 역시 잠재 고객인 유소년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시장 축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계층의 증가는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니어 전문 스포츠 지도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유소년 대상의 코치직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대상의 코치직은 증가하여 전체적인 고용 수준은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데이터 기반 훈련과 AI 코칭의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과학기술이 스포츠 분야에 접목되면서 스포츠 감독과 코치의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와 경기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코칭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선수의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경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감독과 코치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기술 습득 초기 단계의 기본 동작 교정이나 반복적인 훈련 영역에서는 AI 프로그램이 인간 코치를 보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자세 분석 솔루션은 선수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감독과 코치의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단순·반복적인 지도 영역에서는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감독과 코치는 기술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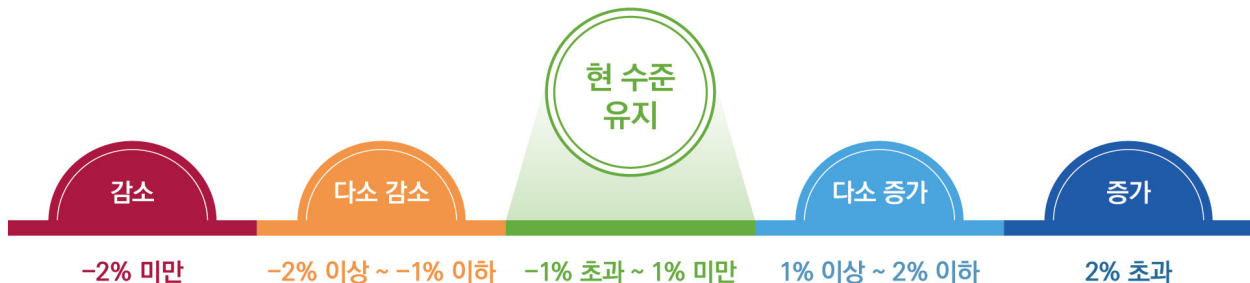
그러나 선수의 심리적 안정, 동기 부여, 팀워크 구축 등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감독과 코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은 저숙련 코칭 인력의 수요는 감소시키는 반면, 데이터 분석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고숙련 지도자의 가치를 더욱 높여 직업 내 인력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스포츠 참여 증가 -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지도 수요 확대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스포츠 클럽의 위축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 생활 체육 참여 인구의 꾸준한 증가 - 개인 맞춤형 전문 지도(PT, 종목 클럽 등) 수요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데이터 분석 및 영상 기술 등을 활용한 코칭 전문성 강화	- AI 기반 코칭 시스템의 단순·반복 훈련 대체 가능성 - 자동화된 분석 도구 활용으로 인한 분석 전문 코치 수요 감소 가능성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직업 운동선수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직업 운동선수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 운동선수는 프로 구단 등에 선수로 정식 등록하여 구기 종목, 격투기 종목, 수중 종목, 동계 종목, 육상 종목 등의 경기에 참여하며, 그 대가로 정기적 보수를 받는다.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정부의 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 여성 스포츠 활성화 등은 고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선수 생명을 연장하며,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 강화는 선수들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직업의 안정성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선수 자원의 절대적 감소라는 거시적 흐름과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의 재정구조는 이러한 증가 요인을 상쇄하며 고용의 급격한 팽창을 억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직업 운동선수의 수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 운동선수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삶’과 ‘보는 즐거움’의 확산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중시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프로 스포츠에 대한 팬덤 확대로 이어져, 구단의 수익 증대 및 선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과거 남성 중심의 스포츠 시장에서 벗어나 여자 프로농구, 배구, 축구, 골프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여성 직업 운동선수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성 스포츠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성 직업 운동선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망주 발굴의 어려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직업 운동선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이다. 엘리트 체육은 초·중·고교의 학생 선수층이 근간이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는 유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학교 운동부 선수들은 15%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프로 스포츠의 선수 수급 불균형과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기 종목조차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인기 종목은 팀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직업 운동선수의 수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데이터 과학과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선수 생명 연장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분석, 가상현실(VR)을 이용한 훈련, 첨단 재활 및 의료 기술의 발전은 직업 운동선수의 기량 향상과 부상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상이나 노쇠화로 인해 조기에 은퇴해야 했던 선수들이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몸 관리와 발전된 의료 기술의 도움으로 현역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베테랑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연장시켜 전체 직업 운동선수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술 발전이 선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력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정부는 스포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스포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융·복합 시장 개척, 지역 주도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프로 스포츠 구단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며, 은퇴 선수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직업 운동선수의 전 생애 주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 마케팅의 진화

기업들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감성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OTT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개별 선수의 스타성과 팬덤을 활용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인기 구단이나 스타 선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직업 운동선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비인기 종목이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직업 운동선수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 성장과 불안정성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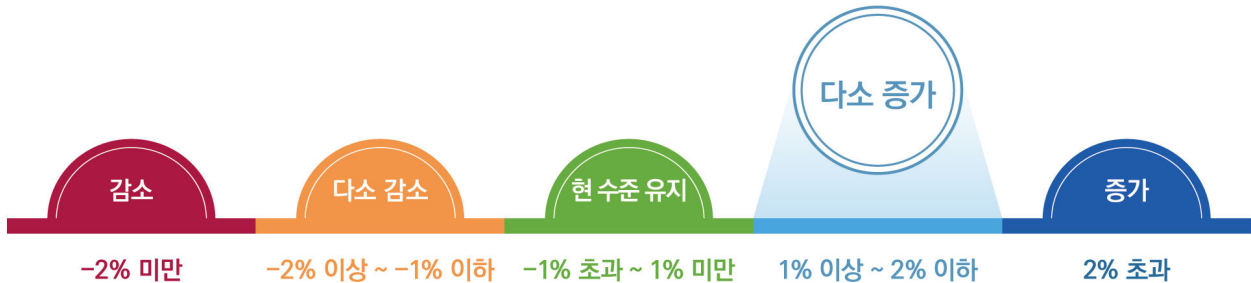
국내 스포츠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8년까지 105조 원 규모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수익 증대와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져 선수들의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기반이 된다. 특히 e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 운동선수 직업군을 창출하며 전체 고용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재정난에 따른 구단 해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기업의 후원에 의존하는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의 특성상, 모기업의 경영전략 변화나 경제 상황 악화는 구단의 존속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직업 운동선수의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스포츠 구단의 운영 예산을 삭감하거나, 심한 경우 구단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외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직업 운동선수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용 규모가 크게 팽창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남는다. 또한 은퇴 후 직업을 찾지 못하는 선수의 비율이 높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은 직업 운동선수라는 직업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산업의 양면성은 향후 10년간 직업 운동선수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저출생으로 인한 유소년 선수 자원 감소 - 엘리트 체육 유망주 발굴의 어려움 심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여성 스포츠 시장의 급격한 성장	
과학기술의 발전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을 통한 경기력 향상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스포츠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 투자 확대	기업 후원에 의존적인 구단 운영 구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간의 양극화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스포츠 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프로게이머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프로게이머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게이머는 입상과 소속회사의 홍보를 위해 컴퓨터게임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한다. e스포츠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류 문화로 정착하면서 거대한 팬덤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상, 정부의 체계적인 e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경기력 향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VR/AR과 같은 신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은 프로게이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직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반면, 극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제한적인 신규 일자리, 기업의 후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단 재정구조는 고용의 양적 팽창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경기 침체 시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프로게이머 고용 시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e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위상 강화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기 변동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그 증가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프로게이머의 고용은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산업의 성숙도와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프로게이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스포츠의 대중문화 편입과 팬덤 경제의 확장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게임은 가장 친숙한 놀이 문화이며, 이들이 e스포츠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e스포츠는 더 이상 소수 마니아의 하위문화가 아닌,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류 여가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다양한 기업들이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e스포츠 구단을 후원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청자 증가는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선수와 팀에 대한 팬덤 형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굿즈 판매, 온·오프라인 팬미팅 등 부가적인 수익 사업을

의 기반이 된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대중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프로게이머를 정식 스포츠 선수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장기적 유망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 e스포츠 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한계

국내의 e스포츠 산업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힘입어 모바일 e스포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PC 게임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목의 프로게이머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의 신규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상위 리그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임단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신규 선수를 선발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마추어 선수 지망생은 많지만, 혹독한 경쟁을 뚫고 프로팀에 입단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이러한 ‘승자 독식’ 구조는 프로게이머 직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전체 고용 규모의 확대를 제약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은 기업의 후원금과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인 수익 모델이 취약한 편이다. 선수의 연봉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구단의 수익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재정구조는 구단의 해체나 선수단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프로게이머의 고용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e스포츠 생태계가 선수와 구단 중심에서 벗어나 대회 주최, 방송 중계, 데이터 분석, 선수 관리(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프로게이머가 은퇴 후 코치, 감독, 해설자, 분석가 등 연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주어 직업의 생애 주기를 연장하고 경력 개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데이터 분석과 AI, 그리고 가상현실의 도입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프로게이머의 훈련 방식과 경기력 향상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AI는 선수의 움직임, 전략,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최적의 전략 수립을 돕는다. 이는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거에는 감독이나 코치의 직관에 의존했던 부분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대체함으로써 팀의 전반적인 기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데이터 분석가, AI 코칭 시스템 개발자 등 새로운 연관 직업을 창출하며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

프로게이머의 일자리는 국내외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e스포츠 구단 운영의 핵심 재원은 기업의 후원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기업들이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e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마케팅 및 광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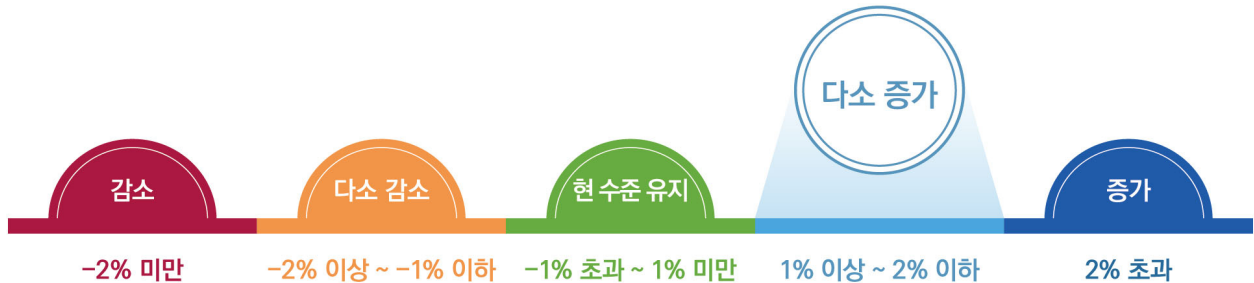
실제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북미의 유명 e스포츠 구단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등 e스포츠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투자 심리의 위축은 구단의 재정난으로 이어져 선수 연봉 삭감, 복지 축소, 최악의 경우 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기 침체는 프로게이머의 신규 채용 감소와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외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MZ세대의 핵심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e스포츠의 대중적 인기 증대 및 팬덤 경제 활성화 -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에 따른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국내외 경기 변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	경기 침체 시 기업의 후원 및 투자 감소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e스포츠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 및 투자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모바일 e스포츠 등 신규 종목의 등장	-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제한적인 신규 일자리 - 후원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단 수익구조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강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운동 종목의 운동 방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한다. 트레이너는 아마추어 운동선수나 직업 운동선수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 적성(컨디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한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은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의 확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계층의 부상은 해당 직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피트니스 솔루션의 등장은 잠재적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유소년 스포츠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수요층에 대한 전문화가 고용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열풍과 자기관리 중요성 증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어차피 할 다이어트라면 행복하게 하자’는 인식, 즉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건강 관리가 아닌,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트레이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킨다. 단순히 운동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설계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으로 자신의 건강하고 멋진 신체를 기록하는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운동 효과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을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자기 관리와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스포츠 및 피트니스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기회,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과거의 노년층과 달리, 현재의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들은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높은 가치를 두며, 이를 위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근력 강화, 유연성 증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운동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트레이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니어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유소년 스포츠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유소년 축구, 야구, 농구 교실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프로 스포츠의 선수 저변이 약화되고, 학교 체육 활동이 위축될 경우 관련 분야의 지도자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위협인가, 기회인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및 피트니스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 기반 피트니스 앱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세를 교정해주고, 개인의 목표에 맞는 운동 루틴을 추천한다. 이러한 디지털 피트니스 솔루션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부 잠재 고객을 흡수하며 인간 트레이너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는 AI 트레이너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숙련된 트레이너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회원의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인 개인 맞춤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코칭, 운동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 제공 등 자신의 전문성을 상품화하여 더 넓은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결국, 기술을 자신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는 트레이너는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생활 체육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의 확대, 직장 내 체육 활동 지원,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등은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들이다. 또한 최근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추진과 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피트니스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은 향후 10년간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고용 환경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간 소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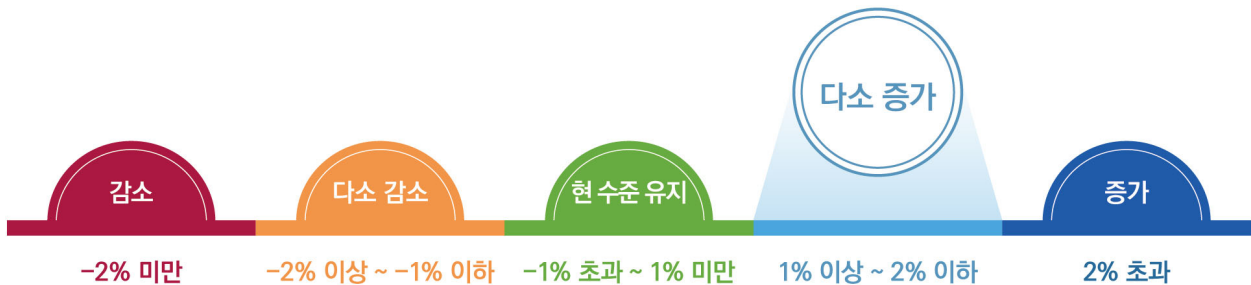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개인 지도(PT) 및 강습 서비스는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피트니스 관련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가의 개인 PT 서비스는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이 증가하고 트레이너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등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기대수명 연장 및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 증가 •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 유소년 스포츠 시장의 잠재적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 • SNS 영향으로 ‘바디 프로필’ 등 특정 목적의 운동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도 고도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코칭 등 새로운 시장 창출	• AI 기반 피트니스 앱 및 스마트 홈트레이닝 기기 등과의 경쟁 •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격 경쟁 심화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피트니스 지출 축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피트니스 시장의 세분화 및 전문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민체력100’ 등 정부 주도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도자 채용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레크리에이션전문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레크리에이션전문가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크리에이션전문가는 캠프, 사교모임 등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워라벨’ 문화의 확산, 은퇴 후에도 활발한 여가 활동을 원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구의 증가, 국민의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강화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는 개인 및 조직 단위에서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반면, 저출생으로 인한 전통적 주 고객층(아동·청소년)의 감소, AI 및 온라인 플랫폼 발전에 따른 일부 역할의 대체 가능성 등이 감소 및 현상 유지 요인으로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레크리에이션전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향후 직업적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단체 활동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치료·헬스케어, 기업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고,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크리에이션전문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라벨’ 문화 확산과 체험 중심의 여가 수요 증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은 가용 여가 시간의 물리적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곧 능동적이고 만족도 높은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경험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기업 문화 역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획일적인 단합대회나 회식 문화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창의

성과 팀워크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워크숍 및 팀 빌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DIY 키트를 활용한 활동 등은 레크리에이션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 조직 모두에서 여가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는 레크리에이션전문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과 저출생의 이중적 영향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인 고령화는 레크리에이션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계층이 주요 여가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새로운 배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노년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레크리에이션, 치유 레크리에이션, 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심각한 저출생 현상은 전통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분야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는 학교나 청소년 수련 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총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골드 키즈’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소수의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캠프, 스포츠 교실 등에서 소그룹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또는 특화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저출생의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근간으로 수립된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은 국민의 여가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기반의 복합여가시설 확충,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여가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여가 활성화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의 레크리에이션전문가 채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민간 여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전문가의 활동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문화 소외 계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여가 서비스 제공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전문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시와 디지털 플랫폼의 도전과 기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다. AI 기반의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이나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체험형 콘텐츠는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온라인으로 배우고 공유하는 플랫폼의 성장은 일부 대

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반드시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만은 아니다. AI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어 전문가가 더욱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비대면 레크리에이션, 게임화(Gamification)를 접목한 프로그램 등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교감과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전문가는 기술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건강 및 사회활동 관련 레크리에이션 수요 증가 • 1인 가구의 소셜라이징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수요 증대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청소년 대상 레크리에이션 시장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여가 활동 참여 인구 증가 • 기업의 팀 빌딩 및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수요 다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효율성 증대 • 온라인 및 비대면 레크리에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 AI 프로그램 추천 및 VR/AR 콘텐츠가 단순 활동 진행자 대체 • 온라인 취미 플랫폼 활성화로 전문가 의존도 감소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민 여가 활성화 정책 • 정부 및 지자체의 여가 활성화 계획에 따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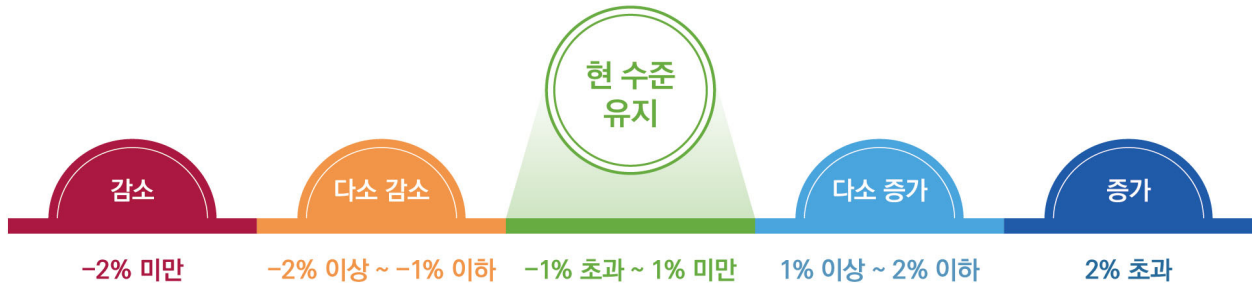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PART
2

직업별 일자리 전망

-
-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 2 보건·의료직(27개)
 - 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8개)
 - 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42개)
-

이용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이용자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이용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2%로 예측된다.

이용사는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커트·면도·두피·모발 관리 등을 수행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으로 미용업과 구분된다. 최근 미용업이 디자인 컷과 스타일링을 강화하며 젊은 남성 고객을 흡수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통적 이발·면도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버숍의 확산은 이용업의 새로운 성장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바버숍은 클래식 포마드 컷과 수염 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젊은 세대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창업과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남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여가·자기관리에 적극적인 소비력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와 전문직 남성 고객층의 프리미엄 서비스 수요는 이용자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숙련 인력의 고령화가 뚜렷해 은퇴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만, 바버숍 문화의 확산은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여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이러한 공백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AI 기반 두피 진단기,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전동 장비 등 기술 발전도 직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표준화된 서비스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담, 프리미엄 면도, 맞춤형 관리 등은 기계로 대체되기 어려워 숙련 인력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하면, 젊은 층의 미용실 선호, 숙련 인력 은퇴, 자동화 장비 확산은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바버숍 확산, 초고령사회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프리미엄 수요 증가, 기술 발전은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비자 분화와 바버숍 확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통적인 이용실은 중장년층 이상 남성이 주된 고객층으로, 단정한 커트와 면도를 선호하며 단골제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면, 미용실은 펌·염색·디자인 컷을 강점으로 삼아 젊은 남성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업은 젊은 층 확보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바버숍의 확산은 이러한 불리함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 바버숍은 전통적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남성 전용 공간으로 차별성을 강화하고, 클래식 포마드 컷이나 수염 관리처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가 바버숍을 자기 표현과 라이프스타일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창업과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고령층, 액티브 시니어, 전문직 중심의 안정적 수요 창출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 남성은 오랜 기간 이용실을 이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용실보다 이용실을 더 익숙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한 주기로 커트와 면도 서비스를 이용해 기본 수요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한편, 가격보다 서비스의 완성도와 편안한 경험을 중시하는 액티브 시니어와 전문직 남성은 두피 관리나 프리미엄 면도 등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호해 숙련 이용사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과 액티브 시니어, 전문직 남성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용실을 찾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해 이용업의 수요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숙련 인력 고령화 및 은퇴에 따른 세대 교체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이용업은 숙련 인력의 고령화가 뚜렷한 산업이다. 현재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은퇴에 따른 인력 공백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바버숍 문화는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여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이용업 매장이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턴-디자이너 체계를 기반으로 현장 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미용업의 방식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신규 인력이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숙련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 숙련 이용사가 본격적으로 은퇴할 경우 기술 전수의 단절과 공급 불안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과학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와 일자리 재편

과학기술은 이용사의 직무를 재편하는 요인이다. AI 기반 두피 진단기,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전동 장비 등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단순 서비스는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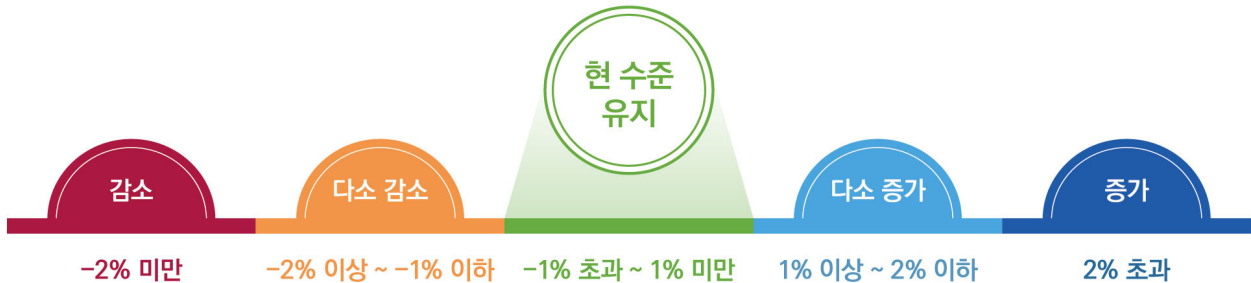
상담, 프리미엄 먼도, 맞춤형 관리 등은 오히려 숙련 인력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남는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이용자의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직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및 액티브 시니어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바버숍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 미용실의 젊은 남성 고객 흡수
과학기술의 발전		• AI 및 자동화 장비 보급에 따른 일자리 재편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바버숍 확산에 따른 업태 분화와 신규 창업 증가 • 고령층과 액티브 시니어 및 전문직 중심의 안정적 수요 창출	• 숙련 인력 고령화 및 은퇴로 인한 이용자 공급 부족 • 1인 또는 소규모 매장 운영에 따른 체계적 기술 전수 시스템 부재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미용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미용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미용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로 예측된다.

미용사는 커트, 펌, 염색, 스타일링, 두피·모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외모 관리와 이미지 개선을 돕는다. 현재 미용업계는 여러 성장 동력과 도전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적 환경에 놓여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저변 확대, 자기 관리에 대한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 K-뷰티 세계화, 서비스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미용사 고용을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바버숍 확산에 따른 남성 고객 이탈,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성장,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는 일자리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러한 상반된 흐름이 맞물리면서 미용사의 일자리는 급격히 변동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증가와 안정적 수요 유지

「2024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5%를 넘어섰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가족 단위 지출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비 성향이 강하다. 청년층은 외모 관리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커트, 염색, 스타일링 등 트렌드 중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고령층은 단정한 외모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찾는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미용 서비스의 기초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일부 1인 가구는 두피·모발 클리닉, 맞춤형 스타일링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지출을 늘리며 시장 세분화를 촉진한다. 다만, 소득 수준 격차와 경기 침체 시 지출 축소 가능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가는 미용사의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기본 고용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비자 가치관 변화와 프리미엄 서비스 확산

오늘날 외모 관리는 단순히 멋을 내는 행위를 넘어 자기만족과 힐링을 위한 중요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용실을 찾는 소비자들은 커트나 염색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더욱이 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는 미용 시장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흰머리를 감추는 염색이나 단정한 커트뿐 아니라, 두피·모발 관리, 맞춤형 펌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러한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는 미용사의 직무와 역량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미용업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확장과 남성 전용 서비스 증가에 따른 미용업 시장 재구조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전국적으로 점포를 확대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사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 미용실 종사자에게는 매출 변동과 고용 불안정이 커지는 이중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남성 고객층의 세분화가 진전되면서 바버숍과 남성 전용 미용실의 성장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바버숍은 이용업 기반으로 면도·수염 관리 등 미용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강점으로 삼아 일부 젊은 남성 고객을 흡수하는 경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남성 전용 미용실은 미용업 기반의 디자인 컷, 펌·염색, 두피 관리 등 트렌디한 스타일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며 미용사에게는 새로운 수요 확보와 고용 기회 확대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의 확장, 바버숍의 성장, 남성 전용 미용실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미용업 시장은 서비스 형태와 고객군이 다층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시장 세분화와 경쟁 심화가 지속될수록 소규모 개인 미용실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미용사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는 전체 일자리를 급격히 늘리기보다는, 역량 있는 미용사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K-뷰티 세계화와 해외 수요 확대

K-pop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류 열풍은 K-뷰티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K-뷰티 해외시장 동향」(2024)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과 미용 서비스는 해외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미용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외국인 전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용실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용사의 고용 기반이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외국어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용사에게는 새로운 진출 기회로 이어지며,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국내 수요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다.

■ 자격제도,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일자리 재편

우리나라 미용사 자격은 1949년 자격시험이 도입되면서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1983년 처음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에 편입된 이후 산업 변화에 맞추어 세분화되었다. 2008년에는 피부미용사가, 2014년에는 네일미용사와 메이크업미용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면서 현재의 네 가지 미용 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자격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제도적 정착은 자격 보유자 수 증가와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전문성 강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자격 취득자 증가가 곧바로 숙련 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용업은 장시간 근로와 높은 체력 소모 등 직무 특성상 초기 진입은 활발하지만,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 단계에 도달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사유로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력이 짧거나 일 경험이 부족한 미용사는 고객 확보와 안정적 고용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 전반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과 초보 인력의 취업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용업 고유의 구조적 특성은 미용사의 경력 단계에 따라 고용 기회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미용사 노동시장에서 숙련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AI·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와 일자리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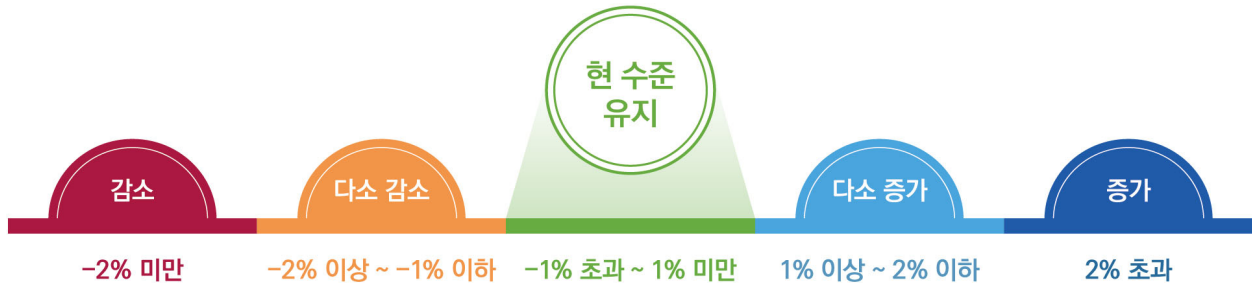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최근 현장에서는 두피·모발 상태를 분석하는 AI 기반 진단기, 예약과 결제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시스템, 손목 부담을 줄여주는 전동 장비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감소한 업무만큼 확보된 시간을 고객 상담이나 개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미용사의 직무 재편 측면에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은 미용사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직무의 구성과 비중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용사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기본 수요 유지 • 액티브 시니어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자기관리·힐링 중심 라이프스타일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AI 및 디지털화에 따른 시간 절약	• 일부 반복·절차적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
국내외 경기 변화	• K-뷰티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서비스 이용 확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대형 프랜차이즈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고용 기반 유지	• 프랜차이즈 확산에 따른 소규모 미용실의 매출 감소로 폐업 가능성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서비스 세분화·전문화로 숙련 인력 활용 확대	• 바버숍 확산에 따른 일부 남성 고객 이탈 • 경쟁 심화로 개인 미용실의 고용 불안정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자격제도 정착으로 서비스 품질 표준화·전문성 강화	• 자격 취득자 증가로 인력 공급 확대 및 경쟁 심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는 손 마사지, 손톱 및 발톱 정리, 각피 제거, 매니큐어 작업 등으로 손톱과 발톱을 가꾸고, 관리 및 장식을 하는 일을 한다. 과거 네일 서비스는 선택적인 미용 서비스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손발톱 건강 관리와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의 개념을 넘어 손발톱 건강 관리와 웰빙(Well-being)을 함께 추구하는 개인 밀착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고객층 또한 개인의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층과 손발톱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층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액티브 시니어와 남성 고객층의 증가 또한 네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른 해외 고객 유입 증가도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 기반을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반면, 자격증 취득자 증가로 인한 인력 공급 과잉, 프랜차이즈형 네일숍 확산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숍의 경쟁 심화는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 속에서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거나 줄기보다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요 유지

「2024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5%를 넘어섰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가족 단위 지출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비 성향이 강하다. 청년층은 외모 관리와 개성 표현을 위해, 고령층은 손발톱 건강 관리와 단정한 이미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네일숍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네일 서비스의 기초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소득 수준 격차와 경기 침체 시 지출 축소 가능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가는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기본 고용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액티브 시니어와 남성 고객층 유입에 따른 수요 기반 확대

네일 서비스의 고객층이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20~40대 여성이 주 고객층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남성층까지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남성 그루밍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외모를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루밍족’이 늘면서 남성 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 조사에서도 손톱 관리를 받는 남성 고객의 증가세가 확인된다. 또한 미용실 방문을 꺼리지만 손톱과 발톱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의 손발톱 건강 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네일 서비스 이용 목적은 미용보다 ‘손발톱 건강’과 ‘위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이들이 단순한 미용관리 차원 이상의 손발톱의 두꺼워짐·갈라짐 등 건강상의 문제를 관리하려는 기능적 수요 욕구와 함께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작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만족감에 기인한다. 이처럼 네일 서비스가 건강과 웰빙(Well-being)까지 포괄하면서,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K-뷰티 산업 성장과 해외 수요 확대

K-pop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류 열풍은 K-뷰티로 이어지며 한국 화장품과 미용 서비스의 위상을 높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K-뷰티 해외시장 동향」(2024)에 따르면, 한국의 뷰티 서비스는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흐름은 외국인 관광객의 네일 서비스 이용 증가로 연결되며, 서울과 주요 관광지 네일 숍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서비스나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미용사처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K-뷰티 브랜드 파워와 SNS를 통한 홍보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 네일 기술의 해외 진출에 따른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에 대한 수요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전문성 강화

네일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젤 네일, 반영구 네일, 3D 아트 등 신기술의 도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기본적인 매니큐어나 케어 서비스를 넘어 창의적 디자인과 맞춤 상담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디자인 추천 시스템, 위생 관리 자동화 장비가 도입되어 네일 아티스트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가 보다 창의적인 영역에 집중하여 고객만족을 창출하고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이 단골고객이 되어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인력 공급 확대와 프랜차이즈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

네일아트 산업의 자격 취득자와 창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기술자격 통계」(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일아트 국가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늘었다. 이는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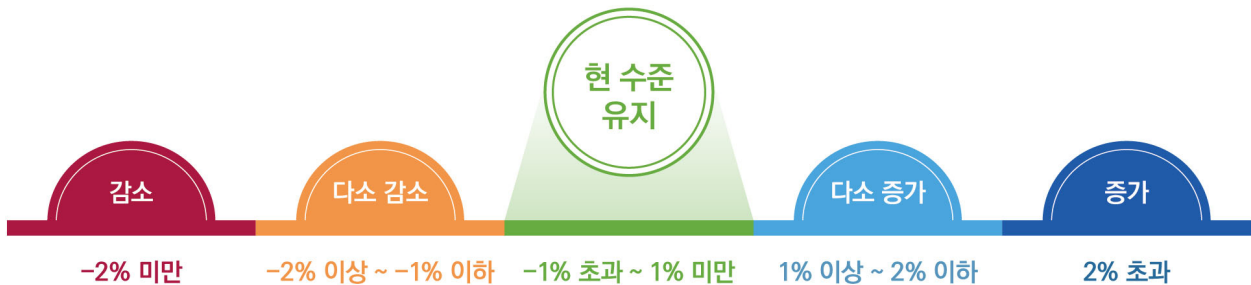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질을 표준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네일숍은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개인 창업자는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소규모 네일숍에 고용된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일아티스트(손톱관리사)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는 유지되지만, 경쟁력을 확보한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남성 고객 유입 증가, 액티브 시니어 고객층 확대	인구 감소로 장기적 고객 기반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자기관리·외모 투자 문화 확산	경기 침체 시 선택적 소비 축소
과학기술의 발전	젤·반영구·3D 네일 등 신기술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K-뷰티 확산, 외국인 고객 수요 증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프랜차이즈 네일숍 확대	개인 창업자의 시장 점유율 축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력 공급 과잉으로 경쟁 심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피부 및 체형관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는 고객의 피부 건강과 체형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모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피부관리사는 상담과 측정을 통해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각질 제거, 보습, 트러블 개선, 마사지, 팩, 미용기기 활용 등을 통해 피부를 관리한다. 체형관리사는 체중과 생활 습관을 분석해 식이·운동 요법을 설계하고, 마사지와 래핑(지방분해 효과를 위해 랩이나 붕대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을 통해 바디 라인을 개선하며 청소년 비만, 산후 비만, 요요 예방 등 대상별·특성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발관리사는 발 각질 제거와 마사지, 발 건강 관리로 보행과 위생을 돕는다. 이들은 고객의 외모 개선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최근 피부 및 체형관리 시장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웰빙(well-being)과 연결되어 의료·헬스케어 산업과의 접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자영업 창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상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웰빙 트렌드, 비만 인구 증가, 기술 혁신 등은 수요를 뒷받침하며, 홈케어 확산과 같은 위협 요인 속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은 안정적으로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자기관리 수요 증가

「2023년 가구주택특성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4.5%에 달하며,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가족 단위 소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비 성향이 강하다. 청년층의 경우 외모 관리와 자기 표현을 위한 소비가 활발하며, 시니어들은 단정한 외모와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의 기초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배경이 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어, 프리미엄 시장과 대중적 보급형 시장으로 이중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안티에이징) 수요 확대

우리 사회는 2024년 말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고령층은 단순히 오래 살기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외모와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과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액티브 시니어' 계층은 주름 개선, 피부 탄력 유지, 체형 교정 등 항노화(안티에이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는 주요 고객층이 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강화하며, 고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다이어트 트렌드 확산에 따른 수요 확대

과거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바른 체형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웰빙과 삶의 질 개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으며, 체형 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킨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 자세 교정, 근육 이완 등 건강적 효과가 결합되면서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

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체형 관리 수요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체형 관리의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고도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식이요법, 운동 컨설팅, 림프 관리, 근육 이완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체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미용 목적의 관리 시장을 넘어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서비스 시장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 분야 종사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술 융합에 따른 서비스 전문성 강화

피부 및 체형 관리 서비스는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손으로 하는 마사지나 기본적인 팩 관리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피부 진단기, 고주파·레이저 장비, EMS(전기 자극) 기기, AI 기반 분석 솔루션 등 첨단 장비들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첨단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단순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력과 더불어, 고객의 피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와 같이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업종 경쟁 심화와 의료법 경계 모호성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는 다양한 업종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피부 관리 분야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체형 관리 분야는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산업과 고객층이 일부 겹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피부관리실은 ‘휴식과 힐링’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강한 효과를 원하는 고객은 피부과나 의학적 시술을 선택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고객은 피부·체형관리 서비스를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경쟁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숙련된 인력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 분야와의 경계 모호성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다. 피부 관리와 체형 관리는 기본적으로 미용 서비스 영역으로, 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업에서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세포 파괴 시술이나 고강도 초음파(HIFU) 같은 시술은 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홈케어·홈트레이닝 확산에 따른 직업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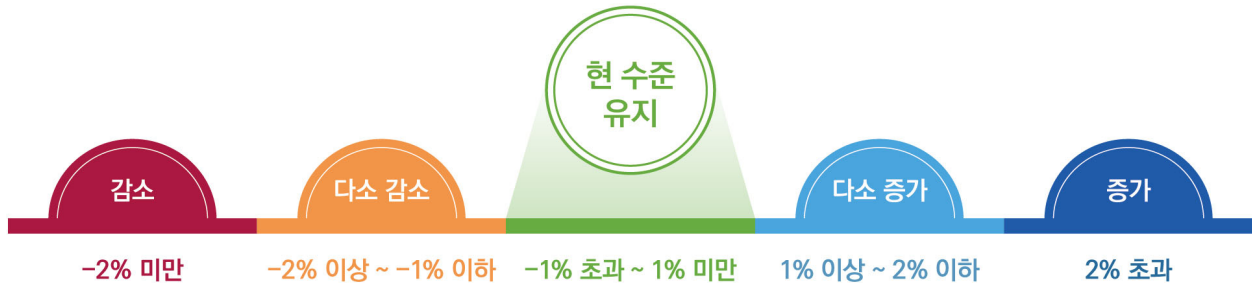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피부 관리 서비스는 헤어 관리나 손발톱 관리 등 다른 미용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에는 고기능성 화장품과 LED 마스크, 고주파 마사지기, 가정용 레이저 기기 등 다양한 홈케어 제품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 일부 피부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피부관리사에 대한 일자리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형 관리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와 온라인 운동 콘텐츠의 확산으로, 소비자들 사이 집에서 운동과 스트레칭, 체형 유지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홈케어·홈트레이닝의 확산은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가 제공하는 일부 기본 서비스의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셀프 관리에는 효과의 한계가 있으며, 피부 상태나 체형 불균형처럼 전문적 진단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부 및 체형관리사(발관리사포함)의 수요는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안티에이징) 수요 확대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장기적 고객 기반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웰빙건강 중시, 체형 관리 수요 확대, 비만 인구 증가	• 경기 침체 시 선택적 소비 축소, 홈케어·홈트레이닝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AI·고주파·레이저 등 신기술 확산	• 장비 의존 심화로 단순 인력 수요 감소
국내외 경기 변화	• 건강에 대한 투자 확대	•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프리미엄 서비스·맞춤형 솔루션 강화	• 대체 서비스 업종(피부과·헬스장 등)과 경쟁 심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자영업 위주 구조로 고용 안정성 제약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의료법 규제 강화 시 업무 범위 축소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는 고객의 이미지와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 스타일링, 피부·색채 분석 등을 수행하며, 패션·방송·웨딩 등 특정 목적에 맞는 전문적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이크업아티스트는 고객의 얼굴·피부·이미지 특성에 맞춰 화장을 디자인하고, 방송·웨딩·패션쇼 등 목적별 전문 메이크업을 수행하며, 뷰티매니저는 화장품·뷰티제품의 판매와 상담, 고객 피부 진단 및 제품 활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메이크업 서비스는 과거와는 달리 '특별한 날'에만 받는 서비스의 개념을 탈피하여 일상 생활 안에 스며들면서 메이크업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K-뷰티의 세계적인 확산 또한 이들의 활동 무대를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넓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한 '셀프 뷰티' 확산과 오프라인 매장의 인력 수요 감소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를 늘리는 요인과 줄이는 요인이 상쇄되면서 전체 고용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뷰티매니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수준 향상과 뷰티 서비스 수요의 확장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메이크업 서비스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자기 표현과 이미지 관리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극히 제한적인 행사에만 전문가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프로필 사진 촬영, 가족사진, 리마인드 웨딩, 데이트 스냅 등 일상적인 기념일에도 전문 메이크업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메이크업아티스트의 고객 기반을 특정 시층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꾸준히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뷰티 확산과 국제적 활동 기회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K-뷰티와 한국의 메이크업 트렌드 역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K-뷰티 수출액은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뷰티 산업 전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K-pop 아이돌의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K-드라마 배우들의 화장법이 해외 트렌드를 이끌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메이크업아티스트에게 새로운 고객층을 제공하고, 활동 무대를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넓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NS 발달에 따른 시장의 재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의 발달과 일상화는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의 일자리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 유튜버나 뷰티 블로거들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메이크업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셀프 뷰티’ 문화가 확산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매장의 감소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의 서비스 수요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뷰티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국 SNS의 보급과 확산은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의 일자리를 단순히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기보다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은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에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정교한 메이크업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는 과거 방송·웨딩·패션쇼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던 전문 메이크업 수요가 개인 콘텐츠 제작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처럼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전문 인력을 상시 고용하거나 협력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단발적 수요를 넘어 안정적인 고용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 기반 인플루언서의 증가로 해외 촬영 동행이나 국제 행사 참여 기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1인 미디어의 확산은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전문성과 차별화를 갖춘 인력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전과 직무 전문성 강화

AR(증강현실)·AI 기술이 뷰티 산업에 도입되면서 메이크업아티스트와 뷰티매니저의 직무 성격도 변하고 있다. AI 피부 진단, 가상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등은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체험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첨단 진단 도구들에 의해 측정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 추천, 체험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일자리 대체의 개념보다는 숙련된 인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즉, 기존의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를 효율화하여 절약된 시간을 실제 시술, 감각적인 디자인, 고객과의 섬세한 소통과 상담 서비스 등 핵심적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기술 활용 능력과 직무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의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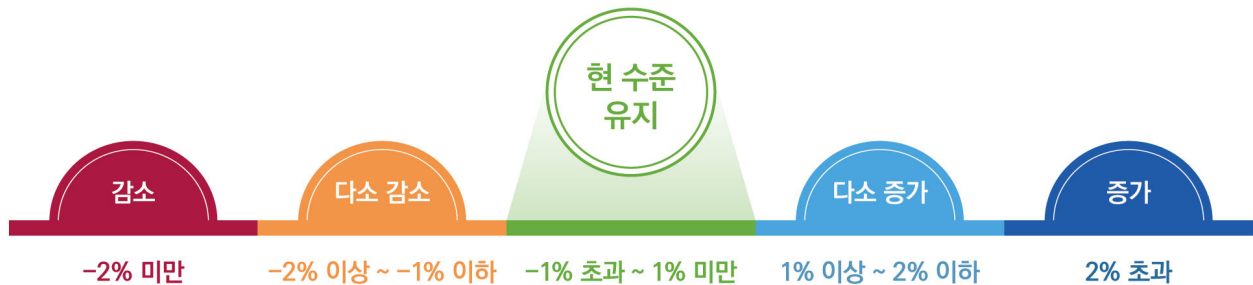
메이크업아티스트는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변동성이 크고, 경력 관리가 어렵다. 뷰티매니저 역시 특정 브랜드의 백화점·로드숍·면세점·드럭스토어·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과 같은 유통 채널(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과 연계되어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대학의 관련학과 증가와 전문 학원의 수가 늘어나고 자격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업계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진입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꾸준히 구인 수요가 발생하며, 자신만의 전문 기술과 독자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의 신뢰를 얻은 인력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자기 표현·퍼스널 브랜딩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 AR·AI 피부 진단, 가상 메이크업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 소득 증대, K-뷰티 확산, 국제 행사 증가	• 경기 위축 시 선택적 소비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SNS 확대 등에 따른 오프라인 인력 축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화장품·뷰티 산업 성장	• 프리랜서·계약직 중심의 불안정 구조 •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와 전문 학원 수 증가, 자격제도 안정화에 따른 공급 과잉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분장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분장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장사는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상 분야와 연극·뮤지컬 등 무대 분야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시대·상황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업무는 피부 표현과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일반·무대 분장부터 상처·노화·생물체 등 사실적 효과를 구현하는 특수 분장까지 폭넓다. 제작 편수와 프로젝트 규모는 경기·플랫폼 환경에 따라 변동하며, 프리랜서·단기 계약 고용이 일반적이어서 연간 소득 변동성이 크다. 다만,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소득 수준 향상과 가치관 변화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인구가 늘고 있어, 분장사의 기본 수요 기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OTT와 K-컬처 확산은 새로운 제작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작비 절감과 컴퓨터그래픽(CG) 활용 증가는 단순 분장 업무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증가·감소 요인이 상쇄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융합은 분장사의 역할을 확장하며,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장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시장 회복에 따른 분장 수요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문화예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공연 관객 수가 빠르게 늘고, 상업 공연 편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활력은 분장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대면 공연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시장 연간 보고서(2024)」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공연 시장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공연 시장의 활성화는 무대 규모의 확대와 작품 편수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분장사의 참여 기회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일수록 캐릭터와 시대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분장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K-pop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와 팬미팅 재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 분장 수요를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공연 시장 전반의 회복은 분장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OTT 발달과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 OTT 등 영상 매체가 다양해지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면서 분장사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단말 기술의 성숙, 개인화된 시청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팬데믹 시기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복합 요인이 결합되면서 OTT가 급성장하였고, 이는 방송사 중심에 한정되었던 영상 제작구조를 다변화시켰다.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등 주요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특정 플랫폼이 직접 제작하여 독점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제작 편수와 장르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 결과 블록버스터·대작 드라마에서 리얼리티 예능, SF·스릴러, 웹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제작 스펙트럼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분장사가 구현해야 할 시대·세계관·장르별 캐릭터와 스타일의 범위도 넓어졌다. OTT 콘텐츠는 고화질·고해상도 촬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의 피부 표현, 세밀한 분장, 특수 분장에 높은 완성도를 요구한다. 이는 사실성과 몰입감을 구현하는 고난도 분장 역량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컬처 확산과 글로벌 협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공동 제작 및 월드 투어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배우의 피부 톤, 조명,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분장 역량이 필요해지면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언어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숙련된 분장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첨단 기술 활용에 따른 분장사 업무의 재편

분장사의 업무는 CG(컴퓨터그래픽)의 발전과 함께 양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상처나 노화와 같은 특수 효과를 분장사가 직접 구현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표현이 후반 편집 단계의 CG 작업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고화질 방송 방식)와 디지털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출연진의 피부 표현과 분장의 정교함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실리콘·라텍스·3D 프린팅 보철 등 신소재의 도입으로 특수분장의 표현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시뮬레이션이 확산되면서, 분장사는 창작 과정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의 도입은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절약된 시간을 창의적 연출과 고난도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비숙련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장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숙련도에 따른 채용 시장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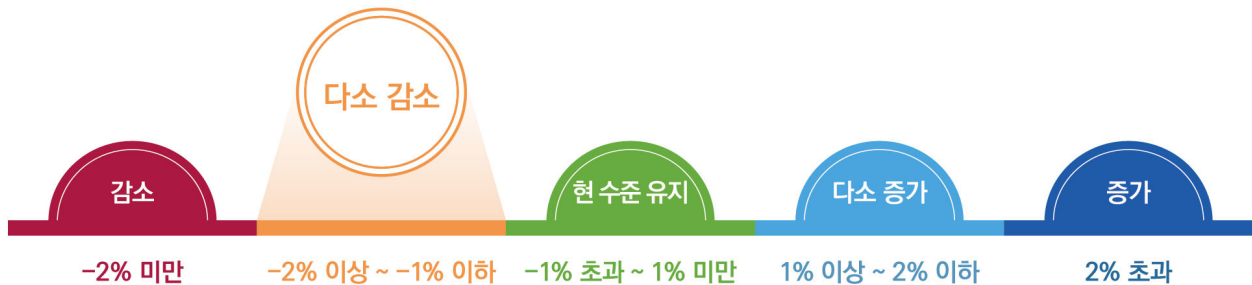
분장사는 영화·방송·공연 등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형태가 많아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다. 제작 규모와 편수에 따라 연간 소득 편차가 크며, 대학의 관련 학과와 학원의 확대로 신규 인력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채용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충분한 현장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채용 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문화 향유 인구의 안정적 기반	•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관객 기반 축소 가능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공연·콘텐츠 소비 다변화로 캐릭터 표현 수요	• OTT 확산으로 일부 장르 제작 축소
과학기술의 발전	• 신소재·3D 프린팅·특수효과(SFX) 협업으로 고난도 분장 강화	• CG·후반 작업 대체로 단순 분장 일부 축소
국내외 경기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제작 편수·관객 회복	• 불황 시 제작비 절감·편수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제작비 압박에 따른 외주 단가 인하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K-컬처 글로벌 유통 협업 확대	• 신규 인력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기획을 통해 예식을 성사시키고 운영을 지원하는 직업이다. 결혼 상담원은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주며, 웨딩플래너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기획하고 관련된 계약과 발주를 대행한다.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혼인 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뤘던 결혼이 재개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청년 인구 감소,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 확산, 만혼 추세가 잠재 고객 기반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셀프·다이렉트 웨딩의 증가,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구조에 따른 소득 변동성과 국가자격제도의 미비에 따른 입직 경쟁 심화는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우스·야외 중심의 '스몰 웨딩', '콘셉트 웨딩' 등 맞춤형 연출 수요 확대와 재혼·국제결혼과 한류에 따른 외국인 수요 확대는 일자리 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하되, 전문 매칭·창의적 기획 능력 등 첨단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 건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 압박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비록 전년 대비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뤘던 결혼이 재개된 효과와 30대 초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감소 추세는 여전하며, 이는 결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결혼 시장의 규모 축소는 결혼과 관련된 산업의 고용 창출을 제약하고, 중소형 업체들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일자

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혼인 건수 (천 건)	257.6	239.2	213.5	193	192	193.7	222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5	4.7	4.2	3.8	3.7	3.8	4.4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자료: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통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만혼 확산에 따른 수요 재편

과거에는 결혼이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결혼 생활로 인한 역할 변화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는 만혼 추세(2024년 기준 초혼 연령 남 33.9세, 여 31.6세)는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갖춘 웨딩플래너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상대방의 조건과 가치관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만혼 예비부부들이 획일적인 결혼식 대신 ‘스몰 웨딩’, ‘콘셉트 웨딩’ 등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결혼식을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거나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는 사회 현상은 결혼 상담 및 웨딩 컨설팅 산업 전체로 볼 때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량을 갖춘 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셀프·다이렉트 웨딩 증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결혼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비부부들은 이제 온라인 웨딩 플랫폼, SNS, 결혼 관련 앱을 통해 예식장, 드레스, 스튜디오 등 모든 정보를 쉽게 얻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결혼에 관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식 전 과정을 예비부부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셀프 웨딩’이나, 웨딩플래너나 전문 웨딩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예비부부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결혼 준비를 하는 ‘다이렉트 웨딩’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예식의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는 전통적인 웨딩플래너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계약 대행 업무는 플랫폼이나 앱으로 대체되어 결과적으로는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 증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개성 있는 스몰 웨딩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혼인 건수는 줄고 있지만, 결혼식의 질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획일적인 예식장에서 벗어나 하우스 웨딩, 야외 예식, 콘셉트 웨딩 등 개성 있는 스몰 웨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맞춤형 예식은 단순한 ‘패키지’ 계약을 넘어, 예비부부의 가치관과 스토리를 반영한 고도의 기획 및 연출 능력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예산과 일정, 다수의 전문 업체를 조율할 수 있는 숙련된 웨딩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웨딩플래너 직무의 방향이 ‘창의적 기획 전문가’로 역할을 확장해야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재혼·국제결혼·한류 영향에 따른 수요 확대

혼인 건수 감소라는 흐름 속에서도 재혼 가구와 국제결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이나 국제결혼은 더 신중하고 섬세한 중개 및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상담원은 재혼 가구의 복잡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만남 주선을, 웨딩플래너는 언어와 문화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국제 예식 기획 능력을 통해 새로운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류 영향으로 국내에서 웨딩 촬영이나 신혼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고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요 증가는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구조와 입직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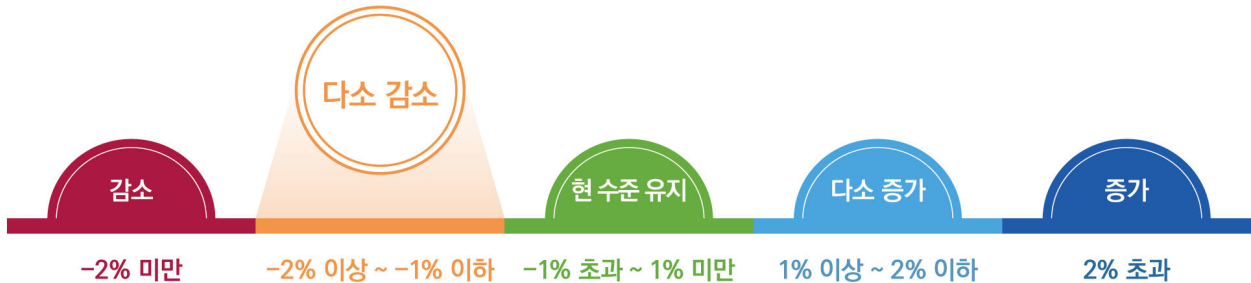
결혼 상담원과 웨딩플래너는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연간 소득의 변동 폭이 크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입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 인력이 꾸준히 채용 시장에 진입하여 입직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이들 직업은 아직 국가자격 보유가 의무화되지 않아 인력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재혼 가구 및 국제결혼 수요 증가	• 청년 인구의 감소와 혼인 건수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전문 컨설팅 수요 증가 • 스몰 웨딩 등 새로운 결혼 문화 확산	• 비혼주의 문화 확산 • 셀프 웨딩, 다이렉트 웨딩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결혼 준비 앱 등 AI 기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디지털 플랫폼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외국인의 서비스 수요 증가 • 웨딩 시장의 프리미엄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콘셉트 웨딩 등 맞춤형 예식 서비스 강화	• 비용 절감을 위해 웨딩플래너 의존도 축소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가자격체계 부재로 인한 신규 진입 인력 과잉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혼례 종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혼례 종사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례 종사원은 결혼 예식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준비·배치하고, 신랑·신부의 의상과 동선을 정리하며, 요청 시 주례 보조 등 예식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이다. 이 직업은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와 혼인을 하락에 구조적으로 연동된다. 다시 말해 인구구조 변화가 결혼 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이는 혼례 종사원의 일자리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혼례 종사원은 결혼식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필수 업무를 담당하므로, 결혼 상담원이나 웨딩플래너에 비해 업무 자동화나 디지털화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재혼 인구의 증가, 국제결혼과 한류에 따른 전통 혼례 체험 수요 등 일부 영역은 감소 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혼례 종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와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결혼 시장 축소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팬데믹 기간 지연 수요의 정상화와 30대 초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결혼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제약하고 중소형 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혼례 종사원 일자리에도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혼인 건수 (천 건)	257.6	239.2	213.5	193	192	193.7	222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5	4.7	4.2	3.8	3.7	3.8	4.4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자료: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통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과거에는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 20~30대의 상당수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부담과 육아 부담, 결혼생활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혼인 건수 하락과 연동되어 혼례 종사원을 필요로 하는 예식 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혼례 종사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스몰 웨딩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요 유지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예식의 질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하우스 웨딩, 야외 예식, ‘콘셉트 웨딩’ 등 소규모·프라이빗 형태의 예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선 관리, 소품·의상 정리, 하객 안내, 폐백 진행 보조 등 예식 현장에서 운영 업무를 맡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의 일부가 플랫폼·앱으로 대체되더라도, 예식 당일의 행사 진행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렵다. 대부분 예식의 경우 최소한의 현장 인력 수요가 유지되므로, 일자리 감소 국면에도 불구하고 혼례 종사원 일자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 혼례·외국인 고객 확대 등 틈새 수요에 따른 수요 유지

혼인 건수 감소 흐름 속에서도 전통 문화 체험 수요와 외국인 관광 수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한류 확산으로 전통 혼례 체험이나 웨딩 촬영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재혼·국제결혼의 증가도 혼례 진행 인력 수요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틈새 수요는 전통 의례 이해와 외국인 응대 역량을 갖춘 일부 인력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불안정성과 역할 세분화에 따른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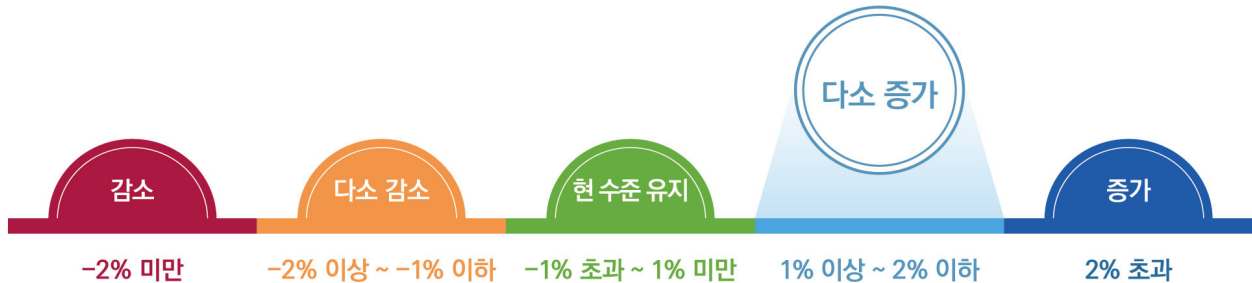
혼례 종사원은 행사 단위의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낮고 연간 소득 변동 폭이 크다. 국가자격체계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 인력이 지속 유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예식 진행 보조원’, ‘폐백 도우미’, ‘웨딩 도우미’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 위기 대응, 의상·의례 지식 등 직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유지에 유리하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재혼·국제결혼 수요 증가	• 청년 인구 감소와 혼인 건수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전통 혼례·틈새 시장 수요, 맞춤형 예식 서비스 강화	• 비혼주의 문화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 외국인 서비스 수요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예식 진행 역할의 필요성과 역할 세분화에 따른 틈새 수요 존재	•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불안정성 •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공급 과잉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가자격체계 부재에 따른 경쟁 심화

2023년 작성, 2025년 수정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장례 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5%로 예측된다.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은 고인의 장례 절차를 계획·운영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장례 지도사는 유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 전반을 기획·주관하고, 시신 관리(염·입관·보존처치)와 의전, 장지·화장·봉안 연계를 포함한 현장 운영을 총괄하며, 장례 상담원은 의뢰인의 사전·사후 상담을 통해 장례 방식·절차·비용을 안내하고, 상황에 맞는 상품·서비스를 제안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들 직업의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할부거래법」 등 상조 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형·건전 사업자 중심의 채용 안정화, 국가자격제도 정착과 관련 학과 확대에 따른 직업 위상 개선과 신규 채용 과정에 청년 유입이 많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웰다잉(Well-dying) 인식 확산과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의 정착이 더해지며 임종 전 단계에서의 사전상담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도 일자리 증가 요인이다. 반면, 장례 문화의 간소화와 AI 등 디지털화는 이들 직업의 반복·단순 업무를 줄여 일자리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례 수요의 증가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의 일자리는 인구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24)에 따르면 2024년 말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필연적으로 늘게 되며, 이는 장례 서비스 수요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장례 산업의 장기적·안정적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대형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망자 수(명)	275,895	280,827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30,852	354,800	369,000 (추정치)

자료: 통계청,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장례문화·가치관 변화에 따른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의 역할 재편

웰다잉 인식의 확산은 법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장례 서비스의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가 통증 없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완화의료’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명의료(인공호흡기 부착, 심폐소생술 등)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정착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접근성 확대와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정착은 임종 전 장례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상담 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 도입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병원 사회사업팀·지자체 등록기관 등으로 상담 창구가 확대되면서, 말기 단계의 치료 목표 전환 대화가 제도권 안에서 일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임종 환경뿐 아니라 장례 방식(화장·봉안·자연장), 비용, 종교 의례 여부, 사망 후 행정 처리까지 임종 전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장례 상담 인력의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또한 화장 보편화와 자연장(수목장·산골 등) 확산은 장례의식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일정 관리, 허가 절차 등과 연계된 행정 업무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장례 의식의 간소화를 이끄는 동시에, 장례의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의 처리를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에 일임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례문화 간소화와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수요 재편

과거의 대규모 의전 중심 장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소규모 가족장과 자연장(수목장·잔디장) 등 간소화된 장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장례문화 간소화는 전통적 방식의 장례 예식에 비해 의전 운영 인력 수요를 일부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유가족의 맞춤형 장례에 대한 니즈가 커진 상황은 전문 상담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 장례 절차의 안내를 넘어 장지 선택, 보험·행정 처리, 심리적 안정 지원까지 수행하는 종합 컨설턴트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례 상담원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제도적 강화에 따른 상조업체 대형화

상조 계약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해 상조 회사의 최소 자본금 3억 원 규정이 최소 자본금 15억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영세 업체가 정리되고 대형화·건전화의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상조회사 중심의 안정

적이고 윤리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장 시설 확충, 자연장 확대, 불법 업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더불어, 가격·약관 공개와 환불·보장 범위 고지 의무 강화로 장례 상담원은 분쟁예방형 상담과 약관 이해 지원까지 맡게 되는 등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담·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재편

장례 산업에서는 온라인 부고, 모바일 접수, 전자 문서 처리, 디지털 추모관 등 디지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 장례 지도사와 장례 상담원이 상담·기획·유가족 지원 같은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장례의식 운영이나 유가족 대응처럼 사람의 판단과 섬세한 소통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워, 디지털화는 일자리를 직접 감소시키기보다는 직무의 비중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일부 영역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고 있다. 예약·상담 기록 기반의 고객 관리, 디지털 추모 서비스 운영, 장례 절차 안내의 표준화 같은 업무는 과거에는 없었던 영역으로,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낸 대표적 변화다. 이러한 흐름은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경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어, 해당 역량을 갖춘 인력은 역할과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인력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일부 업무가 줄어들 수 있어, 장례의식 운영을 중심으로 한 장례 지도 업무와 장례 절차 상담·행정 안내 업무 간에 직무가 더욱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 직업 이미지 변화와 산업 특성에 기인한 업무 재편

전문 자격 제도의 정착과 관련 학과 확대,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은 기존의 '장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장례 지도사와 장례 상담원을 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입직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장례 인프라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형 병원 부설 장례식장은 상시 수요가 발생하여 관련 인력과 서비스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집적 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도시권에서는 장례 지도사·장례 상담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인력 공급도 비교적 원활하다. 반면, 화장장과 봉안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 장례식장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 한 명이 상담·의전·행정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등 직무 운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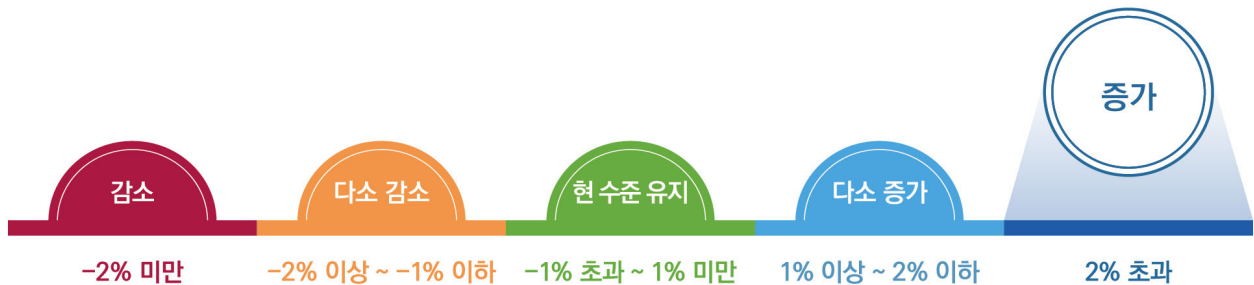
장례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을 필요로 하므로 교대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정 수준의 필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여러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배경이 된다. 이는 향후 장례 지도사·장례 상담원의 직무가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장례문화 간소화에 따른 대규모 의전 수요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가족장·자연장 확산으로 맞춤형 상담 수요 증가 - 웰다잉 확산, 호스피스·연명의료 정착에 따른 사전상담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AI·IT 기술 활용으로 일부 단순 행정 업무 축소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과 무관한 기본 수요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대형 장례식장 중심의 안정적 고용 구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24시간 교대제 운영에 따른 상시 인력 수요 - 숙련 인력 수요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할부거래법」 자본금 요건 상향에 따른 산업 안정화 - 정보공개·표준약관 강화로 준법·분쟁예방형 상담 확대 「장사법」상 장사시설 확충·관리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반려동물미용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반려동물미용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2.4%로 예측된다.

반려동물미용사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을 깎고, 씻기고, 피부를 관리해주는 일을 한다.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것을 넘어 털과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생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확산과 1인 가구·딩펫(맞벌이 무자녀를 뜻하는 DINK와 Pet의 합성어) 가구의 증가, 노령 반려동물의 건강·피부 관리 수요 증가, 고양이 전문 미용 등 반려동물 미용 산업의 시장 세분화와 서비스 다변화는 반려동물미용사의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수도권외의 과밀 경쟁, 셀프 미용, 가정용 장비 보급은 이들의 일자리 증가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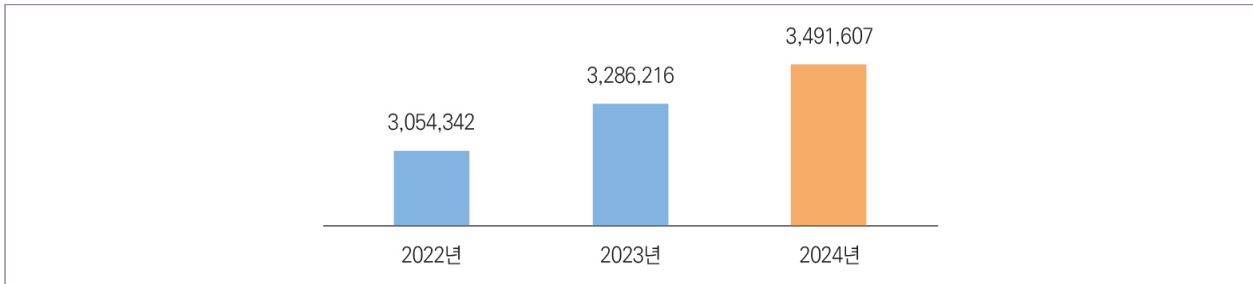
반려동물미용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와 반려동물 미용 수요 증가

반려동물미용사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가장 큰 동력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인 가구,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무자녀), 고령층의 증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과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의 반려동물 보고서(2023)」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정서적 동반자로서, 고령층은 건강·활동성 유지의 매개로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용을 위생 관리의 필수로 여기고 정기적으로 지출한다. 특히 털갈이·피부질환 관리가 중요한 장모·이종모 견종과, 스트레스 관리가 까다로운 묘종 비중이 커지면서 기본 관리부터 품종 특화 스타일링까지 주기적 방문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딩크족은 자녀 양육에 들어갈 비용을 반려동물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펫 딩크’ 가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소비 경향은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의 프리미엄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인구구조의 특성에 따른 반려동물 미용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반려동물 미용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도별 동물 누적 등록 현황

(단위: 마리)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연도별 반려동물 영업 현황

(단위: 개소, 명, 비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용업	업체수	7,271	8,222	8,868	8,404	10,172
	증감(전년비, %)	▲ 14.5	▲ 13.1	▲ 7.9	▼ 5.2	▲ 21.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고령 반려동물 증가와 펫 휴머니제이션 확산에 따른 틈새 수요 증대

수의학·영양학 발달과 예방의료 확산으로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면서 노령견·노령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안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령 동물은 저자극 제품 선택, 피부·관절을 배려한 미용 동선, 건식·부분 세정 등 시술 중 세심한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무마취·저소음·단시간 프로토콜을 지향하는 고양이 전용 미용, 공격성·불안 행동이 높은 반려동물의 핸들링, 피부질환·알레르기 케어형 미용 등 반려동물 미용업의 세분화된 전문 기술,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미용을 넘어 반려동물의 건강·행동·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숙련 미용사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숙련된 인력 중심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포화, 체인점 형태의 전문숍과 대형 업체 증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수도권·핵심 상권은 이미 포화에 가까워 반려동물 미용실 창업 시 가격 경쟁·마케팅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신도시·외곽·지방 중소도시나 고양이가 전용 미용이나 병원 협업형 미용숍 같은 틈새 업장은 성장 여지가 남아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미용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체인점 형태의 전문숍과 대형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대형 체인은 교육·복지·경력 경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신 표준화된 업무 비중이 높고, 소형 독립 샵은 창의적 스타일·단골 기반으로 수익 잠재력이 있으나 반려동물미용사 개인의 역량 의존도가 큰 특징이 있다.

가정용 미용도구 사용 확산으로 인한 일부 일자리 감소

가정용 드라이룸·클리퍼·셀프워시 스테이션 보급은 일상적인 위생 관리의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 빈도를 낮추

어 반려동물미용사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스타일, 묘 미용,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대응 등 숙련이 필요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한 전문 살롱은 이용 단가가 높고 재방문율도 높아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직무 역량의 요구와 일자리 재편

예약·결제 플랫폼, e-CRM(고객관리), SNS 사용후기 시스템의 보편화로 신규 고객 유입 경로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반려동물미용사는 미용 기술뿐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또 다른 직무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물보호·소비자 권리 인식이 높아지며 시술 중 상해·감염·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분쟁이 공론화되고, 지자체·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설명서 보급, 사전 동의·기록 관리 권고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반려동물미용사는 시장의 포화와 경쟁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품질 표준화가 일자리 안정 유지에 기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미용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생 관리와 안전 규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반려동물미용사에게 법적·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반려동물 미용 분야의 국가자격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대학·직업훈련·민간자격을 통한 인력 양성이 활발한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위생·감염관리, 피부·행동 기초, 응급대응, 법·윤리,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표준 운영 절차 도입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자격제도의 정착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편차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반려가구·1인 가구 증가	• 수도권 포화로 신규 창업·고용 여지 축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펫 휴머니제이션 • 노령 반려동물 증가로 전문 미용·위생 관리 수요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 가정용 장비, 셀프 미용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 반려동물 미용이 필수 관리라는 인식 정착으로 경기 변동에도 기본 수요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체인·병원 협업형 숍 증가로 고용 안정성 유지	• 가격 경쟁 심화로 영세 숍의 수익성·고용 여력 악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대학·직업훈련·민간자격제도 안정화에 따른 과잉 인력 공급 • 대도시 과밀·신규 진입 과다로 입직 경쟁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동물보호·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표준약관·설명서 보급 등으로 신뢰 제고, 재방문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여행상품 개발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상품 개발자는 관광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일정·숙박·교통 등을 조합하여 상품화한다. 이들은 국내외 여행지의 특성과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고, 현지 업체와 협력해 상품을 구성하며, 가격 경쟁력과 차별성을 고려해 여행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패키지 여행을 넘어 체험형, 소규모 맞춤형, 테마 중심 여행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고용 규모의 뚜렷한 확대보다는 일정 수준의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 액티브 시니어의 확대,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은 여행 수요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더하여, K-컬처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여행 수요 확장도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여행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 여러 OTA와 항공사, 호텔의 가격 정보를 한 화면에서 모아 보여주고 비교해주는 '메타서치(Meta-Search)', AI 추천 기술의 발달 등은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기획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고 창의적인 맞춤형 여행 중심의 기획에 대한 수요는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는 증가 요인과 위협 요인이 공존·상쇄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 확대에 따른 안정적 수요 유지

가구구조 변화는 여행 수요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1인 가구는 자기중심·취향 지향형 소비를 하며 안전과 개별 맞춤 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 후 출생률이 급증했던 시기(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여행 시장에 대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고객이고,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는 고가의 장기 테마 여행(느린 여행·웰니스·문화 체험)을 선호하며 여행 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수요는 공통적으로 성수기·주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되고 재방문·로열티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 여행상품의 내용 측면에서

는 건강과 동선에 무리 없는 일정, 의료·안전·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연령 친화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는 여행상품 개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행 업종의 종사자 수는 2015년 23만 5,604명에서 2019년 27만 6,44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2022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지만, 팬데믹이 종식(2023.5)되면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 좌석·호텔·현지 교통을 일괄 해결하는 기획형 상품이 재조명되었고, 국내 근거리·소도시·섬·산 등 대체 여행과 경험 기반 테마 여행 수요가 동시 확장되기도 하였다.

여행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 수	23,874	27,696	33,089	33,452	33,325	32,015	33,553	35,007	38,712
종사자 수	235,604	261,978	280,270	267,561	276,447	191,524	195,280	198,626	217,121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워라벨 문화 확산에 따른 여행 가치관 변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인식이 확산하며 짧고 잦은 여행,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기획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경험의 질을 극대화하는 근거리·단기·경험 중심 여행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개발자는 체류 동선 압축, 핵심 포인트 선별, 통합 예약 확정(여정 구성요소를 동시에 확보·결제·확정하는 운영 방식) 등 운영 설계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소도시 생활 체험, 로컬 클래스·공방·마켓 방문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테마 여행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상담·기획·운영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는 현 수준 유지 또는 완만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K-팝·드라마·게임·뷰티 등 K-컬처의 파급력은 테마형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조와 맞물려 공연 관람, 인기 촬영지 방문, 굿즈 구매, 로컬 특화 코스 투어 등 콘텐츠 연계 상품이 활발해졌고,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으로 방한과 재방문이 함께 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외국어 능력, 문화 이해, 콘텐츠 결합 기획력을 갖춘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며 여행상품 개발자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준화된 기획 업무 축소, 전문화된 기획 업무 수요 증가

여행자는 여행 동선 추천, 가격 알림 서비스, 후기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계획(DIY: D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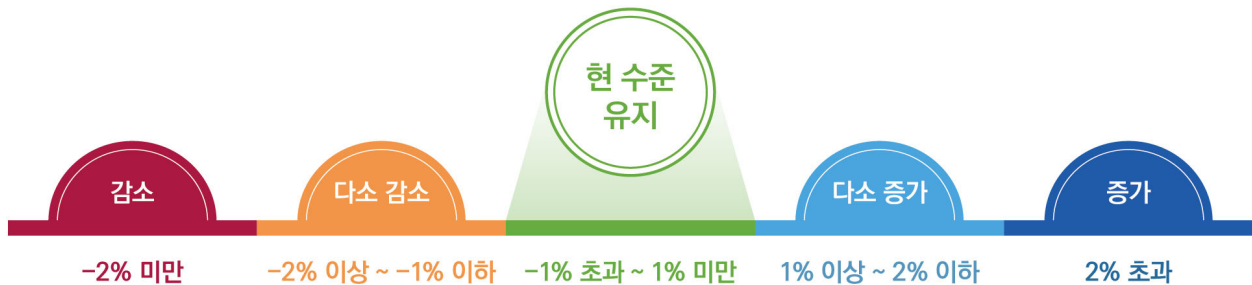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Yourself)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는 ‘카탈로그형 기획’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플랫폼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반면, 환승·연결 최적화, 성수기 재고 확보, 악천후·결항 대비처럼 제약이 많은 여정에서 위험을 미리 가정하고 대체안을 설계하는 ‘컨설팅형 기획’ 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 고객은 비용 통제에 더해 ESG 목표와 출장자 보호(듀티 오브 케어)를 중시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 이동수단·접근성·윤리 조달을 고려하고, 보험·비상연락망·현지 규정 준수를 갖춘 안전체계를 마련하며, 결항·파업·악천후에 대비한 대체 일정을 함께 설계한다. 또한 대면 핵심 세션에 원격 참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와 짧은 기간에 회의·현장 방문을 집중 배치하는 고밀도 일정이 자리 잡으면서 기업 전담 기획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여행상품 개발자의 일자리 수요는 총량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 자동화라는 일자리 감소 요인과 고도화된 맞춤형 기획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요인이 상쇄 작용을 일으키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확대와 액티브 시니어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밸 확산과 경험 중심 여행 수요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 OTA·메타서치·AI 추천 고도화에 따른 표준화된 기획 업무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ESG·안전·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B2B 전담 기획 수요 확대 및 하이브리드 행사·소규모 고밀도 일정 정착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테마·콘텐츠 연계, 로컬 특화 상품 확대에 따른 차별화 기획 수요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여행 사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여행 사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여행 사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여행 사무원은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추천·판매하고 여행 관련 예약·발권 업무,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한다. 여행 사무원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층의 증가, '워라벨' 가치관의 사회 전반 확산, K-컬처 인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있다. 반면, 일자리 감소 압력도 존재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메타서치(Metasearch: 여러 OTA 및 항공사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여 최저가 검색을 돕는 서비스), 항공·호텔 앱, AI 챗봇의 고도화는 표준 예약, 항공권 발권, 단순 환불, FAQ 안내 등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를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고객이 직접 처리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사람의 판단과 개입이 필수적인 전문 업무(복잡한 상황 대응, 기업 출장·MICE 지원, 특정 고객층 응대, 다채널 유통 관리 등)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행 사무원의 일자리는 자동화 및 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 감소 요인과, 복잡한 상황 대응, 기업 출장·MICE 지원, 특정 고객층 응대, 다채널 유통 관리 등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 증가 요인이 서로 상쇄하며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사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라벨 인식 확산과 여행 수요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인식이 확산하며 짧고 잦은 여행,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기획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경험의 질을 극대화하는 근거리·단기·경험 중심 여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반려동물 동반, 소도시 생활체험, 로컬 클래스·공방·마켓 방문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테마 여행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는 주말·연휴·성수기에 문의와 변경·취소, 바우처 발급, 현지 확인 콜이 집중됨을 의미하며, 이를 응대할 교대·탄력·파트타임 편성이 동반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계 상황은 인력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행 업종의 종사자 수는 2015년 23만 5,604명에서 2019년 27만 6,44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2022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지만,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 수	23,874	27,696	33,089	33,452	33,325	32,015	33,553	35,007	38,712
종사자 수	235,604	261,978	280,270	267,561	276,447	191,524	195,280	198,626	217,121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 확대에 따른 안정적 수요 유지

가구구조 변화는 여행 수요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1인 가구는 자기중심·취향 지향형 소비를 하며 안전과 개별 맞춤 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 후 출생률이 급증했던 시기(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여행 시장에 대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고객이고,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는 고가의 장기 테마 여행(느린 여행·웰니스·문화 체험)을 선호하며 여행 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수요는 공통적으로 성수기·주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되고 재방문·로열티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 여행상품의 내용 측면에서는 건강과 동선에 무리 없는 일정, 의료·안전·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연령 친화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는 여행 사무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K-팝·드라마·게임·뷰티 등 K-컬처의 파급력은 테마형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조와 맞물려 공연 관람, 인기 촬영지 방문, 굿즈 구매, 로컬 특화 코스 투어 등 콘텐츠 연계 상품이 활발해졌고,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으로 방한과 재방문이 함께 늘고 있다. 콘텐츠 연계 여행상품 일정은 공연 일정, 굿즈 구매, 촬영지 이동 등 시간 제약이 크고 현장 변경이 잦은 특징이 있다. 또한 외국인 고객은 비자·결제·교통·통신(eSIM)·환급 등 실무 질문이 많고, 무장애 이동(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아 동반 등 접근성 안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담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수기, 이벤트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외국어 역량 보유자 중심으로 여행 사무원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AI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축소

최근 플랫폼과 AI 기술의 발전은 여행 사무원의 업무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동발권·자동환불, 요금·좌석 추천, 간단 변경·취소의 셀프 서비스화가 보편화되면서, 과거 창구·콜센터에서 사람이 처리하던 규칙 기반의 반복 업무가 시스템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 노선 재검색, 요금 규정 범위 내의 단순 날짜 변경, 호텔 바우처 재발급, 수하물 규정 안내 등은 이제 봇이나 시스템 워크플로우로 흡수되어 고객 스스로 처리하거나 챗봇이 1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콜센터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챗봇·자동응답시스템(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이 1차 문의를 선별하고 상담원은 예외 처리·확인·품질 점검 위주로 업무가 재편된다. 이로 인해 단순 창구 인력의 필요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동화는 여행 사무원의 일자리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예외 상황 발생이나 미세 규정 적용 등과 같이 자동화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하는 영역에는 여전히 인간의 검토와 개입이 필요하므로, 시스템에 의한 완전한 대체보다는 업무 범위의 축소에 따른 일자리 일부의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체 여행 고객의 대면·전화 상담 수요 및 전문성 유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고령층, 학교·학회·동호회, 종교·친목 단체 등 특정 고객층에서는 여전히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단체 고객들은 개인 여행객과는 다른 복합적인 요구사항과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세심한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 역량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들을 위한 여행 수요는 대규모 객실 블록 확보, 까다로운 룸·시트 배정표 작성, 단체 할인 요금 협상 및 계약서 관리, 보증금·중도금·잔금의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 여행 동의서 취합, 단체 보험 가입, 인솔자 체크리스트 작성 등 일반 개인 여행객에 비해 문서 작업 및 행정 업무의 비중이 훨씬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고령자 건강 문제, 구성원 특성별 맞춤 서비스 관리, 종교적 규율 준수, 비상 상황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처 및 해결 등 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휴먼 터치가 필수적인 영역이 많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사항과 다수의 인원을 한 번에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여행 사무원의 숙련된 경험과 대면·전화 상담을 통한 인간적인 소통 능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체 여행 시장은 여행 사무원의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웃소싱(BPO) 확대에 의한 일자리 재편

24시간 연중무휴(24/7) 커버리지, 다국어 응대, 성수기 급증 콜 등 많은 인력과 높은 인건비 부담이 큰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단순 변경·취소 접수, 문서 업로드 확인, 티케팅 보조와 같은 루틴성 콜 및 백오피스 업무는 BPO(업무처리 아웃소싱)를 통해 국내외 외부 전문 센터로 이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여행사 본사의 직접 고용 인력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해외 원격 센터로의 이전은 국내 여행 사무원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행사의 국내 지점이나 내부 콜센터는 상담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 현장 이슈에 대한 심화 보고 및 해결, 서비스 품질 관리(QA), 감사, 표준 스크립트 운영 및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BPO 활용은 단가 절감 및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웃소싱된 센터의 서비스 품질 유지, 고객 개인정보 보호, 결제 보안 등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여행사 내부에서 책임지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축소에 따라 줄어든 인력 중 일부는 품질 관리, 감사, 교육 담당 등 감독·거버넌스 직무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 복잡하고 특수한 업무 처리 역량 보유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행 사무원의 복잡하고 특수한 업무 처리 역량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항공 결항·지연·파업·천재지변 등 비정상 운항(IROPs) 상황에서 규정에 맞춰 대체편을 재배치·재발권하고 환불, 바우처 처리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으며 운임·수수료·최소연결시간·수하물·좌석 등 세부 규정 해석과 현지 교통·체류 연장 조정 등 자동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처리할 수 있는 숙련된 여행 사무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LCC와 정기편을 섞은 복합 여정, 별도 발권을 묶은 일정 (Separately Ticketed Itinerary: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서로 다른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발권하여 연결하는 방식), 목적지 변경·비자 재확인, 전 과정 통합 관리, 분쟁 예방 등 고난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먼 터치’와 규정 해석 능력, 그리고 유연한 대처 역량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공공기관·학회의 출장 및 MICE 행사 수요 확대에 따라 ESG 목표 반영 및 출장자 보호(듀티 오브 케어) 등의 정책 준수 능력, 비용 통제 능력, 대면 세션에 원격 참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행사 등 짧은 기간에 쟁취해야 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 기획자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운영·정산·준수 측면에서 완결시키는 역량을 보유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 여행업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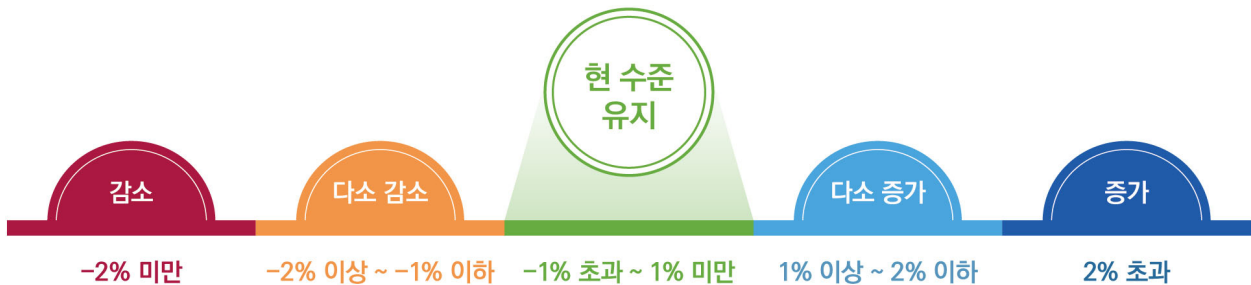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여행업의 유통구조는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항공사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와 직접 채널, OTA(Online Travel Agency), 메타서치(Metasearch: 여러 OTA 및 항공사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여 최저가 검색을 돕는 서비스)가 혼재하는 다채널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좌석 지정·수하물·기내식·우선탑승 등 부가 서비스가 분절 판매되며, 상품 조회·비교·발권·정산 과정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건당 업무 처리의 난도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 사무원은 여러 시스템을 아우르는 톨 사용 능력, 채널별 절차 차이를 반영한 스크립트(운영 매뉴얼 및 고객 안내 사항) 작성 및 수정 능력, 중복·누락·이중 결제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요금·세금·수수료 구조 업데이트 능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더불어, 채널이 분리되면서 승객 기록 또한 분산되어 보고체계 및 데이터 통합 관리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역량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업 전반에 걸친 유통구조 변화는 여행 사무원의 업무를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에서 고도화된 전문 영역으로 재편하고, 다채널 환경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복잡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액티브 시니어 증가 • 고령층·단체 고객의 대면 상담 지속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밸 확산에 따른 여행 수요 •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비정상 여정·복합 여정·규정 해석 등 전문 상담 수요 확대	• OTA·AI 자동화로 인한 일부 업무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기업 대상 전담 백오피스(정책 적용·정산·리스크관리) 운영 수요 증가	• 아웃소싱(BPO)에 따른 단순 창구·콜센터 업무 국내외 이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NDC·다채널 유통으로 인한 복잡성 증가로 전문 인력 수요 증가	
환경과 에너지·자원	• 기업 고객 중심으로 ESG 목표 반영 운영 절차 도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관광 서비스 종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8%로 예측된다.

관광 서비스 종사원은 국내외 개인·단체 여행객에게 교통·숙박·편의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며, 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미술관·박물관 안내원, 전시·시설 견학 안내원, 문화관광·자연 환경해설사 등을 포함한다. 근무 장소는 여행사,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공공·문화기관, 박람회·전시시설, 자연 공원·산림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군으로, 자동화로 인한 단순 업무 감소 압력과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여 일자리 총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층의 증가는 연중 분산된 맞춤형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하며, 대면 소통과 세심한 안내가 가능한 현장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워라벨 인식 확산은 짧고 잦은 여행, 테마형·경험 중심 여행을 늘려 현장 체험 및 해설 수요를 증대시킬 여지가 크고, K-컬처 인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다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 역량을 갖춘 전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 감소 압력도 존재한다. AI 음성 안내, 스마트폰 앱 해설(AR/VR 포함),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정보 전달 위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며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라벨 인식 확산과 경험 중심 여행 수요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짧고 잦은 여행,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기획이 일상화되었다. 소비자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경험의 질을 극대화하는 근거리·단기·경험 중심 여행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듣는 것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소도시 생활체험, 로컬 클래스·공방·마켓 방문 등과 같은 생

활밀착형 테마 여행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현지 가이드 등 관광 서비스 종사원에게 차별화된 스토리텔링과 현장 경험 제공 역량을 요구한다. 특히 주말·연휴·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은 교대·탄력 근무 및 전문 인력 편성을 동반하여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행 및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는 2015년 23만 5,604명에서 2019년 27만 6,44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2022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지만,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 수	23,874	27,696	33,089	33,452	33,325	32,015	33,553	35,007	38,712
종사자 수	235,604	261,978	280,270	267,561	276,447	191,524	195,280	198,626	217,121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 확대에 따른 안정적 수요 유지

내국인 시장의 가구구조 변화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의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형성한다. 1인 가구는 자기중심·취향 지향형 소비를 하며 안전과 개별 맞춤 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에서 개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해설이나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전쟁 후 출생률이 급증했던 시기(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여행 시장에 대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고객층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는 느린 여행이나 웰니스·문화 체험 여행과 같은 고가의 장기 테마 여행을 선호하며 여행 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고객층은 공통적으로 성수기·주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된 수요를 만들며 재방문·로열티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건강과 동선에 무리 없는 일정, 의료·안전·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연령 친화형 안내 및 해설을 요구하므로, 숙련된 현장 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1인 가구·베이비붐 세대·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는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가치 중심 및 맞춤형 관광 확산과 전문 인력 수요 증가

최근 관광 트렌드는 획일적인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와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심신 회복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관광,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현장 안내원이나 해설사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여행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치 전달자’이자 ‘안전 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둘째, 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특화된 맞춤형·테마형 및 특수 목적

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획일적인 패키지 여행 대신 캠핑, 트레킹, 특정 문화유산 심층 탐방, 특정 지역 음식 투어, 산업 시찰, 도예나 사진 촬영 등 취미 연계 투어 등 세분화된 테마를 가진 여행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여행은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경험, 소규모 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일정 관리 능력 등을 관광 서비스 종사원에게 요구한다. 현장 안내원이나 해설사는 이제 특정 분야의 여행 전문가로서 고객의 깊이 있는 탐구 욕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보유한 종사원은 시장 변화 속에서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직업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K-팝·드라마·게임·뷰티 등 K-컬처의 압도적인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테마형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조와 맞물려 공연 관람, 인기 촬영지 방문, 굿즈 구매, 로컬 특화 코스 투어 등 콘텐츠 연계 상품이 활발해졌고,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으로 방한과 재방문이 함께 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연계 여행상품 일정은 공연 일정, 굿즈 구매, 촬영지 이동 등 시간 제약이 크고 현장 변경이 잦은 특징이 있다. 또한 외국인 고객은 비자·결제·교통·통신(eSIM)·환급 등 실무 질문이 많으며, 무장애 이동(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아 동반 등 접근성 안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담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성수기나 이벤트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외국어 역량 및 문화 이해 역량을 보유한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현장 안내/해설 업무의 재편

최근 플랫폼과 AI 기술의 발전은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업무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AI 음성 안내, 스마트폰 앱 해설(AR/VR 포함),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정보 전달 위주의 업무는 효율성이 증대되어 직접적으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광지 역사 정보, 시설 이용 안내, 간단한 길 찾기 등은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되거나 고객이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내국인 국내 여행에서 정보 전달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던 현장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기존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직무를 재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종사원은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내의 질을 높이는 한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교감’이나 ‘심층적인 경험 제공(예: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보 제공,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 변화와 전문 안내원의 역할 재편

AI 및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도 해외여행은 언어 장벽, 현지 교통 연결 등 이동의 복잡성, 항공 지연, 안전 문제, 현지 질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외여행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에서는 전문 여행 안내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단체 고객을 전담하는 여행 안내원의 업무는 인솔, 안전 관리, 현장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대처, 고객과의 감성적 교류 및 불편 사항 해결 등 여러 필수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얹혀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경험을 형성해야 하는 ‘총체적 관리’가 직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만을 떼어내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행 안내원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AI 및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와 일자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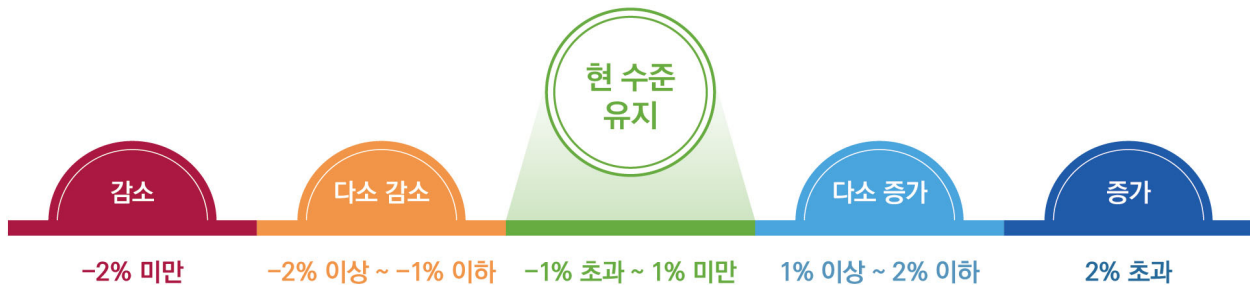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 정책은 산업 진흥 지원과 서비스 전문성 및 품질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관광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및 ‘K-관광 로드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를 설정하며 비자 발급 간소화, 스마트 관광 기술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연쇄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등 현장 서비스 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2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확대 및 숙박·체험 바우처 확대 등 소비 진작 정책은 국내 방문 외국인의 여행 수요를 일부 견인하며, 이는 관광 서비스 종사원 인력 수요를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제도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아카데미’,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종사원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질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Q)’ 등 서비스 품질 관리 기준 유지 요구는 중소 규모 관광 사업장에 인력 운용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기존 경력자 위주의 고용 시장을 형성하여 산업 전체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고 인력 재편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액티브 시니어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밸 확산으로 경험 중심 테마 여행 수요 확대 •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전문 안내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심층 해설, 스토리텔링, 위기 대처 등 '휴먼 터치' 기반 전문 서비스 수요 확대	• AI/디지털 안내 시스템 확산으로 단순 정보 전달 및 정형화된 안내 업무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지속 가능한 관광, 안전/웰니스, 맞춤형/테마형/특수 목적 관광 확산에 따른 전문성 요구 확대	
환경과 에너지·자원	• 지속 가능한 관광 가치 전달 및 안전 관리 중요성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비자 간소화, 스마트 관광, 콘텐츠 확대 등) •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자격 제도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2025년 작성

항공기 객실 승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행 전 기내 시설 및 비상 장비 점검, 기내 용품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륙 후에는 식음료 및 면세품 제공, 엔터테인먼트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국 서류 작성 안내, 비상 상황 시 비상 탈출을 포함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운항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도 처리한다.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 팬데믹 이후 항공 여행 수요의 회복, 신규 노선 확장 및 저가 항공사(LCC)의 성장이 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기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규모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여행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풀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다양해진 여가 생활과 호캉스 확산, 연령대별 여행 선호 변화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은 항공 여객 수요의 증가 폭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은 객실 승무원 업무를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지만, 안전 관리 및 인간적 교감과 같은 영역은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완전 대체 불가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 산업의 회복 국면, 인구구조 변화, 여가 선호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는 양적으로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요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 산업 회복과 객실 승무원 수요의 성장 한계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항공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의 「항공기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대수는 2019년 853대에서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 806대로 감소했다가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4년에는 865대를 기록하며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생 저가 항공사(LCC)의 등장과 국내 지방과 해외 간 노선 추가, 그리고 신규 항공기 도입 및 기단 확충 역시 객실 승무원 신규 채용의 기회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 항공정보포털 시스템 자료를 보면, 내국인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2015년 1만 655명에서 2019년 1만 4,178명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엔데믹 이후인 2024년에는 1만 5,298명을 기록하며 회복 기조로 돌아섰다. 다만, 이러한 회복세는 팬데믹 기간의 극심한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강하며, 이미 상당 부분 확대된 항공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처럼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소비 현상으로, 반등 이후 수요가 정상화·세분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 여행의 경우 KTX, SRT 등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가용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제주 노선을 제외한 내륙 노선의 항공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국내선 항공 여객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도별 항공기 수

(단위: 대,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수	724	760	796	834	853	826	806	818	840	865
증가	69	36	36	38	19	-27	-20	12	22	25
증가율	10.5	5	4.8	4.8	2.3	-3.2	-2.4	1.5	2.7	3

주: 항공기 수는 민간 항공기와 공공기관 항공기 수를 합한 숫자임

자료: 항공기기술정보시스템(ATIS), 「항공기 등록현황」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확보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내국인	10,655	11,918	12,385	12,856	14,178	13,636	13,373	13,079	13,576	15,298
외국인	701	816	696	548	524	346	173	117	60	342
계	11,356	12,734	13,081	13,404	14,702	13,982	13,546	13,196	13,636	15,640

자료: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기 등록 현황」(각년도)

인구구조 변화 및 연령대별 여행 선호 변화에 따른 항공 여행 수요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여행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2030년대 이후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와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는 여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수요 풀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가족 단위 해외여행 수요 증가 폭을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조사」(2024)에 의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건강상의 제약과 장시간 이동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인해 장거리 해외여행보다는 짧은 국내여행이나 단거리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일부 중장년의 경우 신체적 여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 더 이상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소위 ‘한계효용 체감’ 효과가 더해져 한국의 항공 산업 수요가 이전과 같은 급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액티브 시니어 확대에 따른 내국인 시장의 안정적 수요 유지

전술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취향 지향형 소비를 하는 1인 가구의 증가,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확대는 해외여행 시장의 주요한 소비자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층은 공통적으로 성수기·주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된 수요를 만들며 재방문·로열티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수요 그룹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고용을 급격하게 늘리기보다는, 전체 인구 감소 및 여가 다양화 압력 속에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 일자리가 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가 생활 다양화 및 항공 여행 수요 분산

소득 증가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짧고 잦은 여행,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기획이 일상화되는 한편, 여가 생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의 확산은 해외 항공 여행 수요의 증가 폭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24)에 따르면, 한국인은 여행 외에도 OTT 시청, 게임, 캠핑,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분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의 확산은 항공 여행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거리 해외여행의 시간, 비용, 준비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도심 속 호텔에서 쾌적하고 프리미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캉스는 해외 항공 여행의 매력적인 대체재 또는 경쟁재로 기능할 여지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캉스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필수적인 해외 항공 여행 대신 호캉스가 대체재로 일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

K-팝·드라마·게임·뷰티 등 K-컬처의 압도적인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테마형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조와 맞물려 공연 관람, 인기 촬영지 방문, 굿즈 구매, 로컬 특화 코스 투어 등 콘텐츠 연계 상품이 활발해졌고,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으로 방한과 재방문이 함께 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9년 1,750만 명을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감소 후 회복 중이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의 국제화를 가속화하며,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응대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역량과 국제적인 문화 이해 역량을 요구하는 기조로 이어진다. 국내에 취향하는 외국 항공사들도 해외여행자 증가에 발맞춰 현지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항공기 객실 승무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단순히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항공사의 얼굴이자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항공기 객실 승무원 채용은 대규모로 일자리를 확대하

는 방식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의 영향과 업무 재편

최근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객실 승무원의 업무 방식을 일부 효율화하고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내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In-Flight Entertainment)은 고도화를 거듭하며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연결, USB 충전 포트 등 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대한 콘텐츠와 도착지 정보 제공 등으로 승객의 비행 경험을 개인화하고, 승무원의 단순 응대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기내 Wi-Fi 확산과 모바일 기기 연동 기능(BYOD: Bring Your Own Device), 항공사 앱 기반의 서비스 요청 기능, AI 번역 기술 등이 더해지면서 승객이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기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담요·물품 요청이나 단순 안내처럼 반복적인 초기 응대 업무를 AI·디지털 시스템이 보조하게 함으로써, 승무원이 물리적 서비스 전달과 상황 대응 등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들의 기내 운영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통합·관리하려는 기조의 강화는 좌석 센서, 디지털 점검 시스템, 장비 상태 실시간 확인 장치, 모바일 연동 서비스 관리 도구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캐빈(Smart Cabin)’ 환경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캐빈 체계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에게 단순한 단말기 조작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와 디지털 기기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대응 역량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첨단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장비 종류와 기능 증가, 절차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따른 피로감이나 적응 스트레스(테크노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승무원이 늘고 있다는 현장 보고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 로봇이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좁고 흔들림이 존재하는 객실의 물리적 제약,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필수적인 항공 안전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승무원의 역할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AI·디지털 장비는 승무원의 반복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승무원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비상 상황 대응, 승객 안전 관리, 고객 경험(CX) 개선 등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직무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자리 재편

최근 사회 전반에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직무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시간 비행, 시차 적응,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 직무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결혼·출산 후 경력 단절이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근무 스케줄 조정, 휴식 보장 강화 등 항공사 내부의 제도 개선으로 결혼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가는 승무원이 점차 늘고 있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파일럿이나 항공정비사처럼 국가자격 제도로 관리되는 직종과 달리 국내에 국가 공인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민간 자격도 부재하다. 이 때문에 각 항공사는 채용 후 자사 기준에 맞춘

자체 훈련을 통해 승무원을 양성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직무의 본질이 항공기 운항의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승객 안전 관리, 비상 상황 대응, 고품질 휴면 서비스 제공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브랜드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한 인력 육성을 선호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이미 훈련을 마친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 인력을 재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경력직 선호 경향을 보이며 기존 인력의 잔류를 유도하는 편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사회에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 직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맞물리면서, 신입 채용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신규 일자리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최근 항공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직무 변화에도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탄소배출 저감, 기내 일회용품 축소, 분리수거 강화, 친환경 기내 서비스 운영, 지속가능성 관련 안내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서비스 과정에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승객에게 친환경 정책을 안내하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업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확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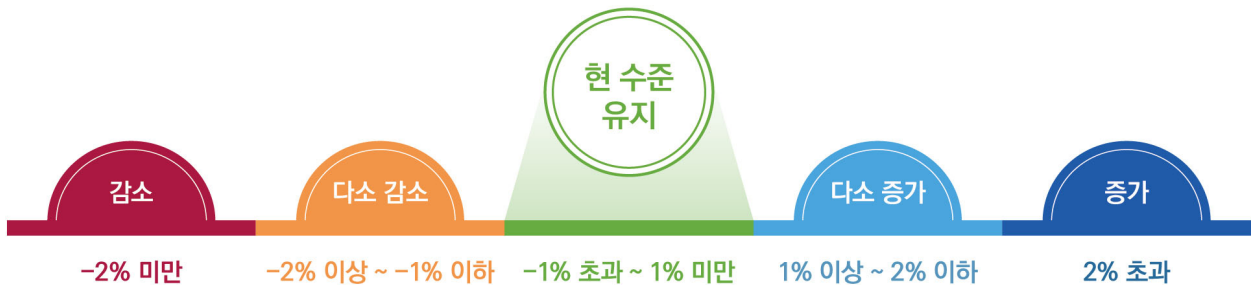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이러한 직무 특수성에 기인한 직무 환경의 복합적 변화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를 양적 재편보다는 질적 재편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숙련 승무원 중심의 고용 안정성은 강화되는 반면, 신규 입직자의 경쟁은 심화되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더욱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액티브 시니어 증가(맞춤형 서비스 수요)	- 총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축소 - 고령층의 장거리 해외여행 선호도 상대적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밸 확산으로 여행 수요 확대 -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여가 생활 다양화 및 호캬스 등 해외 항공 여행 대체 여가 활동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AI/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단순 정보 확인 및 요청 접수 업무 효율화
국내외 경기 변화	팬데믹 이후 항공 여행 수요 회복 및 산업 성장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신규 노선 확장 및 LCC 성장, 신규 항공기 도입	항공사의 숙련된 경력직 승무원 선호 경향과 신규 입직 희망자들의 노동 과잉 공급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내여행의 타 교통수단(KTX, 자가용 등) 경쟁력 강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은 페리, 크루즈, 유람선 등의 여객선이나 열차에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탑승 절차 지원, 객실 관리, 음식·음료 제공, 고객 안내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고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팬데믹 이후 이동 수요의 회복, 고속철도망 확장 및 친환경 동력분산식 열차 도입(KTX 이음, KTX 청룡), 크루즈 산업 등 해양 관광의 잠재력 확대는 이들 직업의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여객선 및 열차를 포함한 전체 이동수단의 수요 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양해진 여가 생활과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의 확산, '숙박 시설 중심의 경험'을 추구하는 '호캉스' 확산 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여행이나 이동 등 사람들의 활동성을 수요 기반으로 하는 이들 직업의 일자리 수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은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업무를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지만, 안전 관리 및 인간적 교감과 같이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의 본질인 이들 직업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회복 국면,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망 변화, 해양 관광의 성장 잠재력, 인구구조 변화, 여가 선호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는 양적으로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업무 내용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데믹 이후 이동 수요 회복에 따른 객실 승무원 수요 안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전반의 여객 수송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철도는 고속철도망 확장과 친환경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철도 여객 수송 인원은 2016년 1억 3,654만여 명에서 2019년 1억 6,35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억 238만여 명과 2021년 1억 1,310만여 명

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엔데믹 전환과 함께 1억 6,311만여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이용객 수에 근접했고, 2024년에는 1억 7,149만여 명으로 2019년 이용객 수를 넘어섰다. 한국철도공사의 보도자료(2025.4)에 따르면 전체 철도 이용객 중 KTX 이용객 비중이 2004년 18%에서 해마다 비율이 늘어나 2014년 42%, 2024년 62%, 2025년(3월 기준)에는 63%를 넘어섰다. 또한 2023년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KTX는 210km 이상의 이동거리에서 수송분담률 25.6%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중·장거리 통행에 있어 중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더불어, KTX-이음(EMU-260)과 KTX-청룡(EMU-320)과 같이 동력원이 각 객차에 분산되어 있어 가감속이 빠르고 효율적인 차세대 고속열차의 도입은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수송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3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 1,007만여 명을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1억 1,616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해선, 중앙선 등 신규 노선 개통과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또한 전반적인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철도망 확충과 신규 열차 도입은 열차 객실 승무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도 이용객 수송 인력의 경우 운영사의 인건비 절감 및 유연한 인력 운용 기조에 따라 정규직 승무원과 아웃소싱을 통한 비정규직(용역직) 인력의 고용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 수요 유지가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도별 철도 여객 수송 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	KTX	3,241,398	3,644,552	3,130,152	3,426,750	4,039,568	4,391,114	4,674,308
	SRT	726,163	639,143	614,055	666,621	734,755	761,712	684,311
	새마을	509,002	556,214	390,200	424,514	531,290	654,786	790,682
	무궁화	5,716,504	6,234,608	4,465,424	4,737,546	5,121,520	4,683,008	4,235,550
	통근	7,900	1,604	14,608	19,090	22,620	25,156	-
	정기소계	10,200,967	11,076,121	8,614,439	9,274,521	10,449,753	10,515,776	10,384,851
비정기	KTX	63,111,757	66,569,254	40,152,202	46,931,814	66,467,183	79,263,575	84,798,878
	SRT	21,961,033	23,329,335	16,537,622	18,895,991	23,367,192	25,650,079	26,005,745
	새마을	10,202,333	10,797,573	6,391,722	6,966,301	9,750,233	13,150,164	17,325,482
	무궁화	50,764,047	50,763,062	30,218,912	30,680,524	34,938,782	33,896,781	32,487,715
	통근열차	381,793	96,750	97,430	130,460	175,957	199,210	-
	기타	850,075	867,506	365,779	218,900	358,752	429,675	492,059
	비정기소계	147,271,038	152,423,480	93,763,667	103,823,990	135,058,099	152,589,484	161,109,879
합계		157,472,005	163,499,601	102,378,106	113,098,511	145,507,852	163,105,260	171,494,730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각년도) 재구성

해상교통의 경우, 크루즈 산업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26년 서울항 조성 계획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약 1,510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크루즈 항만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은 장기적으로 선박 객실 승무원

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박은 육상 교통 접근성이 제한적인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므로, 정기 여객선 운항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 선사 위주의 운영 특성상 국내외 경기 침체, 고유가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저가 항공사 등에 비해 이동 시간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측면은 선박 이용객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선박 이용객 수

(단위: 천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치, 1~10월)
이용객 수	15,500	15,700	16,200	16,000	10,500	12,800	14,000	15,100	13,000 이상

주: 2024년 잠정치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여객 수송실적」

인구구조 변화와 이동 수요 재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전반적인 교통수단을 망라한 이동 수요의 총량적 증가를 제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2030년대 이후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와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는 통근, 통학, 출장 등 열차의 정기권 이용객을 포함한 핵심 이동 수요 풀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한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의 잠재적인 국내 가족 단위 이동 수요 증가 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열차 및 연안 여객선의 특정 노선이나 시간대의 수요 성장 잠재력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속철도망 확장, 편리성, 정시성, 단위 수송량당 탄소 배출량이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기 동력을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친환경성이라는 강점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철도 객실 승무원의 일자리가 수요 총량 감소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조사」(2024)에 의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건강상의 제약과 장시간 이동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인해 장기간·장거리·해외여행보다는 이동거리가 짧은 국내여행이나 인근 지역 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령층의 이동 수요는 주로 자가용이나 버스 등 기존에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거리 이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가 운전의 어려움이나 쾌적한 이동 경험을 중시하는 일부 고령층에게 고속철도의 안정성과 편의성, 특정 연안 유람선이나 정기선의 특별한 이동 경험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 일부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술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는 별개로 자기중심·취향 지향형 소비를 하는 1인 가구의 증가,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확대는 선박 및 열차를 이용한 국내 운송 수요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고객층은 공통적으로 성수기·주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된 수요를 만들며 재방문·로열티 기반의 안정적 수요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일자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총량적 수요 감소 압력과 철도의 경쟁력 강화,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수요 창출이라는 상충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동 수요의 재편

소득 증가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짧고 잦은 여행,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여가 활동이 일상화되는 한편, 여가 생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선박 및 열차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 수요의 증가 폭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24)에 따르면, 한국인은 여행 외에도 OTT 시청, 게임, 캠핑,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분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는 여행지에서의 관광 목적보다는 숙박시설 내에서 머물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형태로, 한 장소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호캉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 팬데믹 종료 이후 이동 수요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캉스 문화의 확산을 포함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비용, 준비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일상 속에서 휴식, 재충전, 특별한 경험을 얻으려는 경향성의 강화는 선박 및 열차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수요를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방한 수요 증대

K-팝·드라마·게임·뷰티 등 K-컬처의 압도적인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테마형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조와 맞물려 공연 관람, 인기 촬영지 방문, 굿즈 구매, 로컬 특화 코스 투어 등 콘텐츠 연계 상품이 활발해졌고, 비자·결제·교통 편의 개선으로 방한과 재방문이 함께 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KORAIL)의 보도자료(2025.4)에 따르면 2024년 KTX를 포함한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2023년 344만 명에서 61% 증가한 약 554만 명(210만 명 증가)이었다. 2023년 방한 외국인은 1,637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꼴로 열차를 이용한 셈이다. 고속철도만 떼어놓고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속철도 외국인 이용객이 2024년 동기 대비 13.4% 급증(2025. 7 조선비즈)하며 한국 고속철도가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의 국제화를 가속화하며,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응대하는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역량과 국제적인 문화 이해 역량을 요구하는 기조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의 대규모 채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의 영향과 업무 재편

다른 직무나 직업에 비해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업무는 AI 및 로봇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모바일 기반의 승차권/승선권 발권 시스템, 디지털 안내 시스템, 일부 승객 편의 기능 등은 단순 정보 안내 및 초기 응대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박 및 열차 객실이 물리적으로 로봇이 승

객을 직접 서비스하기에 공간적 제약이 크고 흔들림이 있으며, 이들 직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인 비상 상황 발생 시 로봇이나 AI 탑재 시스템이 이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며, 승객의 안전 및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문의에 인간적인 공감과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역할 역시 기계가 아닌 인간 승무원이 해야 할 핵심 업무이다.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자리 재편

이와 함께 최근 철도·해운 산업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 경영이 강화되면서 객실 승무원의 역할도 확장되고 있다. 탄소중립, 전기동력·연료전환, 일회용품 절감, 자원 순환형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서비스 프로토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승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설명하는 업무가 객실 승무원이 담당하는 항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한 외래객 증가와 공항·항만 접근성 개선으로 외국인 승객의 열차·연안 여객선 이용이 늘면서,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는 외국어 능력, 문화적 감수성, 안전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국제적 서비스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AI 번역 기능이 이를 보조하더라도, 안전 관련 안내나 일대일 대응은 여전히 승무원의 직접적 소통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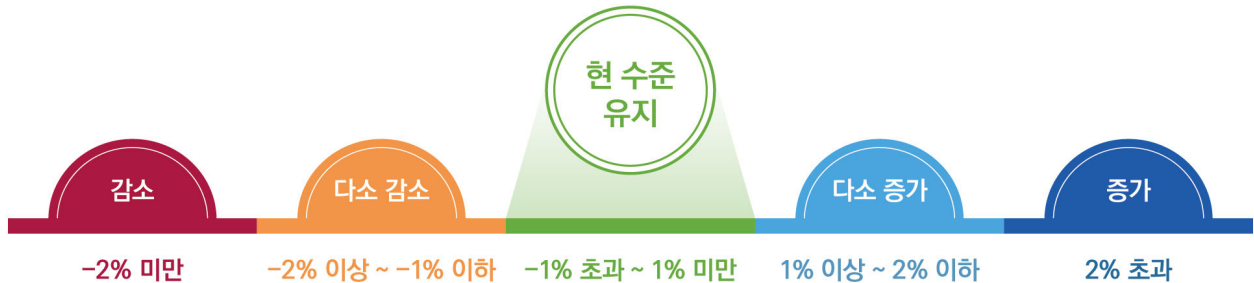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기술의 고도화는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여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최첨단 디지털 기기의 활용으로 절약된 시간을 승객의 안전 관리, 비상 상황 대응, ESG 대응, 국제 승객 지원 등 새로운 역할의 확장에 대한 대응과 인간 고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 액티브 시니어 증가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축소 -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단위 이동 수요 증가 둔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벨 확산으로 이동 수요 확대 -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여가 생활 다양화 - 이동 중심의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AI/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단순 정보 확인 및 요청 접수 업무 효율화
국내외 경기 변화	- 팬데믹 이후 철도 및 해상 이동 수요 회복 및 산업 성장 - KTX·청룡 등 고성능 열차 도입으로 수송 경쟁력 강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고속철도망 확장 및 신규 열차 도입 -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연안 관광 활성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속철도의 편리성·정시성으로 수송 분담률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정부의 관광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 친환경 교통 장려 정책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호텔, 리조트, 모텔, 민박 등 각종 숙박시설에서 고객을 영접하고 짐 운반, 시설 안내, 예약 확인 및 객실 배정, 체크인·체크아웃, 컨시어지 서비스 등 숙박 관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도어맨, 호텔벨맨, 호텔프런트사무원, 호텔컨시어지, 룸서비스맨 등이 포함되며, 고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 경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 이동 수요 회복, 워케이션(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겸하는 근무 형태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확산, 호캉스 문화 정착 등은 이들 직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고속철도 등 교통 편의성 증가에 따른 당일 여행 확산,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확산 등은 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공존하면서 상쇄 작용을 일으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유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데믹 이후 회복된 국내외 이동 수요와 복합적 영향

팬데믹 종식 이후 국내외 이동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숙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3년 방한 외국인 수는 약 1,103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 수준에 근접했다.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 방문에 대한 매력을 더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방한객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국인 시장에서는 ‘워케이션(Workation)’ 트렌드가 새로운 숙박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조사」(2023)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일과 여가를 결합하는 워케이션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숙박시설에서의 장기 체류 수요를 증대시키고 객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숙박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4. 상반기)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 및 숙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망 확장과 대중교통 편의성 증가는 과거 장거리 이동 시 필수적이었던 숙박을 당일 여행으로 대체하게 하여 숙박 수요를 잠식하고, 이는 이들의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팬데믹 이후의 일련의 변화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증감을 재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방문객 수	15,346,879	17,502,756	2,519,118	967,003	3,198,017	11,032,000	16,369,629

자료: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통계」

연도별 호텔 객실 이용률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객실 이용률	62.44	67.05	39.1	45.35	58.79	66.03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숙박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현대인의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숙박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과거 여행이 낯선 곳에서의 다이내믹한 액티비티나 유명 관광지 방문 위주의 경험에 집중했다면, 현대 사회의 가속화된 피로감과 디지털 연결의 스트레스는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진정한 쉼’과 ‘내면의 치유’에 대한 갈증을 키워왔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동 제한과 불안감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의 제약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활동적인 여행 대신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성찰’과 ‘치유’를 얻으려는 욕구,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소확행’ 트렌드를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속도와 경쟁에 익숙했던 한국 사회에 축적된 심리적 피로감과 맞물려, ‘힐링(Healing)’과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수요에 맞춰 숙박 서비스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도심 속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끽하며 지친 일상을 달래는 ‘호캉스(호텔+바캉스)’, 멀리 떠나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최소한의 이동으로 최대한의 휴식과 만족을 얻으려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나아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체험하며 단순한 숙박을 넘어 심신의 치유와 자기 성

찰을 제공하는 사찰의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23)에 따르면, 숙박을 동반한 여행에 대한 선호는 꾸준하며, 이는 프리미엄 서비스, 맞춤형 경험,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가심비)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과 맞물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에게 기존의 전통적 업무를 넘어서 섬세하고 개인화된 응대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력에게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의 여행 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증가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5.5%(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2만 7천 가구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연금연구원의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 소비 특성 연구」(2023)는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숙박 시장의 중요한 고객군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숙박 시장의 새로운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하는 1인 가구와 액티브 시니어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에 여러 방식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먼저, 국내 여행 시장의 주요 고객층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는 결혼이나 자녀 양육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여가와 취미에 투자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높아 ‘나 홀로 여행’, ‘솔로 이코노미’의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했으며, 이들의 여가 및 여행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1인 가구와 액티브 시니어 모두 다양한 숙박 형태와 고품격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고 독립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이들은 대규모 호텔보다는 부티크 호텔, 디자인 호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웰니스, 반려동물 동반, 미술 감상과 같은 특정 테마를 가진 소규모 숙박시설을 선호한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건강 관리나 특별한 체험(예: 건강 검진 연계, 문화 체험, 특정 취미 활동)이 가능한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호캉스’나 ‘스테이크이션’을 통해 도심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려는 수요도 높다. 이들은 개인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나 룸서비스 등 고품격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에게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응대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 인력보다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들 1인 가구와 액티브 시니어는 비수기 및 주중 수요 창출을 통해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성수기나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들은 시기에 덜 구애받고 연중 분산된 형태로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숙박시설의 연중 균형 잡힌 이용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성수기·비수기 간 고용 격차를 완화하여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늦은 시간 체크인·체크아웃 지원, 비상 상황 대응, 주변 안전 정보 제공 등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민감성이 특히 높아 AI나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고객 응대 서비스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면 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여행 및 숙박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2023)에 따르면 1인 여행객과 고령층은 비상 상황 시 인적 지원의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적 서비스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 및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재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협 요인이다. 키오스크,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체크인·체크아웃 시스템은 호텔프런트사무원의 핵심 업무인 접수, 등록, 결제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하며 인력 대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객실 내 AI 스피커는 고객의 정보 문의, 객실 제어, 룸서비스 주문 등 컨시어지 및 룸서비스 업무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서빙 로봇은 호텔벨맨과 룸서비스맨의 업무뿐 아니라 레스토랑·카페 등 식음료(F&B) 업장에서도 도입이 확산되며 고객 주문 전달·서빙·식기 회수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은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일부 직무에서는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보유한 인력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킴을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공감 능력,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섬세한 환대, 그리고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하는 고품격 감성 서비스는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기존의 전통적 업무 역할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높이 되 고객 관계 관리, 복합적인 문제 해결, 개인화된 최상의 경험 제공에 집중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일자리 재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숙박산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 전반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3)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3)에 따르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교대 근무 특성을 가진 직무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시설 서비스 직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 차이가 크고 주말 및 야간 근무가 많으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잦아, 워라벨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인난은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숙박업체들이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숙박시설 분야에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E-9)를 일부 적용(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에 한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허용 직종에는 직업분류상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향후 허용 직종 범위가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내국인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경쟁 심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숙박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은 숙련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자, 반대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외국인력 활용·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해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보다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의 영향

정부의 법·제도 및 정책 변화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관련 법규 개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정책 등은 숙박 수요를 촉진하여 고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단기 관광객의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이는 즉각적인 숙박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원격근로자(F-1-D) 비자’ 시범 도입은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어, 중·고가 숙소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안정적 숙박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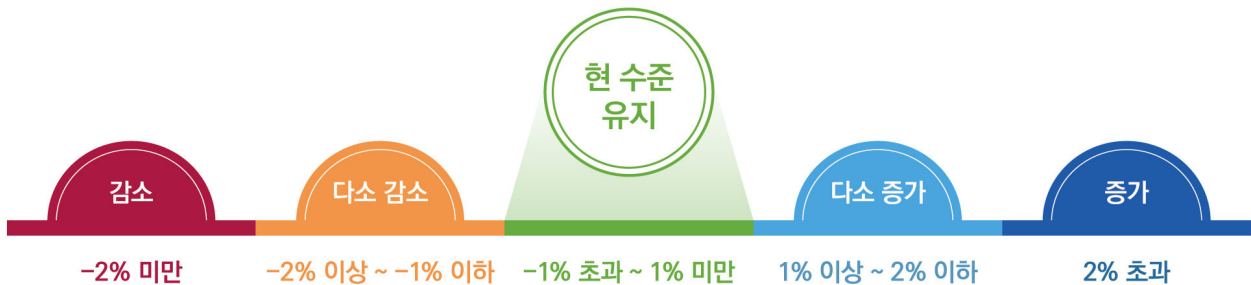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한편, 공유 숙박 플랫폼(예: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강화 논의는 기존 숙박시설의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는 고용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는 중소 규모 숙박시설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자동화 도입 가속화, 아웃소싱 확대, 인력 감축과 같은 경영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규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액티브 시니어의 숙박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호캉스/스테이케이션/템플 스테이 등 새로운 숙박 서비스 수요 증가	• 당일치기 여행 증가 • 여가 활동의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전		•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시스템 도입(프런트 업무 자동화), 객실 내 AI 스피커·스마트 기기 도입(안내/컨시어지/룸서비스 업무 일부 대체), 로봇 도입(집 운반/서빙 업무 일부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팬데믹 이후 국내외 이동 수요 회복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 고용 비중 증가, 무인 시스템 도입 가속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숙박시설의 ‘경험’ 중시 전환, 다양한 테마 숙박시설 증가(프리미엄, 웰니스 등)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관광 인프라 확충, 비자 발급 유연화 등)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1%로 예측된다.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오락시설에 설치된 오락용 승차 기구를 운전하거나 고객에게 운전 방법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래방, PC방, 게임방 등 다양한 오락 및 여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의 놀이기구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노래연습장),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오락적 성격이 강한 체육시설업(볼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포함하며, 고객에게 즐겁고 안전한 여가 경험을 제공하며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단, 골프장캐디, 카지노딜러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야외 활동 및 대면 오락 활동 수요의 회복, 고품질·프리미엄 체험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활동 중요성 증대 등은 이들 직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비대면·온라인 엔터테인먼트(OTT, 모바일 게임 등) 시장의 성장, 키오스크 및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핵심 고객층인 아동·청소년의 감소 등은 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전체적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데믹 이후 회복된 여가 활동 수요와 복합적 영향

팬데믹 종식 이후 억눌렸던 대면 여가 활동 및 야외 활동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23)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영화 관람, 스

포츠 활동, 유원지 방문 등 외부 여가 활동 참여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실내 오락시설의 경우, 방역 지침 완화와 함께 이용객 수가 점차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백서」(2023)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들의 여가 활동 중 대면 활동 및 외부 활동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는 특히 엔터테인먼트·오락 활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오락 및 여가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가 아닌 여가 활동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모바일 게임 등 비대면 엔터테인먼트의 급격한 성장은 짧은 층의 여가 시간을 대체하며 오프라인 오락 시설의 수요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백서」(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게임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소비 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여가 활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히 실내 오락시설 종사원의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팬데믹 이후의 이 같은 복합적인 변화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증감을 재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오락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현대인의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오락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프리미엄 체험’, ‘차별화된 경험’, ‘소셜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 볼링 등 스포츠 오락시설은 운동을 넘어 친목 도모의 장소로 인식되며 고급화·테마화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역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어트랙션, 몰입형 콘텐츠, 계절별 이색 축제 등 ‘경험 소비’를 강화하며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관광 동향 분석 보고서」(2023)에 따르면, AI 및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방문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형 콘텐츠’가 미래 관광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인증샷’ 문화를 확산시키며 특별하고 이색적인 오락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게 단순 시설 관리자가 아닌,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력에게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 수요 재편

저출산·고령화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응대할 주요 고객층의 변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인구 감소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PC방, 게임방, 오락실 등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의존도가 높은 오락시설의 핵심 고객층 축소로 이어져, 이들 시설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인력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에 따르면, 유소년인구(0~14세)와 학령인구(6~17세)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동·청

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오락시설의 잠재적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은 오락시설의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력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인지 활동과 연계된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의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2023)에 따르면, 고령층의 스포츠·오락 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크린골프·볼링·당구 등 실내 스포츠 오락시설 이용 빈도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여가 소비를 넘어 ‘건강’과 ‘친목’이라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양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주요 고객층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중심 시설은 수요 감소 압력을 받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면서 각 오락시설이 대응해야 하는 고객층의 구성과 서비스 방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연령대별 고객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별 선호에 맞는 콘텐츠 안내 및 서비스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환경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일자리 재편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3)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3)에 따르면, 서비스업 전반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교대 근무가 요구되는 직무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시설 서비스 직무는 성수기·비수기 간 수요 변동이 크고 주말·야간 근무 비중이 높아, 주 5일·주간 중심 근무를 선호하는 청년층에게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락시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주요 배경이 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많은 오락시설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 8)는 고급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오락시설 매출 감소 위험을 높인다. 매출 압박이 커지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대신 특정 시간대만 투입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지만, 종사자에게는 고용 불안, 사회보험 적용 제한, 경력 개발 기회 축소 등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인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이익률이 낮아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확보에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인력 부족이 발생해도 임금을 높여 인력을 유치하기보다는,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는 근로 형태의 유연화(단시간·초단시간 근로 확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인력 부족이 곧바로 고용 확대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인력 부족은 반복 업무를 디지털 시스템이나 자동화 장비로 대체하거나,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 안전 조치 강화, 교육체계 개선 등 근로환경 보완 조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인력 수요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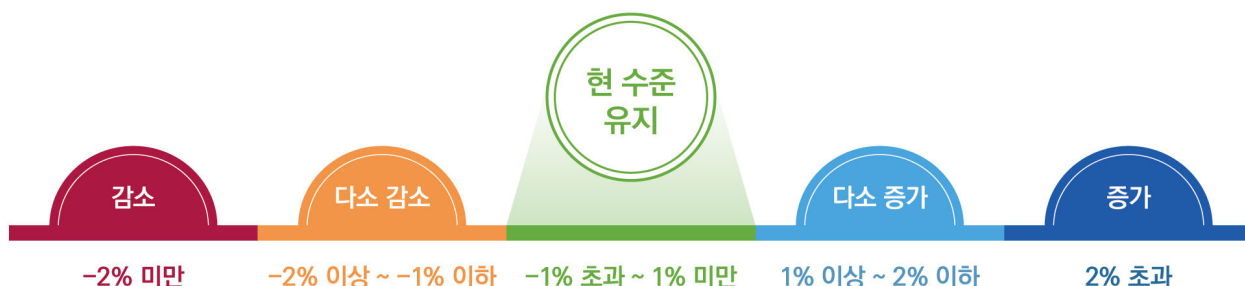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일자리는 급격한 증감보다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 액티브 시니어의 맞춤형 오락 수요 증가	- 인구 감소로 서비스 대상자 수 감소 - 저출산으로 인한 핵심 고객층(아동/청소년)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고품질/프리미엄 경험, 소셜 활동 중시 트렌드 확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활동 중요성 증대	비대면/온라인 엔터테인먼트(OTT, 모바일 게임 등) 시장 성장으로 인한 여가 시간 대체
과학기술의 발전	AR/VR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체험형 오락 콘텐츠 등장	-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시스템 도입 (발권/예약/장비 제어 업무 자동화) - 로봇 도입(안내/순찰 업무 일부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대면 여가 활동 수요 회복	국내 경기 둔화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여가 지출 감소 가능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 가속화,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 고용 비중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다양한 테마 및 융복합 오락시설 증가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는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거나, 음식을 매개로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연구·기획 및 실행 업무를 한다. 주방장은 식재료의 효율적인 구입과 위생적인 관리, 조리 인력 배치 및 교육, 주방 위생·안전 관리, 조리법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등을 총괄한다. 요리 연구가는 전통 요리를 현대화하거나 기능성 식품을 상품화하고, 건강식, 비건, 글루텐 프리 등과 같은 특수 식단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레시피를 개발하며, 이를 출판, 방송, 온라인 콘텐츠, 시연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두 직무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지니지만, 식문화 발전과 외식·급식 산업 운영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 조리 관련 숙련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조리 보조원 및 제과·제빵원은 이 직업 범주에서 제외된다. 최근 K-푸드의 세계적 인기, 요리 관련 미디어 콘텐츠 확산에 따른 요리사의 사회적 위상 상승,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외식·간편식 수요 확대, 고령층의 건강 맞춤형 식단 요구 증가는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경기 둔화에 따른 외식 소비 위축은 영세 외식업체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기술의 발전은 단순 조리 업무를 대체하여 주방 인력구조를 재편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창의적 메뉴 개발, 위생·안전 관리, 고객과의 교감 등과 같은 업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기술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K-푸드 열풍과 미디어 노출 증대에 따른 직업적 매력도 상승,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외식 수요 증가, 자동화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업무 내용은 더욱 고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푸드 확산 및 요리사의 사회적 위상 상승

K-푸드의 세계화는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에게 새로운 기회와 역할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 요인이다.

영화, 드라마, K-Pop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한식당 증가 및 한국 식료품 수출 증대 등 실질적인 시장 확대로 연결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김치, 고추장, 라면 등 K-푸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국내 주방장, 특히 한식 전문 주방장들의 해외 한식당이나 글로벌 식품 기업의 메뉴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요리 연구가는 전통 한식 레시피 연구 및 현대화, 해외 시장을 겨냥한 K-푸드 메뉴 개발, K-푸드 콘텐츠(레시피 영상, 다큐멘터리) 기획 및 출연 등 활동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요리 방송, 홈쇼핑,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콘텐츠의 확산은 ‘스타 셰프’와 ‘셀럽 요리사’의 사회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며, 요리 분야 전반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기능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방송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브랜드 경영자로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요리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업의 매력도를 높여 우수 인력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은 요리 연구가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레시피와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직업적 만족도와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 외식·간편식 및 맞춤형 건강식 수요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및 식품 시장의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고령층의 증가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및 메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의 여가 및 식생활 동향」(2024)에 따르면, 고령층의 외식 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강식, 기능성 식품, 저염식, 저당식, 연화식 등 ‘건강’과 직결된 메뉴에 대한 관심과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층의 수요 증가는 요리 연구가에게는 고령친화식품 개발, 질환별 맞춤 레시피 연구, 건강식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며, 주방장에게는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 고령층 특화 급식 및 외식 시설에서의 전문 조리 및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일자리 수요를 창출한다. 한편, 외벌이 대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간편하고 질 좋은 외식 및 가정간편식(HMR: Home Made Replacement)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과 요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간편하고 질 좋은 외식, 배달 서비스, HMR, 밀키트 등 외부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제3차(’22~’26)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144조 원으로 가계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에서 2020년 43.8%로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개성 있는 미식 경험을 중시하는 이들 가구는 특색 있는 콘셉트의 식당이나 전문점 성장을 촉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주방장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고령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는 ‘건강’, ‘간편함’, ‘다양성’,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며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도입에 따른 업무 재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며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조리 로봇, 자동화된 재료 준비 시스템, 스마트 주방 관리 소프트웨어 등은 재료 준비, 계량, 단순 가열 및 교반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여 주방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본사에서 식재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공급받아 조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중앙 키친에서 메뉴를 개발하고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조리를 담당하면서, 현장 전문 주방 인력의 필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이제 주방장은 스마트 키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조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메뉴 최적화, 자동화 설비의 유지 보수 감독 등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는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메뉴 개발, 식재료의 감각적인 조합,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미식 기획, 조리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인간 고유의 전문성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리 연구가 역시 푸드테크(식품 산업 전반에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혁신하는 것)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연구의 폭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 환경 변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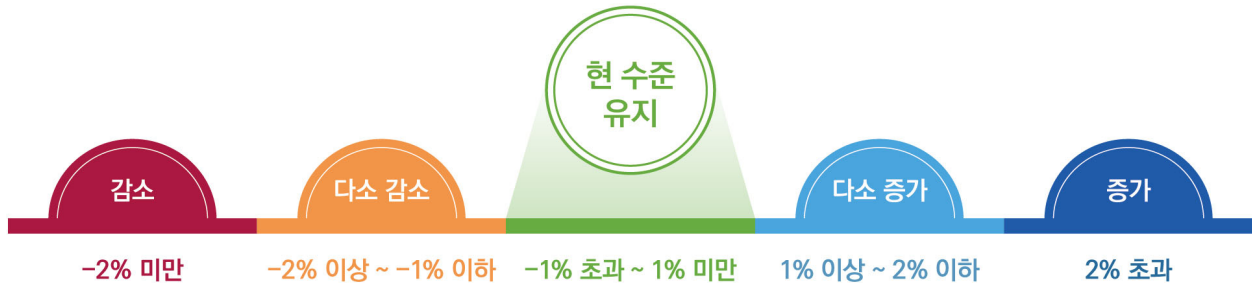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3)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3)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는 높은 노동 강도,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주방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랜 견습 기간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 특성상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된 중견 요리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는 외식 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식 산업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영세 사업체가 운영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전망하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는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폐업,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간편식 수요 증가 - 고령층의 건강 맞춤형 메뉴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K-푸드 세계화 - 요리사의 사회적 인지도 상승 - 미식 경험 및 테마 외식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조리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단순 조리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경기 침체 및 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대형 프랜차이즈의 메뉴 개발 및 중앙 키친 관리 인력 집중	-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 확산에 따른 현장 주방장의 역할 축소 - 비용 절감을 위한 단시간/비정규직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구인난 심화 - 숙련 중견 요리사 부족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한식 조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한식 조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한식 조리사는 일반 한식당, 호텔 한식 부서, 학교·병원·기업·요양원 등과 같은 단체급식 시설, 식품 제조 기업의 간편조리(HMR: Home Meal Replacement) 및 밀키트 생산 라인, 해외 한식당 및 K-푸드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며, 주방장의 지휘 아래 한식 재료의 손질, 조리, 배식 등 실무 과정을 담당한다. 표준화된 레시피와 조리법에 따라 각종 국, 탕, 찜, 면류, 볶음, 구이 등 다양한 한식을 직접 조리하며, 주방 위생 및 식재료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최근 K-푸드의 세계적 확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한식 조리사의 사회적 위상 상승,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간편 한식 수요 확대, 고령층의 건강 맞춤형 한식 요구 증가는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기술의 발전은 단순 조리 업무를 대체하며, 외식업의 지속적인 인력난과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식 고유의 맛과 손맛을 구현하는 숙련된 조리 기술, 섬세한 식재료 손질 및 조리 과정, 그리고 위생·안전 관리와 같은 실무 역량은 기술이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요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및 식품 시장의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한식 조리사의 실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고령층의 증가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한식 식단 및 메뉴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이들 고령층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의 여가 및 식생활 동향」(2024)은 고령층의 외식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강식, 기능성 한식, 저염식, 저당식, 연화식 등 '건강'과 직결된 메뉴에 대한 관심과 소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고령층의 수요 증가는 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 단체급식 시설에서 저염식, 연화식 등 맞춤형 한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실무를 담당할 조리사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재가(在家)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층 한식 급식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외벌이 대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간편하고 질 좋은 한식 외식 및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6.5%(잠정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자 특성」(2024)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과 요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간편하지만 품질 좋은 외식, 배달 서비스, HMR, 밀키트 등 외부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식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한식당 및 배달 전문 한식업체의 실무 조리 인력 수요를 유지·확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간편식(HMR)과 밀키트 시장의 급성장은 기존의 외식 소비를 가정 내 간편식으로 전환시켜, 외식업 주방에서의 조리 인력 수요를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한식 조리사에게 외식 및 배달 분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간편식 시장 확대에 인한 노동 수요의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K-푸드 확산에 따른 한식 조리 전문 인력 수요 증가

K-푸드의 세계화는 한식 조리사에게 새로운 기회와 역할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 요인이다. 영화, 드라마, K-Pop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김치, 김밥, 비빔밥, 불고기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유명 한식 셰프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국내외 고객들의 한식 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및 2024년 전망」 보고서(2024)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한식당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조에 편승하여 국내 한식 조리사, 특히 한식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정확히 구현하고 현지 식재료와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숙련된 한식 전문 조리사들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방 자동화 및 푸드테크 도입에 따른 한식 조리 실무 업무 재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며 한식 조리사의 실무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조리 로봇, 자동화된 재료 준비 시스템(자동 세척기, 절단기), 스마트 주방 관리 소프트웨어 등은 재료 준비, 계량, 단순 가열 및 교반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여 주방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본사에서 표준화된 식재료를 공급받아 조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당이나 HMR 생산 공장, 대규모 단체급식 시설의 경우, 중앙 키친에서 메뉴를 기획하고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조리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비숙련 단순 조리보조인력의 필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서비스업의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식 조리사 직무에도 부분적인 자동화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장에서의 자동화 도입 속도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나 급식 시설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형 한식당을 포함한 다수의 일반 식당은 인건비, 주방 공간 제약, 장비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자동화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 한식 조리사는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역할을 넘어, 스마트 키친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자동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장비 유지·보수 감독 등 기술 활용 역량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전문성—한식 특유의 맛과 섬세한 식감을 구현하는 숙련된 손기술, 제철 식재료에 대한 감각, 복합적인 맛의 균형을 맞추는 경험적 판단 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식은 찌개, 전, 나물류 등 계량화가 어려운 ‘손맛’ 기반 조리법이 많아,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대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식 조리사는 자동화 기술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간 고유의 감각·경험·숙련이 요구되는 영역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외식 산업 전반, 특히 한식 조리 직무는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한식 조리사를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 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식 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전통 한식의 경우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숙련된 기술 전수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 숙련된 인력 부족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외식 산업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영세 사업체가 운영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외식업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창업만큼 폐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전망하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는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폐업,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한식 조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급식 위탁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현장 조리사의 고용이 축소되거나 비정규직, 단시간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는 외국인 조리 인력 도입 확대, 공유 주방 기반 외식업 증가, 배달 전문 조리 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직무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어, 한식 조리사의 고용 구조가 업종·규모·지역별로 더욱 분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적으로 총량은 유지되어도 직무 구성과 근로 형태가 한층 다층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한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섭취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적용 확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은 한식 조리사에게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재료 보관·관리, 위해 요인 대응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규제의 복잡성과 엄격성이 커지면서 한식 조리사는 조리 기술을 넘어 위생·안전 관리 역량까지 갖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식 조리기능사는 이러한 역량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식품 안전 관리와 조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과 외식산업 진흥 전략 역시 한식 조리사의 고용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은 한식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련된 한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는 급식 운영 업체나 소규모 한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도입 또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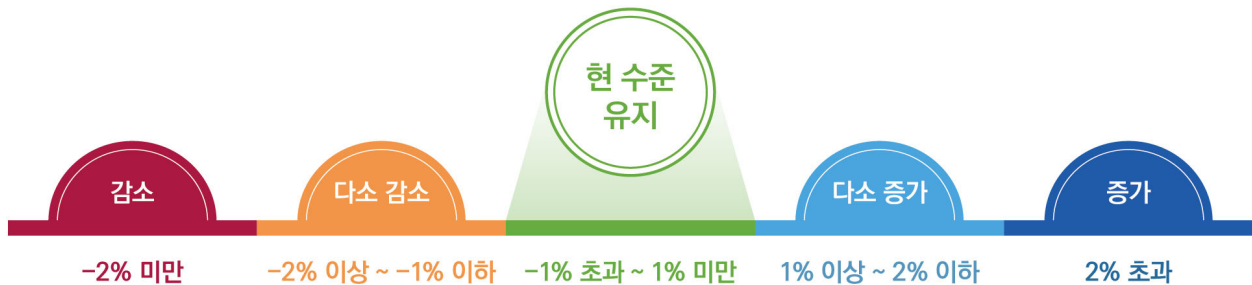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더불어, 친환경·지속가능 외식 트렌드 확산과 정부의 지역 농산물 사용 장려 정책 속에서는 저탄소 조리, 로컬푸드 기반 메뉴 운영 등 ‘그린 조리사’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식재료 관리, 친환경 조리 방식, 폐기물 감축 등 지속가능 조리 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배달 수요 증가 • 고령층의 건강 맞춤형 한식 조리 실무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K-푸드 세계화로 한식 수요 증가 •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한식 조리사 위상 상승	
과학기술의 발전		• 조리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단순 한식 조리 업무 대체 • 중앙 키친 시스템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및 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한식 메뉴 개발 및 전통 계승 노력 •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 확산에 따른 현장 조리사 역할 축소 • 단시간/비정규직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단체급식 시설 내 한식 전문 조리 수요 유지 • 해외 한식당 증가 및 K-푸드 관련 산업 성장	•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한식당 폐업 증가 • HMR·밀키트 시장의 성장으로 외식업 수요 일부 전환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지역 농산물 활용 및 식자재 안전 관리 강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정부의 한식 세계화 및 외식 산업 진흥 정책 • 위생·안전 규제 강화로 전문 인력 필요 • 국가기술자격 제도 운영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중식 조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중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중식 조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중식 조리사는 레스토랑, 중국식 음식점(반점) 등에서 각종 탕, 튀김, 면류 등의 각종 중식 요리를 다양한 중식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주방장의 지시에 따라 식자재 손질, 튀김·볶음·면 조리, 소스 제조 및 위생 관리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또한 고객의 주문 형태에 맞춰 다양한 중식 메뉴를 조리하고, 원가 관리 및 재료 보관에도 관여한다. 중식은 강한 화력과 빠른 조리 속도, ‘웍(Wok)’을 활용한 독특한 기술을 요구하며, 숙련된 조리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중식 조리사 직무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며, 외식 산업 내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외식 수요가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인들의 중식 특유의 맛과 다양성에 대한 선호는 중식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조리 로봇 도입이나 주방 자동화 기술 도입은 만성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식 음식점의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식 조리 특유의 섬세한 불 조절, 재료의 맛과 향을 살리는 숙련된 기술, 메뉴 개발 및 주방 총괄 역량은 여전히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스템이나 AI로의 전면 대체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식 조리 분야는 중국계 인력 비중이 높은 독특한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자리 전망 시 내·외국인의 인력 공급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중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식 조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일자리 재편

중식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꾸준한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이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대중적인 메뉴는 물론, 간pong, 유린기 등 전문적인 요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중식은 한식, 양식과 함께 가장 선호되는 외식 품목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급성장은 중식 조리사의 수요를 확대하는 핵심 요인이다. 2023

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통계청,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맛별이 가구는 583만 7천 가구로 전년 대비 11만 7천 가구 증가(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맛별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1인 가구 및 맛별이 가구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중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 기업에서 중식 기반의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밀키트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중식 조리사 수요처의 확장은 이들의 일자리 기반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K-차이니스 푸드 확산과 일자리 확대

최근 중식은 단순히 ‘중국음식’이 아닌, 한국적 입맛에 맞게 현지화된 ‘K-차이니스’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짬뽕·짜장면 등 전통 메뉴에 매운맛·치즈·불맛 등 한국형 요소를 결합한 퓨전 중식이 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식 다이닝’, ‘프리미엄 중식 코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K-푸드 수출 품목 중 중식 메뉴 기반 소스류(고추유, 짜장소스, 간장류 등)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조리 인력보다는 숙련된 소스 제조·조리법 표준화 능력을 갖춘 전문 중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텔·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중식 셰프의 전통 기술과 감각적 손맛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도 하며, 프랜차이즈형 중식당들 역시 표준 레시피 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 조리사를 필요로 하여 중식 조리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중식 조리사의 역할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며 중식 조리사의 실무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조리 로봇, 자동화된 재료 준비 시스템, 스마트 주방 관리 소프트웨어 등은 재료 손질, 계량, 단순 가열 및 교반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여 주방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본사에서 식재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공급받아 조리하는 대형 중식 프랜차이즈나 HMR 생산 공장의 경우, 중앙 키친에서 메뉴를 기획하고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조리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비숙련 단순 조리보조인력의 필요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서비스업의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식 조리사 직무에도 부분적인 자동화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이제 중식 조리사는 단순한 조리를 넘어, 스마트 키친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자동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 보수 감독 등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학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중식 고유의 강한 화력 조절, 쉼을 활용한 빠른 조리 기술, 섬세한 소스 배합, 그리고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숙련된 손 기술 등 인간 고유의 실무 전문성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향후 중식 조리사는 ‘조리 로봇을 다루는 기술형 인력’과 ‘숙련 조리 감각을 지닌 장인형 인력’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변동과 중식 외식 시장의 양극화

중식 외식업은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는 고

금리·고물가 지속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외식 소비, 특히 점심·저가형 메뉴 중심의 중식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2025)는 외식업(한식·중식·분식 등)이 폐업률 10%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진입과 퇴출이 잦은 시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중식당은 경기 침체기에 고용 축소·비정규직화가 심화될 수 있다. 반면, 마라탕·마라샹궈 전문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형 브랜드의 경우 체계적 교육·메뉴 표준화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 수요 확산은 중식 조리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는 높은 노동 강도,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중식은 강한 화력을 다루는 고강도 노동을 수반하여 신규 인력 유입이 더욱 어렵고 숙련 인력 유출이 잦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은 중식 조리사의 고용 시장의 지속적 인 도전 과제로 작용한다.

위생·안전 규제 강화와 전문자격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리·급식시설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적용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식 조리사도 위생관리, 원재료 검수, 식품 보관·온도 관리 등 식품 안전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중식은 튀김·볶음 조리 과정에서 화재·화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업안전 및 위생교육 이수, 조리기능사(중식) 자격 보유 여부가 채용·배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2022~2026)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외식 전문 인력 양성 및 K-푸드 해외 진출 확대를 추진 중으로, 중식 조리사에게도 숙련 인력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노동시장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일자리 재편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외식업은 높은 노동 강도,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구조로 인해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식 조리 분야는 강한 화력과 고열 환경에서 수행되는 고강도 업무가 많고 숙련 형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업장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 형태여서 근로조건 개선이 쉽지 않다는 특성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인력난은 업장의 운영 안정성과 고용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기대치가 낮고 장시간 노동에 유연한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식 조리 분야에 중국동포·조선족·화교 등 중국계 조리 인력이 유독 많은 이유는 조리 특성 자체가 중국 조리문화의 기술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식 조리는 강한 화력 조절, 워(Wok) 운용, 재료의 향과 식감을 살리는 고난도 조리법 등 중국 특유의 조리기법이 핵심 기술로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계 조리 인력은 이러한 조리 경험과 문화적 친숙성을 바탕으로 높은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서의 선호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배달 플랫폼의 확산과 대형 중식 프랜차이즈의 성장으로 조리 공정이 표준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중국동포·조선족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H-2(방문취업: 중국동포·고려인 대상, 음식점 취업 허용), F-4(재외동포: 한국계 해외 거주자 대상, 취업 제한이 거의 없는 자유 취업 비자) 등 중식 외식업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비자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외국인 인력 비중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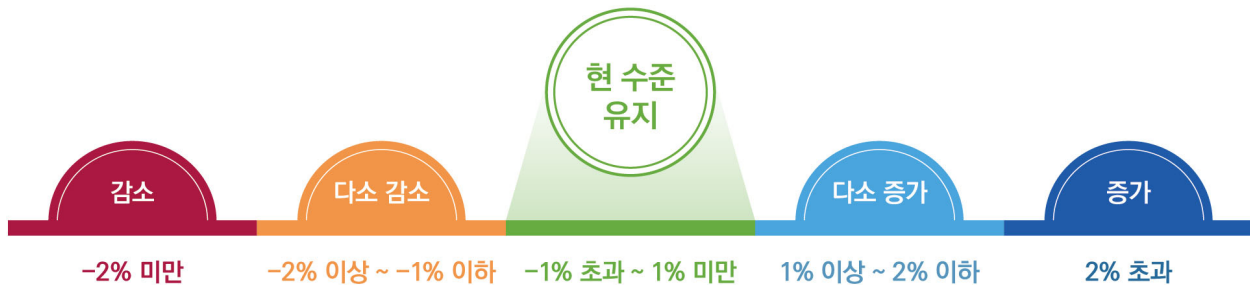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구조적인 인력 부족, 조리 기술의 문화적 기반, 업종의 영세성, 외국인 인력의 비교적 용이한 노동시장 진입 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식 조리 분야는 한국인 중심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다른 조리 직종과는 다른 특수한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식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전망할 때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특히 중국계 조리 인력의 공급구조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외식 중식 수요 지속 - 젊은 층의 중식 선호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중식 특유의 맛과 다양성에 대한 꾸준한 선호 - K-차이니즈·퓨전 중식 확산 - 한류 효과	건강·웰빙 지향 확산으로 전통 중식에 대한 일부 소비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주방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 스마트 키친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화	단순 보조 조리 업무의 자동화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비교적 저렴한 외식 대안으로 수요 유지 - 배달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확대	고물가 지속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외식 시장 전체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프랜차이즈 체계화 및 표준화로 안정적 고용처 제공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현장 인력 축소 및 효율화 추구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중식 시장의 세분화 및 전문화(고급, 퓨전, 캐주얼 등) - 배달 전문 중식 브랜드 성장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중식당 폐업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에 따른 전문성 요구 증대 - 정부의 외식 산업 육성 정책 및 조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양식 조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양식 조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0%로 예측된다.

양식 조리사는 호텔,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캐주얼 다이닝, 단체급식시설 등 다양한 식음료 업소에서 각종 육류, 생선류, 면류, 샐러드 등의 서양식 요리를 그릴, 오븐, 팬 조리 등 다양한 양식 조리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리한다. 이들은 식재료의 선별 및 손질, 소스 제조, 가니쉬(고명) 준비, 메뉴 개발, 주방 위생 관리, 조리 인력 관리 등 주방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양식은 섬세한 플레이팅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기술, 코스 요리에 대한 이해와 균형 감각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양식 조리사 직무는 높은 전문성과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며, 서구식 식문화 확산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외식 수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화된 식생활, 브런치 문화 확산, 기념일 및 특별한 경험을 위한 외식 선호 등은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체인 레스토랑의 국내 입점 확장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양식 조리사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주방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해 일자리의 질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 설비 등의 기술 발전은 단순 조리 및 식재료 전처리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 및 고강도 노동을 기피하는 고용 환경의 변화는 원활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창의적인 메뉴 개발, 섬세한 소스 제조, 미학적 플레이팅, 주방 총괄 및 인력 관리 역량은 여전히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스템이나 AI로의 전면 대체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와 외식 및 간편식 시장의 성장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시장, 특히 양식 소비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외식 및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캐주얼 양식, 브런치 메뉴, 파스타·스테이크 전문점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6.5%(잠정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자 특성」(2024)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외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식 및 배달 앱을 통한 양식 주문량 증가로 이어져 양식 업장의 메뉴 판매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양식 조리사의 고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구식 식문화의 보편화와 브런치, 와인 페어링(Wine Pairing: 음식과 와인의 맛과 향을 조화시켜 미식 경험을 극대화하는 조합)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양식의 일상 소비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양식 조리사에게 전통 메뉴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메뉴 개발 및 조리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식 산업 성장 및 양식 시장의 고급화·세분화

외식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양식 분야는 고급화와 캐주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식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성장했으며, 배달 음식 비중은 전체 외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흐름은 양식 업장의 기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양식 시장은 미식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파인 다이닝(Fine Dining) 레스토랑의 성장과,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 패밀리 레스토랑, 브런치 전문점 등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스타 셰프 중심의 브랜드 가치와 창의적인 코스 기획이 강조되면서 숙련된 양식 조리사, 특히 셰프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체인 레스토랑의 국내 입점 확장은 표준화된 조리 시스템에 익숙한 조리 인력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 로컬 기반 캐주얼 다이닝(브런치 카페, 파스타 전문점, 와인 비스트로 등)은 창의적 메뉴 개발 역량과 트렌드 감각을 갖춘 조리 인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K-푸드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식 재료를 활용한 퓨전 양식 메뉴 개발이 증가하면서 양식 조리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이는 양식 조리사가 단순 조리 기술을 넘어 메뉴 기획, 재료 관리, 주방 운영 등 다양한 역량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방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역할 변화

주방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양식 조리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채소 절단기, 자동 소스 분배기, 스마트 오븐, 그릴 로봇, 식재료 전처리 자동화 설비 등은 양식 주방에서 식재료 손질, 단순 조리(예: 파스타 면 삶기, 스테이크 굽기 일부 과정), 대량 조리 등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자

동화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형 호텔 주방,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단체 급식 시설 등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조리 표준화를 위해 이러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미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양식 조리사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식 조리 특유의 고숙련과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는 영역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렵다. 신선한 식재료의 품질을 판단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 창의적인 레시피 개발 및 구현, 복합적인 맛과 향의 소스 제조, 미학적 플레이팅, 그리고 주방 총괄 관리 및 위생 감독 등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판단,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오히려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양식 조리사는 요리의 맛과 품질 향상, 새로운 메뉴 개발, 고객의 특별한 경험 제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은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절감된 시간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조리 역량 발휘에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양식 조리사 직무는 외식 산업 전반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양식 조리사를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채워지지 않은 공석을 고령층이나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연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급 양식의 경우, 숙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여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외식 산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양식 업장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식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적으로 양식 조리사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외식 문화는 꾸준하며,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양식 시장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기준 적용 확대 등은 양식 조리사에게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양식 조리사가 단순히 조리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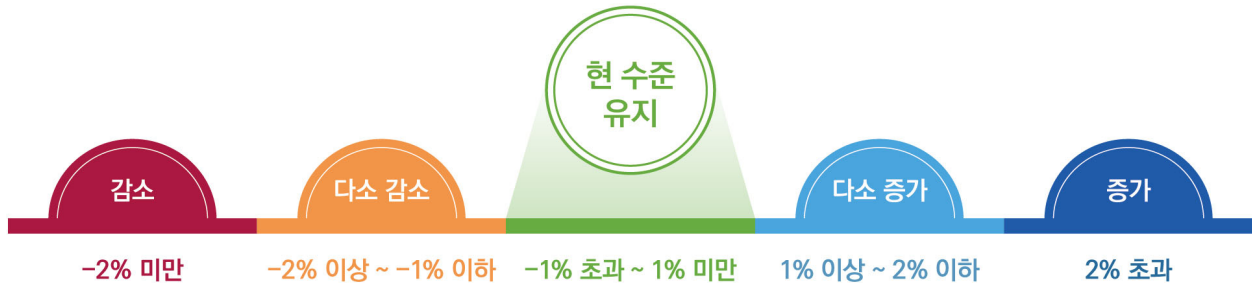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고용) 관련 법규의 강화는 양식 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방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외식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K-푸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양식과 한식의 퓨전 등 새로운 조리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양식 조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 조리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및 배달 양식 수요 증가 - 서구식 식문화 및 브런치 문화 확산	고강도 노동 및 장기 숙련 기간으로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미식 경험 및 고품질 외식 서비스 선호 증가 - 특별한 날의 외식 문화 유지	
과학기술의 발전	- 주방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단순 육체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증대 - 자동화 설비 운용 보조, 메뉴 개발 등 역할 변화	스마트 오븐, 그릴 로봇 등 단순 조리 및 전처리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시장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 - 캐주얼 양식의 꾸준한 수요 유지 - 글로벌 체인 레스토랑 확장 및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	고물가 지속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외식 시장 전체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메뉴 다각화(퓨전, 고급화, 캐주얼)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배달 서비스 강화 및 가정간편식(HMR) 제품 출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현장 인력 축소 및 효율화 추구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양식 시장의 고급화 및 세분화(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등) - 브런치·와인 페어링 등 새로운 트렌드 확산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양식업체 폐업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에 따른 전문성 요구 증대 - 정부의 외식 산업 육성 정책 및 조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일식 조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일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일식 조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일식 조리사는 일식점, 회 전문점 등에서 각종 초밥, 육류, 생선류, 면류 등의 일본요리를 다양한 일식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다. 이들은 주방장의 지휘 아래 신선한 식재료의 선별, 손질부터 조리 및 아름다운 플레이팅까지 실무 조리 과정을 총괄하거나 담당한다. 일식은 특히 신선한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정교한 칼 기술, 섬세한 온도 및 시간 조절, 그리고 아름다운 플레이팅 등 복합적인 기술과 미학적 감각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마카세' 등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고객 소통이 중시되는 분야도 넓게 분포한다. 일식 조리사 직무는 높은 숙련도와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며, 건강하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와 함께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마카세 등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은 숙련된 일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외식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방 자동화 기술 도입 및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일자리의 총량은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식 조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식의 대중화와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

초밥·라멘·돈카츠와 같은 메뉴는 한국 외식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 배달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도 일식은 상위 주문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뿐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층도 두텁다. 이러한 대중성은 일정 수준의 조리 인력 수요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한국 외식 시장에서 일식은 또한 '건강하고 깔끔한 음식'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순한 식사보다 영양 균형, 위생, 재료의 신선도를 중시하며, 회·초밥·덮밥 등 일식 메뉴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4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식 전문 음식점 매출은 6조 4,317억 100만 원으로 2021년 5조 2,204억 1,100만 원 대비 23.2%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외식 수요 회복과 더불어, 오마카세·프리미엄 초밥 등 고단가

시장의 성장, 배달 중심의 대중적 일식 소비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건강 지향 트렌드와 일식의 대중화는 일식 조리사의 고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 간편식(HMR) 및 배달 일식 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재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그리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은 일식 분야에서도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및 밀키트, 배달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공식품 시장 보고서」(2024)에 따르면, HMR 및 밀키트 시장 내 일식 품목(초밥, 덮밥류, 우동, 모밀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배달 앱을 통한 일식 주문 또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일식 조리사의 실무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는 기존 일식당뿐만 아니라 배달 전문 일식업체의 실무 조리 인력 수요를 유지·확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품질의 일식을 조리하여 포장하는 실무 역량이 중요해진다. 반면, HMR과 밀키트 시장의 급성장은 일식 소비를 외식에서 가정 내 간편식으로 전환시켜, 전통적인 일식 주방의 조리 인력 수요를 일부 감소시키거나 재편할 수 있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식품 제조 기업의 간편식 생산 공장에서도 표준화된 일식 조리 공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서의 조리사의 역할은 실제 조리보다는 공정 관리 및 품질 유지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HMR 시장에서의 일식 강세는 한 편에서는 대기업·중견·중소 식품 회사에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여는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일터인 일식당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프리미엄 식문화 확산과 숙련 조리사 수요 증대

일식은 재료 본연의 맛과 신선도를 강조하는 조리법이 많아 건강과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현대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매우 부합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외식 시장에서 일식이 ‘건강하고 깔끔한 음식’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순한 식사보다 영양 균형, 위생, 재료의 신선도를 중시하며, 화·초밥·덮밥 등 일식 메뉴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오마카세’로 대표되는 고품격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일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숙련된 일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 및 고급 일식 시장에서는 고객과의 섬세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는 능력, 최상급 식재료의 선별부터 숙련된 칼 기술을 이용한 재료 손질, 섬세한 조리, 예술적인 플레이팅까지 총체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실무 역량을 갖춘 일식 조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SNS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기 즐겨 하는 MZ세대들에게 ‘청결·심플·정제’된 이미지로 대변되는 ‘오마카세’ 문화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며, 숙성·온도·재료 밸런스 감각을 갖춘 숙련된 일식 조리사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K-푸드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식 재료를 접목한 퓨전 일식 메뉴 개발 등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식 조리사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는 단순 조리 기술을 넘어 메뉴 기획, 재료 관리, 주방 운영 등 다방면의 역량을 갖춘 고도의 숙련된 일식 조리사에

대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근거가 된다.

■ 주방 자동화 기술 도입과 일자리 재편

주방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일식 조리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스시 로봇(밥 뭉치 제조), 식재료 전처리 자동화 설비(생선 필렛, 채소 절단 등), 스마트 튀김기, 육수 제조 로봇 등은 일식 주방에서 식재료 손질, 단순 초밥 밥 뭉치 제조, 튀김, 대량 면 조리 등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자동화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일식당, 단체 급식 시설, 식품 제조 기업 등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조리 표준화를 위해 이러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미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식 조리사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식 조리 특유의 고숙련과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는 영역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렵다. 신선한 해산물 및 제철 식재료의 품질을 판단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 정교한 사시미 칼 기술, 창의적인 메뉴 개발 및 구현, 복합적인 맛과 향의 육수 및 소스 제조, 미학적 플레이팅, 그리고 주방 총괄 관리 및 위생 감독 등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판단,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오히려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식 조리사는 요리의 맛과 품질 향상, 새로운 메뉴 개발, 고객의 특별한 경험 제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은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절약된 시간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조리 역량 발휘에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일식 조리사 직무는 외식 산업 전반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일식 조리사를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채워지지 않은 공석을 고령층이나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연쇄 효과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급 일식의 경우, 숙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여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외식 산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일식 업장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식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적으로 일식 조리사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마카세’ 등 프리미엄 일식 시장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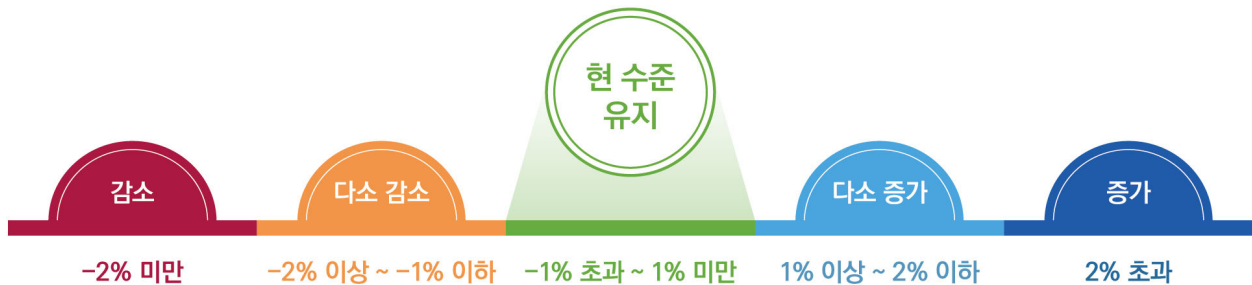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기준 적용 확대 등은 일식 조리사에게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일식 조리사가 단순히 조리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고용) 관련 법규의 강화는 일식 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방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외식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K-푸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일식과 한식의 퓨전 등 새로운 조리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일식 조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 조리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및 배달 일식 수요 증가 -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 확산	고강도 노동 및 장기 숙련 기간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미식 경험 및 고품질 외식 서비스 선호 증가 ('오마카세' 시장 성장) - MZ세대의 SNS 기반 일식 선호(청결, 심플, 정제된 이미지)	
과학기술의 발전		자동 스시 로봇, 전처리 자동화 등 단순 조리 및 전처리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프리미엄 일식 시장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 - 캐주얼 일식(라멘, 돈가스 등)의 꾸준한 수요 유지	고물가 지속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외식 시장 전반 및 캐주얼 일식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메뉴 다각화(퓨전 일식, 고급화, 캐주얼)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배달 서비스 강화 및 가정간편식(HMR) 제품 출시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현장 인력 축소 및 효율화 추구 - 간편식 제조업으로의 일부 인력 전직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일식 시장의 고급화 및 세분화(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 K-푸드 세계화 흐름 속 퓨전 일식의 성장 가능성 - 일식 메뉴의 간편식 제조업 연계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일식업체 폐업 증가
환경과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에 따른 전문성 요구 증대 - 정부의 외식 산업 육성 정책 및 조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바텐더(조주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텐더(조주사)는 칵테일바, 라운지바, 호텔, 레스토랑, 크루즈 선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음료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종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를 조주하여 제공하는 직무이다. 이들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알코올/비알코올 음료를 조주하고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장식하며, 때로는 화려한 조주 퍼포먼스를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바 운영 실무와 재고 관리에도 참여하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직업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바 문화’의 인기, 스펀지 주류 및 논알코올/제로칼로리 음료 시장의 성장, 그리고 차별화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는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무인 칵테일 머신, 자동 음료 디스펜서 등 바(Bar)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비대면 문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유흥 및 외식 소비 위축은 바텐더(조주사)의 고용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바텐더(조주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섬세한 맛의 조주 능력, 고객과의 교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전문적인 퍼포먼스와 바 운영 능력은 기술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Bar) 문화’의 부상과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현대 소비자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바 공간이 제공하는 독특한 분위기와 바텐더(조주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바 문화’가 단순한 유흥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혼술 문화 확산과 함께 칵테일바, 라운지바 등의 전문 주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여가 트렌드 분석 보고서」(2024)에 따르면,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바텐더(조주사)가 직접 만들어주는 시그니처 칵테일과 함께 바텐더(조주사)의 전문적인 설명, 유머러스한 대화, 그리고 화려한 조주 퍼포먼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혼술 고객에게는 바텐더(조주사)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한 서비스 경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칵테일을 제안하며, 스토리가 담긴 음료를 조주하고, 칵테일 제조 과정을 흥미로운 쇼로 연출하는 바텐더(조주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또한 위스키, 진 등 스페셜티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주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주류의 역사, 특징, 맛 등을 설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바텐더(조주사)의 전문성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차별화된 미식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바텐더(조주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페셜티 주류 및 non알코올·제로칼로리 음료 시장 성장과 일자리 확대

주류 시장은 단순히 취하기 위해 주류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 그리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특정 양조장에서 생산된 수제 맥주(크래프트 비어), 고품질 와인, 위스키, 진 등 스페셜티 주류 시장의 성장은 바텐더(조주사)에게 주류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하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칵테일을 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동시에,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의 트렌드는 주류 시장에도 침투하여 non알코올(Non-Alcohol) 및 제로칼로리 음료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 통계에 따르면, non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칵테일, 제로 슈거 음료 등 건강 지향적인 비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바텐더(조주사)에게 알코올이 없으면서도 깊이 있는 맛과 향을 가진 ‘모의 칵테일(Mocktail)’ 개발 및 조주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알코올 칵테일만큼이나 다채로운 맛과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non알코올 음료는 새로운 고객층을 유인하고 바텐더(조주사)의 조주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바(Bar)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은 바텐더(조주사)의 직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인 칵테일 머신, 자동 음료 디스펜서,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 등 바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은 단순 반복적인 음료 제조 및 서빙, 재고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표준화된 레시피에 따라 대량의 칵테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조하는 기술은 인건비 절감과 서비스 속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업소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단순 조주 보조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바텐더(조주사)의 업무 재편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바텐더(조주사)의 핵심 역량인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을 어렵게 만들었다. 포장 및 배달 주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집에서 즐기는 칵테일 문화(홈술)’가 확산되었고, 이는 바텐더(조주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 음료를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전통적인 바 공간의 매력을 일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업무 자동화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바텐더(조주사) 일자리 유지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바텐더(조주사)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지만, 현실적인 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수

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잦은 야간 근무,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초봉, 오랜 시간 선배 바텐더(조주사) 밑에서 기술을 익히는 도제식 훈련 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은 젊은 구직자들이 직업 진입을 망설이거나 중도에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바텐더(조주사)라는 직무 자체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력 유출 및 장기 근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바 및 유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소비 심리 위축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전망하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는 바 운영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폐업,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수요 재편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주류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 준수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등은 바텐더(조주사)의 일상 업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법규이다. 바텐더(조주사)는 주류 및 음료 제조 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조주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은 주류 및 조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위생 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직업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주기능사 실기 합격자는 3,598명으로 매년 4천 명 안팎의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국내 일부 전문대학의 호텔관광 관련 학과나 외식음료학과 등에서 바텐더(조주사) 및 조주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및 자격 제도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는 중소 바 운영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도입 가속화 또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반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은 전반적인 유흥 및 외식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바텐더(조주사)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도별 조주기능사 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18	6,375	4,191	65.7	5,372	3,694	68.8
2019	7,095	4,669	65.8	5,606	3,837	68.4
2020	6,240	4,602	73.8	5,169	3,696	71.5
2021	8,426	6,138	72.8	6,381	4,681	73.4
2022	7,878	5,932	75.3	6,048	4,167	68.9
2023	8,485	6,471	76.3	6,324	4,328	68.4
2024	7,124	4,520	63.4	5,345	3,598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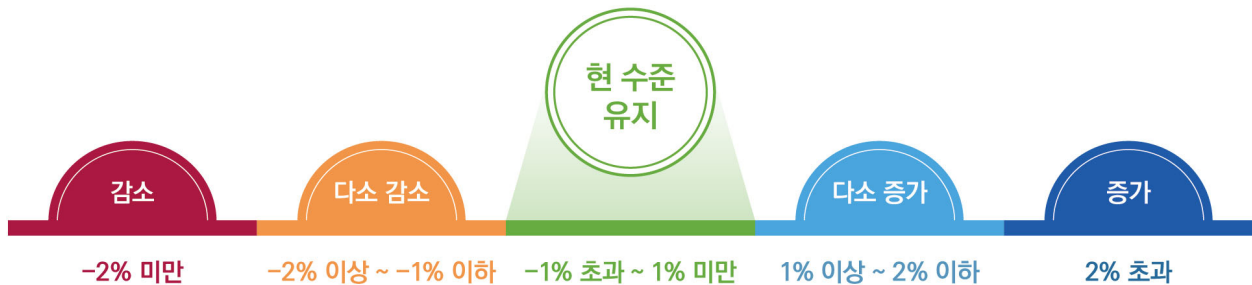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야간 근무, 낮은 초봉, 도제식 훈련 부담 등으로 인한 장기 근속 및 신규 인력 유입의 어려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MZ세대 중심 '바(Bar) 문화'의 인기 및 확산, 혼술 문화 확산 - 차별화된 경험 소비 중시 트렌드	비대면 문화 확산(홈 칵테일 문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		무인 칵테일 머신, 자동 음료 디스펜서 등 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증가에 따른 주류 서비스 수요 증가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유흥 및 외식 소비 위축) - 경기 변동에 민감한 유흥·외식 산업 특성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창의적인 메뉴 개발 및 퍼포먼스 - 전문적인 조주 기술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도입 고려 - 인력 감축 또는 단시간 고용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특색 있는 바 문화 공간 증가 - 스페셜티 주류 및 논알코올/제로칼로리 음료 시장 성장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관광 활성화 정책 및 지역 특색 주류 산업 육성 정책 - 조주기능사 등 전문 자격증 제도 활성화	- 주류 관련 규제 강화(판매 시간, 청소년 보호 등)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1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음료 조리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7%로 예측된다.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는 카페, 커피 전문점, 차 전문점, 호텔,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커피, 차, 주스, 에이드 등 각종 음료를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이들은 음료 제조를 넘어, 원두나 찻잎의 특성 이해, 추출 온도 및 시간 조절, 섬세한 플레이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음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감각, 친화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워라밸 문화 확산, 스페셜티 커피 및 차 시장의 성장, 건강 지향적인 논커피(Non-coffee) 및 비건 음료 수요 증가, 카페를 중심으로 한 ‘공간 경험’ 중시 트렌드는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키오스크 및 자동 음료 머신 보급 확대, 배달 앱 활성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그리고 저가형 대용량 음료 시장의 경쟁 심화는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고용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섬세한 맛의 추출 및 블렌딩 능력, 고객과의 교감을 통한 맞춤형 추천, 전문적인 라떼 아트나 차 예절 시연과 같은 퍼포먼스 능력은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 역량으로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일자리 수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증감 요소가 복합적으로 공존·상호 작용하면서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료 조리사(바리스타포함)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증가, 워라밸 중시 문화와 일자리 수요 확대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의 급증은 음료 소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식사 및 주거 비용 외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카페 음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게 카페는 단순한 음료 소비 공간을 넘어, 식사를 대체하거나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고, 개인적인 업무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음료 조리사가 제공하는 음료의 품질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 분위기 조성, 고객과의 섬세한 교감을 통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음료 조리사의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 전반에 확산된 워라벨 중시 경향은 퇴근 후 또는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동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카페는 이러한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장소로 기능한다. 스트레스 해소, 자기 계발, 지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음료 조리사는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여가 경험을 선사하는 ‘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와 워라벨 중시 문화는 음료 조리사에게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스페셜티 커피·차 시장 성장 및 ‘카페 문화’ 확산

현대 소비자는 단순히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로스팅·추출 방식에 따른 미묘한 맛의 차이를 즐기는 ‘스페셜티’ 지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 통계에서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가 확인되며, 고급 차(Tea) 시장 또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층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원두와 찻잎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최적의 추출 레시피 개발, 음료의 특성과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음료 조리사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공간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카페는 단순한 음료 판매 공간을 넘어 만남·휴식·업무·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는 카페의 인테리어·분위기뿐 아니라 바리스타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음료 조리사의 역할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원두와 찻잎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추출 레시피를 개발하고, 섬세한 맛과 향을 구현하며, 고객에게 음료의 특징과 스토리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료 조리사의 전문성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동시에, 고객과의 친밀한 소통, 맞춤형 음료 추천, 라떼 아트 등 시각적 즐거움 제공과 같은 ‘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음료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 및 비건 트렌드에 따른 음료 메뉴 다변화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료 시장 또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설탕 함량을 줄인 제로 슈거 음료, 칼로리가 낮은 저칼로리 음료, 그리고 유제품 대신 식물성 우유(오트밀크, 아몬드밀크, 두유

등)를 활용한 비건(Vegan) 음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음료 조리사에게 다양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이해, 새로운 레시피 개발 및 조주 능력을 요구한다. 고객의 건강상 요구(알레르기, 당뇨 등)에 맞춰 음료를 조절하고, 비건 옵션을 정확히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 메뉴의 스펙트럼이 커피를 넘어 착즙 주스, 수제 에이드, 블렌딩 티 등 다채로워지면서, 각 음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조리 기술을 갖춘 음료 조리사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크다.

■ 키오스크, 자동화 기기 보급 및 배달 앱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음료 조리사의 직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키오스크(무인 주문 시스템),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자동 음료 디스펜서, 스마트 로스터기 등 자동화 기기의 보급은 주문 접수, 단순 커피 추출, 음료 제조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저가형 대용량 커피 전문점의 경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서비스 속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순 음료 제조 보조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음료 조리사의 업무 재편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배달 앱의 활성화는 고객이 카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비대면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음료 조리사의 핵심 역량인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은 배달 전문 카페나 음료 전문점의 성장을 이끌며,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품질의 음료를 제조하여 포장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음료 조리사의 수요를 새로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화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음료 조리사에게 단순 제조를 넘어선 고유한 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기술 활용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카페 및 음료 산업은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음료 조리사를 포함한 서비스직은 비교적 낮은 임금, 주말 근무, 높은 노동 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페 및 음료 전문점의 비교적 낮은 창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카페 수의 증가는 구인자 입장에서 만성 공급 부족 상황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의 창업률만큼이나 폐업률도 높아 시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는 영세 카페 및 음료 전문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과 매출 감소 압력은 폐업,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음료 조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일자리 재편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해썹) 기준 적용 확대, 식재료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은 음료 조리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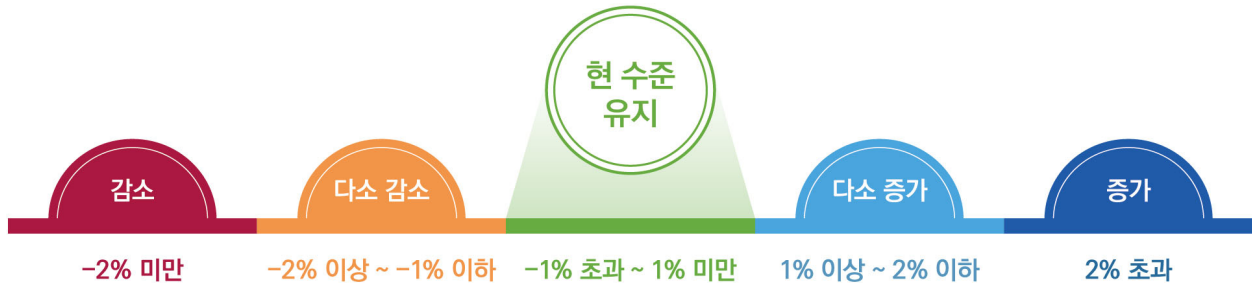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재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요구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현재 바리스타 관련 국가자격증은 없지만 ‘바리스타’, ‘티 소믈리에’ 등 음료 관련 민간 자격증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자격증 취득과 위생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직업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는 중소 카페 및 음료 전문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운영 효율화를 위한 키오스크 및 자동화 기기 도입 가속화 또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나 지역 특산물 활용을 통한 미식 관광 육성 노력 등은 음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음료 조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증가 • 카페 이용층 확대, 젊은 세대 중심 수요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워라밸 중시 문화 확산에 따른 여가 공간으로서의 카페 이용 증가 • 프리미엄·건강 지향(논커피·비건·저칼로리) 음료 선호 확대 • ‘카페 문화’ 확산 및 공간 경험 중시 트렌드	
과학기술의 발전		• 자동화 기기 도입
국내외 경기 변화		• 경기 침체 시 개인 카페 고용 축소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영세 카페의 비용 절감 노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카페·음료 산업 성장	• 포화 경쟁으로 일부 업소 구조조정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공정무역 원두 수요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위생·안전 규제 강화로 전문 인력 필요	• 규제 준수 비용 부담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단체급식 조리사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급식 조리사는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식사를 조리하고 위생과 안전을 관리한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식재료의 엄격한 검수 및 관리부터 오븐, 증기솥, 믹서 등 각종 조리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의 대량 조리 및 배식, 그리고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점검에 이른다. 특히 단체급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학생, 질환자, 고령자 등)의 영양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영양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별 건강 상태나 식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식단을 성공적으로 조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급식 분야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자동화 기기의 확산 및 중앙 집중식 조리 시스템 도입,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인건비 절감 압력 등 고용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증감 요소가 복합적으로 공존·상호 작용하면서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식 시장과 일자리 재편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단체급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단체급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리사 일자리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수 중장기 전망」(2024)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향후 10년간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학교 급식 규모의 축소 및 그에 따른 조리 인력 수요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나 공동 급식 추진이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 인력을 감축하거나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공동 조리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게 되어 현장 조리사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령 인구의 급증은 요양원, 실버타운,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급식 시설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이는 고령층을 위한 급식 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이끈다. 이들 시설에서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저염식, 고단백 식단, 연화식(부드러운 식단), 당뇨식 등 영양과 소화를 고려한 특별한 조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재가(在家)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층 급식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다양한 식재료와 고령층 특화 조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영양사와 협력하여 맞춤형 식단을 성공적으로 조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단체급식 조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급식 시장의 위축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급식 시장의 확대에 일부 상쇄되며,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양 및 위생 관리의 중요성 증대와 맞춤형 식단 수요 증가

단체급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학생, 환자, 직장인, 어르신 등)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영양 균형과 위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일반 식당보다 훨씬 높다. 특히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단체급식 조리사는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 조리장 청결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및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관련 규제 강화와 교육 의무화는 단체급식 조리사에게 전문적인 위생 지식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핵심 요인이다. 조리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자재 교차 오염 방지, 적정 온도 관리, 유통기한 확인 등 다각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최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상별 맞춤형 식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단체급식 조리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에서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관리, 편식 교정 및 영양 강화 식단, 저염·저당 식단 제공이 중요하며, 병원 급식에서는 질환별 치료식,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를 위한 연화식, 면역력 증진 식단 등이 필수적이다. 기업 급식에서도 건강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저칼로리·고단백 식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식단 요구는 단체급식 조리사에게 영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레시피 개발 능력,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수 조리법 숙련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 시장의 변화된 상황은 직무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화 기술 도입과 중앙 집중식 조리 시스템 확산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체급식 조리 업무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식재료 전처리 자동화 기기(자동 세척기·절단기), 자동 조리 로봇, 스마트 식기세척기, 배식 자동화 시스템, 식수 예측 및 발주 시스템 등은 반복적이고 표준화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의 도입은 인력 부담을 줄이고 조리 효율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 급식 시설이나 위탁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화 기기 운영 및 품질 관리 등 새로운 작업이 일부 실무 조리사 역할에 추가되면서, 조리사의 직무가 단순 조리 중심에서 기술 활용과 위생·품질 관리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앙 집중식 조리 시스템(중앙 키친)의 확산 또한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 키친은 대량 전처리나 일부 조리 과정을 중앙에서 일괄 수행한 뒤 각 급식 현장에 반조리 상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리사의 손질·전처리 업무를 줄이고 단순 조립·배식 중심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현장 조리사의 필요 인원을 일부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중앙 키친 조리 인력과 메뉴 개발·품질 관리 인력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양면성이 있어 전체 조리 인력 수요를 급격히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리조트·대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 방식의 변화도 단체급식 조리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조트의 경우 조식과 직원식처럼 대량·반복적이며 표준화가 용이한 영역은 외주화하고, 연회·이벤트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인건비·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급식 품질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외주화 흐름은 단체급식 조리사의 근무 장소가 리조트·대형 숙박시설에서 외주업체로 이동하는 효과를 유발해 전체 일자리 총량은 유지하되 고용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화 기술의 도입, 중앙 키친 확산, 일부 기관의 외주화 확대는 단체급식 조리사의 업무구조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공공·의무급식 중심의 안정적 수요 기반과 조리 품질 점검, 현장 위생 관리, 대상별 식단 조정 등과 같이 첨단 기술로 완전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자리 총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환경 변화와 일자리 재편

단체급식 조리 직무는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단체급식 조리사를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육체적 부담, 이른 출근 시간, 주말 근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식 현장의 특성상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이에 비해 낮은 처우와 직업 만족도 저하는 중도 퇴직률을 높이고 숙련된 단체급식 조리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고용 인원 감소나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단체급식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위탁 급식업체의 경우에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이는 위탁 급식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전망하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급식 업체의 식재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인건비 절감 압력으로 이어져 단체급식 조리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는 단체급식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외부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을 늘리거나 구내식당 운영을 축소하는 형태로 조리사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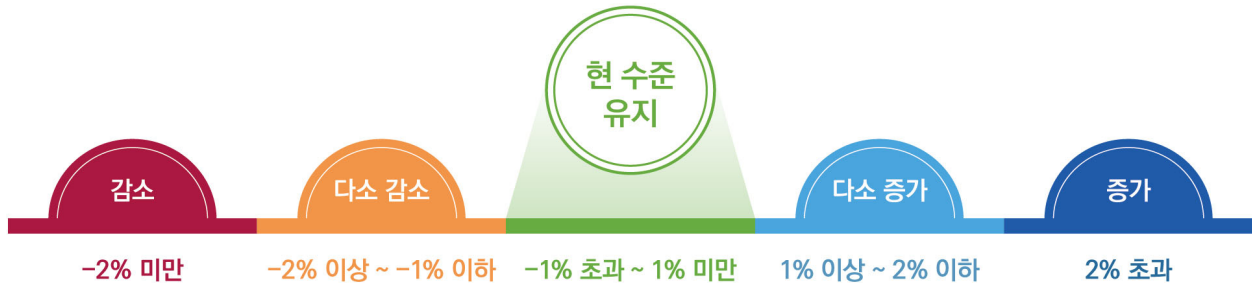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 기준 적용 확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은 단체급식 조리사가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재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요구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해지는 규제는 단체급식 조리사에게 조리 기술을 넘어선 위생 및 안전 관리 역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조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은 식품 안전 및 조리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수단으로, 직업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는 급식 운영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동화 도입 가속화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부의 취약계층 급식 지원 확대, 친환경·지역 농산물 사용 장려 정책 등은 단체급식 조리사의 친환경 식재료 관리 및 조리법 습득과 같은 관련 실무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단체급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 및 고령층 급식 수요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영양 중심 식문화 확대 - 대상별 맞춤형 식단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단순 반복 조리 업무 자동화 및 인력 대체 - 중앙 집중식 조리 시스템 확산
국내외 경기 변화	공공성·안정성 기반으로 기본적인 수요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고객 건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강화	인건비 절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및 아웃소싱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학교·병원 등 의무급식 수요 유지 - 위탁 급식 산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급식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영세 업체 구조 조정
환경과 에너지·자원	친환경·지역 농산물 활용 및 식자재 안전 관리 강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위생·안전 규제 강화로 전문 인력 필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5년 작성

패스트푸드 준비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0%로 예측된다.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조리 매뉴얼에 따라 햄버거, 튀김 등을 조리하고 식재료를 보충하며, 완성된 음식을 포장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 또한 튀김솥, 그릴 등 조리시설과 매장 위생을 관리한다. 본사 재료를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과 체인점 직원도 이 직무에 포함된다. 패스트푸드 준비원 직무는 업무가 단순·반복적 성격이 강하고, 주로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는 외식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기본 고용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 자동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해 일자리의 질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외식 및 배달 음식 수요 확대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조리 로봇이나 키오스크, 자동화 설비 등의 기술 발전은 단순 조리 및 주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 환경 변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고객 응대, 위생·안전 관리, 장비 관리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등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스템이나 AI로의 전면 대체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패스트푸드 수요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시장, 특히 패스트푸드 소비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실무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간편하고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패스트푸드 및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6.5%(잠정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통계청의 「맛별이 가구 및 취업자 특성」(2024)에 따르면 맛별이 가구 비중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외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편식 선호도가 높아 패스트푸드 소비가 많다. 이는 패스트푸드점의 메뉴 판매 및 배달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주방에서는 조리 매뉴얼에 따른 제품 조리, 식재료 준비, 포장,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패스트푸드 준비원이 꾸준히 필요하다. 특히 배달 전문 플랫폼을 통한 패스트푸드 주문량 증가는 조리 및 포장 준비 업무와 연계된 패스트푸드 준비 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외식·배달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정적 수요 유지

외식과 배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 확산과 간편식 선호 증가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식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성장했으며, 배달 음식 비중은 전체 외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빠르고 저렴한 식사를 넘어, 맞춤형 메뉴, 건강 지향적인 옵션, 비대면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형태의 푸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신메뉴 개발,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주문 시스템 도입,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표준화된 조리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인 매장 운영 보조, 위생 관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단순 조리 보조를 넘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및 고용 변화

패스트푸드 시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간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매뉴얼 기반의 인력 운영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직무가 대체로 정형화되고, 신규 인력 교육 및 배치 용이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매장 수의 급격한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신규 매장 개점에 따른 고용의 추가 확대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매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적 인력 운영(다기능 인력 배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 강화되면서, 총량적 일자리 확대보다는 기존 인력의 업무 재편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은 기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공격적인 고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웰빙 지향 문화 확산과 고용 확대 제약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과 영양을 중시하는 식문화가 확산되면서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문화의 확산과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을 섭취하고, 첨가물이나 인공 성분을

피하며, 설탕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클린 이팅(Clean Eating)’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하고 칼로리가 높은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식, 슬로푸드, 비건 메뉴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의 40% 이상이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건강식을 늘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패스트푸드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일부 감소시켜,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패스트푸드 업체는 저칼로리, 저염,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도입하거나 샐러드, 통곡물 샌드위치 등 건강 지향적인 옵션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건강·웰빙 지향 문화의 확산은 패스트푸드 준비원 일자리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건강을 고려한 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자동화 기술 도입과 업무 재편

주방 및 서비스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튀김기, 음료·아이스크림 디스펜서, 자동 조리 로봇, 서빙 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 시스템), 모바일 앱 주문 시스템 등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재료 손질, 단순 조리, 주문 접수, 서빙 등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자동화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은 홀서빙 및 주문 접수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동 조리 로봇은 햄버거 패티 굽기, 튀김 조리 등 단순 조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기술이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모든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자동화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예상치 못한 장비 오류에 대한 대처, 위생 및 청결 관리, 복잡하거나 맞춤형 주문 처리, 고객 COMPLAINT 해결, 그리고 전반적인 매장 분위기 관리 등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으로 디지털 기술로 전면 대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주방 및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에게는 일자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자동화 설비를 원활히 운영하고 관리하며 고객 서비스를 책임지는 역량을 가진 인력에게는 일자리 유지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술의 고도화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들은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패스트푸드 준비원 직무는 외식 산업 전반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준비원을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직 기피 현상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채워지지 않은 공석을 고령층이나 이주 노동자가 채우는 연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활용 비중이 높는데, 이는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외식 산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패스트푸드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패스트푸드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적으로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4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65%가 “인건비 부담으로 단시간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전에 한 명의 정규직이 수행했던 일을 여러 명의 단시간 근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된 예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안전·위생 의식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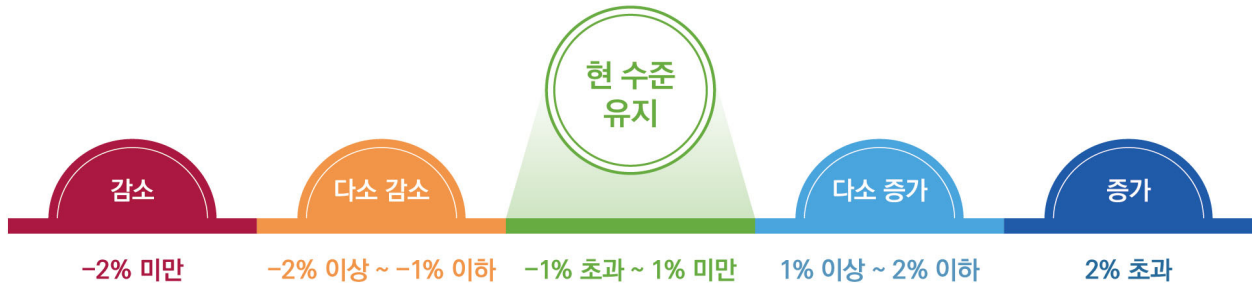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기준 적용 확대 등은 패스트푸드 준비원에게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이 단순히 조리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갖춰 원활한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고용) 관련 법규의 강화는 패스트푸드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산업은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많아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이나 청년층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간편하고 빠른 식사 선호도 증가	• 건강·웰빙 지향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주방 및 서비스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단순 육체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증대	• 조리 로봇, 자동화 설비, 키오스크 도입으로 단순 조리, 주문 접수 등 반복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패스트푸드의 기본 수요 유지	• 경기 침체 및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신메뉴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드라이브 스루, 배달 서비스 확대 등 채널 다변화	• 프랜차이즈 매장 수 증가세 둔화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현장 인력 축소 • 비정규직, 단시간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 패스트푸드 업계 내 경쟁 심화 및 영세 업체 폐업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 •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사업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홀서빙원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홀서빙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웨이터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홀서빙원은 레스토랑, 호텔, 바, 주점 등 다양한 식음료 업소에서 고객에게 음식 및 음료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들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고객을 맞이하며 메뉴판 제시, 음식 및 음료에 대한 조언, 주문 전달, 서빙, 테이블 정리, 계산서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소 규모에 따라 와인 서비스 등 추가적인 전문 업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홀서빙원 직무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서비스가 핵심이며, 주로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외식 수요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상승이 뒷받침되면서 기본 고용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해 일자리의 질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외식 및 배달 음식 수요 확대는 홀서빙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비대면 서비스 기술의 발전은 단순 주문 접수 및 서빙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 환경 변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의 공감 형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돌발 상황 대처, 섬세한 응대 등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스템이나 AI로의 전면 대체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홀서빙원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홀서빙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외식 서비스 수요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시장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며 홀서빙원의 실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외식 및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6.5%(잠정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자 특성」(2024)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외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외식업소의 방문 및 배달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바, 카페 등 다양한 업소에서 고객 응대, 주문 처리, 서빙, 테이블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홀서빙원이 꾸준히 필요하다. 특히 배달 전문 플랫폼을 통한 주문 증가는 매장 내 홀서빙 업무 비중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유지될 것이다.

외식·서비스 산업 성장 및 고객 서비스 품질 기대 상승에 따른 수요 유지

외식과 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 확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기대치 상승은 홀서빙원의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약 1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성장했으며, 배달 음식 비중은 전체 외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외식업소에서 홀서빙원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친절하고 세심한 응대, 쾌적한 환경, 특별한 경험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레스토랑, 호텔, 전문 바 등에서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된 홀서빙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한 K-푸드 세계화 및 한류 확산으로 국내 외식업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홀서빙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및 서빙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역할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서빙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홀서빙원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키오스크(무인 주문 시스템), 태블릿 주문 시스템, 서빙 로봇, 결제 자동화 시스템 등은 식음료 업소에서 주문 접수, 음식 운반, 계산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특히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은 주문 접수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서빙 로봇은 단순 음식 운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홀서빙원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기술이 홀서빙원의 모든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추천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음식 불만, 알레르기 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 불편 사항 해결, 특별한 고객 경험 제공, 그리고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고객 만족도를 관리하는 업무 등은 여전히 사람의 공감 능력과 판단,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디지털 기술로 전면 대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서빙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순 주문 접수 및 음식 운반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에게는 일자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자동화 설비를 원활히 운영하고 관리하며 고객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역량을 가진 인력에게는 일자리 유지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술은 홀서빙원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들은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역량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홀서빙원 직무는 외식 서비스 산업 전반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

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홀서빙원을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직 기피 현상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채워지지 않은 공석을 고령층이나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연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많은 외식업소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활용 비중이 높는데, 이는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외식 산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외식업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식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적으로 홀서빙원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4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65%가 “인건비 부담으로 단시간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전에 한 명의 정규직이 수행했던 일을 여러 명의 단시간 근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된 예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서비스 역량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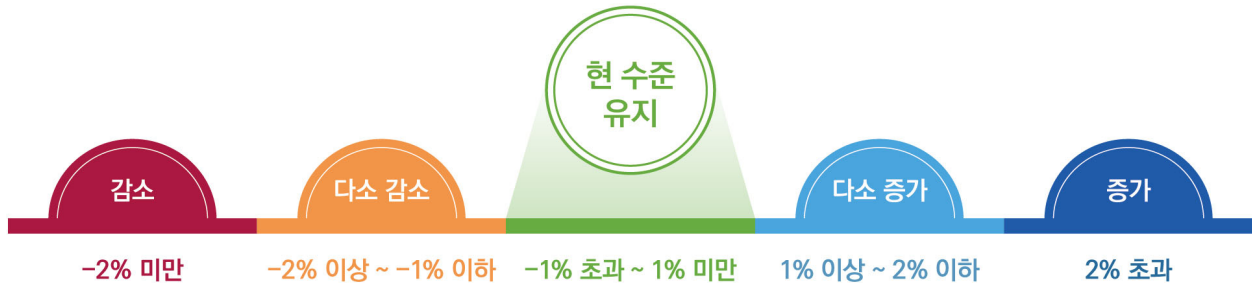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기준 적용 확대 등은 홀서빙원에게도 청결한 매장 환경 유지, 식음료 제공 과정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홀서빙원이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것을 넘어,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고용) 관련 법규의 강화는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고품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홀서빙 인력의 직업 훈련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 경쟁이 심화되면, 업계 자체적으로 홀서빙 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및 간편식 수요 증가	•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고품질 외식 서비스 및 특별한 경험 추구 경향 증가 • K-푸드 세계화 및 한류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비대면 서비스 및 서빙 자동화 도입으로 단순 주문 접수, 음식 운반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외식 산업의 기본 수요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현장 인력 축소 및 비정규직, 단시간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전문 레스토랑, 호텔, 바 등 고급 서비스 제공 업소 증가	•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업체 폐업 증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 •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주방 보조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식사를 주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음식점. 단체급식, 식품 제조 공장,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주방 정리, 기물 세척, 식재료 준비 등 각종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 요리를 책임지는 조리사와 달리,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은 보조·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규모가 있는 음식점에서는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이 없으면 음식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은 업무가 단순·반복적 성격이 강하고,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외식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기본 고용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 자동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해 일자리의 질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외식 및 배달 음식 수요 확대는 일반음식점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주방 자동화 및 스마트 키친 기술의 발전은 단순 조리 보조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 환경 변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식재료의 섬세한 전처리, 조리사의 손발을 맞추는 유기적인 지원, 위생·안전 관리 등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스템이나 AI로의 전면 대체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는 총량 측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외식 수요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외식 시장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며 일반음식점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실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외식,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

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6.5%(잠정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자 특성」(2024)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외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음식점의 메뉴 판매 및 배달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방에서는 식재료 전처리, 조리 보조, 주방 정리 및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이 꾸준히 필요하다. 특히 배달 전문 음식점의 증가는 포장 및 배달 준비 업무와 연계된 주방 보조 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외식·배달 산업 성장 및 다변화에 따른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 수요 유지

외식과 배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는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약 1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성장했으며, 배달 음식 비중은 전체 외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과 미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식 외에도 다양한 외국 음식 전문점, 브런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 특색 있는 음식점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이들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더해 K-푸드의 세계화는 한식당의 증가로 이어지며 주방 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여지가 크다.

■ 주방 자동화 및 푸드테크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 및 역할 변화

주방 자동화 및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은 일반음식점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튀김기, 식기세척기, 채소 절단기뿐 아니라 주방 로봇, 스마트 키친 시스템 등은 식재료 손질, 단순 조리 보조, 설거지 및 청소 등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자동화하여 주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중앙 키친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 전처리 및 일부 조리를 표준화하여 현장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단순 식재료 손질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현장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필요 인력을 일부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료의 섬세한 분류 및 전처리, 조리사의 지시에 따른 유기적인 보조 역할, 자동화 설비가 처리하기 어려운 잔여 작업 및 돌발 상황 대처, 그리고 주방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은 주방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으로, 디지털 기술로 전면 대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주방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에게는 일자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조리사를 도와 주방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에게는 일자리 유지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 환경 변화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외식 산업 전반 상황이 직면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주방 보조 직무에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024년 잠정치)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에 따르면, 주방 보조원(일

반음식점)을 포함한 외식 서비스 직무는 높은 노동 강도, 주말·야간 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직 기피 현상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채워지지 않은 공석을 고령층이나 이주 노동자가 채우는 연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력 구인난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일 경우 더욱 심각한 경향이 있다. 또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외식 산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외식업은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이 높고, 창업과 폐업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 압력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적으로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의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4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65%가 “인건비 부담으로 단시간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전에 한 명의 정규직이 수행했던 일을 여러 명의 단시간 근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고용 총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된 예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안전·위생 의식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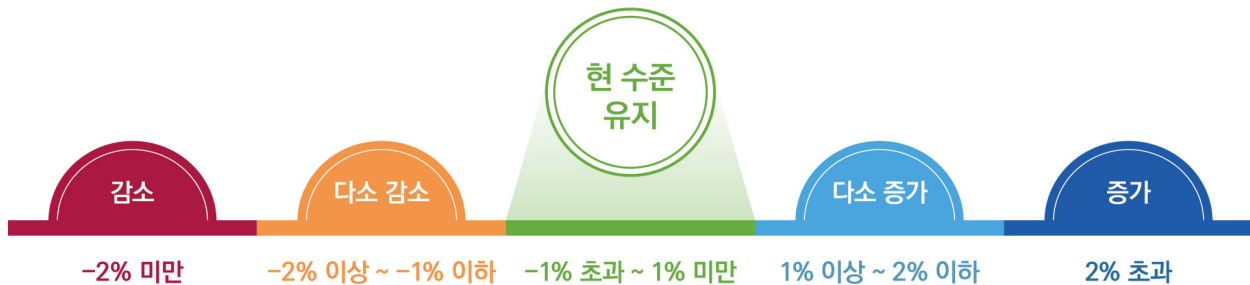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기준 강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기준 적용 확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은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에게 청결한 작업 환경 유지,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방 보조원(일반음식점)이 단순히 조리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갖춰 원활한 주방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고용) 관련 법규의 강화는 소규모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방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배달 음식 수요 증가	• HMR 및 밀키트 시장 성장으로 인한 외식 수요 일부 대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건강 및 미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외식 산업 다변화 및 전문점 증가 • K-푸드 세계화에 따른 한식당 수요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주방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노동 강도 경감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	• 조리 로봇,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단순 식재료 손질, 세척 등 반복 업무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외식업의 기본 수요 유지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메뉴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 현장 인력 축소 및 비정규직, 단시간 고용 증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소규모 전문 음식점, 배달 전문점 등 다양한 외식업 형태 확대	• 외식업 경쟁 심화 및 영세 업체 폐업 증가
환경과 에너지·자원	• 친환경·지역 농산물 활용 및 식자재 안전 관리 강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제 강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법규 변화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경호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경호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심리적 안정과 정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인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위험 요인 분석, 동선·수송·출입 통제 계획 수립, 수행 경호 및 근접 경호, 행사장 군중 관리, 상황 보고·대응, 경호장비 운용, 경찰·소방·시설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후 평가·개선 등 다층적이고 광범위하다. 근무 환경은 실내외 근무가 혼합되어 있고, 경호 대상의 활동에 따라 이동량이 많으며 야간·주말 근무 빈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뛰어난 체력을 요구하는 고강도 직무이다. 국내에서 경호원은 「경비업법」 체계 아래 신변보호업 영역에서 활동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경비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사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호원 일자리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대형 공연·전시·스포츠 경기 등 민간 경호·경비 인력이 통상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의 증가, VIP·CEO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보호 수요 증대, 고위험 업종·시설의 보안 강화, 그리고 스토킹·협박 등 위협 양상의 다변화가 꼽힌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호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다. 반면, 지능형 CCTV·출입 통제 시스템 등 첨단 보안 기술의 확산이 일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경호 업무를 효율화하여 인력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 고강도 직무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과 숙련자 부족 현상 등은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향후 10년간 경호원의 일자리 총량은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안전 수요 증가 및 전문 경호 서비스 확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기업의 중요 자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사·사업장 특성에 맞춘 민간 경호 용역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호원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첫째,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활동이 재개되

면서 공연·박람회·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의 개최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수많은 관람객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원활한 동선을 통제하기 위한 경호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발생시킨다. 특히 K-컬처 관련 콘서트, 팬미팅, 국제 컨벤션, 프로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은 민간 경호업체가 경호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둘째, 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고위 인사 및 관광객 등 특정 인물에 대한 근접 경호 및 이동 경호 수요가 민간 부문에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증가,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활동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 필요성을 증대시켜 경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요인이다. 셋째, 1인 가구 및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개인 신변 보호 수요 확대도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개인의 주거 안전 및 신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 귀가 동행 서비스나 주거지 보안 강화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경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 및 재산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경호 서비스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층은 사기 범죄나 재산 관련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문 경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특이 사항이 있는 고령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전략 산업 시설의 보호 강화 기조는 경호원의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이들의 일자리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 시설 등은 국가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관리·순찰 등 물리적 보안을 넘어선 전문적인 경호·경비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고시」에 따라 보안 기준이 강화된 이러한 산업 시설에서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 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경호원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단순 경비를 넘어선 산업 보안 영역으로 확장하며,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경호 인력의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스토킹·협박 등 대인 위협 양상의 다변화는 경호원의 역할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수요를 창출한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 스토킹·협박 등 대인 위협 이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비접촉 위협(드론, 레이저 등)이나 온라인 협박 등이 현실 리스크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위협 인지와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 역량을 갖춘 전문 경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호원의 업무가 단순 물리적 방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프로파일링 및 위협 시그널 탐지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및 첨단 보안 기술 도입과 경호원의 일자리 재편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 얼굴·객체 인식, 무선주파수(RFID) 기반 출입 통제, 원격 관제 등 첨단 보안 기술의 확산은 경호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일자리에선 대체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능형 CCTV 도입·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하듯이, 이러한 기술들은 이상 행동 감지, 침입 경보,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경보 및 관제에 큰 도움을 준다. 이는 반복적인 순찰이나 단순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특히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시설에서는 첨단 보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AI와 첨단 기술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

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판단, 경호 대상 및 주변 인물과의 원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위기 관리 능력, 응급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등 고도의 숙련된 경호 역량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경호원이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을 덜고,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첨단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그리고 고객 맞춤형 경호 전략 수립과 같은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미래의 경호원은 기술과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아날로그 경비’에서 ‘데이터 기반 경호’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호 장비 융합 운용’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보안 인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직무 재편은 단순 경호 인력의 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 운용 능력을 갖춘 경호원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직무 특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경호 직무의 고강도 특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호원은 교대·야간·이동이 잦고 돌발 상황 대비가 필요한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신체적 강인함, 뛰어난 상황 판단력,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능력 및 신속한 대처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고강도 업무는 필연적으로 높은 피로도와 이직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직무의 특성은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 및 지속 근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신규 인력의 진입이나 진입 후 정착을 어렵게 하여, 숙련자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24시간 대기, 주말 및 야간 근무, 잦은 출장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경호 직무로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는 신체적 조건이 중요한 직업 특성상 청·장년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구인자와 워라벨을 선호하는 청년 구직자 간의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은 경호원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숙련된 경호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처우·근무 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같은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경호원 직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호 시장 양극화 및 일자리 재편 가속화

경호 시장은 대기업 경호 서비스와 중소형 전문 경호업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의 ‘질’과 ‘요구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경호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첨단 시스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갖추고 대규모 행사 경비나 상시 경비를 안정적으로 수주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층을 흡수하여 고급 경호 분야의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중소형 경호업체들은 대형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영역(예: 소규모 이벤트 경호, 개인 맞춤형 생활 보호, 특정 시설 경호 등)에 특화하거나, 특정 고객층에 초점을 맞추는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 재편 과정에서, 첨단 기술력이나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는 경쟁에서 밀려나 폐업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단순 경호 인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호 시장의 양극화는 전체 경호원 일자리의 총량에 급격한 증감을 가져오기보다

는, 일자리의 ‘질’과 ‘요구 역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중앙관제 시스템 활용 능력, 표준 운영 절차(SOP)에 대한 이해, 품질관리(QA) 역량 등 시장이 원하는 요구 역량을 갖춘 경호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며, 반대로 단순 반복 업무 위주의 경호 인력은 기술 대체 및 시장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일자리 축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여성 경호원 인식 개선 및 선호 증가

여성 경호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선호 증가는 여성 경호원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호원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여성 고객이나 아동이 동반되는 경호 현장, 혹은 탈의실·대기 구역 등 민감한 공간에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 경호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여성 경호원은 성별 특유의 섬세함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비상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남성 중심적이었던 경호 시장에서 여성 경호원의 역할과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민간 경호·경비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기반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상태다.

■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와 경호원 직무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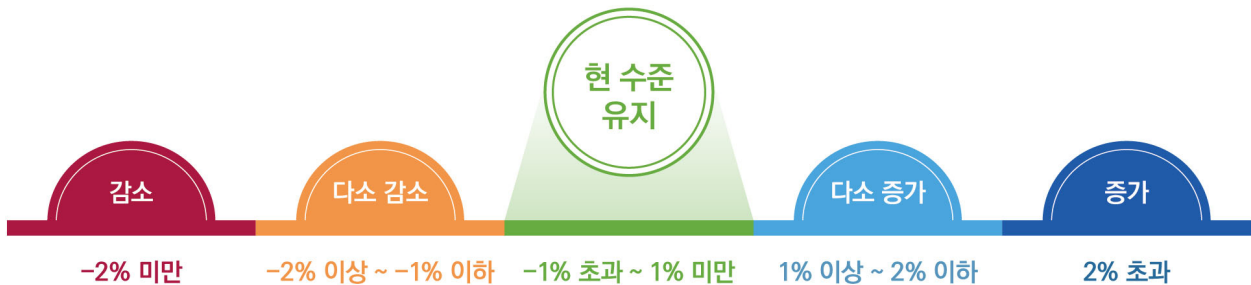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경호원 직무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직종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제도 개정에 따라 직무 환경 및 요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경찰청의 「경비업법」 및 「경비업무 처리지침 및 교육기준」과 같은 고시·지침의 개정은 종사 요건과 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경호원의 전문성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관련 법규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고시」와 같은 보안 관련 제도는 주요 산업 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경비·경호 운용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경호원에게 단순히 신변 보호를 넘어,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응급 처치, 인권 보호, 개인정보 보안 등 보다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전문 역량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경호원은 이러한 법적·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경호원의 고용 안정과 커리어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대 • 1인 가구 및 고령화사회에서 개인 신변 보호 수요 증가 • 스토킹 등 강력 범죄 증가로 인한 개인 경호 수요 확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개인 및 기업의 자산 보호, 정보 보안 중요성 인식 증대 • 주요 행사 및 유명인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비공개 경호 요구 증대 • 여성 경호원 선호 증가	• 고강도 업무 특성으로 인한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단순 순찰, 모니터링, 출입 통제 등 반복 업무의 기술 대체
국내외 경기 변화	• 국제 행사 국내 유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유명 인사들의 해외 진출 증가에 따른 경호 수요 증대 • 대형 이벤트 및 관광 회복에 따른 행사 경호 수요 증가	• 경기 침체 시 기업의 보안 예산 감축 및 경호 서비스 수요 위축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포괄적 보안 서비스(물리적+정보 보안+위기 관리) 제공 확대 •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경호 서비스 제공 • 첨단 보안 기술과의 통합 솔루션 제공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및 시스템 전환 • 고용구조 유연화(계약직, 프로젝트 계약 확대) 추구 • 경호 시장 양극화 심화에 따른 영세 업체 단순 인력 일자리 감소 가능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경비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서비스 다각화 • 사이버 보안 및 산업 보안 분야로 업무 영역 확장 • 경호 범위의 확대(생활, 시설, 공공, 산업 정보 보호, 보안검색, 해외 위험지 등) • 위협 양상의 다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경비업법」 등 관련 법규 강화	•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청원경찰

(연평균 증감률%)



■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청원경찰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4%로 예측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은행, 공공건물, 박물관, 산업체 등 국가 중요 시설이나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산과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고 절도, 폭력, 법률 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일반 경비원과 달리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며,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직무는 단순히 감시와 순찰을 넘어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공공의 안전 유지 활동을 포함한다.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은 근무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실내외 근무가 혼합되어 있고, 주·야간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 특히 중요 시설의 보안을 책임지므로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도의 책임감, 집중력,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청원경찰 일자리의 전망에 있어 법적 기반에 근거한 안정적 고용 수요, 민간 경비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은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 강화 기조, 일부 단순 업무의 민간 경비업체로의 이관(외주화),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 특수한 직무 환경에 기인한 인력 수급의 제한 등은 이들의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청원경찰의 일자리는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일자리의 총량은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경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기반에 근거한 안정적 고용 수요

청원경찰은 일반 민간 경비원과 달리 「청원경찰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임용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규정을 준용받거나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짐으로써 고용 안정성이 높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청원경찰 일자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청원경찰의 고용은 일반적인 시장 수요-공급 원리보다는 기관별 정원과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기조와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으로 인해, 신규 채용보다는 정원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다. 경찰청의 「2023 경찰통계연보」(2024)에 의하면 청원경찰 시설 및 종사자 수는 2022년까지 1만 3,000여 명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23년 1만 2,000여 명대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원경찰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강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유연한 인력 증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 또한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장기적인 고용 전망은 고용 확대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경찰 시설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사자 수(계)	12,885	13,634	13,643	13,593	13,010	12,644
남	12,523	13,128	13,053	12,971	12,346	11,969
여	362	506	590	622	664	675
시설 수	1,801	1,718	1,682	1,683	1,655	1,607

자료: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 2024

사회 안전 수요 증가 및 공공 부문 역할 재조명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의 보안 역할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강조하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중요 공공시설, 금융기관, 문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최근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사회 내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대인 위협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청원경찰은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인 예방 및 초기 대응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청원경찰에게 단순히 물리적 보안을 넘어, 이용객과의 소통 능력, 심리적 안정감 제공, 변화하는 위협 양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 등 다각적인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공 부문의 신뢰와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청원경찰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의 일자리 확대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AI 및 첨단 보안 기술 도입과 일자리 재편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 얼굴·객체 인식, 무선주파수(RFID) 기반 출입 통제, 드론 감시, 원격 관제 시스템 등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은 청원경찰의 직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 반복적인 감시 및 순찰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일부 일자리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CCTV는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침입 경보를 울려 청원경찰이 수많은 모니터를 일일이 감시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RFID나 생체 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수동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청원경찰의 신규 채용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산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관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경호원 직무와 마찬가지로, AI 및 첨단 기술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판단,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위협 대응(현행범 체포 등),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청원경찰이 단순 모니터링 부담을 덜고,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분석, 첨단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그리고 위기 상황 시 인명 보호 및 초기 대응과 같은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미래의 청원경찰은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시자’에서 ‘종합 보안 관리자’ 또는 ‘위기 대응 전문가’로 역할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 경비업과의 역할 분담에 따른 일자리 재편

청원경찰과 민간 경비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이라는 상이한 법적 기반 아래 각자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명확히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청원경찰의 일자리 증가 관점에서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사기업의 상업시설(백화점, 마트 등), 주거단지(아파트, 오피스텔), 일반 기업체 등을 담당하며, 주로 시설 경비, 신변 보호, 호송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고객과의 계약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인건비 효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반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가중요시설 및 중요 사업장 등에 배치되며,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의 구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신분을 가진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받아 현행범 체포, 무기 사용 등 민간 경비원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국가 중요 시설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지정되며, 이러한 시설의 보안은 단순 민간 경비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공공성과 법적 강제력이 동반된다. 이처럼 청원경찰의 핵심 직무 영역은 법적 권한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민간 경비로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는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건비 효율화 및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영전략 변화는 청원경찰의 일부 직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예: 출입증 확인, 주차 관리 일부, 일반 안내)는 민간 경비업체에 외주 용역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채용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부 기존 청원경찰 일자리의 재편 또는 감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 부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단순 업무의 외부 위탁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은 민간 경비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법적 권한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핵심 직무는 안정적인 고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차적·단순 업무는 민간 경비업체로의 외주화로 인해 고용 축소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력 수급 제한

청원경찰은 일반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임용 절차(체력 검정, 서류 심사, 면접 등)와 신체 조건을 요구받는데, 이는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교대 근무, 야간 근무, 그리고 긴급 상황 대기 등 고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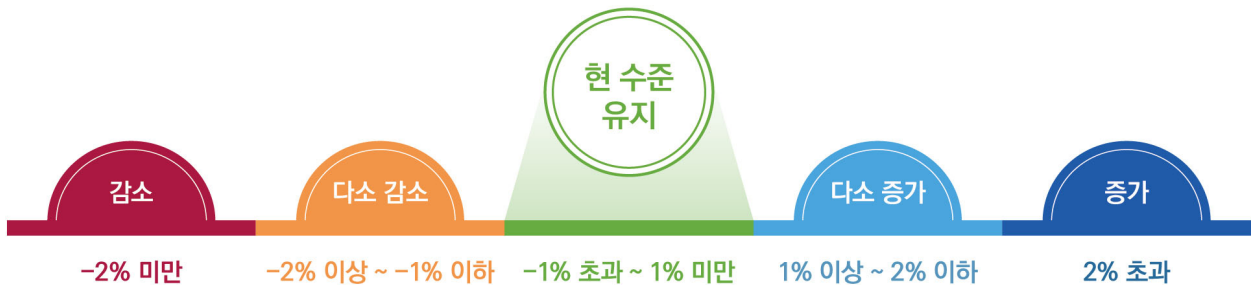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높은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신규 인력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비업법」상의 일반 경비원과 달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나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그에 따른 높은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무의 특수성은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사회 전반의 안전 및 보안 의식 강화 • 중요 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요구 증대	• 고강도 업무, 불규칙한 근무 기피
과학기술의 발전		• 단순 순찰, 모니터링, 출입 통제 등 반복 업무의 AI 및 첨단 기술 대체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공공 부문 인력 운영 효율화 정책 기조 지속 • 민간 기업으로 업무 영역 일부 이관(외주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공공 보안 시장의 특수성에 따른 안정적인 직무 영역 유지 •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민간 경비와의 경계 구분 명확 • 주요 인프라(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안전 유지 중요성 증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청원경찰법」 기반의 고용 안정성 •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공공시설 보안을 위한 정책 지속 • 관련 법규 강화 • 재난 및 위기관리 솔루션 통합 보안 서비스 확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시설 및 특수 경비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2%로 예측된다.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설이나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 또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관제 시설로부터 수신하여 출동함으로써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등을 안전하게 호송하여 운반하는 일을 한다.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2025년 1월 31일 시행)은 경비 업무의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비 업무에 '혼잡경비'가 추가되고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 신설,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것은 대규모 인파 관리 등 민간 경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간 경비업이 단순히 사적 재산 보호를 넘어 사회적 안전 관리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하였던 민간 경비 영역에 대한 감독과 책임 부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 전망에 있어 법적 기반에 근거한 안정적 수요 유지, 국가 기반 시설 확대에 따른 상시 수요 확보, 사회 안전 수요 증가 및 경비 서비스의 다변화, 청원경찰 일부 업무 위탁에 따른 일자리 증가 등은 이들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과 이로 인한 인력 효율화, 고강도 업무 환경에 대한 기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등은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는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일자리의 총량은 '현 수준 유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 기반에 근거한 안정적 수요 유지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민간 영역에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청원경찰과 달리 시장 수요와 공급 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비업법」은 시설 경비업, 호송 경비업, 신변 보호업, 기

계 경비업, 특수 경비업 등 경비 업무의 종류와 경비업체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하여 경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특수 경비원’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해당 시설의 경비 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한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일반 시설 경비원보다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민간 경비 시장 내에서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개정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경비법에는 ‘혼잡경비’ 업무가 신설되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가 민간 경비업의 정식 업무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이전의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를 경험하며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민간 경비업이 사유 재산 보호를 넘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제도 신설 및 선임·해임 신고 의무화,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민간 경비 분야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체 경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경비 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경비 업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국가 기반 시설 확대와 상시 수요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금융기관, 연구 시설 등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은 연중무휴의 상시 경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이들 시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므로 보안 공백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시설 및 특수 경비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최근 국가 기반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규 건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시설 및 특수 경비원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안전 수요 증가 및 경비 서비스의 다변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비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사회는 강력 범죄, 테러 위협, 산업 스파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시설물, 산업 단지, 대규모 상업·주거 단지 등 민간 경비의 주요 수요처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비 서비스의 영역이 물리적 보안을 넘어선 ‘통합 안전 서비스’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은 CCTV 모니터링, 출입 통제, 순찰 등의 전통적인 시설 경비 업무 외에도 재난 예방 및 대응, 비상 상황 시 인명 구조 지원, 고객 안내 및 민원 처리, 데이터 보안 관리 등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 시설 및 주거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 시스템과 연계된 현장 인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직무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요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경찰 일부 업무 위탁에 따른 일자리 확대

최근 공공기관 및 국가 중요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경비업체가 가진 유연한 인력 배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 최첨단 보안 장비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같은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경비 업무의 일부를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유한 직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경비가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청원경찰의 핵심 직무 영역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일부가 위탁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 및 특수 경비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며, 공공 부문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처 대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효과도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 경비 시장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청원경찰 일부 업무의 민간 경비 위탁은 민간 경비업체가 전문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및 특수 경비원 일자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I 및 첨단 보안 기술 도입과 일자리 재편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 얼굴·객체 인식, 드론 감시, 원격 관제 시스템 등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은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직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 반복적인 감시 및 순찰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일부 일자리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CCTV는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침입 경보를 올려 경비 인력이 수많은 모니터를 일일이 감시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무선주파수(RFID)나 생체 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수동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민간 기업에서 인력 대신 기술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신규 채용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판단,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위협 대응(불법 침입자 제지 등), 그리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및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이 단순 모니터링 부담을 덜고,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분석, 첨단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그리고 위기 상황 시 인명 보호 및 초기 대응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재편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일자리는 국내외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간 경비업은 일반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 경비 인력 감축이나 저가 서비스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은 신규 건축물 건설 감소로 이어져 시설 경비 수요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다. 한편, 특정 산업의 성장이나 정부의 투자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첨단 연구 시설, 스마트 팩토리 등 고도화된 보안이 요구되는 신규 산

업의 성장은 특수 경비 및 기계 경비 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지진, 화재, 테러 등 재난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재난 대비 및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경비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호송 경비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금 호송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나, 고가 물품, 기밀 문서, IT 장비 등 특수 물품의 안전한 운송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비용 효율화가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고도화된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경비 수요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근무 환경의 특수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은 교대 근무, 야간 근무, 그리고 긴급 상황 대기 등 고강도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에 대한 이해와 높은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특수 경비원’의 경우 공항, 항만, 국가 중요 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총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한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신규 인력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업무 특성과 불규칙한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은 젊은 층이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직무로 입직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의 업무 확대, 사회적 공공성 강조,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점,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의 부담이 줄고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직업의 이미지와 처우를 개선하여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사회 안전 수요 증가 및 경비 서비스의 다변화	•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젊은 층 입직 제약 • 워라벨 중시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 기술 활용을 통한 직무 변화: AI 및 첨단 보안 기술이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을 줄여 경비원의 핵심 역할 집중 기회 제공	• 단순 반복 감시·순찰 업무 효율화 및 인력 의존도 감소
국내외 경기 변화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일자리 재편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청원경찰 일부 업무 위탁에 따른 일자리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국가 기반 시설 확대와 상시 수요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법적 기반(「경비업법」)에 근거한 안정적 수요 유지 • 경비업법 개정(2025.1.31 시행)에 따른 직무 범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혼잡경비’ 업무 신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등 민간 경비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경비원(건물관리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건물관리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경비원(건물관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무용 빌딩, 학교, 공장 등의 시설물, 그리고 공사 현장 등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 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한다. 이들은 출입자 통제, CCTV 모니터링, 순찰, 비상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보안 업무 외에도 시설 안내, 주차 관리, 방문객 응대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순 경비 업무를 넘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택배 수령,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직무 범위 확대는 경비원(건물관리원) 업무의 다기능화를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고령층 인구 증가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경비 서비스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킨다. 반면, CCTV, 무인 경비 시스템, 로봇 경비 시스템 등 첨단 보안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확산은 단순 반복적인 경비 업무의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처럼 상반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직무 범위 확대 및 일자리 안정화

최근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은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과거 아파트 경비원(건물관리원)은 경비 업무 외 택배 수령, 주차 대행,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러한 업무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건물관리원)이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업무가 단순히 침입 감시나 순찰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주택 거주자

의 편의를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경비원(건물관리원)은 택배 수령,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주차 지원, 공용 시설물 관리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건물관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고용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비원(건물관리원)이 보안 인력을 넘어 다기능 서비스 인력으로서 경비원(건물관리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첨단 보안 시스템 발전 및 자동화 확산

CCTV, 무인 경비 시스템, 로봇 경비 등 첨단 보안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확산은 경비원(건물관리원) 일자리 감소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고성능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침입 감지 센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무인 경비 시스템은 경비 인력 없이도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드론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는 등 로봇 경비 시스템도 도입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 감시·순찰 등 반복적인 경비 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며, 이는 경비원(건물관리원) 직업의 전반적인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고령층 인구 증가와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는 경비 서비스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단지에서는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제공을 위한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들은 낯선 사람의 출입 통제, 위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 제공이 필요한 입주민들에게 생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아동이나 여성 대상 범죄, 강력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서 주택가,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의 보안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CCTV 설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장 대응,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순찰 활동, 그리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보호 조치 등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반적인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 증대는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며, 현장 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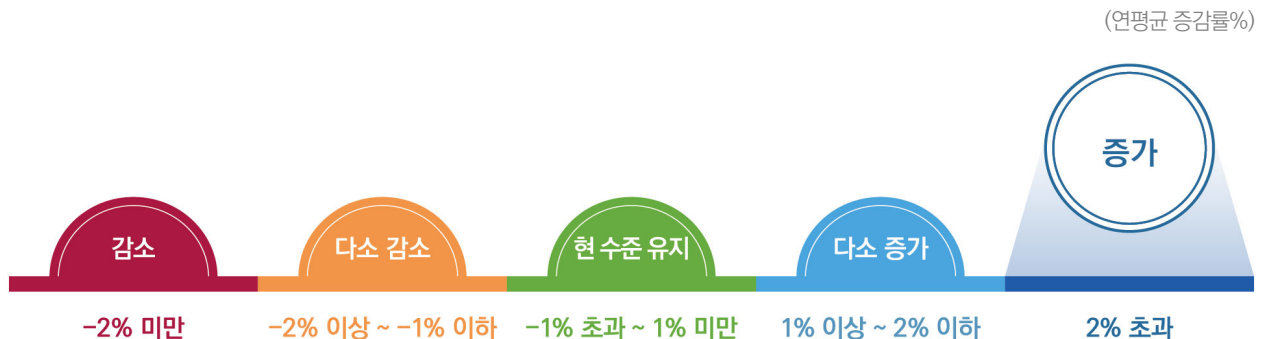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으로서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중요성은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화재, 지진, 폭우,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은 경보를 울리거나 상황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인 인명 보호 조치, 대피 유도, 긴급 복구 지원 등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경비원(건물관리원)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경찰, 소방)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 대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건물 구조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피 경로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인간의 즉각적인 판단력, 현장 대응 능력, 그리고 비상 관리 역량이 필수적인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경비원(건물관리원)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인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의 중요성	
과학기술의 발전		• 첨단 보안 시스템 발전 및 자동화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직무 범위 확대 및 일자리 안정화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은 고령자·환자·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 보호사는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 서비스에서 노인·장애인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간병인은 병원·요양시설·가정 등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식사·위생·이동을 돕고 치료 과정 보조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요양 보호사는 공적 제도 속에서 교육·자격 관리가 이루어져 전문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간병인은 개인 계약이나 용역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들의 일자리 증가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만성질환자의 증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은 요양 보호사의 고용 기반을 견고히 하는 요인들이다. 또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의한 가족 돌봄 공백은 전문 돌봄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상시화된 감염 관리 체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제는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역할과 수요를 다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돌봄 서비스 확대는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과 더불어,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AI 및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는 직업의 매력도를 높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회적·제도적·기술적 변화가 상호 작용하며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관절염 등은 장기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들이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

르면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자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이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건강수명)과 총 기대수명 간의 격차 또한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 보호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야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 보호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자 공적 안전망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을 완화하여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서비스 역시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확대는 요양 보호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요양 보호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양 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감독 제고 등은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해당 분야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가족화, 1인 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돌봄 공백 확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간병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핵가족화의 심화는 이러한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약화하였다.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1인 가구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의지할 가족이 없어 전문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직접 노부모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부족해졌음을 의미한다.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그리고 노인 부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현대 가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 보호사 등 외부 돌봄 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증가라는 사회구조적 변화는 가족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과

적으로 전문 간병인 및 요양 보호사 수요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상시화된 감염 관리, 통합돌봄 요구 증가

현대 의료기관은 갈수록 고도화된 의료 기술과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환자의 비의료적인 일상생활 돌봄(간병) 영역은 외부 전문 인력에게 위탁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의료진이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집중하고,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고,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상시화된 관리 체계로 정착되었다. 이제 의료기관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독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환자 간병 시 전문적인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감염 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토콜을 따를 수 있는 전문 간병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과제는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역할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환자가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도록 의료, 요양, 주거,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역사회 연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이들 직업의 수요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은 돌봄 서비스 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공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재가 서비스 바우처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돌봄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발맞춰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들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적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 외국인 간병 서비스, 심야 돌봄 서비스, 특정 질환 맞춤형 간병 등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간병인/요양 보호사 매칭 서비스가 도입되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민간 영역의 성장은 돌봄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이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며,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일자리 수요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확대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직업적 매력도와 인력 유입을 높이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 또한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은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휴게 환경, 감정 노동 및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요양 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 휴게시간 보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근로 조건과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요양 보호사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건강검진 확대 등 복지 혜택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간병인의 경우에도 요양 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 보건복지부의 간병 서비스 표준화 및 교육 강화 노력, 민간 자격의 신뢰성 제고 등이 확산되면서 직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은 직업 만족도를 높여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수입, 개선된 근무 여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직업이라는 인식은 젊은 층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신규 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직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AI 및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과 직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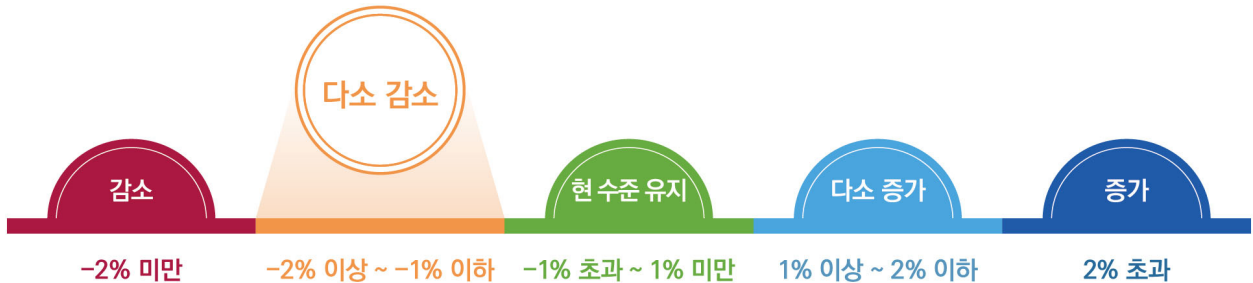
AI 기반의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은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의 직무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투약 알림 및 정서 지원, 스마트 기저귀를 통한 대소변 알림, 로봇 보조 장비를 이용한 이동 보조, 바이탈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 낙상 감지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이 이미 돌봄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돌봄 인력이 24시간 내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감수하며 감시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첨단 기술과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사람의 고유한 역할로 남아 있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판단, 환자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공감 능력,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한 정서적 지지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이 단순 업무 부담을 덜고, 첨단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섬세하고 개인화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휴먼터치 업무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즉, 미래의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은 기술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직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신체 활동 보조자를 넘어 ‘통합 스마트 돌봄 서비스 관리자’이자 ‘환자 및 어르신 소통·정서 지원 전문가’로 역할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 핵가족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외부 돌봄 서비스 의존도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AI 및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과 직무 변화: AI 스피커, 스마트 기저귀, 로봇 보조 장비 등 기술이 단순 업무 효율화(일자리 대체 보다 보조 및 확장 효과가 큼)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의료기관의 상시화된 감염 관리, 통합돌봄 요구 증가 -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돌봄 서비스 확대: 지자체별 공공돌봄 프로그램(독거노인, 취약계층 바우처 등) 및 민간 업체들의 서비스 다변화 및 시장 확대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장기요양보험 제도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재가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인력 기준 강화 및 교육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제로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계 돌봄 역할 확장 -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 인력 유입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육아 도우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0%로 예측된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는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아 및 어린이의 피복을 수선, 세척, 다림질하는 등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돕고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부모로부터 아이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식사·놀이·수면·배변 등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고 돌봄 종료 시점에 부모에게 당일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육아의 의복 세척 및 침구 손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감소 전망에 있어 저출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보육 인프라의 개선과 공유 돌봄, 품앗이 육아 등 대안적 돌봄 서비스의 확산은 개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의 고용 안정성 제약 또한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트렌드 변화로 직접 돌봄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논의 등 정책적 변화가 국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시장에 경쟁 심화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4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직결된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핵심 수요층인 영유아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저출

산 현상은 단순한 출생아 수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보육 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는 가구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서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여러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 유인이 약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직업군의 일자리 감소를 전인할 중요한 요인으로 전망된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인프라 개선

정부의 보육 정책 강화와 보육 인프라 개선 노력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 설립 지원을 통해 기업 내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보육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를 가정 내에서 고용하는 대신 공공 시설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의 선택을 유도한다. 또한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크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돌봄 시설 확충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육 인프라의 양적·질적 개선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가정 내 개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비용 부담 증가 및 고용 안정성 제약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는 가계의 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을 더욱 높여 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가계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은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숙련된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가 해당 직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기 어렵게 만들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처럼 높은 비용 부담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 양육 트렌드 변화 및 부모의 직접 돌봄 선호 증가

현대 사회의 양육 트렌드 변화 또한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외부 인력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관대했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모들이 직장 업무 외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직접 양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증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그리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확산과 같은 기업 문화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게 자녀의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아예 직접 돌봄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강한 의지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고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공유 돌봄, 품앗이 육아 등 대안적 돌봄 서비스 확산

개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의 높은 비용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유 돌봄 및 품앗이 육아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품앗이 육아'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서로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제공하며, 개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를 고용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보다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웃과의 협력적 육아 모델이 자리 잡고,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돌봄 자원이 확충되면서, 전문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안적 돌봄 서비스의 확산은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논의 및 시장 영향

국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의 높은 인건비 문제와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계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외국인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존 국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돌봄 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국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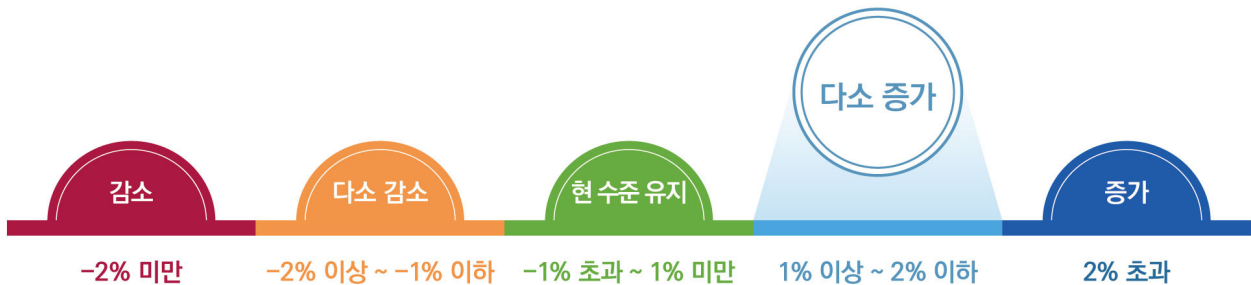
에게는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자리 감소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은 국내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시장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거나, 서비스 단가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 인력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논의는 향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일자리 감소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저출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양육 트렌드 변화 및 부모의 직접 돌봄 선호 증가(워라밸 추구,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확대 등 직접 돌봄 선택 가구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SI 및 스마트 육아 기술 도입과 서비스 대체 가능성(단순 돌봄 업무를 일부 대체하거나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
국내외 경기 변화		육아 도우미 비용 부담 증가: 육아 도우미 인건비(최저임금 등) 상승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대, 고용 유인 감소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개인 계약 위주(고용주-도우미 모두에게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 - 공유 돌봄, 품앗이 육아 등 대안적 돌봄 서비스 확산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인프라 개선 -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논의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청소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청소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청소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1%로 예측된다.

청소원은 공공건물, 아파트, 사무실, 병원, 상가, 공장 등 건물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정돈 및 관리를 한다. 건물·사무실·병원·학교·역사 등 다양한 시설에서 청결과 위생을 관리하며, 바닥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방역 등 일상적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는 전문 장비를 활용하거나 친환경·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직업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 표면 및 유리창을 청소하는 건물 외벽 세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청소원 일자리 증가 전망에 있어,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화 심화는 청소 수요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또한 위생 및 환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과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증대는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아웃소싱 및 전문 청소업체 시장의 성장은 이들 직업의 고용 형태를 다변화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 장비 및 기술의 발전은 직무 효율성을 높여 청소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건물 청소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화 심화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화 심화는 건물 청소원 일자리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과 경제 발전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신규 주거용 건물,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오피스 빌딩), 병원, 학교, 관공서 등 공공 시설의 건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규 건물의 증가는 연쇄적으로 이들 건물의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청소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복합 쇼핑몰, 대형 병원, 초고층 빌딩 등 현대 건물은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이용객

수가 많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건축물의 고도화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소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공공 공간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건물 청소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요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도시화의 흐름은 건물 청소원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위생 및 환경 인식 향상과 감염병 예방 중요성 증대

사회 전반적으로 위생과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개인 위생뿐 아니라 공용 공간의 위생 관리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사무실, 대중교통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 그리고 더욱 철저한 청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청소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질병 예방과 건강한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물 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전문 청소 인력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실내 공기질 관리와 청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생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건물 청소원의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아웃소싱 확대 및 전문 청소업체 시장 성장

기업 및 건물 관리 주체들의 핵심 업무 집중 전략과 효율성 추구 경향은 청소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 청소업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물 관리 인력이 청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비용 절감, 전문성 확보, 관리 효율 증대 등의 이유로 청소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전문 청소업체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과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물 관리 주체들은 청소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 증가는 청소원의 고용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전문 청소업체 소속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문 청소업체들은 건물 유형별(사무실, 병원, 공장 등) 맞춤형 청소 서비스와 특수 청소(준공 청소, 입주 청소 등) 등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규모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건물 청소원의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 청소 장비 및 기술의 발전과 직무 전문성 강화

청소 장비 및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물 청소원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성능 진공 청소기, 바닥 세척기, 건식·습식 청소 로봇, 고압 세척기 등 다양한 첨단 청소 장비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청소의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 빠르고 깨끗하게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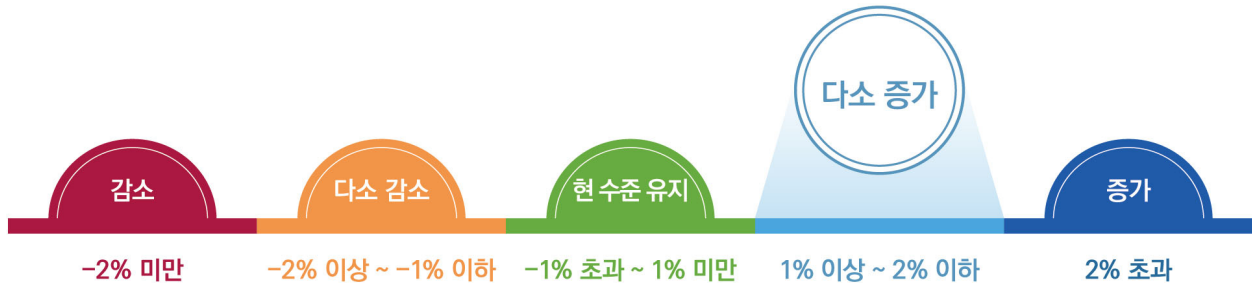
기술 발전은 단순히 효율성 증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원의 직무를 전문화하는 데 기여한다. 첨단 장비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세제 사용, 공간별 맞춤 청소 기술, 살균 및 소독 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청소 로봇이나 스마트 청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청소원은 단순 노동을 넘어 이러한 장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오작동 시 대처하는 등 ‘청소 기술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직무의 전문성 강화는 청소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의 가치를 높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도시화 심화(인구 도시 집중)로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위생 및 환경 인식 향상과 감염병 예방 중요성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청소 장비 및 기술의 발전과 직무 변화: 고성능 장비(청소 로봇, 자동 세척기 등) 도입으로 직무 효율성 향상, 물리적 부담 감소	기술 도입으로 인한 수적인 일자리 감소 압력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청소 산업의 아웃소싱 확대 - 전문 청소업체 시장 성장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지자체/공공기관 소속과 민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처우 격차 문제 - 일자리 미스매치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4%로 예측된다.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도시와 지역사회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고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이다. 이들은 도로·공공장소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그리고 가정·상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 시설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한다. 이들의 고용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용과 민간 위탁 기관의 용역 채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직접 채용은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한 반면, 민간 위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구인난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일자리 증가 전망에 있어, 도시화 심화에 따른 도심 인구 증가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이들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과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 강화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노력을 수반하며, 이는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부각은 도로 및 공공장소 청소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업 환경 개선 및 자동화 장비 도입은 직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인력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화 심화 및 도심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대

도시화 심화에 따른 도심 인구 증가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일자리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한국 사회의 총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나,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및 주요 거점 도시의 인구 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심 인구 증가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직

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1인 가구 및 핵가족의 증가, 그리고 소비문화의 확산은 개별 가구당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며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인력, 즉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원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수거 및 처리 과정의 난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더욱 많은 인력과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화 심화에 따른 도심 인구 증가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직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 환경 의식 향상 및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 강화

국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과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 강화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폐기물 감량, 분리 배출,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 의식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게 한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폐기물 처리 과정의 친환경화, 재활용률 제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자원 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 품목 확대, 분리 배출 의무화 강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생산 단계부터 자원 순환 활성화를 고려) 내실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 운반 과정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재활용품 수거 인력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환경 의식과 정책 강화라는 흐름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감염병 예방

사회 전반적으로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특히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도시의 청결 상태가 공중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거리 등 도시 환경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시 청결 유지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범위와 강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도로 먼지 제거, 공공시설 소독, 유해물질 처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청소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화 장비 도입과 직무 변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직업의 매력도를 높여 인력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안전 장비 확충, 작업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자동 상차·하차 시스템 도입, 스마트 재활용 수거함 설치, 청소 로봇 활용 가능성 모색 등은 작업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무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화 장비의 도입을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경우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장비의 고도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여지가 크다. 자동화된 장비는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작업에 효과적이지만,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복잡한 작동 오류 발생 시에는 숙련된 인력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대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골목길, 공원 내부, 불법 투기 지역 등 로봇이나 대형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공간의 청소 및 수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 판단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처리, 세심한 분리 배출 안내 등 비정형적이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 역시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이 단순 반복적인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장비 관리 및 운영, 비정형적 문제 해결,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등 더욱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처리 기술 발전 및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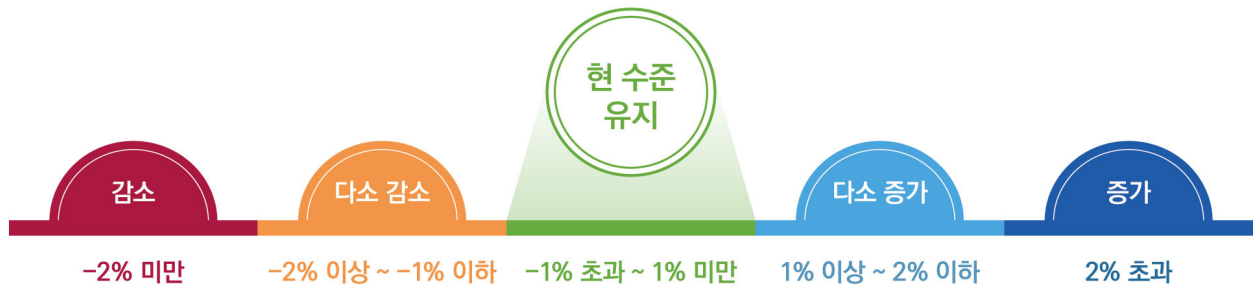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과 자원 순환을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노력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단순 매립이나 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수거, 선별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순환 경제 시스템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폐기물 관리 전반에 걸친 인력 수요를 증가시킨다. 업사이클링(고부가가치 재활용: 폐기물의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더해 원래 제품보다 더 높은 가치와 활용도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위한 선별 과정, 특정 폐기물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 등 새로운 직무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특정 품목의 전문 수거 및 선별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기술 발전과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도심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감염병 예방 욕구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	• 자동화 장비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화	• 기술 도입으로 인한 수적인 일자리 감소 압력
환경과 에너지·자원	• 환경 의식 향상 •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발전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구축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세정원 및 방역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3%로 예측된다.

세정원 및 방역원은 가스관, 통풍관 등의 연결관 또는 보일러 배관,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수조 등의 퇴적물을 각종 화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청소한다. 세정원은 가스관, 통풍관, 집진관 등의 연결관 내부의 그을음, 먼지 및 퇴적물을 제거하거나, 물·수증기·모래 등을 이용하여 돌, 벽돌, 금속 등으로 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 표면 및 유리창을 청소하는 전문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오염된 수조, 배관, 정화조 등을 청소하여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방역원은 주택가, 사업체, 공공시설 등의 오염원, 질병, 전염병을 예방하고 소독·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역 계획 수립부터 약품 배합, 살균·소독약품 분무 및 살포, 방역 후 모니터링 및 설비 유지 관리까지 전염병 예방과 공중 보건 증진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직업은 모두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사용, 그리고 높은 안전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세정원 및 방역원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확장과 산업 시설 증가는 청소 및 방역 대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기본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또한 국민들의 위생 및 안전 의식 향상, 감염병 발생의 주기적인 위협, 고령층 및 요양 환자의 증가는 전문적인 방역 및 위생 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는 실내 환경 위생 및 해충 방역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이들의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 및 방역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일부 인력 수요를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의 변화는 시장의 규모와 직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화 및 산업 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 수요 확대

도시화가 심화되고 산업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정원 및 방역원의 기본적인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고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건물이 계속해서 신축 및 확장되면서, 이들 건물의 위생 관리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세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고층 건물, 대형 복합 시설, 지하 시설 등은 전문적인 건물 외벽 세정, 배관 청소, 물탱크 청소 등의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세정원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현장과 사업체의 증가는 공장 배관, 집진관 등의 전문 세정 작업 수요를 높인다. 동시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환경은 각종 질병 및 오염원의 확산 위험을 높여 방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주택가, 상업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방역원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도시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은 세정 및 방역 서비스 대상의 수적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위생·안전 의식 향상에 따른 수요 확대

국민들의 위생 및 안전 의식 향상과 감염병 발생의 주기적인 위협은 세정원 및 방역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과거보다 공중 보건과 환경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깨끗해 보이는 것을 넘어 세균, 바이러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 가능성은 방역 서비스의 상시적인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이 의무화되거나 강화되고 있으며, 일반 사업체나 주거 공간에서도 자체적인 방역 활동과 함께 전문 방역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또한 물탱크, 배관 등 건물 설비의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수인성 질병 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전문 세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세정원과 방역원 직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고령층 및 요양 환자 증가에 따른 위생 및 방역 서비스 수요 확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심화와 요양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층과 요양 환자는 면역력이 취약하여 각종 감염성 질환(독감,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및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계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집단 생활 공간이므로 감염병 확산에 더욱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요양 시설들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전문적인 방역 및 소독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시설 방역 서비스는 물론, 실내 공기질 관리, 환기 시스템 세정, 물탱크 및 배관 청소 등 전반적인 환경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및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있어, 전문 방역 서비스의 의무화 및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 이처럼 고령층 및 요양 환자의 증가는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 방역과 세정 서비스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위생 및 방역 서비스 수요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는 세정원 및 방역원의 일자리 유지 및 수요 확대를 이끄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상당수의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환경에서는 위생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털 날림, 배설물 처리, 그리고 특정 냄새 제거는 물론, 진드기, 벼룩 등 반려동물에게서 기생할 수 있는 외부 해충의 방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세균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의 전문적인 살균·소독 및 청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 호텔, 미용실, 유치원 등 관련 서비스 시설의 확충도 이들 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방역 및 위생 관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는 기존 방역 시장을 확장하고, 반려동물 관련 특수 세정 및 방역 서비스를 통해 세정원 및 방역원의 새로운 직무 영역을 창출하며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규제 강화 및 설비 관리 전문화 요구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및 산업 현장의 설비 관리 전문화 요구는 세정원 및 방역원에게 새로운 직무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대기오염 방지, 수질 관리,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 시설에서는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집진관, 통풍관 등의 설비 세정 및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설비는 정기적인 세정을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 세정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물 내부의 공기질 관리,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위해 덕트(통풍관) 청소 등 전문 세정 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의 측면에서도 해충 방제, 유해균 소독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강화되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방역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역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발생한다. 이처럼 환경 규제와 설비 관리의 전문화 요구는 세정원 및 방역원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 도입의 양면성

세정 및 방역 분야의 기술 발전과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력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고압 세척기, 로봇 팔을 이용한 배관 청소 장비, 드론을 활용한 건물 외벽 세정, 스마트 방역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및 자동 약품 분사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의 청소 및 방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일부 단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은 자동화 장비로 대체될 수 있어, 수적으로 일부 인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첨단 장비의 도입은 오히려 세정원과 방역원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변화시킬 여지도 있다. 장비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오류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또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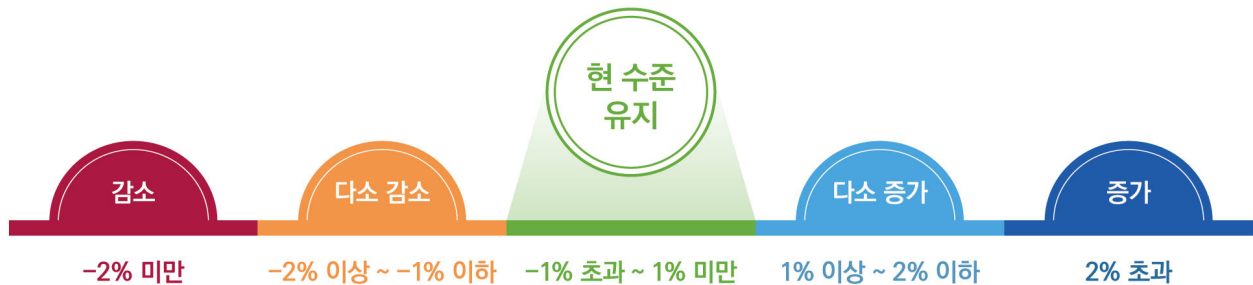
구조, 오염·감염원 종류, 고객 요구사항 등 각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하며, 복잡한 문제 해결과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즉, 세정원과 방역원은 단순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 운용가’이자 ‘위생·안전 컨설턴트’로서 역할이 진화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이들 직업은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직무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할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도시인구 및 산업 시설 증가 • 고령층 및 요양 환자 증가 • 반려동물 가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위생·안전 의식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 고압 세척기, 로봇 장비, 스마트 방역 시스템 등 기술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위험 작업 대체	•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부 단순 업무 • 인력 감소 압박
환경과 에너지·자원	• 환경 규제 강화 및 설비 관리 전문화 요구 (세정 및 유지보수 수요 증가)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세탁원 및 다림질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로 예측된다.

세탁원 및 다림질원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류, 침구류, 수건 등의 섬유제품이나 기타 유사 물품을 세탁 기나 손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세탁물의 구김을 펴는 다림질을 통해 위생적이고 단정한 상태로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세탁원은 섬유의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세탁기, 건조기, 드라이클리닝 기기 등을 조작하여 세탁·건조·소독을 담당하며, 다림질원은 가압기, 증기다리미, 전기다리미 등을 사용하여 세탁 완료 후 의류와 직물의 형태를 바로잡고 주름을 제거하며 광택과 탄력을 부여하여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세탁소나 호텔 등에서 세탁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된다.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적 노동 강도가 높아 청년층의 기피가 뚜렷하지만, 숙련된 세탁 및 다림질 기술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세탁공장이나 의류제조업체 등에서 대형 세탁기나 건조기,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인력은 이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전망에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사 노동 시간 절약을 위한 외부 세탁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점은 이들의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고급 의류, 특수 소재 의류, 명품 의류, 운동화, 가죽 제품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는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는 어려운 전문 세탁 서비스 시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홈케어 시스템(가정용 의류 관리기, 건조기 등)의 보급 확산, 의류 소재의 발전(구김이 적은 소재의 의류, 홈클리닝이 가능한 정장 등)은 외부 세탁소 이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정장 대신 캐주얼 의류 착용을 허용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된 점도 다림질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자동화된 대형 세탁공장의 경쟁 심화, 소규모 세탁소의 폐업 증가 등은 일자리 감소 압력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상반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외부 세탁 서비스 수요 유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는 가사 노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외부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세탁 및 다림질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가사 업무 중 하나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전문 업체에 맡기려는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 세탁 전문점은 세탁, 건조, 다림질, 수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가구들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깔끔하고 단정한 의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비록 가정용 세탁 장비가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의류를 집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세탁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려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는 세탁원 및 다림질원 일자리의 감소 압력을 완화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케어 시스템 확산 및 의류 소재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가정용 의류 관리 시스템의 보급 확산과 의류 소재의 변화는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건조기,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등)와 같은 홈케어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기기는 집에서 옷을 건조하고, 살균하며, 주름을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의류 케어 기능을 제공하여, 과거에는 세탁 전문점에 맡겨야 했던 의류의 일부를 가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특히 일반 세탁물이나 가벼운 주름 관리를 위한 다림질 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의류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구김이 적은 기능성 소재의 의류가 많아지고, 과거 드라이클리닝이 필수였던 정장이나 코트도 집에서 세탁 가능한 소재로 출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장 내 정장 착용 문화가 캐주얼화되면서 전반적인 다림질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는 소비자들이 세탁 전문점을 찾는 빈도를 줄이고,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류 관리의 범위를 넓혀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 세탁 서비스 시장의 차별화와 숙련 인력의 중요성

일반적인 세탁 수요가 감소하는 압력 속에서도, 전문 세탁 서비스 시장은 고급화 및 특수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며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다. 소비 수준 향상과 함께 명품 의류, 고가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등), 특수 소재(실크, 캐시미어, 가죽 등) 의류, 그리고 운동화나 모피, 가방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일반 가정용 세탁기나 홈케어 기기로는 손상 없이 관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섬유 및 세탁 공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 세탁원을 찾게 된다. 전문 세탁점은 오염 제거는 물론, 섬유 보호, 형태 유지, 색상 복원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특히 얼룩 제거, 특수 세탁, 섬세한 다림질 등은 기계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최근에는 저자극 세제 사용, 물·에너지 절감형 세탁 시스템 등 친환경 세탁 공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신규 장비 운용 역량을 가진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동반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세탁 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의 전문 세탁 서비스 시장은 고급 기술·친환경 공정을 중심으로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숙련된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자동화 및 세탁공장의 경쟁 심화와 소규모 세탁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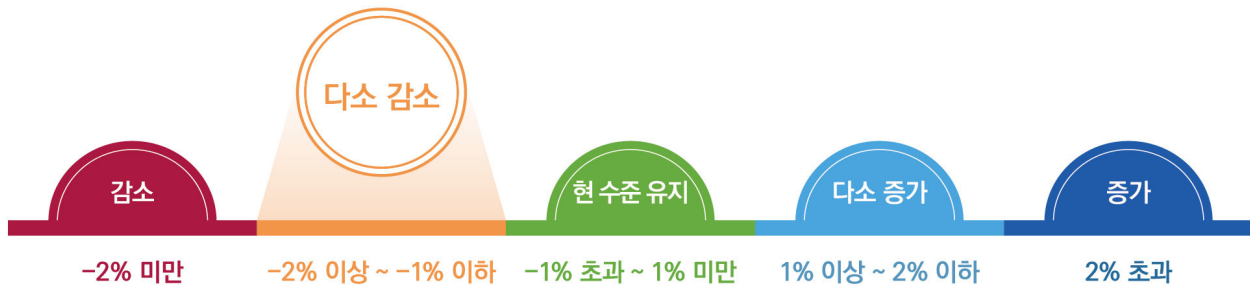
세탁 산업 내 기술 발전과 경쟁 심화는 세탁원 및 다림질원의 일자리, 특히 소규모 세탁소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형 세탁공장이나 프랜차이즈 세탁업체는 자동화된 세탁·건조·다림질 설비를 도입하여 대량의 세탁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가를 절감한다. 이러한 대형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개인 세탁소와 경쟁하고, 이는 소규모 세탁소의 수익성 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동네 세탁소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무인 세탁 편의점(코인 세탁방)의 확산도 단순 세탁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세탁원 및 다림질원은 대형 공장이나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세탁 기계 조작원'의 형태로 고용되거나, 고부가가치 전문 세탁 서비스에 특화된 소규모 점포에서 숙련공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직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전문 세탁 서비스 시장의 차별화	• 직장 내 정장 착용 문화 감소 및 캐주얼 의류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 홈케어 시스템(가정용 의류 관리기, 건조기) 확산 • 의류 소재 변화: 구김 적은 기능성 소재, 집에서 세탁 가능한 정장 소재 개발 등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대형 업체 및 무인 세탁 편의점과의 경쟁 심화로 동네 세탁소 폐업 증가, 일자리 감소 압력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가사 관리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가사 관리사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가사도우미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3%로 예측된다.

가사 관리사는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 노동을 수행하거나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조리, 정리정돈, 심부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가구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가사 관리자 일자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정용 가전제품의 고도화와 보급 확산으로 인해 가사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규모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 청소 업체의 등장과 간편식, 배달 음식 서비스의 발전도 가사 관리사의 일자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고령층 및 요양 환자 증가, 그리고 특수 목적의 프리미엄 가사 서비스(정리정돈 컨설팅, 전문 요리, 육아 병행 가사 등) 수요 증가는 감소 압력을 일부 상쇄하며 직무의 차별화와 서비스 범위 확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가사 관리사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용 가전제품의 고도화 및 보급 확산

가정용 가전제품의 기술 발전과 보급 확산은 가사관리사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수적이었던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 노동이 이제는 고도화된 가전제품을 통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는 실내 청소의 수고를 크게 줄여주며, 식기세척기는 설거지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등)는 세탁 및 다림질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며, 무선 청소기 등 청소 장비의 발전은 개인이 직접 청소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전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서 직접 가사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전문 가사 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줄여준다. 특히 기본적인 청소, 세탁 등 일반적인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전제품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정용 가전제품의 고도화 및 보급 확산은 가사 관리사 일자리의 전반적인 감소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간편식 및 배달 음식 서비스의 발전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및 배달 음식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요리’ 영역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생활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배달 음식, 가정 간편식의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이들 서비스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외식보다 저렴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가사 관리사 서비스에서 요리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요리를 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사 관리사에게 요리를 의뢰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이는 가사 관리사 직업의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고령층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고령층 가구의 증가는 가사 관리사 일자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특정 서비스 수요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사 노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여전히 외부 가사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가정용 가전제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전문적인 청소, 정리정돈 등에 대한 니즈가 크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신체 활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사 노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단순 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정리정돈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가사 관리사의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한다. 특히 요양 서비스와 연계된 가사 지원의 형태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가구 유형의 증가는 전반적인 감소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사 관리 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며, 가사 관리사 직업이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맞춤형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 가사 서비스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따른 일자리 수요 재편

전문 청소 업체 및 정리정돈 컨설팅 서비스의 등장은 가사 관리사 일자리와 경쟁하며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가사 관리사가 가정 내 모든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등 특정 공간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전문 청소 서비스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일반 가사 관리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납 전문가나 정리정돈 컨설턴트는 단순 청소를 넘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러한 전문 서비스들은 가사 관리사가 제공하던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하거나,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가사 관리사 직업의 경쟁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상황은 가사 관리사의 전반적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과 직무의 유연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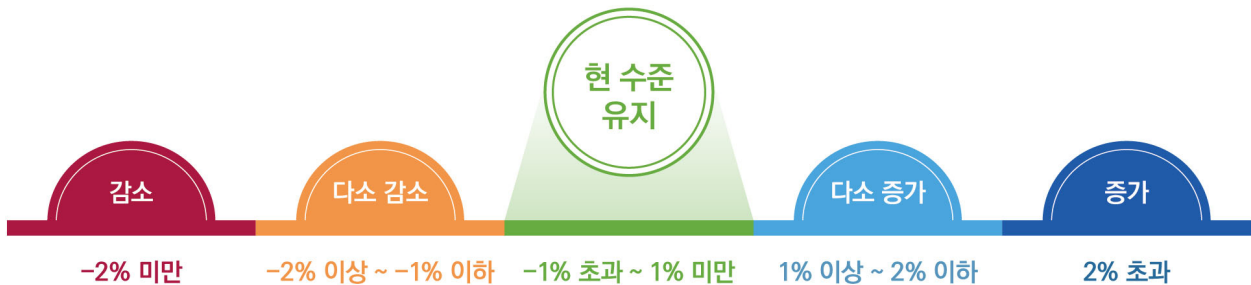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사 서비스의 확산은 가사 관리사 직업의 고용 형태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압력을 일부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사 관리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고객에게는 편리한 예약 및 맞춤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사 관리사에게는 유연한 근무 시간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가사 관리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개인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촉진한다. 플랫폼에 등록된 가사 관리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예: 요리 전문, 정리정돈 전문)를 살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 후기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도 있다. 플랫폼 수수료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인력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잠재된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추세 속에서도 가사 관리사 직업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층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간편식 및 배달 음식 서비스 발전으로 '요리' 업무 수요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 가정용 가전제품의 고도화 및 보급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전문 청소 및 정리정돈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가사 관리사 수요 분산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과 직무의 유연성 증가: 유연한 고용 형태로 새로운 인력 유입 및 잠재 수요 발굴	

2020년 작성, 2025년 수정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로 예측된다.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은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직무이다. 계기 검침원은 수도·전기·가스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량을 기록하여 요금 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계량기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가스 점검원은 가정·상가·산업체의 배관과 기기를 점검하여 누출·부식·파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두 직무는 데이터 수집과 안전 관리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 서비스 특성상 사회적 필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직업으로 평가된다.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 확산과 같은 기술 발전은 검침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계기 검침원의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가스 안전 점검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이므로, 가스 점검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 예상치 못한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인력의 중요성 등은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두 직업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 확산에 따른 계기 검침원 수요 감소

스마트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의 보급 확산은 계기 검침원의 일자리 감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원격으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자동 검침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이상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확인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기존 계기 검침원의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정확

한 사용량 관리를 위해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존 인력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축 건물 등에서는 스마트 계량기가 기본으로 설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계기 점검원 직업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일자리 규모를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가스 안전 점검의 법적 의무 및 전문성 유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으로 인한 계기 점검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스 점검원의 일자리는 법적 의무와 직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필수 안전 점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직무가 디지털 기기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총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다. 주택, 상업시설, 산업 현장의 가스 배관, 보일러, 가스 기기 등은 전문가의 육안 확인과 특수 장비를 통한 누출 검사, 부식 및 파손 여부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검은 단순한 기계적 작동을 넘어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판단을 요구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데 인간의 역할이 매우 크다. 특히 가스 누출 탐지, 안전 교육 안내, 긴급 상황 시 대처 등은 대면 서비스와 전문 기술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하더라도 가스 점검원의 업무는 여전히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일자리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고령층 및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더라도 모든 가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경우, 요금 안내, 계량기 사용법 설명,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은 단순히 계량기를 확인하거나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휴먼 터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으로,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가스 점검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더라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대면 서비스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 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 인력의 중요성

예상치 못한 안전 사고 예방과 발생 시 긴급 대응 인력으로서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의 중요성은 일자리 유지를 뒷받침한다. 전기, 가스 사고는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누출 의심, 고장 신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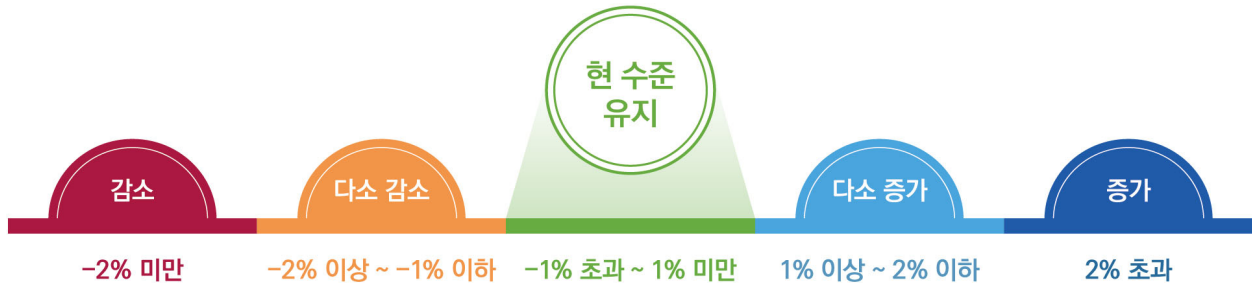
보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확한 진단, 문제 해결, 그리고 안전 조치는 인간의 숙련된 기술과 판단력을 요구한다. 특히 가스 점검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안전 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	
과학기술의 발전		•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 확산: 원격 자동 검침 시스템 도입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가스 안전 점검의 법적 의무(정부의 에너지 안전 관리 정책 강화로 가스 점검원의 역할 유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0.5%로 예측된다.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은 건물·상가·공공시설 등에서 차량 출입 통제, 주차 공간 배치·관리, 방문객 안내와 고객 응대, 주차요금 정산,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무인 주차 시스템과 자동 결제 기기의 보급으로 단순 업무 수요는 줄고 있으나, 대형 시설과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고객 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은 건물·상가·공공시설 등에서 차량 출입 통제, 주차 공간 배치·관리, 방문객 안내와 고객 응대, 주차요금 정산,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주차 공간 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무인 주차 시스템과 자동 결제 기기의 보급으로 단순 업무 수요는 줄고 있으나, 자동차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이를 상쇄하고 있다. 무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주차 솔루션 등 기술 발전은 주차 요금 정산, 차량 출입 통제 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대형 복합 시설·대규모 행사장의 주차 관리, 고객 응대, 긴급 상황 대처 등은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인 업무다. 또한 자동차 수의 지속적 증가, 주차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일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 지속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제 성장과 함께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개인 이동 수단으로서 자동차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 공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과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규 주차장 건설 및 운영도 꾸준히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만 7천 대로 2022년 말 대비 1.0% 증가했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신규 등록 대수는 174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이 중 승용차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여 승용차 중심의 차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자동차 수 증가는 도시 내 주차 공간의 희소성을 높이고, 그만큼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주차 관리원이 필요한 대형 시설, 상업 지구, 대규모 주거 단지 등에서 기본적인 인력 수요를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고도화된 주차 관리 시스템이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겠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감안할 때, 차량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인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며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무인 주차 시스템 및 스마트 주차 솔루션 보급 확산

무인 주차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솔루션의 보급 확산은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최근 IT 기술 발전과 함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자동 결제 기기, 주차 유도 시스템, 주차면 정보 제공 앱 등 다양한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이 주차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차량 출입 통제, 주차 요금 정산, 빈 공간 안내 등 기존 주차 관리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한다. 특히 소규모 주차장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무인 시스템 도입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서, 많은 건물주나 시설 관리 업체들이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직업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인력 수요를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대형 복합 시설 및 특별 행사장의 인력 수요 유지

무인 주차 시스템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형 복합 시설 및 특별 행사장은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인력 수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쇼핑몰, 백화점, 컨벤션 센터, 대형 병원, 공연장, 경기장 등 대규모 시설은 복잡한 주차 환경과 대량의 차량 통행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기계 시스템만으로는 원활한 운영과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말이나 특정 행사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차량이 폭증하여 주차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VIP 고객 응대, 거동 불편자 지원, 길 안내 등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대형 시설 및 특별 행사의 수요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일자리의 감소 압력을 상쇄하며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차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

주차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주차 공간은 차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도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며, 부주의할 경우 접촉 사고, 차량 파손, 보행자 안전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무인 시스템은 차량 진입/진출 통제는 가능하지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이중 주차, 비상 상황(화재, 도난 등) 발생 시의 신속한 초동 대처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은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간 마찰을 줄이며,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주차 공간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및 부가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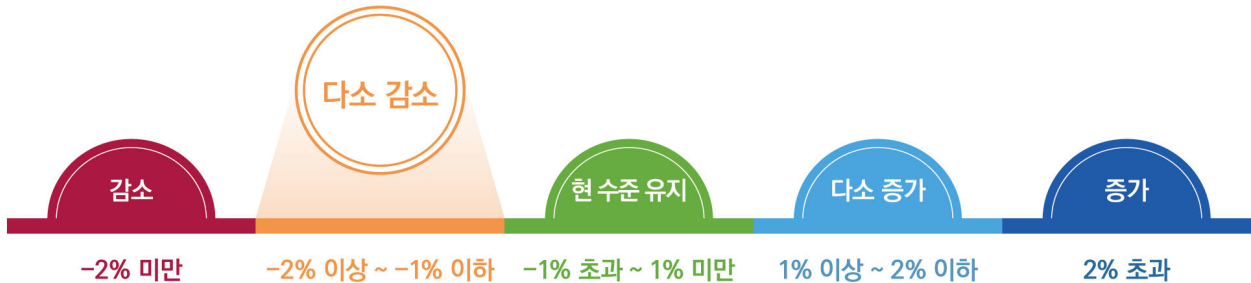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은 단순 주차 관리 업무를 넘어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제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직무 전문화를 꾀할 수 있다. 고급 백화점, 호텔, 병원 등에서는 발렛 파킹(Valet Parking) 서비스와 같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주차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출차하며,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차 관리원은 주차장 이용 안내, 시설 정보 제공, 주변 관광 정보 안내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 서비스는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응대 능력과 섬세함을 요구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순 업무 감소 압력 속에서도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며, 이는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및 부가가치 창출	
과학기술의 발전		• 무인 주차 시스템 및 스마트 주차 솔루션 보급 확산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대형 복합 시설 및 특별 행사장의 인력 수요 유지 • 주차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자동차 수의 지속적 증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검표원

(연평균 증감률%)



종합 요약

향후 10년간 검표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표원은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경기장, 대중교통 등에서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이용 여부를 검증하고, 고객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 관리에 기여하며, 고객에게는 첫 접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모바일 티켓과 전자 검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입장권 확인과 요금 검증 같은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검표원의 일자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기술 발전과 소비 패턴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바일 티켓, QR 코드, 안면 인식 등 전자 검표 시스템의 확산은 단순 검표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수요를 감소시킨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보편화도 검표원이 수행하던 발권 및 정보 제공 업무의 필요성을 줄인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장의 질서 유지, 비상 상황 대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그리고 VIP 고객 응대 등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검표원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표원의 일자리 전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티켓 및 전자 검표 시스템 확산

모바일 티켓 및 전자 검표 시스템의 확산은 검표원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공연장, 영화관, 대중교통,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종이 티켓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티켓, QR 코드, 바코드 스캔, 심지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검표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티켓을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검표원이 수행하던 단순 입장권 확인 및 요금 검증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한다.

특히 시설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고, 고객에게는 대기 시간 단축 등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전자 검표 시스템 도입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검표원 직업의 주

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인력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무인 키오스크 및 온라인 예매 시스템 보편화

무인 키오스크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보편화 역시 검표원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객들이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거나 발권하는 대신, 사전에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하고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현장에서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 발권 및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과거 검표원이 수행하던 발권 및 고객 정보 제공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고객에게 편리함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주체에게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특히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매표소 업무와 검표 업무가 상당 부분 자동화되거나 통합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무인 키오스크 및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보편화는 검표원의 업무 범위와 비중을 축소시키며, 일자리 감소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질서 유지 및 비상 상황 대처 직무는 지속적 유지

전자 검표 시스템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장에서는 질서 유지 및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검표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 대형 박람회 등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장의 경우, 단순한 시스템만으로는 원활한 인원 통제와 안전 관리가 어렵다. 검표원은 입장객의 티켓 확인을 넘어, 대기열 관리, 혼잡 완화, 안전 통제선 유지 등 현장 질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화 기술이 상당 부분의 검표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수천, 수만 명의 인원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특히 화재, 압사 위험, 의료 응급 상황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대피 유도, 응급 조치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 대처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비상 상황 대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판단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 수행 업무가 단순 검표에 국한하는 인력의 수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행사장 등의 검표원과 같이 질서 유지 및 비상 상황 대처 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검표원에 대한 최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및 VIP 고객 응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과 VIP 고객 응대는 검표원 일자리 감소 압력을 상쇄하며, 직무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모바일 티켓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직접적인 안내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 검표원은 이들에게 티켓 사용법을 설명하고 입장 과정을 돕는 등 따뜻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VIP 고객이나 특별 초청 손님을 위한 전용 검표 및 안내 서비스는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맞춤형 응대와 세심한 서비스는 기계가 제공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가치로, 프리미엄 서비스 시장에서 검표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일반적인 검표 업무는 자동화되더라도, 특정 계층에 대

한 지원 및 고품질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자로서 검표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비대면 서비스 선호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 모바일 티켓 및 전자 검표 시스템 확산 • 무인 키오스크 및 온라인 예매 시스템 보편화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대규모 행사장 질서 유지 및 비상 상황 대처 수요 지속 • VIP 고객 응대,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 수요 유지	

2020년 작성, 2023년 1차 수정, 2025년 2차 수정

집필진

김 동 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 은 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윤 미 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김 기 선 (카이로스컨설팅 대표)

민 경 미 (커리어닷컴 대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보건·의료직 /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인 쇄 2025년 12월

발 행 2025년 12월

발 행 인 이창수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주 소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 1577-7114

홈 페이지 www.keis.or.kr

디자인·인쇄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ISBN 979-11-7073-199-3 93330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